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

16

군선교, 청년



비전2020을 통해 살피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 3).

☞ 비전2020실천운동공동기도문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60만 국군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민족·인류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1999년 2월 26일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복음화와 인류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회의 등 군선교사역과 관련된 각종 행사 시 공식순서에 포함하여 함께 낭독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생명력 있는 군선교사역 합심기도 제목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1.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2.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 이상의 3,700만 기독교 신자 국가가 건설되게 하시며,
3. 매년 진중세례(침례) 목표 20만 명 결실을 맺게 하옵시며,
4. 매년 20만 명 군인 신자 결연과 1천여 군인교회의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5.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하게 하시며,
6. 260여 군종목사, 380여 군선교교역자, 기독교군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사역을 인도하시며,
7. 장병들의 병영 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량한 생활로 기독교문화가 확산되게 하시며,
8. 모범 국민 육성 및 기독 인재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이루어 주시며,
9. 군선교회원교회의 후원과 사랑의 양육 및 VIP(귀빈) 가족전도 등 10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10. 기독교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사 훈련(군입대자 비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결혼/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 하오며,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 ● 머리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종교생활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 이 짧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 세계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일을 어부, 세리, 의사 등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현장에서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활 현장에서 물고기 잡는 바로 그 경험, 그 깊은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뤄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서 진리를 위해 애쓰시고 있는 군종목사, 군선교교역자, MCF회원들을 통해 예수님의 그 은혜가 군선교 현장 곳곳으로 흘러갈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군선교 현장에서 장병들과 몸을 부대끼며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과 이를 뒤에서 지원사격하고 있는 군목과송 10개 교단, 유관기관 그리고 군선교연합회까지. 우리 모두를 통해 청년 장병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올해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군의 정신전력과 장병사기에 미치는 영향’과 ‘군형법 제92조의 6 개정과 정책제언’

을 주제로 연구과제들이 발표됩니다. 특별히 군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개정하고 지켜나갈 때 우리 국군장병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에서는 이런 연구결과가 발표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군선교 신학심포지엄에 함께 하셔서 군내 동성애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군선교신학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군선교신학이라는 부분을 개척, 군선교를 신학적으로 논증하고 중장기적인 군선교 전략과 전술을 개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시는 학회장 이종윤 목사님과 군선교 정책개발과 적용을 위해 힘을 다하시는 신학회 연구위원님들 그리고 출판을 위해 수고해 주신 쿤란출판사 이형규 장로님과 임직원들, 본회 사무처 상근사역자들의 노고에 깊은 고마움을 표하며 군종목사, 군선교교역자, 독자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곽선희 목사

● ● 발간사

제 17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움에서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 조명과 미래’라는 대(大)주제하에 최근 사회적·교회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성애문제가 군의 정신전력과 장병사기에 미치는 영향>과 <군형법 제92조의 6 개정발의(안) 및 정책제안>이라는 두 개의 소(小)주제를 갖고 이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한국 군선교에 도움을 주실 신앙적 성숙성을 갖추신 분들을 강사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군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참석을 정중히 초대하며, 발표된 논문 및 논찬을 비롯하여 군선교 연구원들의 주옥같은 논문을 포함하여 이 책에 담아 세상에 내어 놓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풍전등화 격이 된 우리나라의 운명을 지키고 보호하실 주권자 하나님과 그의 사역자 육·해·공·해병대 장병들이 복음화되어 하나님의 군대로 담대하게 국토방위에 임해 주시기를 앙원하며, 이 책을 읽는 이마다 건강한 군대가 되기를 소원의 기도를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엎드려 빕니다.

집필과 강연에 수고해 주신 집필자 여러분께 독자와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간사를 대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한국군선교신학회회장
이종윤 목사



● ● 차례

- 비전2020실천운동공동기도문 ... 2
- 머리말 | 광선희 목사 ... 4
- 발간사 | 이종윤 목사 ... 6

기조강연

13 동성애와 균형법 제92조의 6 개정안에 대한 소고 | 이종윤

주제논문

- 25 발제 1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 | 길원평
- 61 논찬 1 길원평 교수의 논문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논의”에 대한 논찬 | 전요섭
- 67 발제 2 균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 | 이상현
- 116 논찬 2 이상현 교수의 논문 “균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에 대한 논찬 | 김일생

일반논문

- 125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와 지도력에 관한 연구(Ⅲ)
- 여호수아와 기드온 | 강사문
- 181 칼빈주의적 미래인간상 | 정성구
- 209 신학적 해석학에서 본 과학 | 안명준
- 243 게르만족의 침탈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응 | 이규철

부록 I

- 276 사례발표 1 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의 실태 | 백상현
- 295 사례발표 2 남성 동성애자 간 성관계의 보건적 고찰 | 김지연

부록 II

- 325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규칙
- 330 군선교신학회 연구윤리규정
- 334 군선교신학회 논문투고 규정

기초강연

동성애와 군형법 제92조의 6 개정안에 대한 소고

| 이종윤 |





동성애와 군형법 제92조의 6 개정안에 대한 소고

An Article on Homosexuality and Revision on
Military Criminal Code Article 92-6

■ 이종윤*

두 개의 주제를 갖고 제17회 한국군선교신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I. 〈동성애〉를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 문제가 이단 사이비로 번져 한국의 어느 교단 총회 의안으로 상정되기까지 했다. 동성애자들은 타고난 본성에서부터 온 것이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법에 대항하는 탈성경적 행위자다.¹⁾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며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그가 잠들 때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²⁾고 하셨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가정 제도에 대항하는 반(反)성경적 행위자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

• 논문 투고일: 2017년 9월 4일 • 논문 수정일: 2017년 9월 9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9월 12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서울교회 원로목사

1) 창 1: 27, 28.

2) 창 2: 18, 21, 22, 24.

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³⁾하셨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ἀγάπη)의 사랑을 말씀한 것이지 음욕을 품은 에로스(ερός)의 사랑이 아니다.

동성애는 비(非)성경적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다. 동시에 하나님은 ‘동물과 교합하는 자,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자들을 저주하셨다.⁵⁾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⁶⁾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거나 탈(脫)성경적 인간은 스스로 멸종을 재촉하고 있다.

Matthew Vines⁷⁾와 Ken Ham⁸⁾은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한 바가 없다 주장하면서 남색, 매춘, 강간처럼 사랑 없이 상대방을 남용하는 것을 금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비(非)성경적 해석을 한다.

동성애는 소수자 인권이 아니다.

UN은 소수자 인권을 소중히 여겨 소수자인 동성애자의 인권을

3) 열 5: 25.

4) 신 27: 21, 레 20: 15(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라).

5) 대상 5: 1.

6) 롬 1: 26, 27. 여기서 <순리대로>와 <역리대로>를 대조시키고 있다. 간음, 간통, 동성결혼은 순리를 따르지 않는 역리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죄악이다.

7) Matthew Vines, So-called ‘Gay Christianity’에서 주장한다.

8) Ken Ham은 ‘가인의 아내는 Homosexuality’ 동성애자로 하와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기본으로 동성결혼(gay marriage)의 이론을 견고케 했다.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2015년 탈동성애 국제연맹을 결성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소수자 인권차원에서 허락했다. 우리나라의 마약복용자는 소수자다. 그러면 그들이 소수자이기 때문에 사회가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듯 창조 논리와 소수자라는 이유로 보호 받기를 주장하는 것은 반(反)사회적 행위다. 흡연자들의 개인의 취향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무실이나 공공장소에서 흡연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무실 안에도 흡연실을 설치하고 취향과 기호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엔 의무가 따르는 권리를 주장하려면 입법권의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동성애에 빠졌다가 탈출한 소위 ‘소수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性)적 일탈행위로 10-20년 수명단축,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 항문괄약근(肛門括約筋) 파괴로 인한 변실금, 우울증, 자살, 가정파괴, 인성 파괴 등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는 일방적으로 소수자 인권 운운하며 편향적 동성애 정책 등으로 탈동성애자나 그 가족들이 더 큰 고통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UN은 친(親)동성애적 활동을 중단시키고 비(非)사회적, 반(反)성경적 동성애를 우리 사회에서 금지시킬 뿐 아니라 추방시켜야 한다.

동성애는 반(反)사회적이다.

가정, 국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시려고 세워주신 기관이다.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동성애는 반(反)사회적이다.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짝지어 주

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⁹⁾ 하신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반(反)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했으나 기독교인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토록 조례를 만들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세력들도 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와 함께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성행위는 성폭력을 증가시킴으로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동성애가 확산되면 인류는 스스로 멸종상태에 빠져 망하고 말 길을 재촉케 될 것이다.

II. 군형법은 올바르게 개정되어야 한다.

군대 내의 특수 사정으로 개인의 권리 행사는 도덕성과 공공질서 및 복지의 요청을 충족시키고 타인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승인과 존중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만을 위해 법에 규정된 제한에 구속된다(제29조)며 인권의 합리적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몇 차례 개정(1962년, 2009년, 2013년)을 거치면서, 대법원의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 주장이 군형법상 추행죄를 제기하였다.

위 죄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해 온 국방부와는 대조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규정이 성적 선호에 따른 차별을 조장한다며 2010년

9) 창 1: 28

에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일부 정치인들이 본죄의 폐기까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odomitel(남색자(男色者), 수간자(獸姦者))라는 성범죄를 행한 소돔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엮어 멸하셨음¹⁰⁾을 기억해야 한다.

군형법은 남성 간에 성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을, 1961년 개정된 군사법령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정형을 명문화했다. 2013년 이후 폭행,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징역, 유사강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준강간죄, 미수범, 항문성교, 기타 추행에 대한 모든 성범죄를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있는 비 친고죄로 전환했다.

군내에서 동성 간 성적접촉, 성행위는 폭행, 협박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급자, 선임병의 은근한 압력에서 시작된다. 이는 건전한 전우애를 해치며 특히 부대 내 협력을 와해시키는 것으로서, 부대를 성적 만족의 장(場)으로 와하게 하는 결정적 과오와 하자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군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생활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자살률이 높아지고, 군내 보건과 건강유지에 유해하며,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상실하고 범죄 요건이 구체화되기에 현행 군형법 제92조의 6에서는 위와 같은 성범죄를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1962년 법제정 당시부터 남성 간 동성애적 성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접촉 <계간>은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로 규정하고 처벌해 온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군대 내 동성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 훈령 1932호가 시달되었다. 국방부 훈령 제1932호(부

10) 창 19: 24-28

대관리 훈령)에 따르면, “동성애자 병사는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제253조 기본원칙), “지휘관 등은 성 경험과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 사생활 관련 질문을 금지한다”(제254조 신상비밀 보장). 또 “어느 누구도 동성애자 병사의 동의가 없는 한, 부모·친구·부대에 동성애 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논자가 보기에 국방부 훈령 제1932호는 아마도 내심 동성애적 성적지향을 가진 장병의 성적 선호와 성적체성을 강제로 노출시키지 않고 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게 하는 소극적 측면에서 제정, 시행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훈령 제1932호나 인권위 권고가 군형법상 금지된 동성애적 성행위를 부대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는 논리의 비약이기 때문이다.¹¹⁾

이에 개인의 성적욕구를 해결하는 사익보다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우선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절대 다수의 인권을 더 소중하며, 군의 기강확립은 전투력과 직결되기에 지난 7월 19일 제77차 한국교회 군선교정책회의에서 군종목사파송 10개 교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공동으로 기독교 종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행정적 절차를 거쳐 2017년 8월 23일 공식발표를 하였다.(전문참조)

그 내용의 핵심요구사항은 첫째, 군은 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할 시에 현행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줄 것과 둘째, 군형법 제92조의 6은 헌법재판

소에서 이미 세 차례 (1차 2002.6.27, 2차 2011.3.31, 3차 2016.7.28.) 합협 판결이 된 법이므로 금번 위헌 제청건은 기각 결정과 김종대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폐지하자는 입법 발의한 개정법안을 취소할 것과 셋째,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과 함께 군내 동성애 및 성 군기 문란 사안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여 그 밖의 추행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의 법안으로 올바르게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과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등은 성소수자의 인권만을 고려한 정책 및 판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헌법정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기준의 잣대와 특별히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라는 특수성과 그 문화를 고려해서 한국교회가 공식 입장 표명한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개정을 하는 용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군종목사 파송 교단 10개 교단은 한국군내 동성애를 허용하고자 하는 작금의 불순한 시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극 반대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국군이 되도록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자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해·공군·해병대 65만 국군장병들의 건강한 병영생활 및 군 기강 확립과 병영 내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하여, 지난 4월 7일 인천지방법원

11) 이상현,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방안,” 『군선교신학』 16 (2017)의 5항 개정안과 6항 결론부분을 참고하라.

이연진 판사는 “군형법 제92조의 6이 성적 지향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합의에 의한 동성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한다”며 헌법 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하였다.

또한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을 대표하여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권미혁 의원과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이 공동 명의로 군형법 제92조의 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 간 성행위가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형벌로써 처벌해야 할 정도로 군 기강 및 군 전투력 보존의 위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 된다”며 폐지할 것을 의원 입법 발의한 것에 대하여, **군종목사파송교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기강 확립이라는 특수성과 국가와 사회적 공익을 무시한 채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만을 하겠다는 금번 처사에 대하여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우리의 공식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첫째 : 군은 군형법 제92조의 6이 지칭하고 있는 동성애를 포함한 항문 성교와 그 밖의 추행은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 잘못된 가치의 결과이므로 장병들의 건전한 병영 생활과 군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군형법 제92조의 6을 존치시켜야 한다. 특별히 군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집단이기 때문에 장병 간의 위화감 조성, 단결력 결여와 전투력을 저해하는 어떠한 것도 허락 되어선 안 된다. 그러므로 **군은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할 시에 현행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 군형법 제92조의 6은 이미 2002년, 2011년, 2016년 등 3차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된 법이기에 헌법재판소는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위해 이연진 판사에 의해 지난 4월 6일 위헌 제청된 본 건을 기각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김종대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폐지하자는 내용의 입법 발의한 개정 법안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해 국가와 사회의 공익과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정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필승의 전투력 유지를 위한 군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병영 내 동성애 및

성 군기 문란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와 그 밖의 추행’이라는 내용을 금번 실태 조사에서 확인 된 사실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게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의 법률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017년 8월 23일

군종목사파송 10개 교단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 명 구 감독	(서명)
	선교국총무	박 영 근 목사	(서명)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 회 장	신 상 범 목사	(서명)
	총 무	김 진 호 목사	(서명)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이 영 훈 목사	(서명)
	총 무	엄 진 용 목사	(서명)
기독교한국침례회	총 회 장	유 관 재 목사	(서명)
	총 무	조 원 희 목사	(서명)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 회 장	배 광 호 목사	(서명)
	사무총장	구 자 우 목사	(서명)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 회 장	이 종 승 목사	(서명)
		이 경 옥 목사	(서명)
		홍 호 수 목사	(서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 회 장	이 성 희 목사	(서명)
	사무총장	변 창 배 목사	(서명)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 회 장	김 선 규 목사	(서명)
	총 무	김 창 수 목사	(서명)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 회 장	김 원 교 목사	(서명)
	총 무	이 강 춘 목사	(서명)
한국기독교장로회	총 회 장	권 오 룬 목사	(서명)
	총 무	이 재 천 목사	(서명)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 사 장	곽 선 희 목사	(서명)
	사무총장	이 학 수 목사	(서명)
	총 무	김 대 덕 목사	(서명)

이에 본 한국군선교신학회는 ‘동성애와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하자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군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는 성문화 행

위에 대하여 재개정안으로 ‘형법상 군부대 내 성범죄 행위를 징역에 처한다는 위에 언급한 이상현 교수의 제안’으로 한국군선교신학회의 입장을 대신한다.

주제 논문

발제 1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

| 김원평 |

논찬 1

김원평 교수의 논문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에
대한 논찬

| 전요섭 |

발제 2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

| 이상현 |

논찬 2

이상현 교수의 논문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에 대한 논찬

| 김일생 |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

Discussion about the Severity of the Homosexuality Problem
in the Military

■ 김원평*

국문초록

본 논문은 먼저 동성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에, 동성애 행위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소개하고,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 고찰을 하였다.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연구 결과들을 요약한 후에 과학적으로 반박하였다. 해머는 특정 유전자군(Xq28)과 동성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후속연구에 의해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졌고,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비율은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또한 동성애는 인체구조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성행위임을 설명하고, 동성애 행위와 에이즈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국내외 통계자료를 제시하였다. 그 후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에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균형법 유지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성애가 확산되는 이유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가 가져야 할 행동 지침과 마음 자세를 기술하였다.

중심단어

균형법, 동성애, 차별금지법, 에이즈, 과학적 고찰

- 논문 투고일: 2017년 8월 9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9월 13일

• 논문 수정일: 2017년 8월 22일

* 부산대학교 자연대학 교수

I. 서론

최근 심각한 이슈 중의 하나가 군대내 동성애 문제이다. 얼마 전에 대위가 하급자들과 동성간 성관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군인권센터와 친동성애 단체들은 “비록 점심시간에,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A대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본질을 보지 못하고 군대 내의 향문성교를 처벌하는 균형법 조항의 폐지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번 동성애 사태처럼 현재 장병들이 동성애 채팅앱에 가입하여 성적 일탈을 위해 만남을 가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동반입대제도를 활용하여 동성애자들끼리 입대하여 군대 내에서 생활관, 화장실, 목욕탕, 근무초소 등에서 동성애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현재 전 세계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양분되어 있다. 23개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반면에, 2012년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의 193개국 중 78개 국가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한국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2013년 5월 미디어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73.8%가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답하였고, 2013년 10월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결과 78.5%가 동성애자에 대해 거부감이 든다고 답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동성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과학적 고찰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에 균형법 유지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II. 동성애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

1. 동성애의 정의 및 동성애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

동성애는 생물학적으로 같은 성(性)을 지닌 사람들 간의 성적 끌림 또는 성적행위를 뜻하며, 동성애자에게는 일반적으로 3가지 특징, 즉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다. 동성애에 대한 대조 용어로 남녀의 성관계를 이성애라 부르고, 동성애와 이성애를 함께 하면 양성애라고 부른다. 최근 학자들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총칭하여 성적지향이라고 부른다.

동성애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들로 제시되는 것을 소개하겠다. 첫째,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보다 어릴 때에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받은 사례가 1.6~4배 정도 많다는 보고가 있다.¹⁾ 둘째,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보다 어릴 때에 가족 단위의 어려움, 예로서 가족의 정신병, 약물중독, 교도소 수감,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 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발표가 있다.²⁾ 셋째, 정상적인 가정에서 올바른 성역할 모델을 하는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넷째, 유년기의 불안정한 성적체성 때문일 수 있다. 다섯째, 우연히 동성애를 경험하거나 여성의 경우에 성폭행과 같은 잘못된 성경험 때문일 수 있다.³⁾ 여섯째, 동성애를 미화하는 영화, 비디오, 동성애 포르노 등의 문화에 의해 동성애 충동을 받고

1) A. L. Roberts, M. M. Glymour, and K. C. Koenen, “Does maltreatment in childhood affect sexual orientation in adulthood?”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2 (2013), 161.

2) J. P. Andersen, and J. Blosnich, “Disparities i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mong sexual minority and heterosexual adults: Results from a multi-state probability-based sample,” *PLoS ONE* (2013), 8,

3) J. Bradford, C. Ryan, and E. Rdtblum, “National lesbian health care survey: Implications of mental health care,”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62 (1994), 228.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일 수 있다. 일곱째,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 풍토가 동성애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다. 동성애 포르노와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 풍토가 최근 서구에서 동성애자 비율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여덟째, 반대의 성에 가까운 외모, 목소리, 체형 등의 신체적인 요소, 성격이나 심리적 성향 때문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동성애자가 되도록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요소들이 결정적인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는 본능이나 성향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와 절제력이 있으며, 동일한 환경이나 요소를 가진 사람 중에서 극히 소수만 동성애자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다가온 유혹, 색다른 경험을 받아들여 동성애자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것들을 의지적으로 거부하여 멀어질 수도 있다. 즉, 사람의 행동은 환경이나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선택이라는 ‘여과망’을 통과한 것만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동성 간의 성관계에서도 성적쾌감을 얻으므로, 동성애를 경험한 후에 다시 하고 싶은 중독현상을 일으킨다. 동성애로부터 쾌감을 얻었고 다시 하고 싶다고 해서, 선천적으로 동성애 성향을 타고 났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일반인도 동성애 의한 성기자극을 하면 쾌감을 느낀다. 동성애는 두 인격체 사이에 육체적 쾌감과 정서적 친밀감을 나누며, 상대방로부터 보호, 배려, 경제적 도움 등을 받기에 다른 중독보다 더 끊기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적 선택에 의해 동성애 성향을 행동으로 옮기면 동성애 성향이 강화되며, 강한 중독성에 의해 동성애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동성애라는 성적 행동 양식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2. 동성애자의 비율

동성애자 비율을 최초로 조사한 킨제이는 1948년에 ‘남성의 성적 행동’, 1953년에 ‘여성의 성적행동’을 출판했고,⁴⁾ 그 책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그 이후의 성적행동 연구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런데 그는 양성애자였고, 근친상간, 어린이, 동물과의 성행위 등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옹호하고 성에 가해진 문화적·종교적 제한에 대해 분노를 가졌으며, 이성애가 성적행동의 표준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 오랫동안 조사를 하였다. 그는 책에서 미국 남성 10%가 16~55세 사이에 최소 3년간 동성애적 삶을 산다고 주장했으며, 동성애자 비율을 과장하기 위해 성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남성매춘부, 성범죄자, 소아애호자, 노출증환자 등을 표본의 1/4를 차지하게 했다.⁵⁾

그 후 킨제이 후계자들이 국민의 10%가 동성애자이므로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 법, 정책을 바꾸었다. 하지만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 캐나다 공중위생조사에서 동성애자 1%, 양성애자 0.7%이었다.⁶⁾ 2011년에 뉴질랜드의 조사에서 동성애자 0.8%, 양성애자 0.6%이었으며,⁷⁾ 2012년 영국 통계청 인구조사에서 동성애자 1.1%, 양성애자 0.4%이었다.⁸⁾

4) A. C. Kinsey, W. B. Pomeroy, and C. E. Martin,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Philadelphia: W. B. Saunders, 1948). A. C. Kinsey, W. B. Pomeroy, C. E. Martin, and P. H. Gebhard,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Female* (Philadelphia: W. B. Saunders, 1953).

5) J. A. Reisman and E. W. Eichel, *Kinsey, Sex, and Fraud* (LA.: Lochinvar-Huntington House, 1990).

6) <<http://statcan.gc.ca/daily-quotidien/040615/dq040615b-eng.htm>.>

7) J. E. Wells, M. A. McGee, and A. L. Beautrais, “Multiple Aspects of Sexual Orientation: Prevalence and Sociodemographic Correlates in a New Zealand National Survey,” *Arch Sex Behav.* 40(1) (2011), 155-168.

8) <<http://blog.naver.com/pshskr/220231370391>.>

2013년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서 「국민건강면접조사」 보고서에서 동성애자 1.6%, 양성애자 0.7%이었다.⁹⁾ 따라서 서구에서 동성애자는 대략 1%이고, 양성애자들까지 포함하더라도 2% 정도 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들로부터 킨제이 결과가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동성애자 비율을 살펴보면, 1996년 한국에이즈연맹 보고서에서 적극적 동성애자는 대략 1만 명이었고,¹⁰⁾ 1995년도 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하면 15~49세 남성인구의 0.07%이다. 2003년 한국성과학연구소에서 서울의 남성을 조사한 결과,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가 0.3%, 동성애 경험이 있는 비율이 1.1%이었다.¹¹⁾ 2011년 한국성과학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서울 남성 1.1%와 여성 0.3%가 동성애 경험이 있었다.¹²⁾ 또한 2012년 한양대 산학협력단의 전국 남녀 설문조사에 의하면, 동성과 성관계에 대해 '경험이 있다'(0.3%), '응답 거절'(0.4%)이었고 응답거절을 포함해도 0.7%에 불과하다. 에이즈 감염자의 상당수가 동성애로 인하여 감염되므로 에이즈 감염자의 지역 분포로부터 동성애자 분포를 추측할 수 있다. 서울 남성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2배 정도 높으므로 전국 동성애자 비율이 서울의 절반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에이즈 감염자가 네 배로 증가하였기에, 동성애자 수가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가정하면 현재 전국의 남성 동성애자 비율은 0.2%로 추정된다. 한국성과학연구소의 2011년 조사에서 여성의 동성애 경험자가

9) <<http://www.cdc.gov/nchs/data/nhsr/nhsr077.pdf>.>

10) "국내 동성애자 11만명 추정, 『연합뉴스』, 1998. 1. 9.

11) 양봉민, 최운정, "한국에서 HIV/AIDS 감염의 경제적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보고서』 (2004), 9.

12) <<http://www.sexacademy.org/xc/issue/280257>.>

남성의 동성애 경험자의 약 1/4이기에, 동성애자로서의 성정체성을 가진 여성은 남성 동성애자의 1/4 수준인 0.05%로 추정된다. 따라서 남녀 동성애자를 평균하면 0.13%로 추정된다.

3. 동성애 행위에 대한 성경적 입장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결혼제도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결혼제도 안에서의 성관계만을 허용하셨다.¹³⁾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동성애 행위는 가증하다고 명시하셨다. 가증하다는 단어는 동성애 행위를 정말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동성애자를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셨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기록할 때에, 소돔에 수많은 종류의 죄악이 있었을 텐데 동성애를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류의 죄악 중에서 특히 동성애를 가증하게 여기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명심케 하려는 것으로 추론된다. 신약의 로마서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짓는 대표적인 죄로 기록하고 순리가 아니라고 지적하셨다. 고린도전서에서 남색(homosexual offenders)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시하셨다. 따라서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동성애 행위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결혼제도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용하는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어긋나는 분명한 죄악이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자들이 동성애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해석하지만,

13) J. Stott, 『존 스토티의 동성애 논쟁』, 양혜원 역 (서울: 홍성사, 2006), 31-36.

정통 개혁신교회 신학자에 의해 잘 반박되어 있다.¹⁴⁾ 결론적으로 동성애 행위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입장은 동성애 행위는 분명한 죄악이라고 간주한다.

Ⅲ.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인 고찰

1. 동성애 성향의 선천성에 대한 고찰

동성애 옹호자의 주장은 동성애 성향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어서 동성애자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므로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면 안 되고, 그들을 정상으로 인정하고 용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서구의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켜 동성애를 정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먼저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 없는 신앙적인 근거를 말하겠다. 동성애가

14) 창세기 19장에 사용되는 “야다”를 성적 의미 대신에 “친숙해지다”로 해석하고, 소돔의 멸망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 아니고 외국인에 대한 불친절, 약자에 대한 학대 등이라고 주장하는데,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두 딸이 “남자를 가까이 아니했다”에서 사용된 “야다”는 문맥상 성관계를 의미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았다는 유다서 7절과,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이라는 베드로후서 2장 6-7절이 소돔의 죄가 성행위임을 암시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기독교나 유대교의 주석가들이 모두 창세기 19장 5절을 동성애 행위로 해석해 왔다. 이경직, 『기독교와 동성애』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6), 25-33; 레위기 18장과 20장에 있는 동성애 금지규정이 의식법이며, 이방 신전에서 행해진 남창 동성애를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에 대해서는, 의식법전이 집중되어 있는 레위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식법으로 분류하면 안 되고, 레위기 18장과 20장의 성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보면 모든 시대의 인간관계의 성 질서를 규정하는 도덕법이 분명하며, 의식법을 어기면 며칠 격리 조치 형벌을 받는 반면에 레위기 20장의 성 관련 규정을 어기면 사형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식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동성애 행위를 우상숭배와 관련해서만 금지해야 한다면, 레위기에 나오는 근친상간, 수간도 비슷한 이유로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 있는 두 구절에 대한 명백하고 자연스러운 해석은 모든 종류의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경직, *Ibid.*, 34-41; 로마서 1장 26절의 내용에서 동성애 행위에 대한 “순리”와 “역리”의 개념을 사회학적 개념으로 해석하고, 각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구원이 믿음의 의로 이루어진다는 모든 인류의 보편적 상태를 서술하며, 로마서 1장의 “순리”와 “역리”도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닌 생물학적 성 질서, 즉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경직, *Ibid.*, 67-86.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뜻이 된다. 만약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든 후에 정죄하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전혀 공의롭지 못하고 이율배반적인 분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옳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사람을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로 되도록 만드시지 않는다. 즉, 공의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어떤 사람을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로 태어나도록 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동성애 성향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반박하고자 한다. 동성애 성향이 유전이 아닌 근거는,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양식은 유전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어떤 행동양식을 갖게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자녀를 적게 낳으면, 그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그 유전자를 가진 집단은 점차 사라진다.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낳을 수 없으므로, 동성애 성향이 유전이라면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 한다. 돌연변이에 의해 정상적인 유전자가 손상되어 나타난 이상 현상이 동성애 성향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운증후군과 같이 유전적 결함에 의해 나타나는 유전질환은 전체 인구 중에서 0.25% 이하의 빈도를 가지고, 모든 유전질환자를 합치더라도 전체 인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서구에서 동성애와 양성애를 합친 빈도는 약 2~3%이므로, 유전적 결함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빈도가 너무 높다. 자란 환경에 따라 동성애자 빈도가 다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청소년기에 큰 도시에서 자랐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고 시골에서 자랐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

률이 낮다.¹⁵⁾ 이 조사는 동성애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나타낸다.

서구에 동성애 성향이 유전이라는 주장이 확산된 근거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993년에 동성애자인 해머는 동성애자 40가계(family)의 염색체를 분석하여 동성애 성향이 X염색체 위의 Xq28이라는 유전자군 존재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Science에 발표했다.¹⁶⁾ 이에 서구 언론은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하였다고 대서특필하였다. 1999년에 라이스 등은 Xq28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동성애자 가계와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다르지 않았기에, Xq28 존재가 남성 동성애 성향과 관련이 없다고 Science에 발표했다.¹⁷⁾ 2005년에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456명을 분석한 결과, 동성애 성향과 Xq28 유전자군과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¹⁸⁾ 1993년 조사에서는 Xq28이 남성 동성애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얻은 반면에, 2005년 조사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상반된 결과를 얻은 이유를 2005년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동성애 성향이 유전은 아니지만 태아기에 성호르몬 이상을 겪어 동성애를 하도록 신체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동성애 성향이 두뇌에 의해 정해진다는 주장을 확산시킨 연구결과를 소개하면, 1991년 동성애자인 리베이

는 Science에 남성 동성애자 두뇌의 INAH3 크기가 여성과 비슷하다고 발표하였다.¹⁹⁾ 하지만, 2001년에 바인 등이 INAH3 내의 신경세포인 뉴런 개수를 측정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남성 이성애자와 남성 동성애자는 차이가 없었다.²⁰⁾ 이렇게 바인은 리베이에 의해 제기되었던 남성 동성애와 INAH3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였다.

동성애 성향이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다. 동성애 성향이 유전자 또는 태아기 호르몬에 의해 결정된다면, 같은 유전자를 갖고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은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높아야 한다. 2000년 이후에 이루어진 세 번의 대규모 조사를 종합하여 볼 때에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은 대략 10%이다.²¹⁾ 그런데 이러한 일치 비율조차 모두 선천적인 효과라고 볼 수 없다. 쌍둥이는 같은 부모와 환경 하에서 동일한 후천적 영향을 받으며 서로에게 긴밀한 영향을 준다.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동일한 선천적, 후천적 영향을 받은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일치 비율은 동성애 성향이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15) E. O. Laumann, J. H. Gagnon, R. T. Michael, and S. Michaels, *The Social Organization of 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16) D. H. Hamer, S. Hu, V. L. Magnuson, N. Hu, and A. M. L. Pattatucci, "A linkage between DNA markers on the X-chromosome and male sexual orientation," *Science* 261 (1993), 321.

17) G. Rice, C. Anderson, N. Risch, and G. Eber, "Male homosexuality: absence of linkage to microsatellite markers at Xq28," *Science* 284 (1999), 665.

18) B. S. Mustanski, M. G. DuPree, C. M. Nievergelt, S. Bocklandt, N. J. Schork, and D. H. Hamer, "A genomewide scan of male sexual orientation," *Human Genetics* 116 (2005), 272-277.

19) S. LeVay, "A difference in hypothalamus structure between heterosexual and homosexual men," *Science* 253 (1991), 1034.

20) W. Byne, S. Tobet, L. A. Mattiace, M. S. Lasco, E. Kemether, M. A. Edgar, S. Morgello, M. S. Buchsbaum, and L. B. Jones, "The interstitial nuclei of the human anterior hypothalamus: an investigation of Sex, Sexual Orientation, and HIV Status," *Hormones and Behavior* 40 (2001), 86.

21) K. S. Kendler, L. M. Thornton, S. E. Gilman, and R. C. Kessler, "Sexual orientation in a US national sample of twin and non-twin sibling pai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 (2000), 1843.

2. 동성애는 인체구조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성행위

남녀는 다른 성(性)기관을 가지며 남녀의 성기관이 결합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체를 창조하셨으며, 동성애 행위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섭리, 즉 인체구조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다. 남성 동성애자는 항문성교를 하는데, 항문은 성기관이 아니고 배설기관이다. 평균과 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불결한 곳인 항문에 성행위를 함으로써 치질, 출혈, 직장암, 성병 등이 생기며, 간염, 에이즈도 잘 전염된다. 여성 성기는 윤활유가 분비되고 성기의 모양을 바꾸거나 확대시키는 두꺼운 근육조직에 의해 둘러싸여 손상되지 않고 마찰에 잘 견딘다. 반면에 항문은 작은 근육들이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꼬리뼈에 붙어있어 여성 성기에 비해 훨씬 더 제한적으로 확대된다. 이 때문에 항문 성관계를 할 때 항문과 직장에 상처가 생기기 쉽다. 직장의 외벽은 한 층의 얇은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찢어지기 쉬워서 여러 질병에 감염이 된다. 괄약근은 몸 밖으로 내보내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역방향으로 갑작스럽게 물체를 삽입하면 자연적으로 수축한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나이가 들면 괄약근이 약해져 하루에도 열 번 이상 화장실을 가며 기저귀를 한다. 항문 성관계를 하는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들이 거의 걸리지 않는 질병에 감염되며, 국내 매독 환자의 21%가 동성애자이다. 남성 동성애자는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와 같은 병원균이 구강-항문 성관계 혹은 항문성교 후에 행하는 구강성교 등으로 항문에서 구강으로 직접 전달된다. 위에서 언급한 많은 문제점과 질병들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섭리, 즉 인체구조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므로 발생한 결과라고 본다.

3. 동성애 행위와 에이즈와의 상관관계

2015년 말 한국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누적 내국인 에이즈 감염인은 12,522명이며, 그 중 10,502명이 생존하고 남성 9,735명(92.7%), 여성 767명(7.3%)이다.²²⁾ 신규 감염인의 성비도 비슷하게 남성이 93% 정도이다. 2006년 이후의 감염경로별 누적 통계를 보면, 성 접촉이 99.9%, 수직감염이 0.07%, 마약주사 공동사용이 0.03%이다. 거의 100% 성 접촉에 의해 감염이 이루어지고 전체 누적 에이즈 감염자 중 93%가 남성이며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 대략 93%가 남성이라는 자료로부터, 감염이 남성에서 남성으로 성관계에 의해, 즉 남성 동성애로 감염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국내 누적 에이즈 감염인의 수가 2003년 2,843명에서 2015년 13,909명으로 대략 5배로 증가하였다. 최근 동성애로 인하여 국내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15~19세 남성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를 보면, 2000년까지는 거의 없었고, 2000년 2명이 2015년 41명으로 15년 동안에 대략 20배 증가했다. 20~24세 남성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를 보면, 2000년 15명이 2015년 185명으로 15년 동안에 약 12배 증가했다. 남성 감염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예전에는 30대가 가장 많다가 최근에는 20대가 가장 많다. 또한 20대 감염자 증가율보다 10대 감염자 증가율이 더 크다. 현재 한국 청소년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관계와 같은, 동성애가 가지는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동성애에 노출되어 있다. 2000년까지는 학교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가르쳤는데, 2000년경에 동성애자들의 항의로 삭제되었으며 이제는 오

22) 한국질병관리본부, "2015 HIV/AIDS 신고 현황."

히려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²³⁾ 참고로 2011년 미국 13~24세 남성 에이즈 감염자의 94~95%가 동성애 행위로 감염되었다.²⁴⁾ 2007년 유엔에이즈 보고서에 의하면, 중남미 지역에는 160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고, 에이즈 환자의 절반 정도는 동성애 행위로 감염되었다.²⁵⁾ 미국에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증가한 에이즈 감염환자의 1~3위가 남자 동성애집단이며, 전체 환자 중 남자 동성애집단의 비율이 70%이다.²⁶⁾ 2009년에 에이즈 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서도 남성 동성애자(MSM) 간의 에이즈 바이러스(HIV) 유행은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기술하였다.²⁷⁾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스페인, 칠레,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등에서 남성 동성애집단의 에이즈 유행률은 대략 15%이다.²⁸⁾ 에이즈와 동성애 행위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이유는 항문성교와 난잡한 성관계 때문이다. 1978년 결과에 따르면,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15%는 100~249명과, 17%는 250~499명과, 15%는 500~999명과, 28%는 1,000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졌다. 남성 동성애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위험한 성관계를 가진다. 국내의 통계를 볼 때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이며, 동성애는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은 매우 위험한 성 행태임을 알 수 있다.

23) “교과서 ‘동성애 편견’ 삭제,” 『한겨레신문』 1999. 12. 24.

24) <<http://www.cdc.gov/hiv/group/msm/index.html>>

25) 『부산일보』 2007. 11. 21.

26) <http://www.cdc.gov/hiv/pdf/statistics_surveillance_Adolescents.pdf>

27) F van Griensven, et al., “The global epidemic of HIV infection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Current Opinion in HIV and AIDS* 4 (2009), 300.

28) <http://www.knn.co.kr/news/todaynews_read.asp?ctime=20120720160540&stime=20120720170305&etime=20120720160517&userid=run4zhen1&newsgubun=world.>

남성 동성애자의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31개국이며 유럽 국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헌혈 조건부 허용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등 13개국이다.

그런데 한국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로 말미암아 전파된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와 책자에 홍보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14년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과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내 에이즈 전문가들이 남성 동성애가 국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임을 알고 있다.²⁹⁾ 미국과 일본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남성 동성애가 국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임을 분명하게 홍보한다. 2016년,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는 ‘집단별 HIV’이란 코너가 있고, 제일 앞에 나오는 집단인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요약 정보에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HIV에 가장 많이 감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³⁰⁾ 일본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동향 위원회가 3개월마다 감염 동향을 발표하고, 매년 종합 결과를 발표하며, 감염경로를 발표할 때에 분명하게 동성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임을 시인한다.

미국은 생존하는 에이즈 감염인이 120만명(인구의 0.37%)이며, 2016년 에이즈 관련 예산이 36조원으로 감염인 일인당 3천만원이 들어간다. 한국은 생존하는 에이즈 감염인이 1만명(인구의 0.02%)이다. 한

29)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2015).

30) <<http://www.cdc.gov/hiv/group/msm/index.html>>

국이 미국처럼 동성애와 에이즈가 확산된다면, 한국은 에이즈 감염인의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기에(90% 의료보험, 5% 질병관리본부, 5% 지방자치단체), 세금과 의료보험비가 증가하며 결국에는 미국에 비해 약한 한국의 재정 구조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몰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동성애는 치유 가능함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 치유가 불가능하므로 동성애자들을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성애자들에게도 여러 등급이 있다. 동성애 행위를 몇 번 경험한 사람도 있고, 깊이 빠져 중독이 된 사람도 있다. 술을 가끔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알코올 중독환자가 있는 것과 같다. 동성애 행위를 몇 번 경험한 사람은 쉽게 빠져 나오지만, 중독 상태가 된 사람은 끊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끊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성애 행위를 정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이 주장은 알코올중독을 끊기 어렵다는 이유로 알코올중독자에게 계속 술을 먹으라고 권장하는 것과 같다. 또한 동성애를 끊기가 어렵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끊겠다는 자신의 강한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면, 비버 박사는 20년 조사 후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바뀔 가능성은 30~50% 된다고 했다.³¹⁾ 임상심리학자 크론마이어 박사에 의하면, 80%의 동성애 남성과 여성이 치료 후 만족스러운 이성애자로 변화됐다.³²⁾ 이태원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술집을 운영했

31) I. Bieber and T. B. Bieber, "Male Homosexuality,"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24 (1979), 416.

32) R. Kronmeyer, *Overcoming Homosexualit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0).

던 이요나, 동성애자 단체 대표였던 리처드 코헨, 레즈비언 잡지 비너스 편집장이었던 찰렌 코트란 등도 치유되었다. 동성애에서 치유 받은 자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나려는 자를 돕는 전동성애 단체로는 교사 및 학생을 돕는 NEA Ex-Gay Educators Caucus, 영국의 True Freedom Trust, 스웨덴의 Medvandrarne, 노르웨이의 Til Helhet, 덴마크의 Basis, 핀란드의 Aslan, 벨기에의 Different, 네덜란드의 Onze Weg 등이 있다.

5. 동성애자의 삶은 불행함

동성애자의 삶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미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남성 동성애자의 교제는 주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깨어지며, 남성 동성애자 교제의 60%는 일 년 이내 깨어지고, 대부분 여성 동성애자 교제는 3년 이내에 깨어진다. 남성 동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의 사귀는 평균기간이 대략 2.5년이며, 5년 이상 지속되는 것은 드물다. 동성애자의 관계는 이성애자보다 2배 정도 성(性)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³³⁾ 에이즈가 발견된 후에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친구들이 에이즈로 죽는 것을 보면서도 모르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 그들의 성행위가 중독임을 나타낸다.³⁴⁾ 남성 동성애자 모임에 가면 성에 대한 이야기에 몰두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³⁵⁾ 많은 동성애자들은 나이가 들면 가족이 없어 외로움에 시달린다. 1998~2001년 사이에 진행된 4개의 독립적인

33) E. O. Laumann, J. H. Gagnon, R. T. Michael, and S. Michaels, *The Social Organization of 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34) R. D. Pullin, "Homosexuality and Psychopathology" in *Collected papers from the NARTH Annual Conference* (California: NARTH, 1995).

35) D. J. West, *Homosexuality Reexamined* (London: Duckworth, 1977).

연구결과에서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보다 최소 2배 더 알코올에 의존하고,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이성애자보다 3배 더 자살을 시도한다.³⁶⁾ 에이즈 환자의 암발생 위험도는 일반인에 비해 20배이다. 에이즈와 여러 질병 때문에 남성 동성애자 수명은 남성 이성애자에 비해 25~30년 짧고, 알코올중독자보다도 5~10년 짧다. 동성애자의 삶은 행복하지 않으므로 동성애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동성애를 끊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IV.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문제점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는 유전적이고, 선천적이고, 치유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일반인들도 동성애는 나쁘지만 그들도 인간이기에 차별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쉽게 동의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별을 나쁜 의미로 인식하고 있기에, 동성애자들의 주장대로 서구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생기고 결국에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지를 말하려고 한다.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에는 나쁜 차별과 좋은 차별이 있다. 나쁜 차별은 불합리한 직업, 주거, 교육 등에서의 차별과 조롱, 모욕 등의 언행이며, 좋은 차별은 도덕, 양심, 종교, 사실 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비판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모든 종류의 차별, 즉 착한 차별도 금지하고 처벌된다.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

한 나쁜 차별은 현행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처벌되고 있다.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남녀, 장애 등에 대한 착한 차별은 없기에, 남녀, 장애 등은 차별금지법에 들어가도 된다. 하지만, 동성애, 트랜스젠더, 범죄, 중독 등에 대해서는 착한 차별이 있다. 따라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범죄, 중독 등은 차별금지법에 들어 가면 안 된다.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제화했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1.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법에 의해 공인하게 되므로, 공공장소에서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일체 행위를 차별로 처벌한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든지 비윤리적으로 보든지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며, 정부가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권력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 법과 정책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서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처벌하여 그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무서운 법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외국의 예로서, 1997년에 미국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조언한 이유로 파면되었으며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고, 2000년에 미국에서 레즈비언인 직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 회사에서 파면되고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였다. 2006년에 캐나다 시의원은 '동성애는 비정상

36) B. Whitehead, 『나는 사랑받고 싶다』, 이혜진 역 (서울: 웰스프링, 2003), 158.

이고 비자연적이다'는 발언을 해서 1000불의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캐나다에서는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죄라고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2008년에 청소년 사역자는 대중매체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7000불의 벌금형을 받았다.³⁷⁾ 영국 잉글랜드 컴브리아주 워킹턴에서 목사가 길에서 설교하던 중, 동성애자의 질문에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대답하여 구금되었다.³⁸⁾ 미국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성애가 죄이며 변태적인 행위라는 글을 올린 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2.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학교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뇌시킨다.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 학교 안에 동성애 단체를 결성하여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학교는 적극적으로 그 단체를 후원해야 한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은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준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국 매사추세츠에서는 '게이와 레즈비언 긍지의 날'이 되면 초등학생에게 철저히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친다. 캐나다 토론토의 교육청은 1학년(6세) 때는 사람의 성기에 대해, 3학년(8세) 때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 6학년 때는 자위를, 7학년 때는 이성 간 성행위 및 항문 성행위를 가르치게 한다. 따라서 한 세대만 지나면 동성애를 모두 인정하게 된다. 동성애를 공인하는 외국에서는 문화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는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있어서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

37) <<http://blog.naver.com/pshskr/130167868990>>

38) <<http://blog.naver.com/pshskr/130167376459>>

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정말 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동성애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의 심정에서이다.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3. 동성애자의 권리와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가 충돌할 때에,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한다.

2002년에 미국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는 견해로 영적 폭행을 저지른 자라고 동성애단체가 주장하였고, 시의회는 그의 반동성애 의견은 정죄되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면세혜택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국 아이다호는 1심 판결에서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한 목사에게 180일의 감옥형과 매일 1000달러의 벌금을 동성결혼을 주례해줄 때까지 내도록 했다.³⁹⁾ 2011년 영국 법원은 동성애자 커플에게 방을 주지 않은 70대 부부에게 3600파운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고, 미국 뉴멕시코 인권위는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기념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에게 약 69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⁴⁰⁾ 미국 뉴욕주 법원은 동성결혼식 장소 대여를 거부한 농장주에게 1만3천 달러의 벌금

39) <http://cafe.daum.net/jesus_vision/KEDN/665>

40)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8135>>

형을 선고했으며,⁴¹⁾ 미국 오레곤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부부는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여 13만5천 달러 벌금형과 135만 달러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받았다.⁴²⁾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상당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든다. 소수자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게 하는 것은 더 옳지 않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와 같은 윤리적인 것은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는 안 되며,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만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들어가면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기 때문이다.

4. 동성애자에게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이나 설득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이나 설득조차 할 수 없게 하며, 그러한 상담을 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동성애를 끊으라고 권유하면 동성애를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여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동성애에 빠지면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도록 막는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의사들의 동성애를 치유하는 행위가 위축되어 동성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동성애자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미국 몇 개의 주에서 동성애 치료금지법이 통과되어 동성애를 치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동성애자의 삶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에게 나쁜 법이다.

5. 동성애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음란물 등이 많아지며, 언론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만을 소개해야 한다. 법에 의해 동성애가 보호받고,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할 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확산을 피할 길이 없다. 동성애는 먼저 빠진 사람에 의해 은밀하게 전파되므로 동성애자 수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증가되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동성 간의 단체숙식이 보편화되어 있기에, 동성애 확산이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 동성애가 확산되면 건전한 동성 간의 우정도 의심받으므로 깊은 우정관계를 맺기 어렵고,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 문제, 에이즈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동성애자가 많아지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동성애 유혹에 시달리며 동성애를 강요받는 피해자도 생기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많아진다.

6. 동성애를 나쁘다고 표현하지 못하므로, 동성결혼이 잘못되었음도 표현하지 못하여 결국 합법화된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일부처제의 정상적인 결혼제도가 붕괴되고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근친혼 등도 허용된다.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면 일부다처제 등의 허용을 반대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동성결혼이 허용되면 동성애자들이 입양을 하는데, 입양된 아이들이 불행하다. 동성애자의 동거 기간이 짧기에 자주 헤어지는데, 보호시설로 돌아가

41) <<http://www.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5>>

42) <http://cafe.daum.net/jesus_vision/KEDN/665>

든지 혹은 계속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평균적으로 10명 이상과 살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새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동성애자에게 입양되어 자란 아이는 나중에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다. 국내에서도 동성결혼의 전 단계인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 또는 이성의 동거인에게 배우자의 권리를 주는 법이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은 아니지만 배우자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주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하면 결국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 서구도 유사하게 시민결합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10년 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 따라서 동성결혼의 전 단계인 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좋은 차별조차도 처벌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된다.

V. 향문성교를 처벌하는 균형법 유지의 필요성

1. 군기 문란을 막기 위함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계급과 직책에 따른 권한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 요소이다. 그런데 만약 향문성교(동성 간의 성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기본적인 위계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즉, 생활관이나 조직 부서 내에 동성애 관계인 군인들이 있을 경우 계급의식은 약화되고 그 대신 동성애 관계에 의해 형성된 커플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될 것이다. 따라서 폐쇄된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병영에서의 합의에 의한 향문성교를 허용할 경우, 군의 위계질서는 무너질 것이며 결국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강한 군대의 육성 및

유지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2. 전투력 약화를 막기 위함

향문성교를 하다 보면 걸핏하면 화장실에 가야 하는 변실금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변실금으로 고생하는 군인이 과연 얼마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시설적 측면에서는 화장실을 추가적으로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 등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문성교를 허용하게 된다면, 전투력 약화는 명약관화하며, 국민들 역시 국가안보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갖게 될 것이다.

3. 대다수 군전역자들이 균형법의 유지를 원함

2013년 9월 한국 갤럽이 한국교회언론회의 의뢰를 받아서 전국의 20-30대 군 전역자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이다.⁴³⁾

〈표 1. 향문성교를 처벌하는 균형법에 대한 군 전역자들의 의견〉

연령별	강화해야	현재 상태 유지	폐지해야	모름
20대	62.2%	23.6%	7.8%	6.4%
30대	65.7%	21.9%	5.5%	6.9%
군 별	강화해야	현재 상태 유지	폐지해야	모름
육 군	64.7%	23.9%	5.8%	5.7%
해 군	65.6%	13.2%	8.1%	13.1%
공 군	59.2%	22.2%	9.3%	9.3%
해병대	70.3%	10.6%	0.0%	19.1%
기 타	61.4%	18.7%	12.8%	7.1%

위 설문조사에 의하면, 향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징

43) 『기독신문』 2013. 10. 21.

역에 처한다는 균형법 규정에 대해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4.2%,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2.6%,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5%로 나타났다. 즉 대다수의 군 전역자들은 현재의 균형법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포함하면 86.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매우 적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의 입장에서 군대 내에서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균형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 군대 내 동성 간의 성폭력 증가 때문임

대검찰청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남성 간 성폭행이 급증하고 있다. 남성 간 성폭행 발생 건수는 2010년 702건, 2011년 816건, 2012년 831건, 2013년 1,060건, 2014년 1,37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건수는 2011년 54건, 2012년 60건, 2013년 80건, 2014년 73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내부 동성 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 83건, 2013년 90건, 2014년에는 22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결국 군대 내의 항문성교 합법화는 이러한 군대 내에서의 동성 간 성추행, 성폭력 등의 엄청난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5. 항문성교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군대에서는 혈기 왕성하고 성욕이 강한 20대 젊은이들이 숙식을 함께 하기 때문에 항문성교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균형법으로 항문성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항문성교의 유

혹은 매우 강해질 수 있다. 헌법 제39조에 의해 우리나라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군대 내 항문성교를 합법화하면 많은 남성들이 군대에서 항문성교를 경험하고 동성애자가 될 위험성이 높다. 항문성교는 유사 성행위로서 쾌감을 동반하므로, 군대 내의 항문성교가 합법화되면 은밀하게 군인들 사이에서 항문성교가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고, 결국 한국 사회 전체로 동성애가 급격히 확산될 것이다. 에이즈에 감염되어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는 청년들이 급증할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다.

6. 동성애자 상사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을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함

군대는 계급사회이고, 같은 계급이라고 하더라도 선후임관계가 분명하다. 상사가 항문성교를 요구하였을 때, 부하의 위치에서 이를 거부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군의 계급구조 특성상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항문성교 자체를 처벌하는 수밖에 없다. 군대의 특성상 군대내 항문성교 관련 수사시 수사기관이 항문성교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 강제력에 의한 것이지를 분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합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 항문성교 자체를 금지해야 하지만, 군대 내의 항문성교가 억제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7.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허용하면 안 됨

성적 자기결정권도 윤리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지키며 행사해야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 방종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어떠한 성행위도 허용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헌법 제37조에 필요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군

대에서의 향문성교를 제한하고 있다.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군대 내의 향문성교 제한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VI. 결론

1. 서구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된 이유

첫째는 동성애자 단체의 결집된 힘이다. 1993년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인권운동기금에 직원이 39명이었고 예산이 600만 달러였다. 보수적이었던 서구 사회에서의 동성애 확산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동성애자 단체의 지속적인 문화물 제작, 홍보, 로비 등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둘째는 과학, 법학 등의 전문가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동성애자인 전문가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전문가 단체 회원들이 동성애에 옹호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셋째는 비디오,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물의 확산이다. 상당수 사람들이 음란물에 노출되어 성적인 죄악에 무감각하며, 모든 영역, 법조계, 학계, 정치계, 종교계 등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두터운 층을 형성하였다. 넷째는 종교의 약화이다.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다.

2.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의 잘못을 널리 알려야 한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는 유전적이고, 선천적이고, 치유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으로 서구에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주장이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 동성애 옹호자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 동

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인 것도, 치유불가능도 아니라는 사실과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며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동성애자는 불행하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도록 하지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강요하며,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면 직장에서 해고가 되게 한다. 또한 동성애를 끊고 새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막는 잘못된 법이다. 정부, 국회, 법조계, 과학계 등에 알려 잘못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우리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살면서 바른 성윤리를 확립하자.

건전한 성윤리를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동성애 옹호 쪽의 도구는 음란이며, 그것을 막는 도구는 경건이다. 그런데 경건은 음란을 이긴다. 한 명의 경건한 사람은 음란한 사람 천 명을 이길 수 있다. 한국 국민이 경건함을 회복하면 동성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 경건함 회복운동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은밀한 삶에서 철저한 거룩함의 본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건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4. 국가와 국회 등을 향하여 분명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바른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의견은 고려되지 않는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안일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면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배

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가서 후회한들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에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한국에 동성애가 확산된 것은 외국의 영향, 동성애를 미화하는 마스크, 동성애자의 노력 등의 결과물이지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영향이 크다. 2001년에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삽입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한국의 동성애 확산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활동을 소개하면, 2003년에 동성애표현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하였고 2004년에 권고대로 삭제되었다. 2005년 인권위 보고서를 보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는 신문 기사, 동성애가 윤리도덕에 어긋난다는 공문 내용,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등을 동성애 차별로 간주하였고,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 개정, 교과서 개편,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 있었다. 2006년에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권고하였고, 2007년에 법무부는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여 결국 법안이 폐기되었다. 2010년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균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2011년에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기사를 못 쓰게 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의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삭제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6. 쉽지 않은 전쟁이지만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동성애와의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인간의 몸의 구조에 근거한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것이 자명하다. 우리의 주장이 진리이며, 한국의 동성애자 수는 적다. 한국에는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분들이 각계 각층에 포진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분들이 조금만 열심을 내고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동성애 확산을 막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들은 포르노를 합법화하여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이다. 한국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성적으로 타락하였다. 현 시점에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 어느 정도의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가는 한국이다. 그러기에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도 건전한 성윤리를 잘 유지하는 본보기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서 한국의 윤리도덕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윤리도덕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책임이 있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2015.
- 양봉민·최운정. “한국에서 HIV/AIDS 감염의 경제적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보고서. 2004.
- 이경직. 『기독교와 동성애』.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6.
- 이상원. 『기독교윤리학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본 이론과 실제』.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13.
- 이승구. 『광장의 신학』.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10.
- 한국질병관리본부. 2015 HIV/AIDS 신고 현황.
- Stott, J. 『존 스토틀의 동성애 논쟁』. 양혜원 역. 서울: 홍성사, 2006.
- Whitehead, B. 『나는 사랑받고 싶다』. 이해진 역. 서울: 웰스프링, 2007.
- Andersen, J. P., and J. Blosnich “Disparities i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mong sexual minority and heterosexual adults: Results from a multi-state probability-based sample.” *PLoS ONE*, 8 (2013).
- Bailey, J. M., M. P. Dunne, and N. G. Martin.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sexual orientation and its correlates in an Australian twin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2000).
- Bieber I, and T. B. Bieber. “Male Homosexuality.”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24 (1979).
- Bradford, J., C. Ryan, and E. Rdthblum. “National lesbian health care survey: Implications of mental health care.”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62 (1994).
- Burch, B. *On intimate terms: The psychology of difference in lesbian relationships*.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3.
- Byne, W., S. Tobet, L. A. Mattiace, M. S. Lasco, E. Kemether, M. A. Edgar, S. Morgello, M. S. Buchsbaum, and L. B. Jones. “The interstitial nuclei of the human anterior hypothalamus: an investigation of Sex, Sexual Orientation, and HIV Status.” *Hormones and Behavior* 40 (2001)
- Hamer, D. H., S. Hu, V. L. Magnuson, N. Hu, and A. M. L. Pattatucci. “A linkage between DNA markers on the X-chromosome and male sexual orientation.” *Science* 261 (1993)
- Kendler, K. S., L. M. Thornton, S. E. Gilman, and R. C. Kessler. “Sexual orientation in a US national sample of twin and non-twin sibling pai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 (2000)
- Kinsey, A. C., W. B. Pomeroy, and C. E. Martin.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Philadelphia: W. B. Saunders, 1948.
- Kinsey, A. C., W. B. Pomeroy, C. E. Martin, and P. H. Gebhard,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Female*. Philadelphia: W. B. Saunders, 1953.
- Langstrom, N., Q. Rahman, E. Carlstrom, and P. Lichtenstein. “Genet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n Same-sex Sexual Behavior: A Population Study of Twins in Swede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9 (2010)
- Kronemeyer R. *Overcoming Homosexuality*. New York: Macmillan Pub. Co., 1990.
- Laumann, E. O., J. H. Gagnon, R. T. Michael, and S. Michaels. *The Social Organization of 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LeVay S. “A difference in hypothalamus structure between heterosexual and homosexual men.” *Science* 253 (1991).
- Mustanski, B. S., M. G. DuPree, C. M. Nievergelt, S. Bocklandt, N. J. Schork, and D. H. Hamer. “A genomewide scan of male sexual orientation.” *Human Genetics* 116 (2005).
- Pullin, R. D. (1995) “Homosexuality and Psychopathology.” in

- Collected papers from the NARTH Annual Conference, California: NARTH.
- Reisman, J. A. and E. W. Eichel. *Kinsey, Sex, and Fraud*. Lafayette, LA: Lochinvar-Huntington House, 1990.
 - Rice, G., C. Anderson, N. Risch, and G. Eber (1999). "Male homosexuality: absence of linkage to microsatellite markers at Xq28." *Science* 284 (1999).
 - Roberts, A. L., M. M. Glymour, and K. C. Koenen. "Does maltreatment in childhood affect sexual orientation in adulthood?"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2 (2013).
 - van Griensven F, et al. "The global epidemic of HIV infection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Current Opinion in HIV and AIDS* 4 (2009).
 - West, D. J. *Homosexuality Reexamined*. London: Duckworth, 1977.
 - Wells, J. E., M. A. McGee, and A. L. Beautrais. "Multiple Aspects of Sexual Orientation: Prevalence and Sociodemographic Correlates in a New Zealand National Survey." *Arch Sex Behav.* 40(1) (2011)
 - <<http://blog.naver.com/pshskr/130167868990>>
 - <<http://blog.naver.com/pshskr/130167376459>>
 - <<http://cafe.daum.net/jesus.vision/KEDN/665>>
 - <<http://statcan.gc.ca/daily-quotidien/040615/dq040615b-eng.htm>>
 - <<http://www.cdc.gov/hiv/group/msm/index.html>>
 - <http://www.cdc.gov/hiv/pdf/statistics_surveillance_Adolescents.pdf>
 - <<http://www.cdc.gov/hiv/statistics/surveillance/incidence/index.html>>
 - <<http://www.cdc.gov/nchs/data/nhsr/nhsr077.pdf>>
 -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8135>>
 - <http://www.knn.co.kr/news/todaynews_read.asp?ctime=20120720160540&stime=20120720170305&etime=20120720160517&userid=run4zhen1&newsgubun=world>
 - <<http://www.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5>>
 - <<http://www.sexacademy.org/xe/issue/280257>>
 - 『기독신문』 2013. 10. 21일자 “한국 교회연론회, 군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
 - 『부산일보』, 2007년 11월 21일자.
 - 『연합뉴스』 1998. 1. 9일자 “국내 동성애자 11만명 추정”
 - 『한겨레신문』 1999년 12월 24일자, “교과서 ‘동성애 편견’ 삭제”

Abstract**Discussion about the Severity of the Homosexuality Problem in the Military**

Won Pyong Gill

This paper described the basic aspects, the biblical aspects, and the scientific aspects of homosexuality. This paper summarized the pre-existing results to claim the homosexuality inherence and refuted those claims scientifically. Hamer et al. reported the correlation between homosexuality and a small group of genes(Xq28), but it was contradicted by the later study which could not find any association between homosexuality and Xq28. Low homosexuality concordance of identical twin manifested that homosexuality was not decided by nature. This paper described the homosexuality as an abnormal sexual behavior against the human body structure, and presented the statistical correlation between the homosexual behavior and AIDS. After examining the problems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on homosexuality, this paper described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the military law to punish the anal sexual behavior. Finally, this paper described the reason why homosexuality is spreading, the reason why we need to delete the anti-discrimination clauses on homosexuality in the law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action guide and the attitude of mind that we should have.

Key Words

military law, homosexuality, anti-discrimination law, AIDS, scientific aspects

길원평 교수의 논문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에 대한 논찬

A Comment: Discussion about the Severity of the Homosexuality Problem in the Military

■ 전요섭*

1. 요약

길원평 교수의 논문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는 그야말로 동성애가 무엇이 문제이고, 왜 심각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아울러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동성애의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동성애 성성향의 원인 및 그 형성과정과 폐해 등을 다루었다. 저자는 동성애에 대한 학문적 고찰을 기초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군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군형법(제92조의 6) 유지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길 교수는 동성애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거의 세계적으로 만연된 이상 성행태이며, 이는 일종의 중독으로서 다른 중독에 비해 강한 중독성을 지닌 행위중독으로 이해하였다. 길 교수는 Kinsey의 동성애자에 대한 통계(전 국민의 10% 수준)는 과장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이런 과장된 통계를 이용하여 정책적 보호와 배려를 받으려고 했는데, 마치 어떤 지분을 확보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실제 동성애자는 어느 국가 통계를 보더라도

• 논찬 투고일: 2017년 8월 9일

• 논찬 수정일: 2017년 8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9월 1일

* 성결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대략 국민의 1% 수준이라는 조사결과들을 연구자는 밝히고 있다. 작금의 동성애자들은 그들 스스로 성 소수자(sexual minority)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소수 인권을 주장하여 사회적 비호를 받으려는 추세에 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를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명백히 죄악이라는 사실을 길 교수는 이 논문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이런 성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동성애 성향이 선천적임(유전)을 주장하나, 연구자는 다양한 과학적인 증거들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는 동성애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AIDS의 증가와 맞물려 있음을 밝히고, 다양한 성 매개 질환과 그 증상들을 소개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연구자는 무엇보다도 (남성) 동성애는 항문 성교를 통해 괄약근의 파열에 의한 변실금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 감염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길 교수는 군내에서 동성애 및 동성 간의 성행위(항문성교)를 허락하는 순간, 군은 위계질서가 파괴되고, 집단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전투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제재로서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균형법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했다.

2. 긍정적인 면

길원평 교수께서는 국내 동성애 실태를 소개하는 다양한 자료들

을 제시하고 그 폐해의 심각성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이 논문은 괄목할만한 것이며,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긍정적인 면은 동성애에 대하여 막연히 거부하거나 혐오하는 입장을 가진 자들에게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대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가 된 이유를 ‘선천적’이라고 스스로 항변(또는 합리화)하는 것에 대해 이 논문은 다양한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동성애 성향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자들을 함구토록 만들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적 계도 차원은 물론, 특히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기독교에서 마땅히 이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가 신학자가 아니고, 이 논문이 신학논문이 아니므로 주석적 접근까지 다룰 필요는 없으며, 오직 ‘동성애는 창조질서에 위배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이라는 성경적 근거를 명백하게 밝힌 것만으로도 이 논문은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드러낸 성경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길 교수는 동성애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AIDS 등의 폐해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어 동성애의 위험성을 설득력 있게 인식토록 했다. 길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동성애를 단지 사회악이라고 고발하는 차원을 넘어, 동성애 치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은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평가된다.

길 교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갖는 여섯 가지 문제점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동성애를 거부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길 교수의 국가와 민족을 우려하는 진심

어린 애국 충정과 아울러 신성한 국방 의무를 이행하는 우리의 젊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건전하고, 건강한 군 생활을 마친 사회인이 이끄는 건전하고, 건강한 조국이 되기를 바라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고 이해해 볼 수 있다.

3. 아쉬운 면

이 논문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옥고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논찬자에게 다소 아쉬움으로 느껴지는 점은 이 논문의 제목이 시사하는 만큼 ‘군대 내 동성에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사례들이 보충되었다면 독자들의 궁금증을 충족시켰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 논문에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분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제시되었다면 주제와 관련된 풍성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는 논찬자 개인적 시각에서 가져 본 바람에 불과하며, 이것이 이 논문의 가치와 질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매우 지엽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연구자가 몇 차례 사용한 ‘근친상간(近親相姦)’이라는 표현은 부부를 제외한 근친 간에 서로 간음 행위를 하는 의미로, ‘相(서로)’라는 단어로 인해 마치 합의 또는 애정관계에 의한 성행위로 오해되는 용어이다. 현상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근친(주로 부모자녀) 간에는 ‘강간(강압에 의한 간음행위)’이 여타의 행태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그 비율이 높기에, ‘상간’은 ‘강간’으로 바꾸어 ‘근친강간(近親強姦)’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개념상 옳은 표현이 될 것 같다. 이것은 이 논문의 본질과 아무 관련 없는 부

분이지만 성관련 주제의 연구에서는 개념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조심스럽게 제시해 보는 바이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반대하고 이를 사회적 계몽운동으로 삼으려는 시점에서 이 논문은 시의적절(時宜適切)한 것이며, 이를 통해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 일조한 옥고라고 사료된다. 동성애에 대한 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바른 대처 방안과 태도를 갖도록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여 발표한 길 교수에게 감사의 뜻과 아울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낸다.

동성애의 비정상적, 비신양성, 부도덕성, 부당성, 불결성, 불건전성, 불합리성 등을 고발하는 길 교수의 목소리가 메아리로 사라지지 않고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우리 군을 보호하는 최소한 저지선인 군형법 제92조의 6(항문성교에 대한 처벌)을 유지, 존속시키는 데 설득력 있는 호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폐지, 개정하려는 의도가 저지되는 방호막이 되기를 기대한다.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

Suggesting Rational Revision on Military Criminal Code Article 92-6
against Solders' Indecent Behavior and Anal Sex

■ 이상현*

국문초록

군형법 제92조의 6은 2002년, 2011년과 2016년 세 번의 헌법재판에서 합헌 결정을 받아왔음에도, 2017년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계류 중에 있다. 1962년 군형법 제정 이래 남성 군인 간 계간 기타 추행을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해 오다가,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항문성교 기타 추행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까지 군인 간 성폭행에 관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군 공동사회 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기능해 왔고,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죄가 도입된 후에도, 본 죄는 폭행, 협박의 입증에 부족한 상급자에 의한 하급자 추행과 영내 자발적 비정상적 성적 행위에 대한 범죄화의 법적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군형법 제92조의 6의 제·개정 법제사, 헌법재판소의 기존 세 차례 결정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분석, 형법이론과 범죄학적 측면에서 본 추행죄의 형사정책적 타당성을 차례로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범죄의 구성요건요소를 주체, 장소 및 행위 측면에서 검토한 후 합리적 개정안-위력에 의한 추행·비동의 추행죄(제92조의6)와 영내 음란행위죄(제92조의7)-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가 군내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적 문란을 차단하여 군내 건전한 성도덕과 군기 유지 및 투철한 방어 확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핵심단어

항문성교, 추행, 군형법, 제92조의 6 개정안,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소도미, 미국 통일군사법전

• 논문 투고일: 2017년 8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17년 9월 6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9월 8일

*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1. 서론

1962년 제정된 군형법의 추행죄 규정(2013년 개정 군형법 제92조의 6)은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2017년까지 세 차례의 헌법 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다.¹⁾ 대법원은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군인과 군인 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군사법원과 대법원은 이에 해당하는 판례들을 축적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과 함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 주장이 위 군형법상 추행죄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위 죄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해 온 국방부와는 대조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규정이 성적 선호에 따른 차별을 조장한다며 폐지를 권고했다.²⁾

국내외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운동 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 논거 중 하나인 ‘국제적 추세’라는 것도 유럽 및 영미법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내법 및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일컫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군형법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국제인권규범 중 명시적 규정을 통해 또는 성적지향에 따른 권리를 인정한 것은 없다. 유럽 및 영미법계 국가들의 의사를 무시하기 어려운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 Commission)가 2010년대 들어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아프리카

다수 국가들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법과 관례, 폭력행위 금지’를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결의로 표현했을 뿐³⁾ 이것이 ‘군인들 간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 폐지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오히려 ‘개인의 권리 행사는 도덕성, 공공질서 및 복지의 정당한 요청을 충족시키고 타인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승인과 존중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만을 위해 법에 규정된 제한에 구속된다’(제29조)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수소폭탄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의 도발로 핵전쟁 위협을 강화하는 북한과 휴전 상황에서 대처하고 있다. 철저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군의 본연의 임무 수행과 기강 확립을 위해 성폭력, 성도덕 문란에 대한 엄격한 대처가 필요함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본 죄의 폐지법안까지 제출하고 있다.⁴⁾ 위 조항은 2017년 위헌법률심판이 다시 제청되어 네 번째 헌법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위 법조항의 연혁을 법제사 측면에서 살피고(2), 기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면밀히 검토(3)한 후, 형법이론을 적용하여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에 대한 범죄화 입법을 분석해 본다(4). 이를 토대로 행위 태양과 장소에 따라 본 규정의 개

3) “김진우, 군동성애 처벌조항 삭제 논란...군형법 개정안,” 2017.6.5. <<http://www.naon.go.kr>>

4) 김중대, 심상정, 노회찬, 추혜선, 윤소하, 이정미, 진선미, 윤종오, 김중훈, 권미혁 의원(총 10인)이 2017년 5월 24일 제출한 군형법 개정안(의안번호 7016번)은, 아무런 대안 없이, 제92조의 6의 삭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김중대 이하 6인(심상정, 노회찬, 추혜선, 윤소하, 이정미, 진선미)이 두 달 후 상관이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부하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는 개정안(7942번)을 제출한 점을 보면, 전술한 의원 중 일부는 폭행, 협박의 입증이 부족한 추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부정할 뿐 엄격한 군형법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1962년부터 2010년 군형법 개정 때까지 제92조로 규정되었고, 2010년 개정 이후 2013년 개정 때까지 제92조의 5로 규정되었다. 2013년 개정 이후 제92조의 6으로 현재와 동일하게 규정되었다.

2) 국가인권위원회 2010.12.8. 위헌법률심판(2008헌가21)에 대한 의견제출 South Korea rights commission finds military gay ban unconstitutional, Paper Chase, JURIST, Oct. 27, 2010.

선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한 후(5, 6)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7).

2. 군형법 계간 기타 추행죄의 입법 연혁 조사

1) 군형법의 제정과 추행죄 도입

1945년 8.15 해방 후 북위 38도 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시작되면서, 38도 이남에서는 미국 전시법(Articles of War)를 수용한 조선경비대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후에는 이를 수정한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이 1961년까지 시행되었다. 미국의 전시법의 체계와 규정을 번역하는 수준에서 채택된 조선경비대법은 건국 후 제정된 국방경비법에 상당 부분 수용되었다. 대한민국의 최초 군사 관련 법이었던 국방경비법⁵⁾은 미국법 체계를 따라 실제법과 절차법을 포괄하는 법이었는데, 제50조에서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다.

국방경비법 제50조 (기타 각종의 범죄) 여하한 군법 피적용자든지 자해, 방화, 야도(夜盜), 가택침입, 강도, 절도, 횡령, 위증, 문서 위조, 계간(鷄姦), 중죄를 범할 목적으로 행한 폭행, 위험한 흉기, 기구 기타 물건으로 신체 상해의 목적으로 행한 폭행 또는 사기 혹은 공갈을 범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해 처벌한다.⁶⁾

계간은 남성간의 성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군법회의는 계간을 범한 군인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었다. 국방경비법을 부

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평가⁷⁾되는 ‘군형법’은 1961년 5·16 쿠데타 후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추진한 군사법령 개편에 의해 탄생된 군인에 관한 실체형법으로 1962년 제정되었다. 벌칙 규정의 하나인 제92조에서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정형을 명문화하였다. 이 규정은 국방경비법에 영향을 준 미국 전시법 중 군의 성적 건강의 유지를 위한 제125조에서 기인한 것이라 추측된다.

2) 군형법상 추행죄의 개정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군형법은 총 15장 94개 조로 구성되었다. 이 중 군인의 성 관련 범죄에 관한 규정은 제15장 ‘기타의 죄’에 속한 제92조 ‘계간 기타 추행죄’가 유일했다. 군형법 제92조는 2009년 개정될 때까지 남성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위력에 의한 추행, 미수범 규정 등 법제 정비가 전무하던 시절,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함께, 군인 간 성 관련 범죄 처벌규정의 흠결을 보완하는 법적 근거로 중요한 기능을 해 왔다.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보호법익을 군내 성적 건강과 군기로 파악하면서 본 죄의 적용 대상을 군인으로 제한하고 비친교죄임을 명확히 하였다.⁸⁾ 군사법원도 항문성교인 계간 외에 구강성교, 성기 주무르기를 ‘기타 추행’으로 인정해 왔다.⁹⁾ 사인간의 추행에 관해 폭행 자체가 추행인

7) Ibid., 227-230.

8) 대법원 1973.9.25. 선고 73도1915 판결

9) 이경환, “군대 내 동성애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 「공익과 인권」 제5권 제1호, 67-68면 (2008). 군사법원에서 복무하는 하사관(익명요구)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중대장이 소속 중대원들의 젖꼭지를 비틀거나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성기를 때린 사안에서 중대 복도, 행정반 사무실에서 오후 시간이며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입에 비추어 건전한 군기를 해하는 비정상적 성적 만족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5) 한국 전쟁을 거치며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했고, 1962년 박정희 장군의 5·16 군사쿠데타 이후 성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중심으로 한 군사법령 개편 과정에서 군형법으로 대체되었다.

6) 박안서, “군형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 문제점”, 「군사지」 82 (2012), 222-224.

‘기습추행’ 법리가 대법원에 의해 채택¹⁰⁾되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해석으로 일반법원에 확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형법에서 이러한 법리 적용 자체에 문제가 없는 점도 ‘계간 기타 추행죄’가 법문언상 폭행, 협박의 입증을 요하지 않도록 한 점에서 기인한 것일 것이다.

2009년 국회는 군형법을 정비하면서 제92조를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강제추행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친고죄 및 결과적 가중범 규정을 신설하며, 계간 기타 추행죄(제92조의 5)의 법정형을 2년으로 상향하는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2009년 개정법률에서 ‘계간 기타 추행죄’(제92조의 5)의 적용 범위는 ‘폭행, 협박에 의하지 않는 군인 간 계간, 그에 준하는 추행’으로 축소되면서 법정형은 가중되었다. 이러한 개정에는 그간 판례상 인정된 해석, 군내 성폭력 증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사회의 요구가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표 1]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구법 제92조)와 형법 강제추행죄의 개정사

군형법 개정	1962년 - 2009년	2009년 - 2013년	2013년 이후
형법 강제추행죄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 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함 제297조의2[유사강간 ¹¹⁾] 제298조 강제추행(동일)

10) 김준호, “형법상 강제추행 개념의 해석 범위,” 『저스티스』 153 (2016. 4), 83-109(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399 판결을 시초로 파악)

11)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추행죄	제92조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부녀를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 준강간강제추행 제92조의4 미수범 제92조의5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 폭행이나 협박으로..규정된 사람 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 유사강간 죄 제92조의3 강제추행 제92조의4 준강간강제추행 제92조의5 미수범 제92조의6 항문성교 기타 추행 한 자는(이하 동일)
친고죄 규정	형법 친고죄 군형법 비친고죄(판례)	형법, 군형법 강제추행죄 친고죄(제92조의 5 비친고죄)	형법, 군형법 성범죄 모두 비친고죄로 전환

나아가, 2013년 개정된 군형법은 다시 제92조의 6을 개정하면서 동성애를 비하하는 ‘계간’ 대신 ‘항문성교’라는 용어를 도입하였고 대상을 ‘군인’으로 하였다. 또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고 남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고 유사강간죄를 수용한 2013년 형법 개정에 영향을 받아, 군형법은 ‘계간 기타 추행죄’ 뿐만 아니라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 규정(제92조의 8)을 삭제하고, 강간죄, 유사강간죄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은 군인 간 성범죄에 일반형법보다 군형법이 적용 되도록 했으며, 친고죄 삭제 규정은 군인의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의 피해자와 다른 성범죄의 피해자를 평등하게 대하도록 하여 평등권에 따른 위헌 논의를 제거하고 강력한 범죄자 처벌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962년 이래 적용되어 온 이러한 군형법상 성범죄 관련 규정들은,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인권의식 고양, 헌법재판의 확대와 개방적 성 풍조의 확대¹²⁾에 따라, 특히 추행죄에 대한 세 번의 헌법재판을 거치게 되었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분석

1) 헌법재판소 2002.6.27.선고 2001헌바70 결정(합헌)

(1) **사실관계:** 육군 제5군단 소속 상병 A는 ①2001.1. 초순 22:30 경 경기 연천군 소재 소속 부대 내무실 내 취침하려던 같은 부대 소속 일병 B의 속옷 속에 오른손을 넣고 그의 성기를 만지면서 좌우로 약 15분간 흔들었다. ②같은 해 5.초순 22:20 경 강원 철원군 강포리 소재 FTC 훈련장 막사 내에서 취침하려던 위 B의 성기를 10분간 만져서 각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이 사건 재판 중 A는 군형법 제92조 중 '기타 추행' 부분에 대해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01.9.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 청구 기각(다수의견¹³⁾ 7: 반대의견 2)

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12) 개방적 성 풍조로 인한 성적 가치관의 혼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견해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김태길, 『한국윤리의 재정립』(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287-288.

13) 윤영철,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성, 김효종 재판관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적 숙식 등 공동생활이 본질인 군대의 특수한 사정상 군대의 구성원들은 사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구성원들 간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엄격한 계급구조로 인해 상급자가 직접 폭행, 위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급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교섭행위에 연관될 개연성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군 재부의 성적 문란 행위가 만연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군 전투력 보전에 직접적 위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에 이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해 이 법률조항이 제정되었다.

추행으로 제목을 명시한 후, 개별적 구성요건해당행위로 '계간'을 예시하고, 그 바로 뒤 '기타 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통해 입법자가 규율하고자 하는 대전제는 '추행'이고 그 전형적, 대표적 행위로 '계간'을 예시한 것으로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였다.

추행죄의 입법목적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고 그 주된 보호법익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다. 따라서 '추행'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동시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이고, 그 대표적이고 전형적 사례가 '계간'이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군형법 피 적용자는 어떤 행위가 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계간은 추행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판단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구체적, 종합적 해석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법률적용자가 자의적으로 확대해 해석할 염려는 없다.

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등의 방법으로 '간음'한 경우를 '추행'한 경우와 일괄하여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2조를 고려할 때, '계간'과 '단순추행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분하지 아니한 입법을 자의적이거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재판관 송인준, 주선회의 반대의견

추행의 의미는 자체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나, 강제·비강제 여부, 추행의 상대방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불명확을 야기한다. 비강제에 의한 추행만을 처벌하는지 여부, 여성 간 추행 또는 이성 간 추행도 그 대상이 되는지가 애매모호하다. 또, 군인 상호간 은밀히 행해져 혐오감을 직접 야기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 군 공동사회이 건전한 생활과 군기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역형으로 규제함은 효율적 수단이 아니며 과도한 규제이다.

2) 헌법재판소 2011.3.31.선고 2008헌가21결정(합헌)

(1) **사실관계**: 부소대장 C는 2008.3.초 소속부대 독신 장교 숙소 3호실에서 이사를 도와주러 온 같은 부대 소속 피해자(20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눕게 하고, 2008.5.초순~6.4.경까지 30여 일 간 매일 20-30분간 부소초장실에서 피해자의 배, 엉덩이,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는 등의 추행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로 고소가 취소된 후 구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로 기소되었다.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1심 재판 계속 중 구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위헌제청 이유의 요지

가) 명확성 원칙 위배: 추행의 주체·상대방, 행위자들 간의 관계, 강제력 유무, 행위 장소 등에 관해 판단기준이 없음

나) 과잉금지 원칙 위배: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함은 '군 공동사회의 생활과 군기'를 보호하는 데 효율적 수단이라 할 수 없고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

다) 평등: 이성 간 성적 행위와 달리 동성 간 성적 행위만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

(3) 결정: 합헌 (다수의견 5¹⁴⁾: 반대의견 4)

가) 입법목적과 보호범의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 집단적 공동생활을 본질로 하는 군대의 특수 사정을 고려해, 군 내부 성적 문란행위를 차단하여 군의 전투력 보전에 직접적 위해 발생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 개인의 성적 자유 아닌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범의 보호를 위한 법규정이다.

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추행의 대표적 전형적 사례인 '계간'은 남성간 항문성교를 뜻하며, '기타 추행'은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에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 군기에 미치는

14)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이동흡, 민형기, 박한철은 다수의견(이동흡의 보충의견). 이에 대해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 목영준, 송두환)과 한정위헌의견(재판관 조대현) 있다.

영향과 그 시대 성적 도덕관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¹⁵⁾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군인은 어떤 행위가 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고,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해 구체적 종합적 해석기준이 제시되어 왔다.

다) 과잉금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 생활의 영위를 위해 이를 침해하는 모든 추행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한 것이 입법재량의 자의적 행사로 보기 어렵다. 안보상황과 징병제도 아래서 단순한 행정 제재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추행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

라) 평등권

헌법상 평등 사유가 아니며 엄격하지 않은 완화된 심사척도를 적용하면 족함. 상명하복의 수직적 인간관계로 구성되어 절대 다수 젊은 남성의 의무복무자들이 장기 폐쇄적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군에서 동성 간 비정상적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저히 높다. 동성 군인간의 성적 교섭행위를 방지할 경우 군내 엄격한 명령체계,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지며, 구성원간 반목과 분열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군의 전투력 보전에 직접적 이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4) 반대의견 (김종대¹⁶⁾, 목영준, 송두환)-명확성 원칙 위반

추행과 음란한 행위 구별이 필요하다. 성폭력처벌특별법과 형법은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과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를 준별. 본 추행죄는 강제성의 수반하는 행위만인지

15) 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2417 판결.

16) 재판관 김종대, 반대의견에 추가 보충의견을 통해, 군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군대에서의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명확성 원칙 준수를 촉구.

비강제적인 음란한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법원은 강제력 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도2222 판결)한다. 이는 보호법익과 가벌성, 비난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는 행위들을 같이 처벌하는 문제가 있다. 추행에 대한 강제성 입증 곤란, 또는 고소가 취소된 때 추행죄로 기소하는 것은 피해자 명예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실무 운용으로 멸각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

행위 정도에서 음란 정도가 어디에 이를 때 '기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음. 입법목적, 보호법익에 비추어 '동성 간 군영 내의 음란행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5) 한정위헌 (재판관 조대현)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군영 외의 추행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보호 목적을 넘어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침해한다. 군영 내외를 불문한 군인간 추행행위는 군기 유지를 위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3) 헌법재판소 2016.7.28. 선고 2012헌바258결정(합헌)

(1) **사실관계:** 선임병 A는 2011.10. 초순부터 12.13.까지 부대 생활관, 해안초소 대기실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총 13회 추행하였다. 보통군사법원은 2012.2.22.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항소심 계속 중 헌법소원 심판청구

(2) **결정:** 합헌(다수의견 5: 반대의견 4인)¹⁷⁾

17)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창중, 안창호, 서기석이 다수의견에 찬성한 반면,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는 반대의견을 제시함.

(3) 판단

2009년 법개정 제92조의 2 대상 군인 확정, 제92조의 3 준강제추행죄 신설

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계간은 남성 간 항문성교 의미, 폐쇄적 단체생활을 통해 동성이 이용하는 화장실, 샤워실 등을 공동 이용하는 군대에는 비정상적 동성 간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 보호를 위해 동성 군인 사이 성적 행위에만 적용(시간, 장소에 관한 제한 없음)되어야 한다. '그 밖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과잉금지 위반 여부

안보상황과 징병제도 하에서 단순 행정상 제재만으로는 추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움, 추행 관련 범죄와 비교할 때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동성 사이 비정상적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 간 성적 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방지할 경우 군의 전투력 보전에 직접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군내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의 반대의견-명확성 원칙 위반

가) 강제성 필요 여부의 불명확성

강제력에 의한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과 강제성이 없는 선량한 풍속 침해하는 행위인 음란한 행위를 준별하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도 강제력 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추행행위도 '기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보호법익, 가발성 및 비난가능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강제력 있는 추행'과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음란 행위'를 군형법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동등하게 처벌하는 불합리를 낳는다.

나) 행위 정도의 불명확성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에 성행위가 어느 정도의 음란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지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다) 행위 객체 및 장소의 불명확성

남성 간 추행, 여성 간 추행, 이성 간 추행 대상 모호, 군대 내의 일체의 추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입법취지상 군영 내의 음란 행위로 한정해야 할 것이나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다. 합의에 의한 음란행위의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군영 내의 행위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공적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에 의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벗어난 과잉처벌이다.

4.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의 범죄화 유지의 필요성

1) 보호법익

(1) 군 공동생활 내 건전한 생활 및 군기

가) 성적 접촉 및 후임병 추행 우려의 차단

군 내부에서 동성간 성적 접촉과 성행위는 폭행, 협박이 수반되

는 경우도 있으나, 상급자, 선임병의 은근한 접근, 다른 형태의 혜택 제공에 대한 반대 급부적 요청 등 관계적인 부분에서 시작된다.¹⁸⁾ 하급자, 후임병이 1년 이상 단체 생활을 하며 매일 지속적 관계를 맺게 되는 군내 단체생활에서 상급자의 집요한 요청과 접근¹⁹⁾을 단호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 성폭력상담소의 군내 성폭력실태조사(2004)에서는 상급자 또는 선임병에 의한 남성 간 성폭행의 신고율이 4.4%로 극히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으레 있는 일이라 문제되지 않아서’(64%)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남성 간 성추행이 범죄통계상 나타나는 수준이 아닌 그 수치의 수십 배 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신고를 꺼리는 원인으로 ‘상관에 보고해도 소용없어서’(16%),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9.3%)을 꼽고 있다. 이는 군 형사절차에 대한 불신이 상당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²⁰⁾

상급자의 집요하고 은밀한 성적 접촉을 수락한다고 해도, 이는 건전한 전우애와 협력의 증진이 아니라 성욕 만족을 위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결국 일방 당사자가 제대하게 되면, 상대였던 하급병(후임병)은 다른 하급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부적절한 성접촉을 시도하게 된다. 엄격한 계급사회인 군에서 새

18) 10년간 헌병장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현역 군인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군형법 사건 처리 경험 중 하급자에 의한 상급자 추행사건은, 반대의 경우(상급자에 의한 하급자 추행)가 빈번함과 대조적으로,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추행사건의 특징은 군내 폭행 중 일정 부분 상관 폭행 사건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영내 폭행 사건과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19) 다른 형태의 혜택 제공에 대한 반대 급부적 요청 등 관계적인 부분에서 시작되어 폭행, 협박의 증거가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20) 국가인권위원회, “군내 성폭력 실태조사,” 「2004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보고서」, 87-90.

로운 성 접촉 대상을 같은 부대의 하급자, 후임병에서 찾게 되는 수가 많은데, 이 때 폭행, 협박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위계, 위력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며 이를 거절하는 경우 기합,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대우를 경험하게 된다.²¹⁾ 이러한 성접촉은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입대한 동성애자만이 아니라 이성애적 성향을 가진 병사들에게 통제된 군 내에서의 성적 욕구의 분출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는 후임병이 고생하다가 핍박을 못 견디고 자살하거나 트라우마가 생겨 분리, 또는 현역복무 부적격으로 제대하는 경우도 있다.²²⁾ 이를 방지하게 되면 총기 사고 또는 자살 등으로 발전되어 심각한 기강 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 있다.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성관계 대상자가 일정 기간에 여러 명인 경우도 존재한다.²³⁾ 무질서한 성적 접촉은 군의 건전한 사기 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대 내의 기강 해이, 성추행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미국 통일군사법전(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UMCJ)의 일반적 군기저해행위 벌칙 규정인 제134조를

21) 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면서 위계질서와 명령 복종을 강요하는 식으로 행해지는데, 그 피해를 입은 하급자가 상급자가 되면 다시 가해자로 자신의 하급자에게 추행을 하여 악순환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 49, 65면(가해자 중 피해경험의 비율은 83%에 달함)

22) 고재열, “근적근적한 고참의 눈길 신병은 밤이 두렵다,” 「시사저널」 561 (2000. 7. 27), 46-48(부대 내 악습으로 이어지는 고참의 성추행으로 인해 자살 또는 사고사한 병사들 사례를 언급). 예편한 김일생 육군중장의 증언에 따르면, 남성 간 성추행, 성폭행 피해자의 피해 후유증은 극심하여 모든 남성 혐오증(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으로 발전하여 현역복무 부적격으로 분리시켰다고 한다. 이성간 성추행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다.

23) 육군법원 2017.5.24. 선고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A대위(군의관)가 성병에 걸린 상황에서 하급자 여러 명과 영내 숙소에서 각각 동성 간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은 사건).

통해 간통을 처벌해오고 있으며²⁴⁾, 또 제125조²⁵⁾를 통해 자발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성 간 성행위를 2012년 말까지 처벌토록 명기해 왔었다는 점은 군 기강을 저해하고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례로 참고할 만하다.

나) 미국 군대 DADT 정책 폐기와 UCMJ 제125조 개정

(가) 남군 성폭력 증가 및 LGBT 군인 처우 갈등

실제로 미국은 성소수자 입대 금지 원칙 하에서 사실상 묵인을 취한 DADT 정책(Don't Ask Don't Tell 정책)이 2011년 전면 폐지되고 성소수자 입대, 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 미국 국방부의 복무군인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DADT 폐지 이듬해인 2012년 한 해 성폭력 피해 군인 26,000명 중 남성 군인피해자가 여성군인 피해자 수보다 많음을 보여주었다.²⁶⁾ 한편, LGBT 군인 공동체를 명시적으로 승인한 미 국방부는 남성군인에 대한 성폭력, LGBT 군인들에 대한 처우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⁷⁾

(나)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금지와 퇴역 장성의 성도덕 문란 예측

24) 제134조는 일반규정(General Article)으로 UCMJ의 구체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군의 불명예를 야기할 정도의 행위로 군의 사기와 훈련을 저해하는 군기문란행위를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연방법률상 화폐위조, 연방정부에 대한 사기죄뿐만 아니라 간통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지침을 두고 있다. 즉, 군인 자신 또는 상대방이 혼인한 상태에서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 군대내 혼련과 군기(good order)에 저해를 가져오거나 군내에 불명예를 가져오는 것을 간통죄로 규정하여 군법회의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U.S. v. Paul A. Smith, 18 M.J. 78

25) 제125조는 수간도 같이 처벌해 왔는데, 후술하듯이 2013년부터 소도미(동성간 성행위)죄가 위력 또는 비동의 성행위죄(제1항)로 개정되면서 수간은 제2항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대해 4와 5를 참고하라.

26) Dave Bohon, Homosexual Assaults Becoming a Problem in U.S. Military, DoD Survey Finds, May 23, 2013 (<http://www.thenewamerican.com> 검색)

27) James Dao, "As 'Don't Ask' Fades, Military Faces Thorny Issues," *The New York Times*, May 28, 2010; Lamothe, Male on male sexual assault in the military: Overlooked and hard to fix, investigation finds, *Washington Post*, March 20, 2015.

가장 문제되는 것은 성정체성이 다른 트랜스젠더 군인들이다. 하나의 성별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 화장실, 샤워실 사용에 다른 생물학적 성별을 가진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보건비용을 이유로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랜스젠더 군인의 미군 내 복무 금지를 결정하기도 하였다.²⁸⁾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 국방부가 LGBT 군인들의 복무를 공식 승인하는 DADT 정책을 폐기할 당시 퇴역 장성은 이로 인한 당장의 변화보다는 10년 이후 군대 내의 성도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한 바 있다.²⁹⁾ 이에 비추어 보면 DADT 정책 폐기의 미군 사기에 대한 영향은 좀더 예의주시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다) 캐나다 군인 자살률 증가

1992년부터 동성애자를 군내에 수용했던 캐나다 군에 대한 조사(2000-2001년)는 '군 생활과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군인들의 의견에 따라 동성애자 군인 수용이 군 전력에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³⁰⁾ 그러나 아래 그림 1에서 보듯, 전 국민의 자살률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캐나다 군인의 자살률이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증가하고 있다.³¹⁾ 이러한 자살률 통계는 캐나다 군이 동성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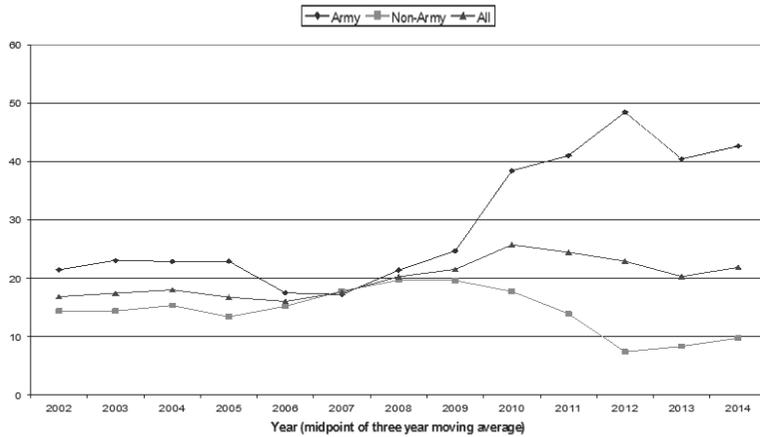
28) "Trump to ban transgender U.S. military personnel, reversing Obama," *Reuter International*, July 27, 2017.

29) "'Gays' in military 'reducing morale': Lt. Gen. Boykin: Repeal of 'Don't Ask, Don't Tell' policy 'disrupting brotherhood' of troops," 2012.9. (<http://www.wnd.com>)에서 검색 가능.

30) Belken & McNicol, "Homosexual Personnel Policy in the Canadian Forces," *International Journal*, 73-88 (2000-2001). 그러나 Belken & McNicol의 논문에서는 성추행 문제, HIV/에이즈 감염의 확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31) Veterans Affairs Canada (VAC), "Suicide in Canadian Armed Forces Members & Veterans: a Canadian Perspectives, Conference on Military Social Work: Violence

자를 수용하고 동성애적 성행위를 수용한 시점(1992년)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 동성애자들의 높은 자살률 통계³²⁾에 비추어 보면, 군내 LGBT 진영 활동을 전면 수용했던 시점 이후로 군 내 정신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야기한다. 일반인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던 캐나다 군인들(주로 남성)의 자살률은 2007-2012년 급증하였다(그림1 참조).³³⁾



[그림 1] 캐나다 군인과 민간인의 자살률 비교 (2002-2014)³⁴⁾

대한민국은 지원병 중심인 미군, 캐나다군과 달리 징병제로 유지되며 대다수 군인들이 공동합숙의 단체생활을 하고 있다. 핵개발과

and Suicides among Active Military Forces,” (2016), 28-29, 2016, presentation, 4. 여기서 캐나다 군인의 자살률 증가는 우울증, 정신병, 중독, 교통, 신체 건강, 재정 등 복잡한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32) Wendy B. Bostwick, Ilan Meyer, Frances Aranda, Stephen Russell, Tonda Hughes, Michelle Birkett & Brian Mustanski, “Mental Health and Suicidality Among Racially/Ethnically Diverse Sexual Minority Youths,” July 2014 (미국의 동성애 청소년의 자살 시도율 22.8%는 이성에 청소년의 자살시도율 6.6%에 비해 3배 이상 높음을 제시)

33) VAC, 위 프리젠테이션, 18 (육체적 건강이 주된 문제로 정신적 문제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설명).

34) VAC, 위의 발표문, p.14.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지속하는 전 세계적 위협인 북한에 대처하기 위해 높은 사기와 도덕성이 유지되고 국민들의 적극적 국방 수호 의지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군이라는 공동사회 내의 건전한 성 도덕의 유지를 위한 법제는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다. 특히 ‘도덕의 등뼈’로서의 형법은 핵심적 성 도덕 영역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³⁵⁾ 사회 내의 위협감이 높은 부분에는 적용되어야 하며, 군내의 성추행과 은근한 성적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군형법상 추행죄는 필수적이다.

(2)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군내의 성도덕과 관련해 군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는 상급자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헌법상 특수권력관계 내의 기본권 제한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훈련 중 또는 영내에서는 군복무와 단체생활에 따른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군대의 상하급자 간 위계질서는 일반 사회의 직장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엄격하다. 이는 상관의 명령 불복종시 군형법상 명령불복종죄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으며, 상급자에 대한 폭행, 모욕은 상관폭행, 모욕죄로 형사처벌하고 있다. 군형법은 상급자에게 권력을 부여하지만 이 권력이 정당하게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하급자의 복종의무를 지운다. 절대 다수 젊은 남성들이 공동 훈련 및 합숙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대에서는 이렇게 보호되는 계급적 위계질서 속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일들도 벌어진다. 군내의 고질적인 상급자의 하급자 폭행·협박에 대해 반의사불벌을 폐지한 영내폭행·협박죄

35) 고문헌 외 8인 공저, 『현대의 법과 법학』 (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2014), 44.

의 신설³⁶⁾(제60조의 6)을 통한 필벌의지에서 보듯이, 상급자도 하급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무관용의 형사처벌이 군형법의 현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민간 영역에서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의 보호에 대한 여론 관심에 따라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고 형사처벌의 강화뿐만 아니라 신상 공개, 전자발찌 착용, 약물 투입과 같은 사회방위적 보안처분이 시행되고 있다. 전술한 바 군형법도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형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왔음³⁷⁾에도, 군내 성폭력법에 대해 민간성폭력법에 적용되는 보안처분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 민간인보다 더 엄격한 수준의 제약이 군인에게는 헌법적으로 승인되고 있음³⁸⁾을 고려하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도 적어도 영내영외에서는 군기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엄격한 상명하복관계의 군대 내에서는 상급자의 협박이나 폭행의 입증이 쉽지 않으며, 상급자에 의해 동성애적 성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³⁹⁾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군내 성폭력 피

해자 설문조사에서도 폭행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경우(76%)가 있는 경우(23.7%)보다 3배 정도 많았다.⁴⁰⁾ 상급자에 의한 폭행, 협박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반대급부의 지급을 빙자하거나 은근하게 성접촉이 행해진 경우는 ‘위력·위계에 의한 추행죄’(제 92조의 6 개정안)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 성폭력, 성희롱 교육의 강화를 통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에 대한 민간의 높은 보호 의식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성접촉으로부터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하는 경우에 대한 형사제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논의를 ‘비동의추행죄’로 수렴해 볼 수 있다.

(3) 군내 보건과 신체적 건강의 유지

또한 군대 내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남성 군인 간의 성행위의 경우는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자 모두-특히 수동적 항문성교자-에게 보건적 유해성을 매우 증가시킨다. 항문성교는 남성 성기와 상대방의 항문이 결합하게 되는데, 이 항문성교는 성교자 모두에게 다양한 염증과 질병의 유발 가능성을 높인다.

먼저, 항문으로 성교를 하게 되는 사람(수동적 항문성교자)은 항문 부위 근육, 세포조직에 물리적 손상-직장점막, 항문관 상피 손상, 넓은 범위의 열상 발생-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항문성교가 지속되는 경우 변실금(대변조절능력의 약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⁴¹⁾ 헤르페

36) 2016.5.29. 법률 제14181호로 일부 개정된 군형법은 제60조의6(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신설하여 반의사불벌을 인정한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37) 2009.11.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에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강제추행죄(제92조, 제92조의 2, 제92조의 3)와 미수범(제92조의 4)을 신설하였고, 2013.4.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유사강간죄를 신설하였다.

38) 특수전사령부 소속 중사가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상관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의 파괴 위험성을 근거로 군인이 이 같은 모욕적 발언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적용은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16.2.25. 선고 2013헌바111 결정.

39) 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2001헌바70 결정(판례집 14-1, 605)과 헌법재판소 2011.3.31. 선고 2008헌가21결정의 다수의견(판례집 23-1상, 190)에 명시되어 있다.

2011년 결정에 대한 이동흡 재판관의 보충의견(191면)에도 언급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2004.3. 72면 이하도 마찬가지이다.

40)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 81-82면

41) 항도연, “항문성교, HIV 감염 및 성병 발생 가능성 높다, 에이즈 이슈,” (서울: 대한

스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로 인한 항문 염증, 항문 열창(anal fissure, 열창) 및 직장염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은 동성애 환자 1/3에서 성병과 함께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⁴²⁾ 거대세포 바이러스(Cytomegalovirus) 감염으로 인한 직장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에이즈환자에게 망막염과 함께 평생질환이 될 수 있다.⁴³⁾

항문 염증, 근육 손상의 정도가 심하면 회복 불가능한 괄약근 파괴, 대변유출, 항문암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한다. 특히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이하 에이즈)을 야기하는 바이러스(이하 HIV) 감염자에게 항문암의 발생 빈도가 높으며, 그 원인을 항문성교로 전파되는 인간유두종 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virus)에서 찾는 연구⁴⁴⁾도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항문, 직장의 상처 난 점막을 통해 정액 내 바이러스가 인체 내로 들어감으로써 매독, 포진 등 성병과 HIV·에이즈의 감염율을 현저히 높인다. 매독, 포진 외에도 곤지름이라 불리는 첨규 콘딜로마(condyloma accuminata), 임질, 성병림프육아종의 성병에 감염될 수 있으며⁴⁵⁾, 특히 HIV의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 항문성교가 에이즈 발병 확률을 높인다는 점은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에이즈예방협회, 2005), 26-27.

42)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에이즈진료가이드, 항문성교가 HIV감염의 중요 원인 중 하나, 분과별 에이즈: 대장항문외과, 2005, 20-23면.

43) 김홍빈 외 8인, “에이즈환자의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30(4) (1998), 359-364. 대한민국 성인의 약 95%가 거대세포 바이러스 양성이어서 특히 유의해야 함을 지적.

44) 이창섭 외 9인, HPV에 감염된 에이즈 환자에게 발생한 항문염 예, 감염과 화학요법 제37권 제1호, 2005, 50-54면.

45) 향도연, 앞의 글, 27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데이터를 정리한 아래 [표 2]를 보면 전술한 ② 매독에 감염된 일방(능동적 항문성교자, 남성)이 HIV에도 감염된 후 4주 내 콘돔 없이 성관계에 한 때의 수동적 항문성교자의 HIV 감염 위험도(25.81%)는 수동적 질 성교자 (여성)의 위험도(1.5%)에 비해 17.25배 높다. 역으로 수동적 항문성교 자가 HIV에 감염된 경우 삽입하는 남성의 HIV 감염 위험도(2.06%)는 여성이 HIV 감염 시 삽입하는 남성의 위험도(0.75%)보다 2.75배 높다. 결국 항문성교 당사자의 감염율이 질성교 당사자들보다 높다. ③ 항문성교를 하는 양자 모두 임질과 같은 성병에 감염된 상황에서 삽입하는 남성이 HIV에 감염된 후 4주 내에 콘돔 없이 수동적 항문성교자와 성교하는 때에는 그 수동적 항문성교자의 감염률은 68%로 치솟는다. 같은 상황의 여성의 감염률(3.97%)에 비해 17.13배 높은 수치이다.

[표 2] 감염자와 1회 성관계로 인한 HIV 전염 가능성 예측⁴⁶⁾

성행위 양태별 분류 (상대방)	①성병 없이 HIV에만 감염된 일방이 5주 이후 콘돔 없이 성관계 (10,000 접촉시 상대방 감염 위험도)	②성병 감염된 일방이 HIV에도 감염된 후 2-4주내 콘돔 없이 성행위한 때(10,000 접촉시 상대방 감염 위험도)	③양자 모두 성병 감염되고 일방이 HIV 감염 후 2-4주내 콘돔 없이 성행위한 때 (10,000 접촉 시 상대방 감염 위험도)
수동적 항문성교자	138	2,581	6,840
능동적 항문성교자 (남성)	11	206	546

46) Patel P, Borkowf CB, Brooks Jt, et al, “Estimating per-act HIV transmission risk: a systematic review,” *AIDS*, 2014. 1회 성관계에 따른 전염율 예측이며, 수차례 성행위 시 예측치가 훨씬 더 높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수동적 질 성교자 (여성)	8	150	397
능동적 질 성교자 (남성)	4	75	198

[표 2]의 예측치를 살펴보면,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고 있는 항문성교시의 에이즈 감염확률인 0.1~1%⁴⁷⁾은 매우 단선적인 발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HIV 감염도를 줄이는 방법과 그 부작용까지 고지하는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와 비교된다.⁴⁸⁾

미국 RAND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성교 형태보다는 한 사람이 같은 조직 내 여러 성적 파트너와 단기간에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맺고, 이 성적 파트너가 동시에 다시 여러 파트너와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맺는 것을 HIV 감염과 전파의 주된 요인으로 보면서 남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 역시 안전하지 않는 성관계-항문성교로 질성교보다 17~18배 HIV 감염률이 높음을 지적을 하고 있다.⁴⁹⁾

47) [표 2]의 ① 항문성교의 양당사자가 모두 성병이 없이 5주를 넘겨 성관계를 한 경우, 능동적 항문성교자의 11/10,000(0.1%)과 수동적 항문성교자의 138/10,000(1.38%)을 개략적으로 표현한 수치에 불과하다.

48) 구체적으로, HIV 감염 위험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콘돔 착용시 감염 위험도는 1/3~1/5 정도 줄어드나, 콘돔 착용이 HIV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하며, 잘못된 사용이나 벗겨지는 경우 또는 콘돔이 찢어진 경우가 존재함에 주의할 것을 미국질병관리본부는 고지하고 있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IV Risk Reduction Tool, Know the HIV Risk (<https://wwwn.cdc.gov/hivrisk> 에서 검색)

49) RAND, *Sexual Orientation and U.S. Military Personnel Policy: An Update of RAND's 1993 Study*, p.202-206 (2011) (남성 동성애 그룹이 남군의 5.1%에 불과하여 HIV 감염률이 매우 높고 전체 17%를 차지하는 흑인 군인에 비해 심각한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라 전망하며, 여성간 도구 이용 성관계만을 하는 경우 HIV 감염률은 0에 근접할 정도로 매우 낮다고 지적) 그러나, 여성도 양성애자로 동성·이성 모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HIV 감염률은 높아진다 (p.209). 우리는 미국과 달리 HIV감염률이 높은

성적지향별 분류에서 남성 동성애와 양성애가 가장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를 하는 분류로 지목된 것도 다수와(또는)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서 나온 결과이다.⁵⁰⁾ 미국 지원병의 군 입대 시 행하는 HIV 검사와 함께, 1~2년 주기적인 HIV 검사와 자발적 신청시 HIV검사와 약물치료를 병행 실시하여 HIV 감염 시 제대토록 할 것과 콘돔 이용하도록 교육할 것을 이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⁵¹⁾ 신규 HIV 감염자의 92-5%가 남성이고 항문성교의 파트너가 2명 이상인 사건이 다수인 우리의 상황에서 이러한 형태의 철저한 HIV 검사가 없다면 남성 간 자발적 성관계의 허용은 HIV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 군대 내와 같이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제약된 상황에서 성접촉 합의 요구는 남성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에 관한 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안전한 성행위를 위한 보건의적 지침이 무시되어 군 장병 내 보건의적 유해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⁵²⁾

추가적으로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전면 허용으로 B형간염 감염자 수가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⁵³⁾ 이러한 항문성교의 보건의적 유해성을 나타내는 연구결과물은 항문성교를 전면 허용하는 경우 군대 내 보건의적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군대 특정 인종을 갖고 있지 않다.

50) RAND, 앞의 보고서, p.208-209.

51) RAND, *Sexual Orientation and U.S. Military Personnel Policy: An Update of RAND's 1993 Study*, p.206-212 (2011) (남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 34%가 지난 12개월 내 콘돔 없이 두 명 이상과 성관계를 한다는 2006년 민간 보고서를 인용, 또 군인 중 44%만이 마지막 성관계시 콘돔을 이용했다는 2008년 국방부의 군무원 설문조사 결과도 인용)

52) 이상현, “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 연구: 법제사, 법익론 및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 36집 (송실대 법학연구소, 2016), 21-23.

53) Livia M. Villar 외 9인, 앞의 논문 p.287 (구강·항문 성교가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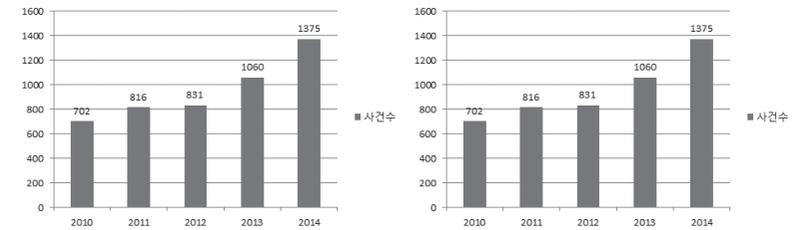
2) 법익 침해의 빈도, 결핍정도 및 위협감정

사회적 일탈행위의 범죄화를 위해서 법익 침해의 빈도, 결핍정도, 위협감정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법사회학 이론⁵⁴⁾이 있다. 전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헌법상 인정하고 국민개병제를 채택하여 성인 남성에게 대한 군복무의 의무 이행을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제를 통해 국민들은 평등의 실현과 합리적 범위의 자유의 제한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 관련 법제는 이러한 국민의 희생 위에 국가안보를 실현하고 군인들의 안전한 군복무를 위한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 국방의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군 조직 기능을 위해 법적으로 인정된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상급자의 하급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해 하급자가 느끼는 위협감은 높다. 성추행의 피해자들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며,⁵⁵⁾ 일부 피해자들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경험하며 심하면 자살을 하기도 한다.⁵⁶⁾ 이는 여군, 남군에 대한 성폭력, 성추행 모두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계급의 승진에 따라 자신들의 피해를 하급자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가해자의 역할을 하는 성추행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었다.⁵⁷⁾ 가해자의 성추행은 습관성, 반복적 행위로 나아가고 있음⁵⁸⁾에도 성추행에 대한 신고가 군사법절차상 엄벌로

54) Winfrid Hassemer, *Theorie und Soziologie des Verbrechens*, 1980, 130
 55) 박기호, 이정호 기자, 이용호 “군내 갑질·성폭행, 군 사기 떨어뜨리는 이적행위”, 뉴스1, 2017. 8. 1.
 56) “해군 대령 준장간 혐의로 긴급체포…해마다 증가하는 여군 성폭행,” MBN, 2017. 5. 25. 피해자 대위는 자살하였음을 보도.
 57)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성폭력 실태 조사」, 2004, 6면. 설문조사의 유효응답 671명 중 가해경험은 47명이었는데, 이 중 피해를 받고 가해를 한 병사가 39명으로 가해병사의 약 83%가 피해자였다.
 58)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조사, 6면 (응답자 671명 중 피해 경험자는 103명이었는데, 1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법익에 대한 보호 수단의 결핍 정도도 높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군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666건인데 이중 36.5%에 해당하는 1136건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⁵⁹⁾ 이러한 통계는 군 사법당국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2] 일반 사회와 군내의 동성 간 성폭력 사건의 증가 비교



(a) 일반 사회 동성(同性) 간 성폭력⁶⁰⁾ (b) 군내 동성 간 성폭력⁶¹⁾

(a) 사회에서의 동성 간 성폭력 증가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서 14년 1년간 77%가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 (b) 군내의 동성 간 성폭력 사건 수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244% 증가하여 사회에서보다 현저히 높음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군내 성추행 사건은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암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5. 범죄 구성요건의 구체화

회는 9명에 불과하며, 2~4회가 42명(40.8%), 5~6회가 13명(12.6%), 수시로가 31명(30.1%)으로 전체응답자 83%가 2회 이상 지속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
 59) 이종선 기자, “레드라인 넘은 군 성범죄,” 『국민일보』 2017. 9. 6.(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방부 등 제출 자료 보도)
 60) 2015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61) 2015년 국정감사자료 (김광진 의원실)

1) 주체와 객체: 군인과 군무원 간

절대 다수 젊은 남성으로 구성된 군대에서 동성 간 성폭력 내지 성접촉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일반 사회보다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반면, 여군의 증가와 함께 이성 간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 성희롱이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위력에 의한 추행죄 및 비동의 추행죄의 신설을 통해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 간에도 하급자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강제적 폭행, 협박이 아니어도 위계질서가 형성된 지속적인 관계를 이용한 끈질기고 은근한 성추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의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도 명확한 반대 의사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성적 행위가 있다면 추행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장소

군인 간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범죄로 사생활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폭력에 해당하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위력에 의한 추행, 비동의추행은 군영 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가칭 영내음란행위죄

다만 상명하복 관계에서 존재하는 자발적 합의에 의문이 들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성적 행위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장소적 제한을 둘 수 있다. 군영 내는 합숙 내무반 생활을 하며, 군사업무와 훈련을 수행을 하는 장소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사생활의 자유는 제한되며, 이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역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육체적으로 젊은 다수의 병사들

이 군대 내에서 건전한 성적 문화와 병영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항문성교, 구강성교, 유사성행위가 규제되어야 하며, 이는 병사들이 연인관계에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병영 내와 군사시설은 훈련, 군 복무 및 공동 합숙 생활을 위한 곳으로 성적 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나아가, 군영 내의 비정상적 성행위는 이성간의 경우에도 엄격한 규율 하에 처벌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⁶²⁾ 심지어 군인 부부라 하더라도 영내 비정상적 성관계를 통해 군의 건전한 업무 수행과 군기를 저해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⁶³⁾ 한편, 영내에서 외부인과의 자발적 성행위의 형사처벌은 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군인에 대한 징계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군인 상호간 적용될 군형법상 추행 관련 죄의 적용대상에서는 배제된다.

(2) 영외 음란행위 처벌 문제

예외적으로 자발적 합의가 전제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영외'에서의 성적 행위는 사생활의 자유로 파악하는 주장⁶⁴⁾이 제기되고 있다. 군인이라도 군영 외의 사적 생활 영역에서, 성매매나 일반 형사법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범죄로 규정할 만한 비난가능성, 일반인의 위협감정, 법익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성행위로 인한 군기 저해와 군인의 사생활 보호의 정도에 있어서

62) 조현호, "군 성행위 모두 처벌"에 "군인부부까지 처벌하지", 「미디어오늘」 2013.4.25.

63) 다만 군기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 횡수, 장소를 고려하여 군검찰관 업무지침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기준을 정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복무규율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는 여전히 별도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64) 헌법재판소 2016.7.28. 선고 2012헌바258결정의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의 반대이견18면을 참조하라.

군영 내와 군영 외의 행위가 차이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영외 성행위라도 군기 저해에 영향이 있고 보건상 유해성이 높아 건전한 군 생활 저해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다. 일반인의 위협감정, 비난가능성이나 병사 기본권 보호의 형사정책 측면에서 '영내'로 합의에 의한 음란행위 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영외의 비정상적 성행위, 음란성이 있는 성행위에 대한 군인 복무 규율상의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육군 규정(Army Command Policy) 600-20은 장교와 병사 간 개인적 친교(fraternization)에 관해 일정한 사항을 금지시키고 있다. 금지된 행위에는 연애(dating)가 있으며, 상관은 규정 위반 시 상담, 견책, 중단 명령, 재배치 등의 명령 재량을 가진다.⁶⁵⁾ 또한, 장군은 적절한 훈련과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차단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광범위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이 대응에는 전술한 상담, 견책, 중단명령, 재배치 외에 비사법적 처벌, 부정적 평가보고서, 양자 분리, 재복무 금지, 진급 거절, 강등, 군법회의 회부를 포함한다.⁶⁶⁾ 즉 행정적 제재 형벌 제재를 받게 할 수 있다. 영외 군기 문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영외 군기 문란 행위에 동성 간 성행위, 간통과 음란행위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미국 UCMJ 제134조가 군기 저해 행위에 적용되는 일반규정(general article)으로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면서 간통의 처벌 근거 규정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명확성 위반을 문제 삼는

65) 혼인 전 연애의 증거가 있는 경우 결혼하더라도 교제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입대한 병사가 다른 입대한 병사와 연애관계에 있다가 장교 진급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연애관계를 중단하거나 프로그램 시작 시부터 1년 내 또는 장교 진급 전에 결혼해야 함을 규정한다. U.S. Army Command Policy 600-20 4-14 c.(2)(a)

66) U.S. Army Command Policy 600-20 4-14 f.

위헌심판을 극복해 온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⁶⁷⁾

영외에서의 성적 행위가 군형법의 적용 영역에서 배제되더라도 군인 상호 간의 관계인 경우 일정한 복무규율에 따른 제한, 그리고 위반 시의 징계가 뒤 따를 때 군 복무에서 위계질서가 바로 설 수 있다.

3) 행위: '계간 기타 추행'의 기능과 입법적 개선

(1) '계간 기타 추행죄'의 성폭력 억제 기능

군형법상 추행죄가 비친고죄로 해석·집행되어 왔기에, 피해자의 고소 취하지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했던 군검찰의 실무는 그 동안 성폭력범죄에 친고죄를 두고 있었던 법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최소한의 정의 실현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 2013년 형법, 성폭력법상 친고죄의 폐지의 법개정에 따라 군형법 역시 친고죄를 폐지하는 법개정을 단행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폭행, 협박의 입증에 곤란한 경우에 '계간 기타 추행죄'로 기소했던 실무 역시 위력에 의한 추행죄, 비동의추행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존의 법제 상황을 고려할 때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해 긍정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지난 50 여 년간 군내 성폭력 및 성도덕 유지를 위한 근거법규로 기능해 왔다.

1953년 형법전에 강제추행죄(제298조)가 도입된 이래 일반 사인 간의 '추행', 즉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의 감정을 야기하는 행위'의 적용 범위가 대법원판례에 의해 확대되어 왔다. 일반인에 대

67) 제134조는 일반규정(General Article)으로 UCMJ의 구체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군의 불명예를 야기할 정도의 행위로 군의 사기와 훈련을 저해하는 군기문란행위를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10 U.S.C.A. 934. UCMJ Art. 134 (General article, 이 규정에 관해서는 Robinson O Everett, Article 134,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A Study in Vauguess, Duke Law Scholarship Repository vol.37, 142-161 (1958-59) <<http://scholarship.law.duke.edu> 검색)

해서 '강제 키스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본 1983년의 대법원 판례⁶⁸⁾를 필두로, 갑자기 여성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의도적으로 만지는 소위 기습추행(奇襲醜行)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으며,⁶⁹⁾ 교사가 남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고 있다.⁷⁰⁾ 시민 사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식 확대, 민주화된 정치체제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엄중한 처벌의 요청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피해자보호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으로 법제화되어 집행되고 있다.⁷¹⁾ 1963년 규정된, 군인간 성폭력에 대한 유일한 처벌 조항이었던 '계간 기타 추행죄'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강제추행죄와 미수범 규정을 신설(2009년 개정)하고,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2013년 개정)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성적 수치심과 혐오의 감정 야기의 판단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형법 제298조의 판시는 세분화된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의 실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는 현재

68)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399 판결.

69) 수원지방법원 2008.6.10. 선고 2008노23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10.17. 선고 2014고합24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1.8. 선고 2014고합16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12.17. 선고 2014고합669 판결 등. 이러한 판례 확대를 수용해 강제추행에 관한 형법학계의 개념 정의를 객관화하고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자는 주장으로는 김준호, "형법상 강제추행 개념의 해석 범위", 「저스티스」 153(2016), 95-99면.

70)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6791 판결 (교실에서 교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4회에 걸쳐 만졌다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 김준호, 앞의 논문, 88면 각주 22를 참조하라.

71) 박상기 외 5인, 「형사특별법론 5대 형사특별법」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609-65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과정과 문제점을 지적).

의 실무상 추행에 해당된다. 사전 폭행, 협박이 없는 '기습추행'은 폭행의 입증이 필요한 제92조의 2 강제추행이 아닌 '기타 추행'(제92조의 6)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⁷²⁾

(2) 추행과 음란행위 구별에 관한 평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과 '자발적 합의'에 의한 '음란행위'의 구별에 대한 헌법재판소 반대의견의 지적은 법이론상 존중할 만하나,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군내의 상명하복 위계질서에 비추어 실제적인 정의실현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엄격한 상명하복 시스템에서 진정한 합의에 대한 이러한 의문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은 반의사불벌죄로 유지되어 왔던 영내폭행죄를 가중처벌하면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2013년 군형법 개정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의 보장에 대한 증가하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친고죄의 폐지로 성범죄로서의 처벌 필요성을 천명하는 상황에서,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무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에 따라, 추행을 '위력, 위계에 의한 추행'과 위력의 입증도 어려운 경우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추행'으로 구분하는 세분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한편, 사생활의 자유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병영 밖에서 자발적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적어도 형법적 규율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의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 반면, 동성간 성관계를 포함하는 '영내 음란행위죄'의 도입을

72) 군사법원 판례 자료가 검색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간 기타 추행죄'가 성기 접촉 사례에 적용되어 왔다는 군 관계자(익명 요구)의 설명을 들었다.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⁷³⁾으로 병영 내 또는 훈련 중의 비정상적·유사성 행위 중에 군내 기강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형벌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4) 미국 UMCJ 제125조에 대한 합헌 결정과 법 개정

(1) UMCJ 제125조에 대한 합헌 결정 - U.S. v. Marcum

미국 군형법과 군형사소송법을 포괄하는 미국 군사통일법전(Uniform Military Code of Justice, UMCJ)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50년에 종전 전시법(戰時法, Articles of War)을 계승, 대체하면서 전 미군에 적용되었다.⁷⁴⁾ 전시법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나타난 군인의 도덕적 해이를 보완하기 위해 1920년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 전 시법에는 군인의 부도덕한 성행위, 즉 남성의 항문성교, 구강성교, 수간을 소도미(sodomy)로 범죄화하여 중죄(felony)로 처벌하도록 하였었다.⁷⁵⁾ 이 전시법 규정이 군사통일법전 제125조로 채택된 것이다.

이 군사통일법전의 소도미 규정과 유사한 규정은 미국 내 주 형법으로 민간인에 대한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민간인들의 소도미 처벌규정은 미 연방대법원의 2003년 Texas v. Laurence 판결(이하 로렌스 판결)로 위헌 무효로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미 사법부는 군사통일법전 제125조를 합헌으로 결정하여 유지

73)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도2222 판결.

74) 그 법제사적 배경으로 Major Mynda G. Ohman, "Integrating Title 18 War Crimes into Title 10: a Proposal to Amend the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Air Force Law Review* vol.57, 8-10 (2005)

75) U.S.A. War Office, *Manual for Courts-Martial 1921*, para.443, sec.XI. 연방법에서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1년을 초과하는 범죄를 중범죄라 한다.

시켜 왔다. 구체적으로 2004년 U.S. v. Marcum 사건(이하 말콤 사건)에서 공군 기술하사관 피고인 말콤이 자신의 숙소에서 자신의 훈련생 군인과 동의 없는 구강성교, 합의된 항문성교로 기소되었고, 로렌스 판결이 내려져 위헌 문제가 제기되었다. 고등군사법원은 위 로렌스 판결과 같은 시기에 유사한 법 규정에 대해 달리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는 민간인과 다른 군인 관계의 위계질서, 자유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미 고등군사법원은 말콤 사건에서 ‘UMCJ 제125조는, 합의이든 강제이든, 동성애적 성향이든 양성애적 성향이든, 공개 장소이든 사적 장소이든, 일체의 소도미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고 판단한 후⁷⁶⁾, UMCJ 제125조가 미 연방대법원의 로렌스 판결에서 동성간 성행위 자유를 인정하는 요건 중 아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⁷⁷⁾

▷ 로렌스 판결에서 분석 범위 밖에 있다고 인정한 요인 또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지, 특히 상대방이 강요를 받을 위치에 있거나 쉽게 동의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

▷ 로렌스 판결의 자유의 이익의 성질과 적용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오로지 군사적 환경에만 관련된 부수적 요인들이 있는지 여부

특히 국가 안보를 위한 엄중하고도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전문적 관계(professional relationship), 상명하복 및 훈련의 근본적 필요성에 비추어 동의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76) U.S. v. Marcum, 60 M.J. 198, 202 (2004) (U.S. v. Scoby, 5.M.J.160, 163(C.M.A.1978)을 인용)

77)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내용에 대한 소개로는 이상현, 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 연구: 법제사, 법익론 및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279-280.

판단하였다.⁷⁸⁾ 이 판결은 말콤이 연방대법원에 재기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최종 확정되었다.

(2) UMCJ 제125조의 개정

미 군당국은 동성애적 성행위와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엄격히 금지해 왔었다. 동성애자 그룹을 옹호했던 클린턴 행정부에서 동성애자 군복무를 허용하려하자 국방부가 이에 반대하여 타협안으로 1993년 Don't Ask Don't Tell(DADT) 정책이 승인되었다. 군 당국이 군인들에게 성적지향을 묻지 않고(Don't Ask) 동성애적 성향의 군인들이 자신의 성적선호를 표현하지 않는 한(Don't Tell) 군복무는 허용된다는 묵인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동성애자의 전역을 줄였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가 DADT 정책 폐기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LGBT 그룹의 군복무는 자유롭게 허용되었다.⁷⁹⁾ 결국 2년 후 소도미를 범죄화했던 UMCJ 제125조도 비동의, 불법적 위력에 의한 소도미만을 처벌하도록 수정되어 2013년 12월부터 시행되면서 군인의 자발적 동성애적 성행위도 허용되게 되었다. 정치적 리더들이 추구했던 이러한 군사법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3]에서 보듯, UMCJ 제125조가 동성애자 군인의 명시적 수용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까지 유지된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수정된 제125조는 (a) 불법적 위력 또는 비동의에 의한 부자연스러운 성교행위에 대한 처벌, (b) 수간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면서, 사적 장소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비동의 소도미'는 엄격한 계급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군대 내부에서 진정한 합의의 인정 곤란, 폭행,

78) 60 M.J. 198, 206-208.

79) Pub.L.111-321, 2(f)(1)(A), Dec.22, 2010, 124 Stat. 3516.

협박의 입증이 곤란한 군인간 관계의 특수성, '수간'은 엄격한 도덕성 유지 및 보건의적 필요성에 대한 고려를 수용한 것이라 추측된다.

[표 3] 군사통일법전(UMCJ) 제125조에 대한 법제 변화

<p>1950년 ~ 2013년</p>	<p>제125조 소도미(sodomy) 동성·이성의 사람 또는 동물과 부자연스러운 형태의 성교행위(an unnatural form of carnal copulation)를 하는 군인, 군무원은 소도미의 죄책이 있다. 성기의 삽입은, 그 정도가 어떠하든, 계간·수간의 죄책을 충족시킨다. 다른 사람 또는 동물과 계간·수간한 것으로 드러난 군인은 군법회의의 명령대로 처벌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년: 동성애자 군복무 묵인의 DADT 법안 의회 통과 - 2004년: 고등군사법원의 말콤 판결(U.S. v. Marcum)로 제125조 합헌 결정 (2003년 사인간 소도미 위한 무효로 판단한 연방대법원의 로렌스 판결의 예외를 인정) - 2011년: DADT 폐기법으로 동성애자 군복무 전면 허용
<p>2013년 12월 ~</p>	<p>제125조 (a) 강제적 항문성교(forcible sodomy) 동성 또는 이성의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또는 불법적 위력을 사용하여 그와 부자연적 성교행위(unnatural carnal copulation)를 하는 군인, 군무원은 강제적 항문성교죄의 죄책이 있고 군법회의가 명하는 바에 따라 처벌된다</p> <p>(b) 수간(bestiality) 동물과 부자연적 성교행위(unnatural carnal copulation)를 한 군인, 군무원은 수간의 죄책이 있고, 군법회의가 명령한 바에 따라 처벌된다</p>

이러한 법제 변화에도, 진술한 바⁸⁰⁾, 미군 내 남성에 대한 성폭력 증가,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의 복무 금지 정책, 그리고 정신적·육체적 보건 유해성, 성도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국가안보 측면의 법제도 변화에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1993년 DADT의 도입부터 시작되어 2013년 말의 수정까지의 UMCJ 제125조의 변화에도 민간의 LGBT 운동과 정치적

80) 본고의 4.1.2) 미국 군대 DADT 정책 폐기를 참조하라.

리더십과의 연계, 로렌스 판결과 같은 민간의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군 내부의 성적 행위에 대한 규율은 도덕적 논증 가능성,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 다른 군 공동체 구성원 및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영향, 군인의 다른 기본권 제한과의 관계에서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 안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치 분야의 변화에 대해 군의 보수적 법정책 선택이 필요하다는 군사전문가의 고견에 유의해야 한다.⁸¹⁾ 전세계적인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관점에서는 군기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에 대한 헌법 판단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6.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대내 동성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부 훈령 제1932호 ‘동성애자 군복무 규정’은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정확히는 내심의 성적선호(sexual preference)와 성정체성(gender identity)-을 강제로 노출시키지 않고 필요시 화장실, 생활관 등을 별도로 제공하는 등 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기 위한 소극적 측면에서 제정, 시행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훈령이나 인권위 권고가 군형법상 금지된 동성애적 성행위를 부대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이는 논리의 비약이다.

군형법은 1962년 법 제정 당시부터 군인 남성 간 동성애적 성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 접촉을 ‘계간 기타 추행죄’를 통해 범죄로 규

정하고 처벌해 왔다. 또한, 2000년 대 후반 이후 수 차례 개정을 통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강제추행죄와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고유한 기본권으로 인정된 현재의 헌법과 형법적 상황을 고려할 때 위력·위계 사용 여부, 부동의 의사표시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표 4]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 개정 제안

현행 군형법 ²⁸²⁾ 제92조의 6	개정안
제92조의 6 [항문성교 기타 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 6 [위계·위력·비동의 추행] 제1항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계, 위력으로 또는 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⁸³⁾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2조의 7 [영내 음란행위] 병영 내에서 또는 병영 외에서 훈련 중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성교, ⁸⁴⁾ 항문성교, 구강성교, 유사성교, ⁸⁵⁾ 이에 준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여 군내 기강을 저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구류 ⁸⁶⁾)에 처한다.

82) 2016.11.30. 시행 법률 제14183호

83) 비동의의 간음 부분은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 제92조의 6 제2항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그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4) 영내 성적 행위도 군기를 저해하기에 음란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군형법상 추행죄 도입 이후 이성 간 합의 성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85) ‘유사성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성기는 제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성기는 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지칭한다.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죄, 군형법 제92조의 3을 참조하라.

86) 30일 미만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구류 부분은 생략 가능하다.

81) Samuel Huntington, 『군인과 국가: 민군관계의 이론과 정치』, 허남성·김국현·이춘근 공역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630-632.

현행 추행죄가 위와 같이 개정되면, 제92조의 7(강간 등 살인·치사죄)과 제92조의 8(강간 등 상해·치상죄)도 수정되어 위력·비동의추행죄(제92조의 6)를 포함해야 한다.⁸⁷⁾ 또, 영내 음란행위죄(제92조의 7)의 도입을 위해 각각 제92조의 8과 제92조의 9로 이동해야 한다.

제92조의 6의 법정형은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0조 제1항)에서 징역형만을 채택하고 장기 2.5배 가중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을 채택하였다. 또, 제92조의 7의 법정형은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인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제245조)에 비해 자유형인 징역을 채택하여 장기 2배를 가중하여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응하는 선택형 30일 미만의 구류를 둔 것이다. 이러한 형벌 가중은 병기를 가지고 국가안보의 핵심인 군인에 대해 일반인에 비해 엄중한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 군판사의 집행유예, 선고유예와 같은 군사법당국의 재량이 가능한 점과 주된 처벌대상이었던 군인과 하급장교에게 벌금형, 과료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7. 결론

군형법의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제92조의 6) 폐지는 성추행의 증가, 성도덕의 문란 → 군내 보건적 유해성 증가와 우울증 기타 정신적 고통의 증가(자살률 상승 포함) → 군업무 수행 능력 저하, 군기 저

87) 제92조의 9 [강간 등 상해, 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 2부터 제92조의 5(미수), 제92조의 6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로 이어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군은 특수한 사회로 법률에 의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일반 사회의 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수용됨을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차례 인정해 왔다. 미국 군 내에서도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병사 장교 간 연애를 금지하고 부적절한 관계 시 사령관의 대응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U.S. Army Command Policy의 예는 자발적인 성행위를 수용해 달라는 요구가 군기와 군율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동성애자임을 군 당국에 스스로 밝힌 군인, 군무원은 익명의 철저한 보장으로 소외, 모욕, 폭행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군내 성관계 금지와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교육 및 자발적 신청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여 군복무에 이상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군형법 계간 기타 추행죄는 군인 간 성범죄 관련 군형법이 세밀하게 정비 운영되지 못했던 1962년 이후 2009년 제1차 개정 시까지 47년간 군내의 성폭력 억제와 성도덕과 군기 유지를 위한 핵심적 기능을 해 왔다. 일반 형법의 개정과 함께 2009년, 2013년의 군형법 추행죄의 개정으로 성범죄 구성요건이 정비되고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그 적용범위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 비동의 추행죄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영내 군인 간의 대가없는 자발적 성행위는 군기를 저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성, 동성을 불문하고 영내 음란행위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영외 자발적 성행위의 경우 사생활 보호도 고려해야 하나, 군기 저해를 야기하는 경우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징계하여 군기를 세울 필요가 있다. 위

제안은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및 비동의 추행죄를 같은 규정에 배치하고 징역형을 단일형벌로 부과하였다. 또, 결과적 가중범 규정에도 반영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병영 내 자발적 합의에 의한 성 행위도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성도덕과 군기를 저해하는 경우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1953년 북한과의 휴전 후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과 군사적 긴장 관계 아래 여러 차례 도발을 경험해 왔다. 북한은 3대 세습에 성공하며 최근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기술의 결합으로 전 세계에 핵전쟁 위협을 하는 최고 독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군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군에 제도화할 수는 있겠으나, 동성 간 성행위의 자유를 허용하라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군형법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사법 판단에서 위헌 판결을 하게 될 경우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⁸⁸⁾, 형사소송법상 재심 및 무죄판결,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때 형사보상과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⁸⁹⁾로 이어져 기존의 범죄자뿐만 아니라 일반 병사들에게 동성애적 성행위의 도덕성 인정과 적극적 후원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주게 된다. 이는 시민사회, 전문가의 논의 및 정치권의 소통을 통해 논의해야 할 안보적·법학적·의학적 쟁점을 특정한 가치관과 성정치 이념에 편향된 시각을 사법판단으로 지원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국민개병제 아래의 군인 내부의 성폭력, 성병·항문

염·B형간염·HIV 등 감염의 증가 및 다수의 국민들의 징집 거부 등으로 인해 발생될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 본 군형법의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 개정 제언이 군인 간 추행 차단 및 영내 음란행위 범죄화에 기여하고 위헌 논란 없이 국방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88)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8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0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 고문헌 외 8인 공저. 『현대의 법과 법학』. 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2014.
- 고재열. “끈적끈적한 고참의 눈길 신병은 밤이 두렵다.” 『시사저널』 561 (2000. 7. 27).
-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 『2004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 김준호. “형법상 강제추행 개념의 해석 범위.” 『저스티스』 153 (2016).
- 김태길. 『한국윤리의 재정립』.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 김홍빈 외 8인. “에이즈환자의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30(4) (1998).
- 박상기 외 5인. 『형사특별법론 5대 형사특별법』.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박안서. “군형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 문제점.” 『군사지』 82 (2012).
- 이상현. “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 연구: 법제사, 법익론 및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 36집 (숭실대 법학연구소, 2016).
- 이종선 기자. “레드라인 넘은 군 성범죄.” 『국민일보』 2017. 9. 6.
- 조현호. “군 성행위 모두 처벌”에 “군인부부까지 처벌하지.” 『미디어오늘』 (2013. 4. 25)
- 향도연. “항문성교, HIV 감염 및 성병 발생 가능성 높다, 에이즈 이슈.” (서울: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05).
- Borkowf, Patel P. CB, Brooks Jt, et al. “Estimating per-act HIV transmission risk: a systematic review,” *AIDS* (2014).
- Bostwick, Wendy B. Ilan Meyer, Frances Aranda, Stephen Russell, Tonda Hughes, Michelle Birkett & Brian Mustanski. “Mental Health and Suicidality Among Racially/Ethnically Diverse Sexual Minority Youths.” (July 2014).
- RAND. “Sexual Orientation and U.S. Military Personnel Policy: An Update of RAND’s 1993 Study.” (2011).
- Hassemer, Winfrid. *Theorie und Soziologie des Verbrechens*. 1980.
- Everett, Robinson O. “Article 134,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A Study in Vauguess,” *Duke Law Scholarship Repository* 37 (1958-59).
- Huntington, Samuel. 『군인과 국가: 민군관계의 이론과 정치』. 허남성·김국현·이춘근 공역.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 Major Ohman, Mynda G. “Integrating Title 18 War Crimes into Title 10: a Proposal to Amend the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Air Force Law Review* 57 (2005).
- Veterans Affairs Canada(VAC). “Suicide in Canadian Armed Forces Members & Veterans: a Candadian Perspectives, Conference on Military Social Work: Violence and Suicides among Active Military Forces.” (2016).
- <<http://www.thenewamerican.com>>
- <<http://www.naon.go.kr>>
- <<http://www.wnd.com>>
- <<https://wwwn.cdc.gov/hivrisk>>

Abstract

Suggesting Rational Revision on Military Criminal Code Article 92-6 against Solders' Indecent Behavior and Anal Sex

John Sanghyun Lee

There have been three constitutional reviews on article 92-6 of Korean Military Criminal Code (KMCC) by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CK), resulting in its holdings of being constitutional. Since the implementation of KMCC in 1963, the article has penalized, with maximum two-year(formerly one-year) imprisonment, anal sex and indecent behaviors similar to it between military solders. It had functioned as an important legal ground because there had been no article against sexual violence between solders until 2009 when such new articles were enacted as rape, quasi-rape, forceable indecency among soldiers. However, currently LGBT movement with its political ally ask the article to be repelled since the article has criminalized voluntary anal sex between solders. This research examines legal history of its enactment and revision, and analyzes former constitutional reviews on the article by CCK, of both majority and dissenting opinions.

Moreover, its legal appropriateness from the perspectives of criminal theory and criminology are examined. Based upon the examination, elements of the article are carefully studied in terms of subjects, place and conduct, followed by proper the following suggestions on revision of this article: indecent behaviors by illegal force or without consent between solders (Art.92-6) and obscene act inside military camp (92-7). In spite of political pressure from LGBT right supporters, circumspect military policy and reform on current articles against sexual assault, indecent behavior and obscene acts is a rational legal policy in Korea where mandatory conscription is justified by Constitution and tension

of military threat from the autocratic regime of North Korea has still remained since Korean War.

Key Words

anal sex, indecent behaviors, Military Criminal Code, reform bill on article 92-6, freedom of self-determination on sexual matter, sodomy, Uniform Military Code of Justice.

이상현 교수의 논문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에 대한 논찬

A Comment : Suggesting Rational Revision on Military Criminal Code Article 92-6 against Solders' Indecent Behavior and Anal Sex

■ 김일생*

이상현 교수께서 발제하신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될 헌법 개정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동안 우리 사회 담론의 핵심이 될 것이며 권력구조 개편, 인권확대, 사회복지 확대라는 세 가지 명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의 영역에서는 군 인권 보장과 확대라는 주제 속에서 군내 동성애 문제와 군 사법제도 개혁 등이 핵심 사안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핵심은 일부 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 6의 폐지가 뇌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상현 교수께서 발제하신 논문은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와 토론 과정에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논리와 구체적인 근거, 그리고 자료들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든든하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저는 이 교

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저의 의견을 조금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째, 군 형법의 제정 목적과 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군형법은 전, 평시를 막론하고 모든 군인과, 군무원, 소집중인 예비군, 일부 민간인에게 적용 되는 법이며, 전쟁과 전투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군형법의 특성은 일반 형법에 비해 처벌기준이 무겁고 동일한 범죄라 할지라도 행위 시점이 평시, 전시, 적전이나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릅니다. 또한 일반 형법에는 없는 죄목인 항명죄, 상관 폭행죄, 수소 이탈죄 등을 두어 극형에 이르기까지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쟁론』을 집필한 클라우제비츠가 언급한 대로 “무제한의 폭력은 절대전쟁으로 도달하게 될 것이고 조직화된 집단 폭력은 전쟁을 인간이 다른 활동과 구별 짓는 유일한 특징”입니다.¹⁾ 이런 맥락에서 군형법 제92조 특히 그중 6은 극도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전투력 보존과 군 기강확립을 달성하기 위한 군형법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상현 교수께서 발제하신 대로 보완·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권문제를 언급할 때 많이 인용하는 미국의 경우는 일반 사회에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간통죄를 지정하여 처벌토록 군사법전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행동이 군조직의 단결과 신뢰, 군기강을 저해하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

• 논찬 투고일: 2017년 9월 3일 • 논찬 수정일: 2017년 9월 4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9월 12일

* MEAK 특별정책위, (예) 육군중장

1) 허남성, 『전쟁과 문명』(서울: 도서출판 플래닛 미디어, 2015), 351-352.

다.²⁾ 결국 전투력 저해를 가져오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제재는 인권 보장 보다 더 우선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군내에서의 항문 성교는 동의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군의 단결과 신뢰의 문제, 피해자의 지울 수 없는 후유증, 각종 전염성 질병 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개정함이 마땅합니다. 이 법의 구체적인 보완은 오히려 후임병사들을 동성에 취향의 상관과 선임병사들로부터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보다 더 큰 정의인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주체인 군인을 지켜주는 군형법이 군을 약화시키거나 와해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둘째, 의무 복무 제도인 우리의 병역제도와 영내 집단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병영문화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교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징병제하의 병역제도 속에서 후임병이 상급 병사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군 간부의 요구를 병사가 현장에서 명시적으로 거절하기는 것은 대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상급병사나 상관이 교묘하게 군형법 제92조 6의 요구를 한다거나 거절시의 불익을 가하겠다고 거론한다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행위들의 강도가 점차 진전되어 결국에는 표출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의무복무자들은 강제로든, 자의로든 간에

직·간접적인 동성에 성 행위를 경험 및 학습할 위험성이 높아져 군 기강 저해는 물론, 훗날 건전한 가정생활까지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남성간의 성추행 또는 강간에 의한 피해자는 그 피해의 후유증이 극심하며 모든 남성 혐오증의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로 발전하여 정상적인 병영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를 필자가 직접 본 바 있는데, 결국은 현역복무 부적격으로 분리(전역)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냥 방치하게 되면 자살 또는 총기 강력사고 등으로 발전되어 심각한 기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폐지론자들이 많이 비교 언급하고 있는 미군과는 달리 한 공간에서 분대단위로부터 소대단위로 취침을 하고 24시간 생활을 함께하는 한국군의 병영여건에서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따라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없다면 족쇄가 풀리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일부 확인되고 있는 동반입대제도를 악용하는 동성애자의 경우 영내에서 파트너 간의 부적절한 성행위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군 기강과 건강상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군 군에서는 군사법전 134조의 위반자는 불명예전역토록 명기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퇴출 하게 되는 것으로서 신체적 구금보다 더 중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복무제하의 우리 한국군에서는 이를 조기 전역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군은 동성애자의 군 입대를 허용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규율하기

2) 미 군사법전 UCMJ(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134-62(간통, adultery)

위하여 개인관계규정을 상세하게 설정하여 상이한 계급간의 금지사항을 엄격하게 통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행정적, 형사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³⁾

셋째, 대다수 반대하는 국민감정상 군대 안보내기 운동 등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 6이 폐지되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와 더불어 의무복무자를 둔 부모들이 “그런 위험성이 있는 군대, 우리 아들 보내지 않겠다.” 군에 입대할 애인을 둔 여성들이 “내 남자 그런 데 보내기 싫다”는 정서가 강하게 형성되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반대 운동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큼니다. 실제 일부 어머니 단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만약 실제로 군형법 제92조 6이 폐지된다면 “아들 군대 안 보내기 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 장병의 의식조사에서 “가능한 병역의무를 피하고 싶다”는 비율이 34.3%로서 2년 전에 비하여 7% 이상 증가하였습니다.⁴⁾

여기에 군내 동성애 문제와 병영 내 항문성교에 대한 처벌 법규를 폐지할 경우 이를 계기로 병역의무 회피 이유가 증가하게 되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안보상황이 세계에서 가장 위중하고 우리의 안보문제를

3) 『미육군 규정』 600-20, 4-14. 2014년 8월판에서는 상이한 계급간의 데이트, 숙소 함께 사용, 성관계 business, gambling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자는 미육군법전 92조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4) 『조선일보』 2017. 9.3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3/2017090300382.htm>

우리 힘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정치 외교, 군사적 상황 속에서 군형법 제92조 6의 폐지 문제가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을 초래하게 한다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군형법과 이와 관련법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합니다.

이상현 교수께서 개정 방안을 제안하신 내용에 더하여 영내외의 구분에 대한 정의를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⁵⁾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영내의 개인 숙소(BOQ/BEQ/NOQ)와 가족과 동거 여부를 구분한 군 숙소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법 적용의 장소적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미군의 개인관계 규정처럼 군형법 제92조의 6의 개정에 맞도록 이를 세부적으로 규율하며 영외에서의 위반 행위가 군의 전투력 저해를 초래하는 군의 단결과 사기 저하, 군 신뢰도를 저하시킨 사건은 군 전투력 저해 사범으로 간주하여 군형법으로 처벌토록 보완하고, 영외에서 군인 간에 혹은 군인과 비군인 간에 HIV, 매독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확산시켰을 경우에도 군형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법의 완전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군은 국방안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최대의 가치이며, 만약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승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존재함으로써 군복무간 기본권의 제한은 일반인보다 엄격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 13631호, 2015.12.29

할 수 있습니다.

피히테는 나폴레옹에게 패전 후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독일 국민에 고함”이라는 책에서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죽은 사람은 자기 생명을 마감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클라우제비츠는 “한 국민에게 있어서 위엄과 자유보다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없으며...겉쟁이의 굴종에 의한 수치와 자취는 영원히 지울 수 없고 굴종의 독약이 한 방울이라도 국민들 핏속에 섞여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면 다음 세대의 힘을 약화시키고 마비시키고 만다”⁶⁾고 절규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지키는 자들을 지키는 법’이 잘못 개정되어 한 방울의 독약의 핏방울이 된다면, 그리하여 훗날 이 땅에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될 때 현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이 죽고 난 그 다음 누구에게 그 고통과 책임과 피가 돌아갈 것인지 이 시점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6) 허남성, 『전쟁과 문명』, 341-343.

일반논문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와 지도력에 관한 연구(III)

- 여호수아와 기드온

| 강사문 |

칼빈주의적 미래인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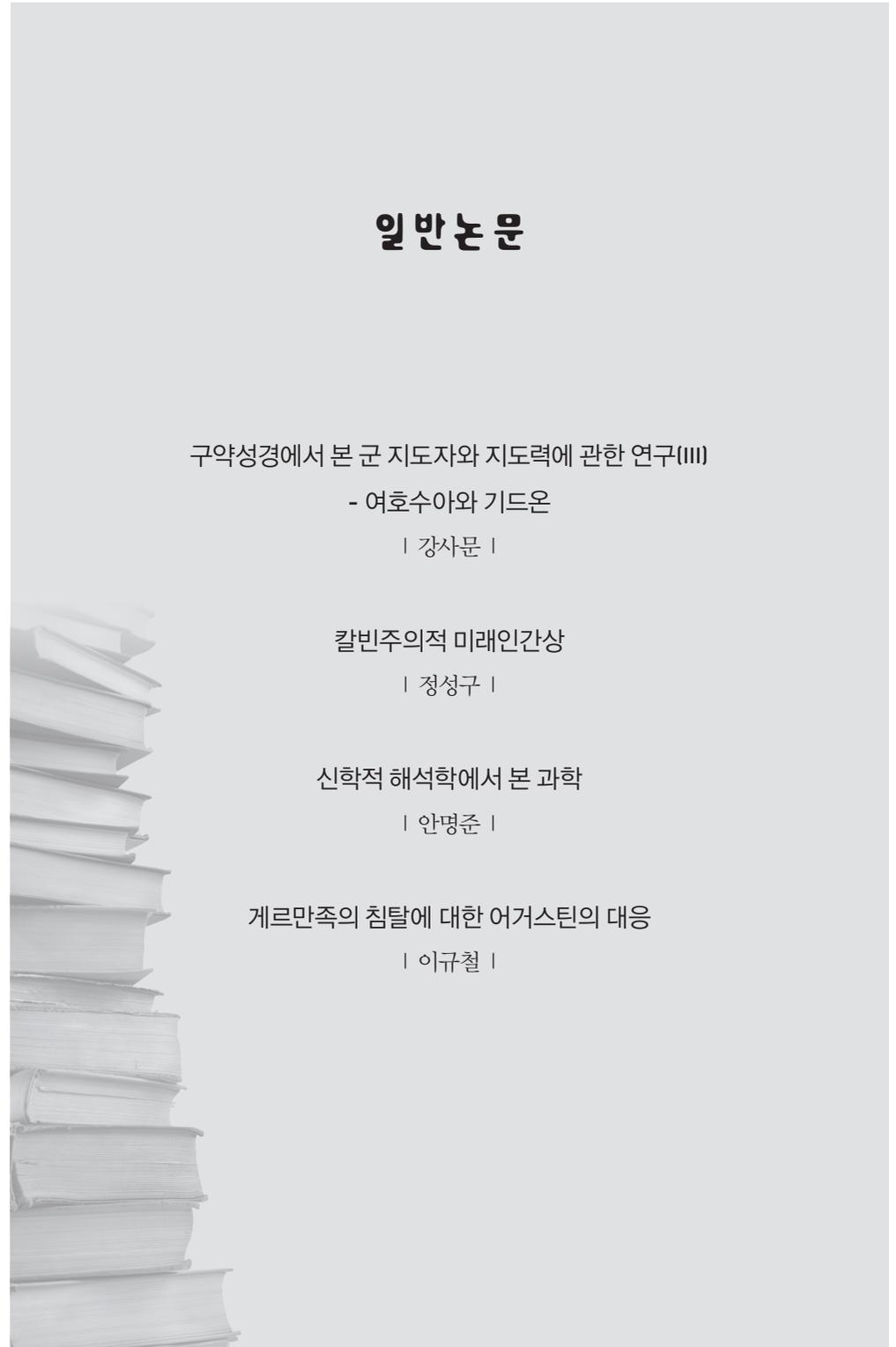
| 정성구 |

신학적 해석학에서 본 과학

| 안명준 |

게르만족의 침탈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응

| 이규철 |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와 지도력에 관한 연구(III)-여호수아와 기드온

The Military leader and leadership in the Old Testament
-Joshua and Gideon

■ 강사문*

국문초록

위 논문은 군 통수권자인 여호수아의 세 가지 전략전술에 대한 글이다. 첫 번째 전략은 공성전이다. 공성전은 최후의 보루나 요새를 공격해서 적을 제압하는 마지막 전술이다. 높은 성곽이나 요새를 공격하기 때문에 많은 희생이 요구되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 승리를 강구하는 것이다.

그의 두 번째 전략은 매복전이다. 아이 성을 점유하기 위하여 오천 명의 매복병을 베엘과 아이 성 사이에 매복하고 있다가 여호수아 일행이 아이 성 왕과 군사를 유인한 후, 여호수아가 단창을 올리는 것을 확인한 후 매복병이 일제히 일어나 아이 성을 정복했다는 이야기이다. 여호수아의 세 번째 전략은 야간에 적을 공격하는 기습작전이다. 기브온 사람들의 호소에 의해 기브온을 침공한 아모리 5왕들이 기브온에 침공한 것을 알고, 여호수아 일행은 길갈에서 온 밤을 새워 기브온에 올라와 밤에 갑자기 적을 습격하여 적을 궤멸시켰다는 것이다.

다음 단락에서는 사사인 기드온의 군사 지도력과 전략을 검토한다. 여호수아의 기습전보다 더욱 체계화되었고 극적인 혼란을 활용하여 적을 제압한 기드온의 야간 기습전은 오늘날의 전쟁에서도 사용되는 효율적인 전법이다.

중심단어

여호수아, 기드온, 공성전, 매복전, 기습전

- 논문 투고일: 2017년 8월 29일 • 논문 수정일: 2017년 9월 2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9월 4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실행위원, 장신대 명예교수, 구약학 교수

들어가는 말

이 연구 논문은 앞서 「군선교신학」 15집에 기재된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와 지도력에 관한 연구 II”의 속편이다.¹⁾ 지면 관계로 15집에서 끝내지 못한 여호수아의 전략전술(戰略戰術)을 기술하려고 한다. 나머지 여호수아의 전술로서는 공성전(攻城戰), 매복전(埋伏戰)과 야간 기습전(奇襲戰)을 열거할 수 있다. 여호수아는 이런 전술을 이용하여 거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여리고 성을 점유하지 못하고는 나머지 산간(山間) 고지의 가나안 땅 점유는 불가능한 것이다. 가나안 지역을 동에서 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동쪽에 위치한 여리고 평지는 해저 200m 정도이고 산간 고지는 해발 800-1000m 이상의 경사지로 절벽 같은 고지에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지형 조건임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이지만 나름대로 지형적인 악조건 속에서도라도 전략을 통해 승리할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는 사사시대의 군사 지도자들 중에 야간(夜間) 기습(奇襲)작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극적으로 이루어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미디안 적을 섬멸한 기드온 장군의 지도력과 전술(戰術)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1. 공성전(攻城戰)이란 어떤 전쟁인가

여리고 성의 점유는 가나안 땅 점유의 시작이요, 출발점이다. 앞

에서도 언급된 대로 여리고는 해저 200m 되는 사해 수평면과 거의 같은 수준의 낮은 지역이다. 기브온과 같은 가나안 거민이 사는 산간 고(高) 지역은 해발 800m 이상 되는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나 아이 성을 점유하지 못하면 가나안 족속을 멸하거나 땅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늘을 비행할 수 없는 시대에 마치 1km 이상 아래 땅에서 하늘 높이의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전법으로 여리고 성 점령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여호수아 군대는 여리고 성 공략을 위한 공성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적진을 괴멸시키고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전쟁사에 나타나는 공성전(攻城戰)이다. 공성전이란 ‘적의 성이나 요새를 공격하기 위해 싸우는 전쟁’ 또는 ‘남이 살고 있는 성을 빼앗는 전쟁’²⁾이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높은 곳에 위치한 성/성곽(城廓)이나 요새(要塞)를 공격한다는 것은 엄청난 병사의 죽음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전쟁이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전략전술이다. 따라서 적의 성이나 요새에 접근하기 위하여 토성을 쌓아 올리고, 사다리를 사용한다든지, 투석기를 사용하여 성벽을 뚫고 적을 공격한다든지, 성벽 밑을 판다든지, 첩자를 보내 진지를 소란케 한다든지, 적을 회유한다든지, 불화살로 공격한다든지 각종 전술을 다 동원하여 승리를 노리지만 쉽사리 적진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전쟁이다.³⁾ 그리고 공성전에서는 선

1) 강사문, “구약성경에서 본 군(軍) 지도자(指導者)와 지도력(指導力)에 관한 연구II,” 「군선교신학」 15 (2016), 124-164.

2) 조병호, 『성경과 고대전쟁』 (서울: 통독원, 2016), 34.

3) *Ibid.*, 93.

발대가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성안의 군사들이 뜨거운 물을 아래로 붓거나, 기름을 붓기도 하고, 화살을 비오듯 쏘기도 하고, 최소한 돌멩이나 돌을 굴리기 때문에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의 병사들은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⁴⁾

대표적인 공성전의 예(例)를 본다면,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의 열심당원(Zealot)이라 불리는 유대 백성이 로마군의 공격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사해 근처에 있는 마사다(Masada)성으로 가서 최후 항전을 할 때 로마군이 절벽으로 형성된 성에 접근하기 위해 토성을 쌓는 등 공성전을 벌여야만 했다. 마사다는 사해 서편에 우뚝 솟은 천혜(天惠)의 요새다. 마사다(너비 120-250m, 길이 600-620m의 크기)의 동쪽편은 높이 440m(사해는 해저 400m) 정도이고, 서쪽은 90m 되는 절벽으로 구성된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자연요새로 사람의 접근하여 공격하기에는 불가능한 자연 요새다. 따라서 로마군이 이 성을 쉽게 공략하기에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변에 8곳의 군 초소(哨所)를 만들고, 3년 가까이 공격을 시도했고 성에 접근을 위한 누적 토성을 쌓기 위해 유대인 노예 6000명을 동원하여 누적토성을 쌓았고 공성퇴를 사용하여 2kg의 공성추(攻城錘)를 쏘며 3개월간 공격했으나 성 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⁵⁾ 로마의 티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70년에 도피한 열심당원들이 이곳 마사다로 와서 항전하다가 73년 4월 15일에 함락되었으니 근 3년 가까이 지나서 공격에 성공한 셈이다. 요셉퍼스의 유대인 전쟁과 이스라엘의 장군이요 고고학자인 이갈 야딘(Yadin)의 마사다 발굴 결과에 의하면 마사다의 함

4) *Ibid.*, 35.

5) “마사다 항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00167&cid=40942&categoryId=33371>)

락도 로마의 공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포로가 되어 로마의 노예로 사느니보다는 자결하는 것이 낫다고 결심한 벤 아이르 엘레아자르(Eleazar)와 960명의 자결로 성이 함락된 것으로 전해진다.⁶⁾

이와 같이 공성전은 끝없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요구되지만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는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희생을 무릅쓰고 감행하는 전쟁이 공성전이다. 이스라엘의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는 데 앗수르 군대가 성을 3년간을 포위해서 점령했고(왕하 17: 5), 제1 성전 시대의 예루살렘 성도 바벨론에 의해 점령되는데 1년 반이 소요되었다는 것이다(왕하 25: 2).⁷⁾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을 10년 이상을 트로이를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승리를 못하고 있다가 트로이의 목마(Trojan Horse, 木馬)를 만들어 그 안에 30여 명의 군인이 잠복하고 있다가 트로이의 군인들이 자기의 승리의 상징으로 삼고자 목마를 성안으로 들어 놓은 것을 이용하여 밤에 목마 안에 있던 군인들이 나와 마침내 성안을 점령하여 난공불락의 트로이 성을 점령했다는 것이 호메르의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공성전(攻城戰) 승리의 신화라고 한다.⁸⁾

그 외에도 공성전에 대한 사례를 많이 있을 것이지만 나중에 성경에 있는 공성전만 즉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망한 앗수르의 사마리아 공성전, 그리고 주전 586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바벨로니아의 공성전 등을 열거하려고 한다.

6) *Ibid.*

7) 조병호, *op. cit.*, 34, 106.

8) *Ibid.*, 34-35.

2. 여호수아의 여리고 성 공성전(攻城戰)

여리고 성이 공성전으로 함락된 이야기는 여호수아 6: 1-21에 기록되어 있다. 여리고 성 함락 사건은 종교적 제의(Ritual)로 진행 된 군사작전이다. 여호와와의 전쟁(미하모트 아도나이)이란 맥락에서 기술 된 것이므로 여리고 성의 군인과 백성은 하나님의 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殄滅, herem) 대상이 되었다. 즉 번제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이다. 우상 숭배자들의 진멸은 윤리적·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출 22: 20). 전리품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인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다. 소유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

여리고 성의 공성전 이야기는 가나안 땅 진입의 첫 관문을 열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여리고 성 함락은 가나안 땅의 진입을 가능케 한 표징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공성전은 가나안 땅 진입의 모델로서 아이 성 함락(8: 1-2), 아모리 왕들과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격퇴(10: 28-30)시킨 결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원형으로서의 사용된 이야기다. 이는 1000m나 되는 절벽고지의 주둔군과 싸워 이겼다는 것은 지형적으로도 불가능한 군사작전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1) 여리고 성 공성전의 분위기

여리고 성 공성전의 출발은 여리고 성과 외부의 단절로부터 시작된다(6: 1-21). 이는 여호수아 6: 1-5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은 외부와 차단되었고 삼엄한 경계가 주어진 상태에서

여리고 성안은 긴장과 적막일 흐르는 상태였다. 여리고 성문이 닫히고 또 닫혔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언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미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기 네의 성을 정탐하고 탈출한 상황이므로 비상 상태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긴장이 감도는 분위기였다.

2) 공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명령

이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준다’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제사장들과 군인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하나님)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여리고 성안의 가나안 군사들 즉 이스라엘의 적군들을 그들의 손에 준다는 말씀은 전쟁 승리의 신적 확신을 예고해 준 신탁이다. ‘적을 너의 손에 준다’는 승리의 문화양식은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된다.

본문	양식	대상
신 2: 24	... נתן בידך	- 헤스본 왕 시혼
수 6: 2	... נתן בידך	- 여리고 왕과 그 백성
삿 3: 28	... נתן בידך	- 모압 백성
삿 7: 7	... נתן בידך	- 미디안 사람
삼상 14: 10	... נתן בידך	- 블레셋 군사

“... נתן בידך ” 형식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전쟁의 승리를 담보하는바 하나님의 승리 보장을 전쟁에 앞서 병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신명기 역사서에만 80회 가까이 언급되는 양식은 여호와와의 전쟁 시작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확신을 보증 받는 양식이다.

신명기 2: 24의 경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 북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북상하기 위해 북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에게 그쪽 지역을 통과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오히려 공격을 받았으므로(2: 32), 모세 일행은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할 찰나에 주어진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을 준 말씀이다: ‘내가 너희 손에 그(헤스본 왕 시혼)를 넘겨주겠다’는 확증이다. 여호수아 6: 2에서도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왕과 백성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승리의 보증 말씀이다. 사사기 3: 28에서도 승리의 약속이 보장되는 형식이 표현되었으니 이는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한 후 도망하여 에브라임 산지로 왔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 군사를 너희 손에 주었다는 말씀에 따라 모압을 정복하고 승리했다는 맥락에 주어진 말씀이다.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증하는 약속이므로 말씀에 따라 행하면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전쟁의 승패 여부는 하나님의 소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사기 7: 7의 경우도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 용사들의 손에 미디안 군사를 넘겨준다는 약속에 따라 선발된 용사만으로 수만의 미디안 군병들을 야간의 기습 공격으로 진멸한 사실을 볼 수 있다.

사무엘상 14: 10 이하에서도 같은 표현이 주어진다. 10aβ, 12bβ, 여호와가 적을 우리 손에 주었다는 표현(나탄 베야데누, ..נון בידנו יהוה יתנו)은 여호와와의 전쟁에서 아군의 승리를 확인케 해주는 표현 양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울 왕의 아들 이름 요나단(Jo+nathan)이 암시하듯이, 곧 여호와가 주었다는 뜻과 일치한다. 요나단이란 이름을 길게 풀어서 쓴 것이 6절과 8절에 예호나단(יהוה+יחנן)이고, 짧

게 줄인 이름이 요나단(יחנן)이다. 이런 표현양식이 구약에 200번 이상 나타나는데 신명기(1: 27; 20: 13; 21: 10; 24:1, 3)와 신명기 역사서(歷史書)라 일컫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에 집중되어 있다.⁹⁾ 그래서 신명기적 용어라고 한다. 그러나 츠무라는 신명기적 작품 외에도 이미 구약 여러 곳(창 14: 20; 출 23: 31; 민 21: 34; 렘 20: 5, 아마르나 문서, 느부갓네살 건축 비문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신명기적 용어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¹⁰⁾ 하지만 이 용어를 누가 전적으로 사용하였느냐에 따라 부르는 용어이므로 신명기 역사서에 전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명기적 용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3)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 불며 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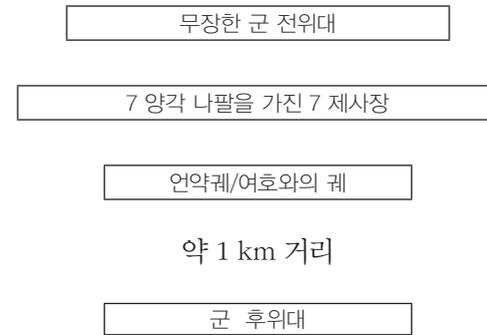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7제사장들은 7양각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여리고 성을 향해 전진할 것을 명령한다. 이런 제사장들의 행렬은 하나님의 극적 간섭으로 여리고 성 함락을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가시적 현상이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제사장과 언약궤의 기능은 이미 여호수아 3: 15에서 ‘물이 많이 흘러내리던 요단 강 물을 건널 수 없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극적으로 타개한 것을 보여준다. 즉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강 물에 발을 담그자 곧 물이 멈춤으로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요단 강을 건넌 것처럼 하나님의 극적 간섭으로 여리고 성 공성전은 곧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예시(豫示)이다. 전쟁에서 군사들 앞에 하나님이 앞서 적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

9) Abraham Even Showshop ed., *A N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Using the Hebrew and Aramaic Text* (kiryat Sefer Publishing House LTD., Jerusalem, 1990), 788-797.

10) David Toshio Tsumura, *The First Book of Samuel(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7), 361.

으로 보여주는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여호수아 6: 6에서 여호수아는 그가 받은 그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임무와 행렬할 위치에 대해 설명한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6절). 양각 나팔을 잡은 일곱 제사장들은 희년 때에 부는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한다. 또 군사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하도록 하였으니, ‘백성들은 나아가되 그 성을 돌며, 무장한 자들(할루츠)은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백성들이나 무장한 자들이 나아간다는 단어는 요단 강을 건너다(3장)라는 말과 같은 단어이다. 따라서 6장은 3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을 암시한다.

여호수아가 명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과 군사들은 공성전을 위한 군사 행렬을 진행하였으니(6: 8-11) 군사행렬을 도표로 그리면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 전위대, 그 뒤에는 양각 나팔을 잡은 일곱 제사장, 그 뒤에는 여호와의 언약궤, 맨 뒤에는 군사 후위대가 따르는 도표이다. 첫째 날에 행한 행진을 보면 무장한 전위대원들은 외치라는 명령을 할 때에만 외치고 그 외에는 침묵하라는 명령에 따라(10절) 맨 앞에서 갔는데. 이 말은 전쟁의 함성(삿 7: 21; 삼상 17: 52) 혹은 기쁨의 함성/찬양(스 3: 11, 13; 시 95: 1-2, 98: 4,6, 100: 1)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으나, 문맥을 자세히 보면 적진에 접근하는 전위대와 군사들은 함성을 지를 때까지 조심과 긴장 속에 가라는 뜻이다. 전위대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번 돌고 난 후에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와 잤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된 대열을 순서에 따라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 도표의 맨 앞에 있는 전위대는 무장한 자들(하루츠)로 구성되어 여호와 궤(7절)와 나팔 부는 제사장 앞(9절)에서 전진한다. 그들은 일반 군인(차바야)이 아니라 비상시에 임시로 무장한 자들로 맨 앞에 서서 행진하기 때문에 적정을 살필 수 있고, 뒤 따르는 나팔 부는 제사장들과 법궤와 후위대를 보호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무장한 자들(7, 9절)의 임무는 행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

둘째 행렬에는 양각 나팔을 가진 일곱 제사장들이다. 이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서 가며, 이들이 가진 나팔은 양의 뿔로 된 양각 나팔 쇼파르(שופר)이다. 여기에 쓰인 쇼파르는 실제 전쟁 때 쓰이는 나팔이라기보다는 절기 축제나 제의 때 회개를 촉구하는 신호용으로 쓰이는 나팔이다. 쇼파르는 양의 뿔로 만들어진 즉 자연산으로 된 신호용 나팔이다. 이 쇼파르는 회개를 촉구하는 도구로서 이스라엘 전쟁의 비밀 무기로 이해된다. 제 칠일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여리고 성이 함락된 것은 여리고 성 함락은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제 7일에 하나님에 의해 천지가 창조된 것(창 2: 2-3)과 같은 이치이

다. 신년 축제 때 쇼파르를 부는 이유도 이 절기가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표시다. 그래서 절기 때에는 시편 47편의 말씀을 낭독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시
키시며(3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합성 중에 올라가십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쇼파르) 중에 올라가시도다(5절).

이러한 내용을 낭독하는 것은 여리고 성 정복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 것을 연상시켜 여리고 성이 하나님이 의해 함락되었음을 상기시키는 데 있다. 특히 쇼파르는 회개의 신호용 나팔이다. 그래서 회개는 전쟁의 비밀 무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전쟁을 하기 전에 회개함으로써 공포를 없애도록 권고한다(신 20: 8). 유다 마카비 전쟁 때 유대 군인들은 금식하고 회개함으로써 승리를 얻었다고 한다. 회개함으로써 병사들이 정결해지면 부정한 적군들을 응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리고 성이 붕괴된 것은 정결한 군대가 부정한 여리고 성을 포위했기 때문에 성이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쇼파르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비밀 무기였던 것이다.

한편 전쟁 때 쓰이는 신호용 나팔(Trumpet)은 쇼파르가 아니고 하초체로트(חוצצת)이다(민 10: 2). 이는 인간이 은으로 만든 신호용 나팔이다(민 10: 9). 전쟁 때 제사장이 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민 10: 9). 모세가 미디안을 공격하여 섬멸할 때도 이 나팔(trumpet)을 불며 공격하여 승리하였다(민 31: 6). 아비아와 여로보암이 전쟁할 때도 유다 왕 아비아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제사장들이 전쟁의 나팔(트럼펫)을 불며 적을 공격한 결과 유다가 승리를 한 것

은 그들이 진실로 여호와를 의지한 결과라는 것이다(대하 13: 12-18), 여호사밧과 아람이 전쟁할 때도 이 트럼펫이 등장하고(대하 20: 28),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 할 때도 이 나팔이 4번이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대하 29: 26-28).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나 여러 악기가 동원 될 때에는 뿔나팔(쇼파르)은 물론 트럼펫(하초체로트) 등 각종 악기가 사용되었다(시 96: 6).

언약궤(The Ark of Covenant)는 움직이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말한다. 여호수아 6장에서 법궤는 단순히 궤(4, 9), 또는 언약궤(6, 8) 나 여호와와 궤(6, 11, 12, 13) 등으로 불린다. 여기서 언약궤와 여호와와 궤가 이름을 달리 하지만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의미는 같다. 언약궤를 멘다는 단어와 나팔을 잡는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나사)이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여러 호칭의 궤 앞에 또는 주 앞에(8절)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다. 세 번째 행렬에 언약궤가 있다는 말은 이 전쟁에 하나님이 참전(參戰)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여리고 군사와의 전쟁은 여호와와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참전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신앙의 전쟁이다.

후위대(메아세프)는 행렬의 맨 뒤에서 후방의 적을 감시하고 전방의 행렬을 보호하는데 있다. 여기 후위대란 용어가 여기 두 번 외에 두 번 더 나타나는데 민수기 10: 25에서는 단 지파가 마지막 진영으로 후위대와 같은 활동한다. 또 이사야 52: 12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후위대로서 보호하는 자로 기술된다. 이런 제의적 행렬은 축제나 제의적 종교행사가 행해지는 행렬을 지칭한다.

4) 같은 행동을 6일간 반복하고, 제칠일에 완성되는 문학양식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군병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옛새 동안 그리하라.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되,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함에 따라, 맨 앞에 가는 전위대에 따라 7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궤 앞에서 행진하여,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 적에게 공포감과 압박감을 주었고, 제 칠일에는 성을 일곱 바퀴 돌은 후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온 군사들이 큰 함성으로 외치자 성벽이 무너졌다. 이는 이스라엘 군사의 힘에 의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이라는 제사장 수나 일곱 양각 나팔수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같은 행동을 6번 반복하고, 제칠일에 완성된다는 표현은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에 의해 여리고 성 함락이 이루어졌다는 문학적 표현이다.

이러한 문학적 틀은 구약성경은 물론, 아카드 문서, 우가리트 문서 등 고대 근동문서에 잘 나타나 있다. 구약성경에는 7일 단위의 문학구조(The Literary Structure of Seven Days)가 137회 나타난다.¹¹⁾ 그 중에 77회가 출애굽(24회), 레위기(36회)와 민수기(17회)에 나타난다. 주로 무교절이나 초막절 같은 명절(Festival)이나 제의(Cult)와 주요 사건

의 시기와 완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주로 모세 오경 중에서도 오랜 전승을 가진 세 권의 책에 빈도수가 높다는 것은 이런 문학구조의 기원이 고대성에 가깝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원전 16세기의 아카드 역본인 길가메쉬 서사시 11토판에 나오는 아카드 홍수 이야기에서도 이 7일 단위의 문학양식이 나타난다. 노아 홍수처럼 홍수가 거의 끝날 무렵 배는 니시르(Nisir) 산에 정박하였다. 노아의 배가 아라라트 산에 정박한 것처럼 니시르 산에 머무르자 일단 머문 배의 다음 동작까지의 표현을 7일 단위의 문학구조 속에 잘 묘사되고 있다. 아카드 원문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141-146절).¹²⁾

141 배가 니시르 산에 머물러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142 첫째 날과 둘째 날에도 배는 니시르 산에 머물러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143 셋째 날과 넷째 날에도 배는 니시르 산에 머물러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144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도 배는 니시르 산에 머물러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145 제칠일이 되었을 때

146 나는 비둘기를 내어 보내 날아가게 하였다.

위에서 보는 대로 이 문학구조는 7일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제칠일에 결정적인 행동이 취해진다. 6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를 단위로 즉 첫째 날과 둘째 날이 한 단위가 되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6일 동안에 이를 단위가 세 번씩 같은 행동으로 반복된다. 그래서 이러한 7일 단위 문학 구조는 옛새 동안에 이를 단위로 3번 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제칠일에는 절정에 달아 극적 행동을 나타

11) Abraham Even Shoshan, *A N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Jerusalem: Kiryat Sefer Publishing House LTD., 1999), 1105-1110. ‘칠 일간’으로(세바 야밈) 표기된 것이 89회 나타나고 ‘제칠일’로(욘 스비이) 나타난 경우가 48회이다. 여기서는 제 칠일 문학구조만을 다룬다.

12) Cynus H. Gordon, *Ugaritic Textbook*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5), 294.

내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특수한 문학양식임을 알 수 있다.

같은 7일 단위의 문학구조가 주전 14세기의 우가릿 문서인 케렐 왕(King Keret)이란 작품 속에서도 나타난다. 부인과 일곱아들들을 다 잃은 케렐 왕은 엘(EL)신의 허락 하에 부인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막 지방에 있는 파불 왕을 공격하기 위하여 행군을 계속한다. 뜨거운 사막 길을 계속 행군하여 목적지인 우둠(Udum)에 도달하는 장면이 칠일 단위의 문학구조 속에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03-109 줄).¹³⁾

매뚜기처럼 사막의 국경까지 행군하라.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행군하라.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여섯째 날에도
 일곱째 날 해 뜰 때
 너는 우둠에 도착할 것이다.

여기서도 행군의 절정이 제칠일에 완성되었다. 이틀 단위가 세 번 반복은 하되 한 동작만의 반복이므로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매일 창조의 사역이 진행되어 6일 동안 반복된다. 창조의 대상물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6일 동안 지속된다. 6일간의 창조 일정을 보면,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여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였다. 빛으로 인해 낮과 밤이 구별되었다(창 1: 3-5). 그러나 태양 빛은 넷째 날에 창조된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어 하

늘 위의 물(비)과 하늘 아래 물(바다)로 나누었다. 물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있었고(창 1: 2) 단지 하늘에 의하여 아래와 위의 물로 나누어진 것뿐이다(창 1: 6-8). 셋째 날에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모으사 땅이 나타나게 하시고 땅은 풀과 썩 밋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또 씨가진 열매 밋는 과목을 종류대로 내도록 하셨다(창 1: 9-13). 넷째 날에는 하늘에 두 큰 광명과 별을 만드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알리도록 하셨다. 큰 광명인 태양으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작은 광명인 달로 밤을 주관케 하셨다(창 1: 14-19).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나는 각종 새들과 바다에 생육하는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복을 주어 번성케 하였다(창 1: 20-33). 여섯째 날에는 지상의 모든 육축과 땅의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만물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제칠일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절정에 이르러 천지와 그 안의 모든 만물의 모든 창조가 끝나게 된 것이다. 그 지으시던 일이 제 칠일에 이르러 다 끝나치게 되므로 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였다(창 2: 1-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도 7일 단위의 문학구조 속에 나타난다.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이 반복된다. 길가메쉬 서사시나 우가릿 문학에서와 같이 6일간에 이틀 단위로 세 번 반복되는 문학양식은 아니고, 창조의 대상물이 다르지만 창조의 사역이 6일 동안 반복되고 있는 것만은 명확하다. 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천지 창조의 사건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순한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천지창조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役事)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

13) J. B. Pritchar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144. 이하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는 ANET로 표기함.; 강사문, *Divine War in the Old Testament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9), BZAW 177, 144.

조사(bore)이심을 강조하는 문학적 기교이다. 이 문학구조는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위대한 창조 사역을 표현한 문학양식이다.

여리고 성의 함락도 칠일 단위 문학구조에 표현함으로 여리고 성이 하나님에 의해 함락되었음을 문학양식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여호수아 6: 1-5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7일 단위의 문학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날에 용사들은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았다.
 둘째 날에도 용사들은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았다.
 셋째 날에도 용사들은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았다.
 넷째 날에도 용사들은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았다.
 다섯째 날에도 용사들은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았다.
 여섯째 날에도 용사들은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았다.
 일곱째 날에 용사들은 여리고 성을 일곱 바퀴 돌며 나팔을 크게 불고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니 성이 함락되었다.

여호수아의 군사들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일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비중의 행동을 반복할 뿐이다. 지속적인 행동이 있을 뿐이다. 단절이나 중단이 아니고 연속적인 행위이다. 6일 동안 같은 행위가 연속될 뿐이다.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은 지속된 공포와 압박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언제 공격해 올지를 모르는 불안과 초조감 때문이다.

그런데 일곱 번째 날에는 지난날처럼 여리고 성을 한 번만 도는 것이 아니라 이 날만(라크)은 일곱 번 돌 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 돌 때에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6일 동

안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만 별일이 없었고 제칠일에 그 사건이 완성되었다는 문학양식은 어떤 사건이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

여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의 첫 지점이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유의 초점은 여리고 성의 함락에 있다. 그러므로 여리고 성의 점유는 가나안 점령의 기폭제와 같은 것이다. 이 점유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사는 성 주위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제칠일에는 일곱 바퀴를 돈 것뿐이지 다른 공격 행위를 한 것이 없다. 다만 성이 무너진 뒤에 성으로 올라갔을 뿐이지 이 점령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결정적으로 한 일은 없다. 다시 말해 여리고 성 점유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役事)라는 의미이다. 인간의 역할은 부수적이고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이다.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이고 여리고 주민도 라합을 제외한 모든 주민이 이스라엘의 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여리고 성 함락 사건은 이해되어야 한다.¹⁵⁾ 여호수아의 여리고 점유도 가나안 점유의 시발점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진군 명령에 따라 전진하여 점유의 결정적인 순간인 제칠일에 점유가 완료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적을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표현하는데 이런 문학구조가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안식일의 제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옛새 동안 반복하고 칠 일에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옛새 동안 반복되고 제칠일에 완성되었던 것(창 2:

14) 강사문, 『구약의 자연이해』(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161-185.

15) E. John Hamlin, *Joshua, Inheriting the Land, ITC.* (Grand Rapids: Wm. B. Eerdmann, Publ, Co, 1983), 53.

2-3)과 같이 이런 구조나 용어는 여리고 성에 대한 승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진 것임을 표현하는 데 있다.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증언하는 것처럼, 여호수아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는 전쟁의 주 또는 역사의 주이심을 증언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같은 행동이 6일 동안 여섯 번 반복되고, 제칠일에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증거하는 문학적 틀이다.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의 한센병도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잠그니 병이 나았다(왕하 5: 14)는 증언은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여리고 성 함락 후 전리품 처리

여리고 성 함락 후에는 3가지 주요 쟁점이 처리된다. 첫째, 여리고 성을 주신 하나님께 여리고 성 전부를 봉헌하는 것. 둘째, 정탐꾼들을 도운 라합과 그의 가족 구출. 셋째, 여호수아의 지도력 위상 확보 등이 쟁점으로 주어진다.

(1)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의 거민이 가나안 땅을 오염시킨 바, 그들이 하나님의 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멸의 대상이 되었다. 진멸의 대상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접촉과 사용이 금지된 타부(taboo)인데 이를 거부할 때는 자신이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여리고 성과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 바친다는 헤렘이라는 의미를 역본마다 다르게 표현하여 혼선을 준다. 여호수아 6: 17 상반절을 여러 번역본으로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개역개정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여호와께 바치라.”

공동번역 “저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야웨께 바쳐 없애 버려라.”

표준새번역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께 제물로 바치라.”

바른성경 “이 성은 진멸할 것이니, 곧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NRSV “The city and all that is within it shall be devoted to the Lord for destruction”

위의 여러 번역본에서 보는 대로, 히브리어 헤렘(חֵרֵם)을 개역개정 은 온전히 여호와께 바치라, 공동번역은 야웨께 바쳐 없애 버려라. 표준새번역은 “전멸시켜서…주께 제물로 바치라” 바른성경은 “진멸할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다”로 번역했으니 이해가 되는 듯하나 이해되지 않는다. 표준새번역과 NRSV는 ‘전멸시켜 주께 제물로 봉헌될 것이다’라는 비슷한 의미의 번역을 하고 있으므로 헤렘이란 용어는 하나님께 번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17절에서 여호수아는 헤렘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명하게 구별하여 사람들이 접촉하거나 소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18-19절). 이는 첫째는 함락된 여리고 성, 둘째는 여리고 주민, 셋째는 모든 전리품 등이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완전히 진멸해야 할 것들이고 인간들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명기 7: 1-5와 20: 16-18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며 여호와 신앙을 유혹하는 자들은 진멸할 것이라고 하지만, 같은 가나안 사람인 라합의 경우는 예외가 되었다. 그 이유는 그녀는 이방 여인이지만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정탐꾼들의 생명을 구해 주었기 때문이다.

본래 헤렘은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접

축이나 소유가 금지된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 드려진 땅(레 27: 21), 첫 열매(민 18: 14)나 다른 사물들을 말한다. 그래서 헤렘으로 지정된 것은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뜻 한다. 여호와께 바쳐진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바쳐진 사람은 되무를 수 없고 반드시 죽어야 한다(레 27: 28-29)는 원리이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헤렘으로 지정된 것을 취하면, 취한 자가 역시 헤렘으로 선포되어진다. 다시 말해 6: 18은 헤렘을 취한 자가 곧 헤렘이 됨으로 진멸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헤렘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말 번역들(공동번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이 난해하기 때문에 본문대로 번역을 시도해 본다. 우선 헤렘이란 단어가 4번(세 번 명사, 한 번 사역동사) 반복된다. “너희만은 헤렘이 되지 않기 위하여 헤렘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너희가 헤렘 가운데서 어떤 것을 취하면, 이스라엘 캠프가 헤렘에 놓이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어 헤렘이란 의미에 진멸이란 단어를 대입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 원리가 다음 여호수아 7장 아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캠프는 고통을 당했고 아간은 죽임을 당했다. 따라서 헤렘이 되었다는 말은 번제처럼 진멸되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신명기 13: 12-15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읍에서 살 때 여호와를 떠나 이방신을 섬기자는 유혹과 같은 가증한 일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성읍은 진멸되고 영구히 폐허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진멸의 대상은 그 성읍의 거민, 제의도구, 가축과 그 외 모든 전리품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6장 본문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노력에 의해 여리고 성이 함락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히 11: 30)고 증언한다.

여호수아 6: 21의 내용은 성 안에 있던 남녀노소와 소, 양과 나귀 등을 진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구절은 윤리 도덕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종교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래 진멸의 대상은 아무 족속이나 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6(7) 족속뿐이다(신 7: 1). 곧 그들은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와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 뿐 이다. 이들만이 가나안 땅을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염된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 냈다는 것이다(레 18: 25이하). 그 외 족속은 진멸의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인공청소 같은 이방 민족들을 대량 학살하는 종족살해(Genocide)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는 다음 세대인 사사시대까지도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 있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살아 있었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삿 3: 5).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물리적 승리는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사는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로서 무기도 없었고, 전쟁 경험이 없는 신세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극적인 표현은 이방 족속들의 지배에 항거하며 종교개혁을 추진하려는 자들에게 이상적 승리와 희망을 주려는 의도에서 기술된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 국가가 약한 부족이나 종족들을 살해한 것은 헤렘 사상을 오해한 소치이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켜야 하는 이유는 신앙적인 목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도록 유혹하여 여호와 신앙을 오염

시키는 가증스런 이방 풍습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바 우상숭배를 전염시키는 족속들에 한해서 진멸의 대상이 된 것이다(레 27: 28-29; 신 7: 1-5; 20: 16-20). 그 외 가증한 풍습들은 유아 희생제물(왕하 16: 3; 21: 6), 성창제도(왕하 23 :7), 여호와의 예언자 살해(렘 26: 20-23), 마술(왕하 21 :6) 등 각종 악습에서 단절을 촉구하는 데 있다. 이런 일들이 옛 가나안 땅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가나안 온 땅(10: 40; 11: 20)의 도시들의 거민들이 헤렘에 주 대상이 되었다. 즉 여리고, 아이(8: 26), 막게다, 에그론, 헤브론, 데빌(10: 28, 35-39), 하솔과 북쪽의 가나안 도시들(11: 11-12), 아나킴과 그 도시들(11: 21)이다. 저자는 가나안 종교와의 철저한 단절을 의도한 것이다. 가증스런 가나안 풍습에 대한 단절은 요시야 종교개혁에서 잘 처리되었다(왕하 23: 4-20).

진멸사상의 요점을 요약한다면, 진멸사상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 할 때 공격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방어전에는 진멸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방어전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섬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전쟁 맥락에서 주어지는 진멸의 7가지 특징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진멸이란 말은 번제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말이다(레 27: 28-29).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듯 충성의 표시이다. 둘째, 진멸의 대상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6-7족속에게만 국한된다. 이들 족속 외에는 진멸의 대상이 아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 땅을 오염시켰고 또 시킬 우려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 셋째, 여

호와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임을 증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는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 족속도 진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넷째, 진멸이란 부정한 것을 파기하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방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파기하고 새롭고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헌납한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진멸이란 새 시대를 창조하기 위한 청결식과 같은 의미이다. 혼돈의 세력을 멸하고 새로운 창조질서를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 여섯째, 진멸의 사상은 십계명 1-2계명에 신학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 된 것이다(출 22: 20, MT 19절). 일곱째, 어떤 민족도 새로운 영토에 정착한다는 것은 우주 생성적 사건에 속한다.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고 성화되고 헌납되기 때문이다. 즉 진멸이란 우주질서를 회복하는 원리이다.

이런 진멸의 개념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지역의 신들의 간섭으로 행해지는 전쟁 맥락에서도 흔히 사용되었던 개념이다. 주전 15세기의 헷 나라 아니타 왕의 비문에도 전쟁의 승리를 준 신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요단강 동편 디본(Dibon)에서 발견된 주전 9세기의 모압 비문에 의하면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승리를 준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모든 것을 바쳐 봉헌하기 위해서 진멸했다고 한다(16-17절). 메사는 적들을 살해했는데 그 중에는 남자, 소년, 부인들, 소녀들과 하녀들 포함하여 7천 명을 죽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아스타르-그모스 신(神)에게 봉헌하기 위해서이다(החרמתה כמש לעשתר כי, 키 레아스타르 그모스 하하람타). 여기 쓰인 동사가 헤렘의 사역형(히필형)으로 봉헌하다/진멸하다는 뜻으

로 여호수아에서 14번 쓰인 동사(6: 18, 21; 8: 26; 10: 1, 28, 30, 35, 37, 39, 40; 11: 11, 12, 21등)가 나타나고, 동시에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쓰였던 동사도 같은 형태이다(삼상 15: 18-20; 미 4: 13). 진멸의 대상은 여리고 성의 경우 남녀노소(문자적으로는 젊은이(나아르)로부터 노년(짜켄)에 이르기까지)과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으나(6: 21), 모압 비문에서는 남자들, 소년들, 부인들, 소녀들과 하녀들로 되어 있으나 동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헤렘 사상은 윤리-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인 맥락에서 여호와께 충성과 헌신의 표현을 이런 진멸 개념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 메사 비문의 배경은 모압 왕 메사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로 열왕기하 3장에 자세히 언급되었으나 유다의 승전 보고는 없고, 대신 모압 비문에는 모압 왕 메사가 그의 왕자를 번제로 드림으로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기록한다. 따라서 헤렘은 여호와와의 전쟁 맥락에서는 승리를 준 여호와께 모든 것을 바쳤다는 의미이다. 헤렘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아무도 취할 수 없는 금기(taboo)인 것이다. 아간은 이런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본인이 헤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친다.

(2) 정탐꾼들이 약속한 대로 라합(Rahab)과 그녀의 가족들의 구원, 여호수아 일행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려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에 그녀의 목숨을 걸고 안내해 준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주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된 것은 그녀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다.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녀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라합의 가족은 여리고 성 함락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의 때까지 그 곳에 살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호세아 3: 5에서 다윗은 다윗의 후손을 시사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라합보다는 라합의 후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라합의 신앙과 언약의 영향력은 여호수아기의 기록 때까지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¹⁶⁾ 그녀의 일족을 살린 것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정탐꾼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합의 경우만은 예외가 없다는 헤렘 법에서까지 예외가 생긴 것이다.

그 이유는 라합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구원사(救援史)를 깨달고 이를 증언하기 때문이다(2: 8-14).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을 내가 안다. 우리가 다 너희를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출애굽 때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의 두 아모리 왕을 전멸시켰다는 것도 들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선대할 것을 증표로 보여 달라고 한다. 그러자 정탐꾼들도 우리의 정탐 사실을 누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 너희를 선대할 것을 약속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으로 여호와의 위대한 구원사를 이해하고 이스라엘 신앙 편에 선 자이다. 가나안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판단되었지만 예외가 있음을 보여준다(신 9: 4). 그녀는 가난하여 그 사회의 변방 사람인 기생으로 생업

16) D. M. Howard, Jr. *Joshua* (Nashville: B. & H., 1998), 176.

을 이어 가던 자이다. 이스라엘 후기 사회에서는 이런 행위가 금지 되었지만 초기에는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레 19: 29). 그녀는 생필품을 공급하던 가나안 신들(호 2: 5)을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다(호 2: 8). 오히려 그녀는 아직 거짓 신들로부터 떠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성실한 이스라엘의 표본이 된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싯딤에서 음행을 했던 바로 그곳(민 25: 1)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이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음행을 하였다(삿 2: 7; 호 4: 10, 12, 14-15; 렘 3: 1). 따라서 이사야는 예루살렘 도성을 창녀로 묘사하고 있다(사 1: 21). 라합은 과거의 가나안 신들과 부정한 생활양식을 버리고 새 신앙을 소유함으로써 희망을 보여준 여인이다. 여리고가 멸망하기 전에 라합이 한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이스라엘이 행했다면 불행을 모면했을 것이다. 당시 그 사회 밑바닥의 라합과 꼭대기의 여리고 왕과 귀족들과의 대조는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인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예수님도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다(마 21: 31).

라합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나는 안다’(9절)로 시작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11절 후반절)라고 고백한다. 그녀는 이스라엘이 배운 신앙고백인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지상의 모든 이방 백성들 가운데 첫 번째 대표자이다. 이런 신앙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간원하는 신앙고백이요 기도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만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신 4: 39). 이스라엘 시인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고백한다(시 100: 3). 솔로몬 왕도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왕상 8: 60)고 기도했고 히스기야 왕도 이제 우리를 그의(산헤립)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이다(왕하 19: 19)라고 간구했다.

따라서 이런 유의 신앙 고백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신앙고백(출 18: 11), 갈멜산 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고백(왕상 18: 39), 나아만 장군의 신앙고백(왕하 5:15), 여러 지역에서 오는 대상들의 신앙고백(사 45: 14-15) 등에서도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기본 신앙고백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유일신 신앙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라합의 이런 새로운 삶의 시작은 정탐꾼들과의 계약에서 시작해서 세겜에서 그녀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전체 계약으로 완성된 것이다(수 24장).

그런 신앙의 결과로 라합은 가나안 땅에서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첫 단계를 제공한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아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었다(마 1: 4-6). 그녀의 33대 후손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의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 4명이 있는데 라합은 그 중에 하나이다. 그녀가 선택받지 못한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의 족보에 한 대를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 섭리의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비선민이 선민의 기능 이상 가는 구원사의 한 축을 이룬 셈이다. 이는 비선민(非選民)인 이방 여인 라합과 선민(選民) 유다 지파의 아간과 대조하여 보면 그녀의 위대함이 더 분명해진다.

라합(Rahab)	아간(Achan)
소속 가나안 사람	유다지파(수 7: 24)
한일 정탐꾼 숨김	전리품을 가지고 가 숨김
신분 가난한 자(수 2: 6)	부자(수 7: 21-22)
공과 정탐꾼을 선대함(수 2: 12)	동족에게 고통을 줌(수 7: 11)
계약 이스라엘과 함께 계약맺음 (수 2: 12-14)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 (수 7: 11)
결과 그녀의 가족을 구원함(2: 13-14)	그의 가족을 파괴함(수 7: 25)
신앙 이방신을 떠나 여호와께로 개종함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범죄 (수 7: 20)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지만(마 1: 5) 유대전승에 의하면 여호수아와 결혼하여 그녀의 후손에서 5명의 왕들과 8명의 예언자들이 배출되었다.¹⁷⁾ 즉 라합은 이방신과 문화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새 역사를 창조한 여인이다. 변방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구원사의 중심에 섰던 자로 성녀(聖女)가 된 창녀(娼女)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변방의 가나안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익을 감당한 자로 본을 받아야 할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3)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여리고 함락 후에 이스라엘의 군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의 위상 확고해졌다는 것이다. 여리고 성 함락 이후 여호수아의 지도자적 위상이 확고해졌음을 6: 27은 증언한다.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확언(3: 7)으로 그의 지도자상이 모세처럼 높아졌으므로(4: 14) 그의 확고부동한 지도자의 위상이 확고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의 지도력은 새 시대에는 이방신들의 가증된 풍습과 단절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거듭나

17) L. Ginsberg, 4: 5; 6: 171.

야 함을 강조한다.

3. 앗수르의 사마리아 성의 공성전

1) 주전 724년 앗수르의 살만에셀 왕은 앗수르의 강한 군사력을 동원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략했다. 그 이유는 아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앗수르에 굴복하고 조공을 드렸는데 애굽 왕 소에게 사신을 보내 애굽을 의지할 의도로 앗수르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이런 배신감 때문에 앗수르 왕은 사마리아 성을 공략한 것이다. 앗수르는 당시 최대의 제국이었기에 전차부대, 기병, 보병, 창병, 돌팔매병, 궁수 등 강력한 군 조직과 장비를 갖춘 군사 강국이었다. 병은 쇠바늘 갑옷과 투구를 착용했으며 50명, 또는 군은 10명 단위의 군 부대 편성에 따라 돌격대 등 강한 군비를 갖춘 부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3년간 포위 공격 끝에 사마리아 성을 정복했다고 한다(왕하 17: 5).

이렇게 강한 군대라도 사마리아 성을 빨리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의 지형 자체가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첫째 해발 430m 되는 고지이지만 지평면으로부터는 100m 정도의 고지대이다. 성의 사방이 절벽은 아니더라도 가파른 경사지이기 때문에 아래서 접근이 어렵다. 아무리 전차와 기마병이 우세할 지라도 우선 접근이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는 첫 번 포위 때에는 앗수르 왕이 살만에셀이었으나 그가 포위 중 진중에서 죽고 다시 살곤 2세가 왕(주전 721)이 되어 와서 마지막으로 성을 점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미 호세아 왕은 전임 앗수르 왕 장례식에 갔다가 앗수르를 배반함이 발각되어

그곳에서 감금되었지만(왕하 17: 4)¹⁸⁾ 사마리아 성 자체가 물과 식량을 잘 준비해서 저항했기 때문에 장기간 포위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다고 본다. 살곤 왕의 역대기에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 점령하고 사마리아 거민 27,290명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 중에 50명은 전차 부대원으로 편성했고, 나머지 포로들은 앗수르 고산 강가에 두었고, 또한 살곤 왕 2년에 가자 왕이 애굽 왕의 도움으로 반역을 시도했지만 다시 정복당하고 앗수르가 그의 행정관을 두어 다스리고 조공을 부과했기에 사마리아는 더 이상 회복의 기회를 엿 볼 수 없었다고 살곤 역대기는 언급하고 있다.¹⁹⁾

사마리아 멸망에 관해 구약성경의 증언과 살곤 왕의 역대기가 일치하는 증언은 이스라엘 거민이 여호와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바알신을 섬기고…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케 하였으므로…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왕하 17: 16-18).

동시에 살곤 왕의 역대기는 앗수르 제국의 주신인 아수르(Ashur)의 명령에 따라 앗수르 신을 위하여 사마리아와 온 땅을 다 점령했다고 증언한다.²⁰⁾

4. 앗수르, 바벨론, 그리고 로마의 예루살렘의 공성전

18) 『뉴 톨슨 주석 성경』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5), 590-591, 열왕기하 17: 3-4 해석 참조.

19) ANET., 286-287.

20) ANET., 284-285.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평화의 기초란 의미)은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지만 세계 열강의 지배욕에 따라 3번에 걸쳐 수난을 당하고 멸망했다. 앗수르, 바벨론과 로마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평화의 도시이지만 전쟁의 도시로 변했다.

1) 주전 701년 예루살렘에 대한 앗수르의 공성전

앗수르 왕 산헤립(주전 704-681)의 역대기에 의하면, 그의 3차 원정 때(주전 701)에 그 나라의 주신(主神)인 아수르(Ashur)의 명령에 따라 신의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시돈과 두로 지역을 점령한 후 남쪽으로 내려와 벳다곤, 읍바, 아스돗 지역을 다 점령한 산헤립은 나머지 지역도 다 점령하였다. 그는 46개의 성벽이 있는 강한 도시들과, 셀 수 없는 촌락들을 점령하는데 흙 램프를 쌓기도 하고, 공병대는 물론 쇠와 파괴용 망치를 사용하는 보병과 함께 공성전의 망치로 부수며 초토화시킨 후 200,150 주민을 추방했다고 한다.²¹⁾

이 때 히스기야 왕은 앗수르 왕이 점령하고 있는 라기스로 사신을 보내 잘못했으니 철수를 요청하면서 앗수르 왕이 요구하는 조공을 바치겠다는 맹세하여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예루살렘 성전 문과 벽의 금을 벗겨서 앗수르 왕에게 바쳤다(왕하 18: 14ff.).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헤립은 세 명의 군대장군(랍사게) 인솔하에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 세탁자의 큰길 앞, 즉 예루살렘 다윗 성 입구 실로암 샘 근원 근처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 공성전을 준비하면서 우선 심리전을 전개했다. 앗수르 군대장관은 이스라엘 대표단 왕궁 책임자 엘리야킴, 서기관 썬나와 사관 요아에게 묻기를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애굽을 의지한다지만 너는

21) ANET., 287-288

그의 손에 찢릴 것이며 너희가 말을 탈 줄 아는 자가 있다면 말 이 천 필을 줄 것이니 누가 이기는지 내기를 하시고 랍사게가 응수했다(왕하 18: 23ff.). 더욱이 랍사게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 것이 너희 신 여호와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뜻에 따라 이 성을 공격하려 왔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이다(왕하 18: 25). 지금 너희가 앗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너희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계속 유인작전을 폈다.

이런 사항 아래 이스라엘 대표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전달하자 대표단들은 베옷을 입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에게 물었으니 이사야는 곤경에 처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대답했다(왕하 19: 6-7).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앗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가 그의 본국에서 돌아가서 칼에 찢려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이사야의 예언대로 산헤립은 그의 나라로 돌아가 니느웨에 거하다 신전에서 부하에 의해 살해되는 운명을 맞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성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하겠다는 말씀대로 그날 밤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쳐 죽인 결과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았고 산헤립의 예루살렘 공성전은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왕하 19: 35-37).

위와 같은 이야기가 열왕기하 18-20장과 이사야서 36-39장에 언급된 이야기이지만 산헤립 역대기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조공에 대

하여 성경과 산헤립 역대기에 금 30달란트는 일치하지만, 성경은 은 300달란트인데 비해 앗수르 역대기에는 은 800달란트로 되어 있고, 지불 방법도 산헤립 역대기에는 왕이 니느웨로 귀국한 후에 히스기야가 사신과 에보니 나무, 함께 연례 조공 외에 이번에 맹세한 조공을 가지고 갔는데, 금은 외에 금속 안티몬, 카넬리안, 상아침대, 여러 색깔의 옷, 등 심지어는 왕의 딸, 궁녀, 남여 가수까지 20여 종의 전리품을 앗수르로 가지고 갔다고 한다. 동시에 십팔만 오천의 앗수르 군사의 급사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²²⁾

2) 주전 587년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성전

주전 612년에 앗수르를 제압한 바벨론은 능란한 전략전법으로 주위 여러 나라를 침공하여 속국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3차에 공성전을 시도하여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거민을 포로로 잡아갔다. 유다 왕 엘리야킴도 또 시드기야 왕도 다 종주국인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런 침략을 받았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비운을 맞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성서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왕하 24: 9, 19; 렘 52: 2-3)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주전 605-562)의 역대기에도 예루살렘 공성전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단지 열왕기하 24-25장과 예레미야 52장, 그리고 역대하 36장에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3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으니 첫 번은 느부갓네살 8년(주전 597), 여호야긴이 그에게 항복하고 일만 명

22) ANET, 288; K. Lawson Younger and William Hallo, *The Context of Scripture: Archival Documents from the Biblical World* vol. 2 (Leiden: E. J. Brill, 2000), 303.

의 용사, 장인과 대장장이 등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니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고 한다(왕하 24: 14). 왕하 24: 16엔 용사 칠천 명, 장인과 대장장이 천 명을 포로로 잡아 갔다고 한다. 예레미야 52: 28에 3023명으로 나타난다. 이 숫자에 다니엘과 그의 동료도 포함된 것으로 가주할 수 있다.

느부갓네살의 2차 예루살렘 공성전은 그의 재위 18년, 시드기야 9년(주전 587)에 시작되었으니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11년까지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 진을 치고 포위한 뒤 토성을 쌓아 투석전으로 공격하며, 궁수를 통한 공격, 사다리를 통한 보병들의 공격을 했으나 결정적인 요인은 그해 4월에 기근이 심해 양식이 고갈된 것이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왕의 일행은 밤 중에 도망가던 중 여리고 평원에서 왕이 잡혀 현장에서 그의 아들들이 처형을 당하고 자신도 두 눈을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기까지 옥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왕하 25: 1-7). 일차 포로에 만 명 이상의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2차 공성전 후에는 포로로 갈 사람이 적었으므로 예레미야의 기록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즉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832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렘 52: 29). 느부갓네살 왕의 3차는 예루살렘 공성전은 그의 재위 23년(주전 581)에 그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거민 745명을 포로로 잡아 갔기 때문에 포로의 총수는 4600명으로 계산되고 있다(렘 52: 30).

3) 주후 70년 로마의 예루살렘 공성전

로마 제국의 예루살렘 공성전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다. 구약에는 물론 신약에서도 언급 안 되지만 유대 역사에서는 예루살렘 멸

망은 중요한 사건이다. 66~70년 사이에 일어난 유대 반란은 예루살렘을 통제 불가능한 도시로 만들었고, 따라서 로마 티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할 수밖에 없었다. 예루살렘 성은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에 둘러싸인 높은 벼랑 위에 위치해 있으므로 아래에서 사람이 접근하기란 어려운 천연의 자연요새이다. 헤롯 시대에 건 축된 이삼중의 성벽에는 높은 탑과 튼튼한 돌 벽으로 둘러싸인 성채가 우뚝 솟아 있어 예루살렘 공성전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티토 장군이 지휘하는 로마군은 공성(攻城)무기, 성벽을 깨부수는 공성추로 공격하기 전에 항복한 자는 용서하겠다고 항복을 권고했지만 성안의 열심당원들은 응하지 않았다. 한편 성 안에서는 공성전에서 평화협상에 응하지 못하게 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식량을 모두 불태웠는데 그로 인해 많은 도시 거주인과 군인들이 아사했다. 한편 로마군은 예루살렘 공략을 위해 영구진지 구축, 성벽높이의 벽을 쌓기와 참호를 파는 등 공격준비를 했고 탈출자들을 잡아 십자가형을 처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까지 만 명이 이르는 사람이 처형되었다고 한다.²³⁾ 주후 70년 아브월 제9일과 제10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 전해진다. 아브월 9일은 제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과 일치한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루살렘 공방전 과정에서 희생된 수는 무려 110만 명이고 전쟁기간 포로 된 자가 9만 7천 명이었다고 한다. 지금도 로마에 있는 티토 장군의 개선문에는 당시 성전에서 메노라와 같은 성물을 약탈하는 로마군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23) “로마의 예루살렘 함락과 유대교 생존전략(教育),” <<http://blog.naver.com/hylee2785/220807844127>>

5. 여호수아의 매복전(埋伏戰)

여호수아 8: 1-29은 여호수아의 매복전 전술을 다루고 있다. 여러 고 성을 정복하고 그 곳에서 아간이 전리품을 훔친 결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에 아이(Ai) 성 정복은 실패로 끝났다(수 7: 1-5).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군사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였으므로 8장에서는 하나님은 아이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8: 1, 7, 18)고 약속하면서 매복전을 통해 아이 성을 정복할 수 있게 하였다.

아이 성에서 실패 후에 다시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아이 성으로 올라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베엘과 아이 성 사이에 오천 명의 매복병을 매복시켰다(8: 12). 여호수아와 함께 한 모든 군사는 전쟁(암 하밈함마)의 백성으로 표현되는데 이런 표현은 여호수아기에만 나타난다(8: 1, 3, 11; 10: 7; 11: 7). 이는 전쟁에는 주로 남자 군인들이 참여하지만,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통상 남자로 구성된 군사라는 의미의 관용 어휘는 전쟁의 사람(안세 하밈함마)으로 표현 된다(민 31: 28, 49; 신 2: 14, 16; 수 5: 4, 6; 6: 3; 10: 24 등). 하지만 매복병으로 뽑힌 용사들은 “이쉬 기보레 하하일”로 표시된다. 전쟁의 용사란 뜻이다. 선택된 용사들은 그 밤에 매복할 장소로 몰래 보내졌다. 8: 4-8에서는 여호수아가 매복할 용사들을 보내면서 그 후 전개될 전략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매복할 장소는 아이 성의 뒤편(אחור, 아하레, 13절에는 서편-צפון, 암)으로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성읍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하되, 항시 출동할 태세를 갖추 것을 명했다.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은 성읍으로 가까이 가면 그들이 처음처럼 우리에게로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도망가면 그들이 우리를 추격하기 위해 따라 오면 우리는 그

들을 유인하기 위해 성읍에서 멀리까지 도망갈 것인데, 그 때 여호수아가 단창(短槍)을 들어 신호를 보내면(18절) 매복한 병사들은 아이 성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이미 그 성읍을 우리 손에 주었기 때문에 그 곳을 정복하고, 불사르라. 하나님이 명한대로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들에게 다시 반복하여 명했다.

매복 병사들에게 위와 같은 명령을 전달한 후에 여호수아는 오천 명의 매복병들을 매복할 곳으로 보냈으니 그들이 아이 성 서쪽에 있는 베엘과 아이 사이에 있는 즉 아이 성 뒤 쪽에 매복하였다. 아이 성은 베엘 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창 12: 8). 하지만 여호수아는 나머지 군사들과 함께 진지에서 유숙했다. 이번에는 첫 번째(7: 4-5)와는 달리 하나님이 아이 성을 그들의 손에 주겠다고 약속하였고(7-8)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의 말씀에 절대 복종한 결과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분위기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백성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아이 성을 향해 백성들에 앞서 올라갔다.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이란 군(軍)지휘관들을 지칭한 것이다(7: 6과 비교). 백성들에 앞서(עמך לפני)란 말은 시간과 공간을 다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8: 11과 연계해서 시간적으로 먼저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다. 10절에서는 여호수아와 군 지휘관이 다른 군인들보다 먼저 아이 성을 향해 올라갔고, 11절에서는 온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아이 성을 향해 간 것으로 이해된다. 올라간다(אלא)는 동사가 각 절에 한 번씩 두 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절의 백성은 여자나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백성을 말하고 11절에 여호수아 외에 전쟁의 모든 백성은 모든 백성 중에서 선택된 전쟁의 용사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²⁴⁾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은 아이 성 정문을 향해 올라가서, 아이 성 북쪽에 진을 쳤는데. 이곳과 아이 성 사이에는 골짜기 있었다. 3절의 매복병 파병과 11절에서 본진의 출전으로 군 작전 준비가 완료된 셈이다. 따라서 성읍 북쪽에는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군사가, 성읍 서쪽에는 매복병이 잠복함으로서 고지의 남쪽과 요단 계곡을 향한 아이 성 정문을 제외하고는 아이 성을 포위한 셈이다. 그 밤에 여호수아는 골짜기 가운데를 통해 성읍으로 접근하였을 때에 아이 왕에 의해 발견되었다. 여기 골짜기란 용어가 11절에는 가이(גַּי)이고 13절에는 에메크(עֵמֶק)로 서로 다른 용어가 쓰이는데, 에메크가 가이보다는 더 크고 넓다. 이스라엘 골짜기(사 6: 33, 에메크 이즈르엘)는 가멜산 줄기와 사마리아 지역 사이를 나누는 지역으로 골짜기의 폭이 수십km인 평야인데도 골짜기로 불린다. 에메크의 사용은 7장의 아골 골짜기를 연상시키는 데에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아이 성읍으로 접근하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을 발견한 아이 성 왕은 백성과 함께 급히 일어나 이스라엘 군사와 싸워 이겼던 아라바 광야로 급히 나갔으나 성읍 뒤에 이스라엘 군사가 매복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 여기 아라바 광야란 아이 성 동쪽을 향해 있는 요단 계곡을 말한다. 또 정한 때 (בַּיּוֹם)란 여호수아 7: 2-5에서 여호수아 군사와 아이 성 군사가 싸웠던 곳에 이르러 싸울 때를 말한다. 이 때 이스라엘 군사는 패하는 척하며 아라바 광야 길로 도망하여 아이 성 군인들을 유인했다. 아이 성 온 백성은 이런 유인

사실을 모르고 성문을 지킬 사람도 없이 성문을 열어 놓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를 추격하며 아이 성을 멀리 떠났다(16절). 16절에 성읍의 온 백성(כָּל)이란 어린이나 노인, 부녀자들은 포함한 온 주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만한 군사를 의미한다. 17절에 싸울 군사들을 남자(אִישׁ)로 표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 성을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자 여호수아가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순간 매복했던 복병이 급히 일어나 성읍을 정복하고 그 성을 불태웠다. 여기 단창(קֶדֶשׁ, 키톤)이란 이스라엘 매복병이 아이 성 공격을 위한 표식으로 사용되었지만, 찌르는 창(하닛트)이라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표시하는 상징적 무기(Javelin)를 말한다. 본래 키톤은 골리앗 장수가 들고 있던 반달형 창으로 주전 2천 년대까지 사용되었으나 그 후에는 작은 형태의 창으로 변형되었다고 한다.²⁵⁾ 너의 손에(בְּיָדְךָ, 베야테카) 단창은 너의 손(베야테카)에 아이 성을 준다는 어휘가 평행을 이루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장에는 여리고 왕이 언급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여리고 왕이 언급되며 아이 왕처럼 처형되었음을 증언한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아이 성 군인들은 당황하여 이리도 저리도 못하고 이스라엘 군의 반격을 받게 되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군은, 매복병들이 아이 성읍에 들어가 성읍을 불태우는 것을 보고, 아이 성 백성들을 계속 추격하였고, 매복병들도 성읍에서 나와

24) R. G. Bratcher and B. M. Newman, *A Handbook on the Book of Joshua*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3), 108-109.

25) D. M. Howard, Jr., *Joshua NAC 5*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8), 208.

아이 성 군사들을 공격하자 그들은 독 안에 쥐와 같은 운명이 되어 진멸을 당했는데, 아이 성 왕만 생포되어 여호수아 앞에 끌려왔다는 이야기이다. 22상반절에 이들(אלהם)이란 단어가 세 번 나타나는데 이들이란 이스라엘 군사를 말한다. 이들에 의해 저들이(אנאם, 오탐) 동서 쌍방향으로 포위되었음을 표현한 것이다.

6. 여호수아의 야간 기습전(奇襲戰)

여호수아의 기습작전은 아모리 5 왕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기브온 사람들이 동맹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기급 지원 요청을 한 전쟁 이야기에서 나타난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10: 6-15에 나타나는데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같은 사건을 이야기 식으로 된 산문(散文) 형식의 6-11절과 시(詩)의 형식으로 된 운문 형식의 12-15절로서 이는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사건의 여러 면을 강조하는 데 있다. 따라서 두 단락은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같은 사건의 다른 면을 강조하는 데 있다: 성공적인 매복(9-10), 무서운 우박(11절), 해와 달을 포함한 기적(12-13).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응답(14)하는 이야기 등이다. 여기 첫 단락, 6-11절은 아모리 5 왕들의 공격을 받은 기브온 사람들이 황급히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 진지로 내려와서 구원을 요청하자 이에 여호수아와 병사들은 즉각 기브온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모리 왕들을 격퇴시킨 이야기이다. 기브온 사람들의 다급함은 6절에서 호소하는 4개의 명령형 동사에서 드러난다. “당신의 손에서 당신의 종들을 포기하지 마소서, 빨리 우리에게로 올라 오셔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리고 도우소서.”

기브온 사람이 위장하여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긴 했지만 이러

한 호소에 여호수아 일행은 즉각 응할 수밖에 없었다. 길갈은 해저 400m 저지대이고 기브온은 해발 800m 이상 되는 경사진 고지대이므로 기브온 공격은 야간 기습 작전이 아니면 공격이 불가능한 지형 조건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사는 길갈로부터 25-30km 거리와 1000m 이상의 고지에 있는 기브온을 향하여 비탈길을 밤새도록 올라가 새벽 미명에 적을 기습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이다(9절 이하). 이는 9절에 갑자기라는 피트옴(אָנָּה)은 밤새도록 행군하여 온 병사들이 새벽 미명에 갑자기 취한 기습작전을 의미한다. 이런 전법은 여호수아가 하솔 왕을 공격할 때도 사용했던 전술이다(수 11: 7). 이런 단순한 야간 기습에 비해 기드온의 야습은 보다 체계화된 야습 작전이었다.

하지만 10절에서 실제로 적을 섬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적을 공격하는데 4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적을 섬멸한다. 즉 여호와가 적을 혼돈에 빠지게 하고, 기브온을 공격하고, 서쪽으로는 벤 호론의 퇴로까지 추격하고, 남쪽으로는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공격하였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여기 10절에 4개의 동사는 다 단수로 하나님 여호와가 주어이다. 하지만 몇몇 사본들(Old Greek, 시리아역과 탈굼)은 추적과 공격은 복수로 즉 이스라엘이 추격하고 공격한 것으로 번역한다(NIV). 한글 개역개정은 주어가 단수이지만 하나님 대신 여호수아가 추격한 것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마소라 본문은 모든 동사가 단수이므로 주어는 여호와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11절에서도 여호와가 계속하여 우박을 보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어울린다. 아모리 왕들을 섬멸한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합작보다는 우박

에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많다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강조한 것이므로 주어와 동사는 단수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14절)는 결론처럼 하나님에 의해 아모리 왕들이 제압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11절에서 적들이 이스라엘 면전(面前)에서 도망간 상태였다는 문맥에서 부사 미프네(יִפְנֵי)는 매우 급한 비상 상태를 묘사하는 용어이다. 단순히 면전이라는 표현인 리프네(יִפְנֵי)에 비하여 미프네는 급한 상황을 표시하는 용어다. 이스라엘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움을 직감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아모리 왕들을 섬멸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증언하는 데 있다.

10: 12-15은 기브온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운문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러할지어다”는 표현에 대해 여러 해석과 오해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루의 시간을 이틀간의 시간으로 간주하거나, 하나님의 기적을 신앙의 검증 척도로 삼거나, 일식(日蝕)같은 자연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되지 못한다. 햄랜은 올바른 해석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적한다. 첫째, 성경에서 하루는 24시간으로 간주한다. 둘째,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공중에 머물도록 기도한 때는 11절에 언급된 대로 공격 중이거나 전투가 끝난 후가 아니라 공격을 시작하기 전 새벽 미명이다(12절). 셋째, 여호수아 일행이 길갈에서 출발하여 기브온에 도착한 때는 달이 지고, 해가 뜨기 전 캄캄한 새벽 미명인데 이렇게 되는 때

는 밤에 많은 비추는 만월에만 가능하다. 넷째, 여호수아가 기도한 목적은 해와 달이 움직이지 않고 그 상태에서 머무르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기 머무른다는 동사는 돛(נָח)은 그대로 있다(stand still, RSV)는 의미보다는 조용하다(be silent)는 의미가 보다 정확한 뜻에 가깝다. 해와 달이 조용히 있다는 말은 그들이 밤과 낮이라 할지라도 빛을 발하는 것을 중지하였다는 뜻이다. 따라서 흑암 속에 기습 공격을 받은 적들은 혼돈에 빠져 패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13절 상반절에서도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고 달도 빛을 비추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여기 달이 멈추다는 말로 번역된 아마드(נָח)란 동사도 무엇 무엇을 하는 것을 그쳤다는 말이다(창 29: 35; 30: 9; 삼하 2: 28; 왕하 4: 6과 비교). 즉 달도 빛을 발하는 것을 그쳤다는 뜻이다. 여호수아 일행이 요단 강 도하 때에도 흐르던 요단 강물이 그쳤다고 할 때도 이 아마드 동사가 사용된다(3장 16). 다섯째,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지 해나 달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다.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짙은 구름으로 해와 달을 온종일 덮어 흑암을 만드는 것은 그의 자연스런 솜씨다. 대낮에도 밤처럼 캄캄하고, 만월의 빛 없이도 온 밤을 캄캄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필요가 없다(13절)는 것이다. 하늘을 흑암으로 덮으시는 분(사 50: 3)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²⁶⁾ ‘야살의 책’(The Book of Yashal)이란 고대 전쟁 이야기를 기록한 책으로 알려진다.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가 머무를 때까지 적에게 원수를 갚았다는 말은 라멕(창 4: 24), 삼손(삿 15: 7; 16: 28), 에돔(겔 25: 12-14)과

26) E. J. Hamlin, *Joshua* (Grandrapids: WM, Eerddman Pub. Co., 1983), 87-88

같은 인간의 보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압제에서 회복, 잘못에서 잘함으로 회복, 전쟁에서 평화로의 회복, 가나안 왕들의 압제에서 기브온의 구원을 의미한다. ‘원수를 갚다’로 번역되는 나감(נָקַם) 동사는 무법과 불법에서 법치로 회복, 무질서와 혼돈에서 질서와 평화로의 회복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억울함을 당해 보복하는 것은 인간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원수를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나님은 말하기를 너희는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한편 보복은 내 소관이라고 한다(레 19: 18; 신 32: 35). 시편 94편은 원수 갚는 일이 금지되었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이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지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지어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누가 나를 위하여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행악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
지 않았다면 내 영혼이 이미 칠펝 속에 잠겼으리이다(시 16:17).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결론을 내린다(14). 즉 기브온의 구원은 평화의 구조를 박탈한 가나안 아모리 왕들을 멸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구한 하나님 구원의 역사(役事)는 전무후무한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증언한다. 기브온 구원의 역사는 중요한 신학적 이슈를 지닌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박과 폭풍 등 자연현상을 매개로 직접적인 간섭을 통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은 그의 대리인들, 즉 여호수아와 그의 용사들을 통해 간접적인 간섭으로 승리를 주신다. 셋째는 이스라엘과의 언약 동반자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과 인간의 함께 역사함으로 가나안 땅에 새 창조의 길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호수아 일행이 기브온을 구한 후 주둔군이 있는 길갈로

돌아갔다는 보고이다(15). 이 구절이 제시하는 바는 여호수아 일행의 전쟁은 땅을 점유하려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의 지배세력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불법의 옛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신앙과 정신을 창조하는 데 의의가 있다.

7. 사사 기드온의 야습작전(夜襲作戰)

사사기는 지역의 안보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출발한 사사들의 승리로 끝난 전쟁 이야기들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승전 이야기가 기드온의 야간 기습작전 이야기로 사사기 6-8장에 기록되어 있다. 우선 지역적 안보 위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로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먼저 군사 지도자로서의 기드온의 자질을 점점 후 그의 야습의 군사 작전전략을 찾아보자.

1) 겸손과 자기 한계를 아는 지도자(指導者)

기드온(Gideon)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7년간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기드온이 자기의 현 상황을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삿 6: 12-14) 하였다. 기드온의 대답은 겸허하게 자기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약한 상태이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부름에 감당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15절). 그러자 기드온이 확신을 갖기 위해 고기와 무교병에 국물을 부었을 때 불에 타 없어지는

확증을 보았으나 확신이 가지 않아 양털에만 물이 있고 주변이 마르는 경우와 그 반대로 양털에만 물이 마르고 주위에는 물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감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רוח יהוה)을 부여 주었다(34). 그러자 그는 소신을 갖고 여러 부족에게 소집 명령을 내리자 수만 명에 이르는 군사가 모집되어서 그 중에 선발된 용사들로만 승리를 한 후에 백성들은 그가 계속하여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간청했으나 자기의 소임은 미디안을 제압하는 것뿐이라고 그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들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한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삿 7: 23)며 요청을 끝까지 거부했다. 개선장군이 된 그에게 백성들은 계속된 권력 유지를 요청했으나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간 자기의 한계를 인식한 군(軍) 장군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드온의 야간(夜間) 기습작전(奇襲作戰)-야습작전(夜襲作戰)

기드온의 모집병 군사가 미디안 적군을 제압하기 위한 전략은 우선 적군의 숫자도 많았으니 십삼만 오천 명(삿 8: 10, 12)으로 추산되는 많은 병력이다. 수많은 적군을 대할 기드온의 전략은 물론 군사도 많이 필요했음은 알 수 있다. 그래서 기드온이 아셀, 스불론과 납달리 등 여러 지파에 사신을 보내 군사를 모병한 결과 삼만 이천 명이나 모집되었다. 하지만 하나님 기드온에게 많은 군사보다는 지용(智勇)을 겸비한 소수 정예부대(精銳部隊)가 필요하니 소수 정예를 선발하라고 하자, 모병 가운데 집에 일이 있고 마음에 겁먹은 자들을 우선 일차적으로 이만 이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냈다(삿 7: 3). 그리고 남은 만 명도 많으니 이차 시험을 통해 정예 소수를

선발키로 했으니, 적을 대치한 상황에서 냇가의 물을 먹을 때 손으로 물을 떠서 적을 살피며 먹은 자와 급해서 얹으려 물을 마신 자들 중에서 구별하였으니 전자에 해당하는 자 300용사를 특공대원으로 선발하였다.

그리고 선발된 300특공대원들에게 사전에 준비를 시켜 야밤에 적을 습격하도록 작전 계획을 세웠다. 이미 하나님은 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준다는 승리의 약속을 4번씩이나 반복한 상태였다(삿 7: 7, 9, 14, 15). 삼백 명의 특공대원들을 우선 백 명씩 세 부대로 나누어 각기 나팔과 빈 항아리에 횃불을 숨겨 넣고, 각기 할당된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에 따라 기습 공격하기로 준비했다. 즉 기드온의 신호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일제히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라,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함성을 지르며, 동시에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켜 휘두르며 공격하라는 것이다…또 이는 ‘여호와와 칼이다’”라고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다(삿 7: 18-20). 이런 기드온의 신호 지침에 따라 밤 이경 즉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적진의 교대시간의 혼란한 틈타 갑자기 3부대가 사방에서 기습공격을 감행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나팔 소리에 모든 특공대원들이 오른손엔 나팔을 들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이는 여호와와 칼이다”라고 함성을 지르며 기습 공격하며 적진을 포위하자 적진은 극도의 혼란과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지게 하는 야간 기습 작전이 단행했다. 그 결과 기드온의 지휘하에 진행되는 삼백 명 특공대의 나팔소리와 함성과 전장을 밝힌 야밤의 횃불에 정신을 잃고 방황하며 적은 혼란 속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죽이는 아비규환(阿鼻叫喚)에 빠지게 되었

다. 이 와중에 살아남은 적들은 요단 강을 건너 도주하자 여호수아의 군사들은 적들을 계속 추적하여 적군들과 적장을 죽이므로 전쟁은 미디안의 참패로 끝났다는 이야기이다(삿 7: 19-25; 8: 1-12).

적군이 혼란과 자중지란에 빠지게 된 이유는 미디안을 위시한 연합군의 수가 너무 많아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이 많았기 때문이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특히 여기에서 기억할 점은 사람은 물론 나팔 소리와 횃불에 놀란 낙타의 대소동이라 할 수 있다. 갑작스런 기드온 특공대의 함성에 모래같이 많았던 낙타의 괴성과 혼란을 수습할 수 없는 아수라장의 대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이런 대혼란은 후대(주전 202)에 갈카타의 자마 전투²⁷⁾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기드온은 이러한 야간 기습전으로 미디안을 섬멸하고 대승을 거두었다. 그 후 40년간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복종하였으므로 기드온 지파에는 평화가 깃들었다(삿 8: 28).

이런 기습 공격은 이미 아브라함도 활용했던 전법이다. 북방 5부족과 남쪽 5부족이 싯딤 골짜기에서 싸울 때 소돔이 패하자 소돔에 살던 롯도 사로잡혀 갔고 재물도 약탈당했다(창 14: 10-16). 그때 아브

27) 자마 전투란 스페인 갈카타의 한니발이 포에니 1차 전쟁에서 승리하여 로마를 16년간 제압하고 있었을 때, 이에 반전을 시도한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역습으로 한니발의 갈타코에 접근하자 갈타코로 돌아온 한니발과 자마에서 전쟁할 때 한니발은 괴력의 전차부대와 같은 코끼리 부대를 앞세워 선제공격으로 진격 할 때, 로마의 군대는 유인 작전으로 달리는 코끼리 부대를 일단 보내고 측면에서 공격을 시도하면서 나팔을 불고 팽과리를 치고 투창을 던지자 돌진하던 코끼리 떼가 미처 날뛰어 광란을 일으키며 대열에서 이탈하여 대 혼란이 야기되었을 때 한니발의 군대 역시 혼미 속에 자중지란을 맞아 전세가 역전되어 스키피오의 승리로 끝난 전쟁이다. 조병호, *op. cit.*, 39-41.

라함은 밤에 그의 가솔 318명을 데리고 북쪽의 단 지역까지 이르러 적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하고 재산을 다 찾아 왔다는 이야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전법이다(창 14: 15-16). 후대에 사울이 암몬 족속을 칠 때도 야간 기습작전을 통해 승리하였다(삼상 11: 11). 특히 지형이 절벽 같은 곳의 전투는 대낮에는 불가능하기에 기브온 전쟁처럼 야간 행군과 기습만이 승리를 이르는 첩경인 것을 알 수 있다. 6.25 동란 중에 우리 국군도 야습(夜襲) 백병전(白兵戰)으로 김일성 고지를 탈환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²⁸⁾

결론

이 연구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전술전략 가운데 3가지 전술을 검토했다. 공성전술, 매복전술, 야간기습 작전. 공성전은 적의 마지막 거점이나 도성을 공격하고 싸워 승리를 쟁취하는 전술이다. 많은 어려움과 시간과 희생이 요구되는 싸움이지만 최후 승리를 위해서는 이 작전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점유하기 위해 여리고 성 공성전을 취하여 승리했다. 또 아이 성을 점유하기 위해 적지에 아군을 매복시키고 유인작전을 통해 승리를 거두었다. 마지막으로 아모리 5왕들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여호와와 군병들은 야간에 40km에 준하는 산 비탈길을 밤새껏 걸어 새벽 미명에 기습작전으로 아모리 왕들을 떨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는 것이다.

사사시대에는 여러 사사들이 있었으나 대표적인 사사는 기드온이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적들이 쳐들어 왔을 때 하나님의

28) 『동아일보』 1951. 9. 6.

부르심을 받고 사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특히 선발된 300 특공대원들을 지휘하여 나팔과 향아리에 횃불을 숨겨가지고 밤 자정에 갑자기 습격하여 잠자던 적 군사와 낙타가 놀라 대혼란이 야기되는 자중지란으로 아비규환이 되어 미디안 군사와 연합군이 괴멸했다는 야간기습 작전을 검토하였다. 이 작전은 지형 조건이 나쁘고 낮에 전투가 불가능한 지리 조건 속에서는 불가피한 전법이다. 동시에 소수의 정예군사로 수많은 군병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전술들은 지상에 전쟁이 있는 곳에서는 늘 행해졌던 전술전략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사문. “구약성경에서 본 군(軍) 지도자(指導者)와 지도력(指導力)에 관한 연구II.” 『군선교신학』. 15 (2016).
- _____. 『구약의 자연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_____. *Divine War in the Old Testament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9. BZAW 177.
- 『동아일보』 1951. 9. 6.
- 조병호, 『성경과 고대전쟁』. 서울: 통독원, 2016,
- Bratcher, R. G. and B. M. Newman, *A Handbook on the Book of Joshua*.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3.
- Gordon, Cynus H. *Ugaritic Textbook*.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5.
- Hallo, W. ed., *The Context of Scripture II*. E.J. Brill. Leiden, 2000.
- Hamlin, E. John. *Joshua, Inheriting the Land, ITC*. Grand Rapids: Wm. B. Eerdmann, Publ, Co, 1983.
- Howard, D. M. Jr. *Joshua*. Nashville: B. & H., 1998.,
- Pritchard, J. B.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Shoshan, Abraham Even Ed. *A N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Using the Hebrew and Aramaic Text*. Jerusalem: Kiryat Sefer Publishing House LTD., 1999.
- Tsumura, David Toshio. *The First Book of Samuel(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hid: Wm. B. Eerdmans 2007.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00167&cid=40942&categoryId=33371>>
- <<http://blog.naver.com/hylee2785/220807844127>>

Abstract

The Military leader and leadership in the Old Testament

Sa Moon Kang

This article focuses on two issues: one is a national chief-military commander Joshua's three strategies in his conquest of the land of Canaan, the other is the judge Gideon's military leadership. I did not point out these issues in my previous article "The Military leader and leadership in the Old Testament" in the Journal of Military Mission Theology, volume 15(2016)".

The first strategy of Joshua in his conquest is the battering warfare or the siege warfare. In attacking Jericho,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conquest of the promised land of Canaan, Joshua commanded the Israelites to march around the city with all armed men once a day for six days, but on the seventh day to march around the city seven times, with priests blowing the trumpets. When the priests sounded the trumpet blast and shouted, the wall of city collapsed and people went up, every man straight in. As a result, Joshua and the Israelite army succeeded to take over the city of Jericho.

The second strategy of Joshua is the ambush which is used to attack the city of Ai. Joshua sent 5,000 soldiers out at night and said "you are to set an ambush between Bethel and Ai, don't go up very far from it, then with the sign of Joshua's Javelin all people will advance on the city like before, and then the Ai people and king will pursue us, we will flee from them, then Joshua will hold out toward Ai the Javelin in his hand, (Josh 8: 11-13)" So that the armed men in the ambush rose up quickly and set Ai on fire. This is a tactic which is used till now through the history of war in the world.

The third strategy is the sudden attack at night which is demanded in the situation of the geographical conditions. In a desert, an open field, nor inclined mountains people could fight in a day time. This strategy is used in the battle against the five kings of the Amorites in order to save the Gibeonites (Josh 10: 1-28). The soldiers of Joshua marched up to the Gibeonites where is 40km far from Gilgal camp in the whole night and at the dawn they suddenly attacked the Amorite soldiers and conquered them.

In the next section we will deal with the military leadership of Gideon who was a military leader as well as a famous judge. Gideon, full of the Spirit of the Lord God called the people of his fellow tribes to arm, so that 32,000 soldiers had been gathered. Since God told him that this number is too many, Gideon selected 300 special soldiers who lapped the water with their hands to their mouths for the battle. Dividing the 300 special soldiers into three companies, he placed trumpets and empty jars in their hands of all of them, with torches inside. Gideon told his soldiers, "watch me, follow my lead, ... do exactly as I do. ... and shout for the Lord and for Gideon." At the beginning of the middle watch Gideon and all soldiers reached the edge of the enemy camp, then they blew their trumpets and broke their jars that were in their hands (Judg. 7: 17-19). As the result the enemy camp was confused and the enemy ran, crying out as they fled (Judg. 7: 21). For The Lord caused the enemy through out the camp to turn into each other with their swords. Through this tactic Gideon got the victory. This tactic is the very useful strategy for the military leaders, being used until today.

Key Words

Joshua, Gideon, battering warfare, ambush, sudden attack



칼빈주의적 미래인간상

Calvinistic Understanding to Man in Future Society

정성구*

국문초록

칼빈주의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관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한 사상체계이다. 시편 119: 105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신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 삶의 전 분야를 이해한다. 이는 인본주의(Humanism)를 바탕으로 둔 세계관과 전혀 다르다. 이 소론에서는 칼빈주의적 시각에서 참된 미래 인간상이 무엇임을 다루고 있다.

중심단어

칼빈주의, 인본주의, 세계관, 인간, 교육

• 논문 투고일: 2017년 7월 19일 • 논문 수정일: 2017년 8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9월 1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전 총신대 및 대신대 총장, 군종 25기

여는 말

일찍이 화란의 얀 다우마(J. Douma) 목사는 그가 쓴 요한 칼빈의 설교집 해설에서 “설교 없이 구원 없다”(Zonder Prediking Geen Heil)¹⁾라고 했다. 그의 말이 타당하다면 “교육 없이 구원 없다”라는 말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도 결국은 교육이었다. 마태복음 28: 19-20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했다. 대개 선교학자들과 선교사들은 이 본문을 선교의 대명(Great Commission)이라 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선교라고 한다. 물론 그 해석은 정당하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려면 바로 교육의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선교명령(Mission Mandate)인 동시에 교육명령(Education Mandate)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의 대명과 교육의 대명은 1세기 때나 21세기 때나 변함이 없다. 물론 1세기의 환경과 21세기의 환경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해도 성경의 명령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찍이 하비 칸(Harvie

* 이 논문은 2005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가 주최하는 교육대회의 발제 강연으로 준비된 것이었는데 약간의 가필과 각주를 새롭게 첨가하여 발표한다.

1) J. Douma & W. H. vander Vegt, *Het Gepredikte Woord Preeken van Johannes Calvin Vertaald Door*(Deel I - Preeken Over Den Decaloog) (Franeker: T. Wever, 1952), 3. 이 책은 칼빈의 설교를 다섯 권의 책으로 편집한 것이다. 칼빈은 강해설교의 왕이라고 할 만큼 성경전권을 거의 모두 강해설교 했다. 칼빈은 주일에 두 번 그리고 주중에 다섯 번의 강해설교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틀을 세웠다. 일찍이 Kampen Theologische Universiteit의 실천신학 교수였던 P. Biesterveld가 쓴 *Calvin Bedienaar des Woods*(Kampen, 1897)은 설교자로서 칼빈을 연구한 귀중한 자료이다. 칼빈의 설교가 영어로 번역된 것이 여럿 있었으나 그 중에서 『신명기 강해설교』와 『욥기 강해설교』가 압권이다.

M.Conn)²⁾ 박사의 책 「영원한 말씀과 변하는 세상」에서 지적하듯이 세상은 아무리 달라져도 인간성은 근본적으로 변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오늘처럼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 어두워진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교육의 대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별히 이 글에서는 칼빈주의적 시각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의 인간상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 글을 씀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 몇 가지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칼빈주의 관점에 대한 것이다. 우리 교단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진 교단으로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에 있어서는 구호에 그치고 있고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칼빈주의 사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이다. 필자가 칼빈주의라는 말을 쓸 때는 성경주의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며, 요한 칼빈 이후에 형성된 역사적 칼빈주의와 특히, 돌트총회에서 천명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확고히 받을 뿐 아니라 19세기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 등이 발전시키고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는 이른바 ‘네오 칼빈주의’(Neo-Calvinism)를 포함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둘째, 한국 교회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전부를 포괄

2) 칸, 하비 마이트랜드는 한국명 ‘간하배’이다. 1960년에 미국 정통 장로교의 한국 선교사로 와서 농촌전도, 윤락여성전도, 문서선교를 하다가 1962년부터 1972년까지 총신 신학대학원의 부교수로 있었다. 1972년 귀국하여 1998년 은퇴할 때까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선교학 교수로 재직했다. 그가 쓴 작품으로는 *Bible Studies on Evangelization and the simple Lifestyle, Eternal Word and Changing Worlds, Doing Justice and Preaching Grace, Theology, Missions and Anthropology in Dialogue, Theologies and Liberation, A Clarified Vision for Urban Mission* 등이 있다.

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좁게는 대한예수교장로교회를 염두에 두었다. 우리와 같이 성경을 무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역사적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복음주의 또는 보수주의자들은 앞으로 교단의 교육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셋째, '미래의 인간상'이라고 말할 때, 미래의 인간상은 바로 오늘 현재의 교육정책, 교육방법, 교육내용에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는 상호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둘은 언제나 하나의 끈으로 연결된다는 전제 아래서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다양한 인간상의 추구

미래의 인간상은 어떠한가 그 이상적 인간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부나 기업이나 단체나 교육의 목표에 따라서 또는 철학이나 세계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인간상을 추구할 것이다. 독일의 스프랑게르(E. Spranger)는 여섯 가지 인간상을 소개했다. 즉, 이론적 인간상, 정체적 인간상, 경제적 인간상, 사회적 인간상, 심미적 인간상, 종교적 인간상 등으로 나누면서 처음 다섯 가지는 유한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마지막 종교적 인간상은 영원을 추구하는 인간상이라고 했다.³⁾

또 한국의 전통적인 인간상은 먼저 '군자'가 되는 것인데 이는 유

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도덕적 수양과 학문의 연마를 통해서 날로 보다 나은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을 지칭했다. 또 다른 전통적인 한국인상의 이상은 '선비'이다. 즉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있으나 청렴결백하여 벼슬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한다. 선비는 높은 지조와 올곧은 정신으로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실천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그러나 유교적인 이상적 인간상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인간상을 갖게 하고 허위의식에 빠졌던 것이 사실이다.

또 최근에 고등학생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바람직한 한국인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는 자주적인 인간상인데 이는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 또 자주적 인간이란 민족적 주체성을 갖고 민족자존과 긍지를 유지하고 생명을 존속시키는 사람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민족적 주체의를 가진 인간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21세기의 세계와, 개방화 추세로 민족적 주체성이 필요하고 통일 후유증과 외부의 세계사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둘째, 화해·협력·평화를 사랑하는 인간상이다. 즉, 과거를 반성하여 공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터전을 만들기 위함이고, 또 마음을 열고 서로 믿고 사랑하는 관계를 갖고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인간을 의미한다. 셋째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상이다. 이 말의 뜻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 즉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과 품성을 가진 인간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화되고 개방화된 국제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3) E. Spranger(1882-1963)는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철학, 교육학, 역사와 문학을 공부하고 베를린 대학과 튀빙겐 대학의 교수로 있었다. Dilthey의 역사철학과 정신과학적 교육학자로 지칭한다. 슈프랑어의 교육시장은 크게 두 가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페르탈로치의 교육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다.

통찰력을 기반으로 창조적 자세가 요구되기에 진취적이고 창조적 인간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넷째는 도덕적인 인간상이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존중히 여기며 자신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의미한다. 도덕적 인간은 이해 관계를 지닌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위의 네 가지 인간상은 한국 정부,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지향하는 미래의 한국인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나 회사가 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도 있다. 예컨대 해태 컴퍼니 채용공고나 인사제도에서 그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형 인간상인데 이는 정보를 창출하고 정보를 활용할 줄 아는 해태인이다. 둘째는 창조형 인간상인데 이는 혁신 지향적인 사고로 문제해결에 투철한 해태인을 지향하고 있다. 셋째는 성취형의 인간상인데 말하자면 조직과 개인성장을 위해서 자기 개발에 힘쓰는 사람을 일컫는다. 넷째는 세계형 인간상인데 사고는 국제적으로 넓게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다섯째는 예지형의 인간상인데 미래를 예측하고 개척하는 해태인을 의미한다. 여섯째는 덕망형의 인간상이다. 즉, 덕으로 사회에 기여하면서 문화의식을 겸비한 해태인이다.

위에서 우리는 다양한 인간상을 생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교육철학과 어떤 세계관을 갖는가에 따라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국가정책이나 기업이익의 목표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이상형의 인간상을 찾을 수 있다.

2. 21세기의 변화와 미래의 인간상

21세기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이다. 어떤 이는 오늘날의 변화에 대해서 “가속화된 변화”(Accelerated Change), “변화의 불안정한 소용돌이”(Insatiable Vortex of Change), “극적인 변화”(Dramatic Change), “엄청난 변화”(Extraordinary Change)라는 표현을 쓴다.⁴⁾ 또 어떤 이는 21세기의 변화를 “경련적 변화”(Convulsive Change)라고 하여 무원칙의 변화로 특징짓고 있다고 했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는 문명사적으로 대변혁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사용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종이를 쓰지 않을 것이며, 자유로이 움직이고 빠르고 많은 대상을 한 번에 다룰 수 있고, 많은 양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 관리, 분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⁵⁾ 그러므로 정보화 사회 또는 지식기반사회에는 엄청난 실제적 변화가 이루어진다. 즉 정보화와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기술혁신의 충격이 대단할 것으로 내다본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삶의 전 분야에서 과학과 학문의 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상상을 초월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정보화는 세계화, 지구촌화가 되고 국가도 이른바 민족문화국가를 지향하게 된다. 그리고 21세기는 도시화, 공업화, 정보화 등에 의한 기능의 분화(Functional Differentiation)와 구조적 복잡성(Structural Complexity)이 증대된다. 따라서 현대의 과학, 기술, 산업의 변화 속도는 이제 ‘한 세대 사이에 산

4) Aubrey Malphurs, *Pouring New Wine into Old Wineskins: How to Change a Church Without Destroying It* (Grand Rapids: Baker Pub Group, 1993), 20. 이 책에서는 거대한 변화와 미국사회를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인류가 지난 20년 동안 겪었던 변화들은 과거 2000년 동안에 겪었던 변화보다 훨씬 많은 변화들이었다고 한다.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2010년에 우리가 사용할 정보의 3%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5) 신극범, 『변화의 시대 교육의 과제』 (대전: 대전대학교 출판부, 2005), 49.

업혁명과 종교개혁이 한꺼번에 열 번쯤 일어날 정도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급속도의 변화가 예견된다.⁶⁾ 이런 변화 때문에 우리의 의식구조,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체계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강요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일반 교육학에서는 21세기에 다음과 같은 인간상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한다. 즉, 첫째로 21세기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이며 동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지녀야 할 가치는 넓고 깊은 휴머니티(Humanity)를 지닌 인간상이다.⁷⁾ 둘째, 21세기는 모든 문제가 지구촌이라는 세계의식의 기초 위에 구상되고 행해져야 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므로 사회적 연대의식과 운명적 공동체 의식을 굳게 갖고, 의식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인간상이 요구된다. 셋째, 정의가 넘치는 사회가 되는데 앞장서는 인간상이 요구된다. 넷째, 정복의식과 조화의식의 균형적 개발의 시대를 살 의식을 가진 인간상이 요구된다. 다섯째, 정보를 수집·가공·처리하는 정보능력과 정보의식이 있는 인간상이다. 여섯 번째는 어떤 경험도 더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가를 생각하는 개방성이 요구되는 사회에 걸 맞는 인간상이다. 일곱 번째는 21세기는 20세기의 규격화, 분업화, 집중화, 극대화, 중앙집권화의 문명물결의 특징에서 다원화, 다양화, 개별화, 분권화, 총체화에 적응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상이다. 여덟 번째는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 전통적 생활양식과 새로운 생활양식의 갈등을 조화시킬 줄 아는 유연성을

6) cf. 황정규 편, 『미래지향의 인간교육』(1986); 차경수, 『열망과 좌절, 그리고 반항: 변동사회 속의 한국 청년문화의 특징과 과제』(1990), 7.

7) *Ibid.*

가진 인간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⁸⁾ 우리는 위에서 급변하는 21세기의 세상을 살면서 일반 교육학, 사회학에서 가지는 인간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시대적 요구이면서도 철저한 인본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지향하는 미래의 인간상은 어떠해야 하며 특히, 칼빈주의적 입장에서의 한국 교회의 미래 인간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3. 칼빈주의적 미래 인간상

앞서 언급했던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다양한 배경에서 생각하는 이상적 인간이나 시대적 요구와 국가체제나 윤리관 속에서 나온 인간상도 그 바탕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이면서 윤리적인 세계관에서 출발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본 교단이 지향하는 인간상 특히, 칼빈주의적 시각에서의 인간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런 인간상을 목표로 삼았을 때는 당연히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철학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1)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가진 인간상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피조물이라는 상관관계에서만 정확히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전 3: 11).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치 못하면 인간에게 평안이 없다.

8) *Ibid.*

그러므로 칼빈주의적 교육의 목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창 1: 26).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 최초, 최고의 목표이다.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기는 했어도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다.⁹⁾ 그러므로 인간에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같은(Like God) 성품으로 지적·도덕적·영적 창조성, 윤리성을 가진 인간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인간이 소중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살이나 자해가 죄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허무주의도 극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족주의나 종족주의도 극복해야 하고 인종이나 피부색깔로 말미암아 오는 차별도 없애야 하고 장애우에 대한 차별심도 없애야 한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그 믿음이 세계 선교의 기틀이 되기도 한다. 칼빈주의적 교육의 이상은 인간을 그냥 도덕적·윤리적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9)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1994), 444.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2)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사는 인간상

인간상을 형성하는 것은 곧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관(Weltanschauung; World View)이다.¹⁰⁾ 세계관은 가치관을 결정하기도 하고 오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오늘날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결국은 세계관의 문제이며,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진다. 세계관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상과 우주와 인생을 보는 안경이라고 볼 수 있고 프리즘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사람은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인생과 세계와 우주를 보는가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결론에 이른다.

예컨대 유물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볼 때 물질을 모든 것의 출발과 과정과 결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유물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물질이 희망이며 생명이며 법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유물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한다면 정치의 목적이 자연스레 부의 축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또한 유물주의 세계관이 그들의 도덕적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인생관과 윤리관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목적이 수단

10)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B. J. Walsh and J. R. Middleton, *The Transforming Vision* 한역 42f. 이원철 박사는 그의 책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발전』(서울: 혜선 출판사, 1990), 3에서 말하기를 “역사를 움직이는 수많은 동력들-자연 조건, 사회, 경제제도, 정치적 리더십 등등-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을 나는 세계관(Weltanschauung)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큰 차이는 그가 정신적 존재(a psycho-spiritual being)인데 있다고 나는 믿으며, 개개인의 정신구조와 한 사회의 정신풍토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세계관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을 신성시하게 되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목적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사상이 팽배하게 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인본주의 세계관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무신론적인 인본주의(Humanism)사상이다. 이런 인본주의사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종교 등에 깊이 침투되었다. 오늘의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¹¹⁾의 사상이나 뉴에이지 운동(New Age Movement)도 따지고 보면 인본주의 사상운동이다.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 벨카워(G. C. Berkouwer)¹²⁾는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긴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인본주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21세기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인본주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또 화란의 요하네스 베르쿠일(Johannes Verkuyl) 박사¹³⁾도 오늘 우리는 제 2의 계몽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30년을 전후해서

11) 포스트모던은 그 자체가 체계적 이론을 거부하는 열린 사유의 개념이어서 절대 진리를 부정한다. 그래서 절대진리를 부정하면 자연히 세속적이고 상대주의적인 다원주의적 경향을 띠게 된다. 포스트모더니즘 즉 탈현대주의 사상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신학, 신앙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사상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고 그것은 교회와 신앙에서도 새로운 물결로 다가오고 있다.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은 기독교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모든 종교가 꼭 같다는 종교다원주의가 되었다. 즉 종교는 모두가 상대적이며 다원적이라는 것이다.

12) G. C. Berkouwer는 1940년 Vrije Universiteit 에 강사로 임명되어 1945년에는 카이퍼와 비빙크, 헤프 등 바튼을 이어받아 1973년 은퇴할 때까지 조직신학교수로 있었다. 벨카워는 교의신학 전권을 집필했으며 또 영어로 번역되었다. 그 외에도 *A Half Century of Theology, Triumph of Grace in the Theology of Karl Baith, Borthianism and Catholicism, Conflict with Rome* 등 수많은 저서들을 남겨 개혁신학의 대표적 신학자이다.

13) Johannes Verkuyl(1908-2001)는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J. H. Bavink와 함께 위대한 선교신학자이다. 22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있었을 뿐 아니라 120여 권의 저술을 하였으며 아브라함 카이퍼 이후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일과 세계 선교운동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다. 특히 칼빈주의자로서의 면모는 그가 세계교회협의회에 참가하면서도 칼빈주의 시각에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칼빈주의적 시각에서 인종문제, 인권문제, 전쟁과 평화, 교육과 경제문제 등에 관여했는데 이는 A. Kuyper와 유사한 점이다.

전 세계는 18세기와 19세기에 찬란하게 꽃피웠던 인간의 자율주의(Autonomous)와 합리주의사상을 이상화했던 계몽주의사상이 다시 부흥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세상의 분위기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철저히 유물주의적 인간상, 인본주의적 인간상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칼빈주의적 신학과 신앙 그리고 칼빈주의적 교육 이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직하게 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규모도 크고, 목회자도 많고, 교육자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한다지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에 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유물주의적 인간상, 인본주의적 인간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실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본주의사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그 자리에 채우는 사상이다. 즉 인간은 이성 속에 활동하므로 인간 그 자체로서 충분하며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는 사상이다. 그들은 인간 속에 있는 자율적인 이성을 이상시하는 것이다. 인간이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고 인간의 판단과 결심, 인간의 과학적 창조의 결과가 표준이 된다는 사상이다. 휴머니즘 곧 인본주의 출발점은 사람의 인간성이 과학지식의 방법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주의 철학자 헬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박사는 휴머니즘을 '과학적 이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유물주의나 인본주의는 오늘의 사람들

에게 종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¹⁴⁾ 그러므로 이것이 세계관, 인생관, 우주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세계관이 바로 인간의 미래의 모습 곧, 인간상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이상적 인간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세계관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바로 칼빈주의적 세계관이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우리 장로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로마서 11: 36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곧 칼빈주의 세계관 정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디서 나와서: from> <어디로 말미암고: through> <어디로 돌아간다: unto> 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상체계이며 골격(Frame)이다. 유물주의자들은 “주”라는 말에 물질을 대입할 것이고, 인본주의자들은 “주”라는 말 대신에 인간을 대입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위대한 하나님 사상으로 선포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 중심사상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사상과 동의어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과정이며 마지막 도달해야 할 자리임을 알고 살아가는 인간상이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기독교인이다.

14) 1961년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한 판결문에서 휴머니즘을 하나의 종교로 인정했다. 종교는 신조와 교리가 있는데, 미국에서 1933년에 휴머니스트 선언 I이 채택되었고, 1973년에는 제 II 선언문이 채택된 후 1976년에 이 둘을 합쳐져서 출판되었다. 이 문서에는 신학, 교육, 철학 등 여러 분야의 유명한 학자들이 서명을 했다. 물론 1933년 첫 번 선언문의 기초자요 서명자는 당시 휴머니즘 총연합회 회장으로 있던 John Dewey이다. 그 선언문은 15개 조항이었는데 핵심은 진화론적 해석, 과학적 방법, 상대주의, 인간 중심주의, 개인주의 윤리, 문화결정론이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가득 채워진 인간상은 만유와 만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와 구속의 은총에 늘 감격하면서 죄와 세상을 짓밟고 승리하는 인간이 된다.

3) 하나님 앞에서(Coram Deo)의 신전의식(神前意識)을 갖고 사는 인간상

칼빈의 신학과 신앙사상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Coram Deo)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실은 성경의 흐름 자체가 인간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앞에서 진실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편 139: 7-10에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고 했다. 이 세상에는 아무 곳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다.¹⁵⁾ 요나서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은 니느웨에도 계시고 다시스에도 계시며 풍랑 중에서도 파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칼빈주의적 신앙으로 훈련된 사람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는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 한국 교회의 신앙의 패턴은 대개 이

15) 이사야 66: 1.

원론적(Dualistic)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회에서의 신앙 생활은 모범적이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는 불(不)신자와 전혀 차이가 없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교회교육은 위선자를 양육하는 교육 수준밖에 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서 안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온 세계, 온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섭리하시며 간섭하시는 분이므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도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원론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성경적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인정해야 하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택한 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구원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일찍이 칼빈주의 신학의 최고봉인 B. B. 워필드 박사는 “칼빈주의자는 모든 사물의 현상의 배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라고 했다.¹⁶⁾ 그러므로 우리는 살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로마서 11: 36의 말씀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라고 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권장사항이 아니고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거창하거나 굉장한 공로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지극히 작고 평범하

지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하고 진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즉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전 10: 31)고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줄 알고, 또 하나님으로 원인이 되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이다. 신학대학의 교수나 목사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환경미화원도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일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전의식을 갖고 사는 인간상이 대한 예수교 장로회의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4) 성경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사는 인간상

앞서 우리는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우리들의 자화상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논했다. 칼빈주의의 정경(Canon)은 성경이다. 따라서 성경은 신앙생활의 근거이며 중심이 된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다른 말로 성경적 세계관이며 성경적 인생관이다. 즉 자유주의와 칼빈주의 신앙의 분기점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얻음으로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게 된다. 결국 신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고 꿈이나 경험이 표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과 개혁자들의 구호처럼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주장하게 된다. 성경

16) B. B. Warfield, *Calvin as Theologian and Calvinism Today* (Darlington: Evangelical Press, 1909).

없이 바른 신앙에 이르려는 사람은 칼빈의 주장대로 일종의 ‘광신’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칼빈은 말하기를 “광신자들은 성경을 배척하고 직접적 계시를 무시하고 모든 경건의 원리를 전복하려고 한다. 광신자들은 신령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한다. 이들은 성경을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들어가는 어떤 특별한 길이 있다고 공상하는 자들이다”¹⁷⁾ 라고 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성경교리나 성경에 대한 원칙과 교리를 붙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의 의식과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 시편 119: 105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다. 그 앞 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환희와 구속의 즐거움이었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보여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두운 길을 밝혀주며 우리를 인도한다. 칼빈주의는 말씀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 교회의 미래의 인간상은 자기 경험에 매여 있거나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을 뿐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줄 아는 인간상이라고 본다.

17) Calvin,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 9. I. John T. McNeill e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칼빈은 기독교강요 세 곳에서 그의 성경관을 논하고 있다. 1권 6-9, 3권 2, 4권 8. 칼빈은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뿐 아니라 성경을 <성령의 학교>로 보았다. 또한 인간에게 <신 의식> <종교의 씨앗> <양심>이 있어도 성경 없이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고 하였다.

5) 직업의 소명(召命)을 가진 인간상

칼빈주의자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¹⁸⁾라고 말한다.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썩어질 장망성으로 보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지상에서 낙원을 이룰 것처럼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이고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해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소명을 받았다. 따라서 이 땅의 어떤 영역에서 일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주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소명을 갖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직업의 소명(calling)이라고 할 수 있고 노동의 소명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의 ‘일반은총(Geneene Gratie)을 강조했고 하나님의 주권은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주장했다. 특히 1880년에 뿌라야 대학 창설 기념식 때 발표한 그 유명한 ‘영역주권사상’(Sovereiniteit in Eigen Kring)¹⁹⁾을 주장했다. 삶의 어떤 영역에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노동 곧 일과 직업을 생각해보자. 노동과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18) H.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ion of Culture* (Grand Rapids: Baker Pub Group, 1972), 1. 기독교와 문화 또는 칼빈주의와 문화에 대한 관심은 A. Kuyper을 중심으로 한 칼빈주의자들에게 발전했다.

19) Kring이라는 말은 월이라는 말인데 한 개의 월에는 반드시 하나의 중심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개념이다. 영역주권사상은 독일의 Stahl에서 출발했지만 A. Kuyper, Herman Dooyeweerd 등에 의해 크게 발전되었다.

다스리라는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을 주셨다.²⁰⁾ 그러므로 게으르고 나태하거나 불로소득을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며 관리하며 일하는 청지기로의 사명을 주었다. 인간은 죄로 타락했지만 그 문화명령과 노동의 명령이 취소된 것은 아니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노동이 하나님 없이 내 욕심을 위해서, 죽지 못해서 하는 고통스런 노동이였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재창조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노동은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된다.²¹⁾ 어거스틴과 중세 신학자들은 노동을 저주라고 했으나 칼빈에 와서는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소명이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은 일하는 자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게으른 자가 빵을 먹는 것을 저주하신다”라고 했다. 그래서 칼빈의 주장은 공동체에 실제로 봉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부터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칼빈은 “노동을 위해서 직업이 있어야 하겠고 직업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

20) H. H. Meeter, *The Basic Idea of Calvinism* (Grand Rapids: Baker Pub Group, 1990), 58. 미터는 1886년 시카고에서 출생하여 칼빈대학교 칼빈신학교를 졸업한 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사를 취득했다. 프린스턴에 재학 중에 워필드와 암스트롱 그리고 메첸에게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 후 그는 화란으로 건너가서 Vrije Universiteit에서 공부했고 그의 학위논문은 “The Heavenly High Priesthood of Christ”였다. 그는 오랫동안 칼빈대학교 칼빈신학교에서 교수했으며 칼빈주의 연구에 독보적 존재였다.

21) C. Veenhof, *Jezus en de Herschepping der Wereld*, Woord en Wered No. 5. 베인호프는 화란의 자유개혁파 교회의 지도자이며 캄펜 신학교 실천신학교수를 역임했다. K. Schilder 박사의 친구이자 칼빈주의 입장에서 설교학, 목회학, 선교학, 기독교 철학을 다양한 과목을 가르쳤다.

고 했다.²²⁾ 칼빈은 다시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신의 하는 일에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인간은 그가 가진 직업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뿐 아니라 인간의 생애를 불완전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고 했다.²³⁾ 칼빈은 노동을 기독교인의 삶과 관련시켰다. 그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노동은 신앙생활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칼빈주의의 확신처럼,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감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직업은 단순히 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고귀한 신앙의 장(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과 직업은 인간에게는 봉사를,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갖게 된다. 노동과 직업은 바로 신적인 ‘소명의 삶’(Goddelijk Roeping Leven)이다.²⁴⁾ 앞으로의 세상은 직업이 다양해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한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상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22) John Calvin, *Commentary on 1 Corinthians* 7: 20.

23) John Calvin, *Institute* X. 5. 노동의 원리에 관한 칼빈의 입장은 그의 선조들에 비해서 혁신적이었다. 중세 신학자들은 중세의 기독교 교리에 따라서 노동을 신앙의 구체적인 생활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세속적 의무 정도로 이해했다. 또 스콜라적 이원론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정신적 사고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체적 노동은 우습게 보았다. 그러나 칼빈은 노동을 기독교인의 삶과 엄격히 관련시켰다. 그는 복음이 노동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c.f. 정성구, 『칼빈主義 思想大系』 (서울: 총신대 출판부, 1995), 343.

24) G. Brillenburg, *Het Christelijk Leven in De Maatschappij* (Kok, 1956), .260.

가 있는 그 자리, 그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간상이 요구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왕권을 확장시키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견인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의 소명을 갖는 것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까지 갖게 되는 것이다.

6) 성경적 신앙을 삶으로 표현하려는 인간상

기독교인의 삶이란, 곧 성경적 신앙이다. 세상의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의 구체적 삶의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중심 또는 성경 중심의 삶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인간상

아브라함 카이퍼는 기독교인의 삶에는 사상(Denken)과 삶(Woning)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내적인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대로 삶을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야고보서는 그런 뜻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약 2: 17).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의 교훈과 그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의 쉬을 얻으리니……”(마 11: 29)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의 내용을 음미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겸손하지도 온유하지도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단한 노력과 훈련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가령 바울이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빌 2: 5)고 했을 때에도 같은 뜻이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러나 믿고 구원 얻은 후에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 모범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중생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사는 과정 자체가 성화(聖化, Sanctification)의 걸음걸이라는 사실이다.

② 섬기며 나누는 종의 모습으로서의 인간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욕먹고 손해 보는 일이며, 포기하는 일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앙인의 삶은 그와는 정 반대의 인간상이다. 모두들 이 세상에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잘 먹고 잘 살며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욕먹기보다 자기를 내세워 칭찬받기 원하고 나누기보다는 가지려고 하고 예수를 이용하여 자기가 도리어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르다. 즉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 24)고 했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마 20: 28)고 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기주의적 인간상을 버리고 섬기며 나누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이다.

③ 미래지향적이며 하나님 나라 건설과 세계 선교를 위해 열린 인간상

일찍이 헬만 리델보스(Herman Ridderbos)는 그의 명저 『왕국의 오심』(*De Komst van Het Koninkrijk*)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는 동심원의 관계라고 했다. 즉 하나의 중심을 두고 작은 원과 큰 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훨씬 큰 원이라고 했다.²⁵⁾ 이 이론으로 보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는 데는 열심히 있으나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지극히 무심한 편이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한 만큼이나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과거지향적인 사고에서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전향해야 할 것이다. 전도서 7: 10에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고 했다. 성경은 기독교인의 삶을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이며 역동적인 것으로 요구한다. 그래야 역사 발전과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의 개혁주의적 인간상은 이러한 바탕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되 그것은 구체적으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 되는 세계 선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하리라”(암 2: 14)고 했다. 궁극적으로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

25) 화란의 대표적 신약학자인 리델보스는 많은 저서와 논문이 있지만 『왕국의 오심』이라는 이 책이 대표적이다. 나아가서 Ridderbos는 신약성경 전체 특히, 바울신학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 혹은 틀(Framework)을 ‘구속사적인(heilsgeschiedtlich) 틀’이라고 했다. 리델보스는 1909년 화란 개혁교회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 J. Ridderbos는 구약학자로서 A. Kuiper와 Herman Bavinck의 제자였다. 리델보스는 1927년 캄펜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했고 곧 이어서 암스텔담 Vrije Universiteit의 박사과정을 마치고 1936년에 신학박사 학위를 얻었다. 약 8년간 목회한 후 Kampen Theologische Hoogeschool에 신학학 교수로 취임하여 1978년까지 교수했다. 많은 저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작은 *De Komst van het Koninkrijk*(1950), *Paulus en Jezus: Oorsprong en Algemeen Karakter van Paulus' Christusprediking*(1952), *Paulus: Ontwerp van Zijn Theologie*(1966) 등이다.

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므로, 여호와와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열린 가슴으로 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기주의도 민족주의도 뛰어 넘어 세계를 끌어안고 가는 폭넓은 그리스도인의 인격배양을 해야 할 것이다.

④ 세속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꿀 줄 아는 인간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교적 세속 문화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자신이 구원을 얻고 이웃에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그의 주변과 문화까지 변화시켜 나갈 줄 아는 역동적 인간이 필요하다. 대개 보수주의자들의 약점은 신앙이 지나치게 내적으로 흐르고 이기주의가 되기 쉬워서 세상에서 고립되어 세상과 담을 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칼빈주의 신앙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문화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 또는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견인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칼빈주의 문화 이론의 대가인 스킬더(Klaas Schilder)는 말하기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인간의 모든 삶이 깨어졌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을 통일하시는 분이며, 알파와 오메가로서 역사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세상 끝날까지 참된 신앙이 있는 문화를 이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며, 그 모든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도는 세상에 있는 만물을 완성한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세상과 더불어(met) 있고 세상 안에(in) 있기 때문이다. ‘여기’와 ‘지금’은 文化의 世界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고 그 문화를 거룩하게 한다”고 했다.²⁶⁾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26) Klaas Schilder, *Jezus Christus en Cultuurleven* (De Pauw: Uitgeversbedrijf, 1932),

수행하는 것은 세속 문화, 죄악의 문화를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로 바꾸는 것이다. 미래의 기독교회의 인간상은 자기의 목적과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세상 속에 증거함으로써 세속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꾸어가는 인간상이 필요하다.

나가는 말

우리는 위에서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의 인간상을 전망해 보았다. 이런 시도는 장로교회의 미래와 현재의 교육지표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보겠다. 오늘의 기독교 교육 또는 교회 교육은 종래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등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만 아니라, 포괄적인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와 그의 섭리가 미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교육 철학은 단순한 학습의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의 빛 아래서 학문과 삶의 모든 관계를 포괄해서 탐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장차 어떤 인간상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오늘의 기독교 교육의 내용도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교회의 그러한 시도에 약간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250-257. 또한 *Christus en Cultuur* (Franeker, 1952) 그리고 G. Machen, *Christianity and Culture*의 머리말을 참고할 것. 스킨더는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대설 교가이며 변증가요 문필가이다. 그는 1809년에 출생하여 1909년에 캄펜의 아우데슈트라트의 개혁신학교에 입학해서 1914년에 졸업했다. 약 8년간 목회하면서 *Gereformeerd Theologische Tijdschrift*에 글을 기고했다. 1933년에 스킨더는 독일의 엘랑겐 대학에서 헤리겔과 브룬트 교수의 지도하에 「역설의 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특히 그는 John Calvin과 Kierkegaard의 Paradox에 대해서 연구하고 변증법적 신학에 도전했다.

참고문헌

- 신극범. 『변화의 시대 교육의 과제』. 대전: 대전대학교 출판부, 2005.
-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 서울: 한국성서협회, 1977.
- _____. 『칼빈주의 사상대계』. 서울: 총신대 출판부, 1995.
- _____.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서울: 킹덤북스, 2015.
- Brillenburg, G. *Het Christelijk Leven in De Maatschappij*. Kok, 1956.
- Calvin,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John T. McNeill e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Kuyper, A. *Lecture on Calvinism*. P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898.
- Douma, J. & W. H. vander Vegt, *Het Gepredikte Woord Preeken van Johannes Calvijn Vertaald Door(Deel I-Preeken Over Den Decaloo)*. Franeker: T. Wever, 1952.
- Grudem, Wayne.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1994.
- Malphurs, Aubrey. *Pouring New Wine into Old Wineskins: How to Change a Church Without Destroying It*. Grand Rapids: Baker Pub Group, 1993.
- Meeter, H. H. *The Basic Idea of Calvinism*. Grand Rapids: Baker Pub Group, 1990.
- Schilder, Klaas. *Jezus Christus en Cultuurleven*. De Pauw: Uitgeversbedrijf, 1932.
- Warfield, B. B. *Calvin as Theologian and Calvinism Today*. Darlington: Evangelical Press, 1909.
- Van Til, Henry R. *The Calvinistic Conception of Culture*. Grand Rapids: Baker Pub Group, 1972.

Abstract

Calvinistic Understanding to Man in Future Society

Sung Kuh Chung

Calvinism is the biblical world view and life view. Canon of calvinism is Bible as word of God. It is quite different from Humanistic world view.

Society of Today is secularized in post modern era. In Today's society, Man is owner in World, standard of moral and ethical judge is reason of man. But my approach is that I trust man was corrupted totally as his own Sin, So that, I would like to say, God is only our Owner and Savior and A Bible is only standard of our life and thinking, I trust that Calvinistic approach to man is our hope.

Key Words

Calvinism, Humanism, World View, Human, Education

신학적 해석학에서 본 과학

Sc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ological Hermeneutics

안명준*

국문초록

오늘날 과학과 신학의 관계는 흥미를 얻고 있다. 과거 기독교는 사회 속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은 과학이 그 위치를 대신하고 있다. 이 논문은 어떻게 기독교가 과학과 충돌하였는지, 지적설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잘못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글은 신학적 해석학의 관점에서 이런 주제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록 과학이 기독교와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과학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과학 이론이 언제 변화할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구히 신뢰할 수가 없다. 심지어 과학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물질 중심의 과학 세계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두어야 한다.

올바른 신학적 해석학의 역할을 통하여 잘못된 과학의 만용을 극복하고 잘못된 전제와 교리 그리고 인간중심적 철학을 수정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와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중심단어

창조, 과학, 창조과학, 창조론, 기독교윤리, 진화론

• 논문 투고일: 2017년 8월 12일 • 논문 수정일: 2017년 8월 23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9월 6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긍정적인 면보다는 이젠 기독교 위에 과학이 인류를 인도하는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과거 중세시대에 절대적 권위를 행사했던 종교적 권위는 추락하고 새로운 자연계시의 등극으로 특별계시의 존재가치는 의미를 찾지 못한 시대로 변모하였다.

오늘날은 과학 만능시대이다. 종교가 과거에 절대적 권위의 시대를 누렸던 것처럼 최고의 권위와 엄청난 자본과 수많은 사람들의 추종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과학시대에 기독교의 주장들 특별히 천문학이나 생물학에 대하여 과거에 실수했던 사건들을 평가를 통하여 과학과 기독교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충돌의 역사, 진화론과 창조과학의 전투, 그리고 지적설계와 같은 주제들을 신학적 해석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한다.

II. 기독교는 과학의 방해인가?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파한 이후 인류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무신론적인 많은 학자들은 기독교가 인간의 삶에 방해를 한다고 한다. 특별히 과학 분야에 있어서 기독교는 과학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상 잘못된 것이다. 몇 가지 역사적 사건을 제외하고는 해(害)보다는 많은 도움을 과학자들에게 주었다. 그들에게 빛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자연현상에 대한 논증방식에서 도움을 주었다.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Paul Davies)

는 물리법칙의 개념도 기독교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처음부터 과학자들로 하여금 꿈틀거리게 한 것이 바로 신학(theology) 개념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이 첫째로 절대적이며 우주적인 불변의 법칙들을 주장하였는데 이런 주장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행하신다는 기독교 개념으로부터 끌어왔다고 한다.¹⁾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와 포스터(Michael B. Foster)와 같은 과학자들과 역사가자들은 기독교가 과학 발전에 장애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오히려 기독교가 과학의 발전을 권장했다고 주장한다.²⁾ 알리스터 맥그라스에 따르면, 심지어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Charles Dawin)도 기독교의 논증 구조, 그리고 기초 개념들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에 있어서 갈릴레이 사건 이후 그리고 생물학에서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함으로 기독교와 충돌하였고,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충돌의 근본적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우주에 대해 부정확한 지식이다.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와(Aristoteles)와 프톨레마이오스(Claudius Ptolemaeus)의 천동설(天動說)지구중심설)을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진리처럼 인정하고 인간이 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으로 보게 되었다. 이런 견해가 사

1) Paul Davies, "Taking Science on Faith," *New York Times*, November 24, 2007, Project Muse, 8 August 2017 <<http://www.nytimes.com/2007/11/24/opinion/24davies.html?pagewanted=all&r=0>>.

2) 낸시 피어시 & 찰스 텍스틴, 『과학의 영혼』, 이신열 역 (서울: SFC, 2009), 19-24.

3) 알리스터 맥그라스, 『도킨스의 신』, 김태완 역 (서울: SFC, 2005), 132.

람들의 세계관을 충돌하게 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여 만들어진 잘못된 교회의 교리들 때문이었다. 이런 왜곡된 해석은 성경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고, 또한 지나친 문자적 해석에서 나왔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기사들을 무분별하게 자연과학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관찰하여 그 신비한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오묘한 능력과 영광을 찬송하라고 한다. 비록 학문의 영역으로서 진화론이 아직까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전투적인 모습과 무조건적인 거절이 기독교인들을 생물학에 무지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런 진화론의 대항하기 위한 상황 속에서 창조과학이라는 흥미 있는 이슈가 나오게 되었다.

현대 과학자들은 빅뱅이론에 근거하여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에서 2012년 7월 4일 실험을 통하여 힉스 입자로 추정되는 소립자를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빅뱅과 같은 이론의 궁극적인 근원을 추적하게 되면 결국 성경에 나오는 ‘무에서 유로 창조’(creatio ex nihilo)라는 개념을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⁴⁾ 이승엽의 분석에 의하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발견한 독일 태생의 미국 물리학자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아노 펜지어스(Arno Allan Penzias)는 우주가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고 생명체를 위한 필요한 정확한 조건들을 제공하고 있음을 밝히는 데 천문학이 공헌한다고 주장했다.⁵⁾ 우주 시작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 동기에 성경의 기록이 그

4) Kenneth R. Samples, "Creation Ex Nihilo," Project Muse, 8 August 2017 (<http://www.reasons.org/articles/creation-ex-nihilo>).

5) 이승엽, "과학적 증거들은 지적으로 설계된 우주를 지지하는가," 「월드뷰」, 2011년 10월(통권 136호).

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창조에 대한 진리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한 면을 보게 된다.

III. 기독교와 과학의 전투?

기독교와 과학 사이에 투쟁, 갈등이라는 용어들은 19세기 존 윌리엄 드레이퍼(John William Draper)와 앤드류 디슨 화이트(Andrew Dickson White)가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편견이 심하다 하여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와 포스터(Michael B. Foster)가 이러한 갈등구조에 의심을 품었다. 그들은 기독교가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근대 과학의 기본적 전제, 즉 ‘자연이 질서정연한 양식으로 행동 한다’는 사실을 확증함으로써 과학을 장려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⁶⁾ 로버트 머턴(Robert K. Merton)에 따르면, 기독교가 과학에 기여한 것으로 청교도들이 과학적 노력을 높이 인정하는 가치 체계를 제공해 줌으로써 근대 과학의 발생에 기여했다. 또한 청교도들은 자연에 대한 연구를 하나의 예배 행위, 즉 창조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인류의 물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실용적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근면한 청교도 윤리 또한 근대 과학 정신의 본질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⁷⁾

기독교와 과학을 지나치게 전투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외형적으로 보면 충돌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서구에서 종교와 자연 과학의 일반적 관계가 평화적 건설적 관계라고 말한다. 갈릴레오 논쟁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원인이 신앙과 과학 사

6) 데이비드 C. 린드버그와 로널드 L. 님버스, 『신과 자연: 기독교와 과학, 그 만남의 역사』, 상권, 이정배, 박우석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8), 16-21.

7) 린드버그와 님버스, 『신과 자연: 기독교와 과학, 그 만남의 역사』, 22.

이의 긴장보다는 교황 정치, 교회의 권력 다툼, 개인 신상이 연루되어 있었다.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와 과학 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논쟁이 발생했다. 대부분 과학자들은 일방적으로 과학이 기독교에 압승이라고 평가하지만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 기독교의 창조와 생명과 우주에 대한 교리들이 과학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때때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해 그리고 교회의 폐쇄적 사상으로 과학연구의 결과들을 거부하고 방해한 것은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무지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오직 과학만이 유일하게 항상 논리적이며 이성적이며 증명이 되는 과학적 학문인가? 그러면 반면에 기독교는 눈먼 신앙인가? 논리도 증거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믿어야 하는 종교인가? 그렇지 않다. 세계적인 기독교 철학자들 특별히 리처드 스윈번(Richard G. Swinburne, Oxford University),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 Yale University), 앨빈 플란팅가(Alvin Plantinga, University of Notre Dame)와 같은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들도⁹⁾ 신에 대한 보증된 혹은 정합적인 진술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기독교와 천문학 그리고 생물학에서 논쟁이 크게 발생하였다. 천문학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움직이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를 통하여 천동설에서 태양 중심 지동설로 우주관이 전환되면서 반대적인 견해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교회는 크게 권위가 실추되었다. 생물학

8) 맥그라스, 『도킨스의 신』, 268.

9) 맥그라스, 『도킨스의 신』, 194.

에서는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을 통하여 진화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과학은 그 한계성과 잠재적 근접 진리이다. 그래서 현재 주장되고 있는 이론이 다르게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불완전한 부분들이 보완되어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볼 수 있다. 과학적 주장은 항상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

프톨레마이오스는 그 이전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으로부터 이어져 오던 천동설을 가지고 그때의 유효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정된 지구 중심 모델을 만들었다. 유럽에서는 15세기까지 그의 영향력이 위력을 떨치고 있었다. 그러나 천문학 역사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 1473-1543)의 태양 중심 지동설이 탄생하였다.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적 우주적 사고가 지배적이었던 중세교회에 플라톤의 이원론적 우주관과 피타고라스(Pythagoras)의 수리적, 기하학적 우주관이 결합한 신플라톤주의가 그에게 영향을 주었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 개신교 목사 오시안더(Andreas Osiander, 1498-1552)의 도움으로 지동설의 내용이 담긴 자신의 책을 출판하고 죽게 된다.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는 교회의 정치적 압력을 지혜롭게 버티면서 과학혁명을 일으켰다. 그는 천문학 공부를 통하여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태양 중심 지동설을 지지하고 1597년에는 케플러의 우주의 신비에 동의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1610년 자신이 만들어서 배울을 향상시킨 망원경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벗기지 시작했다. 달이 울퉁불퉁하며 태양의 흑점이 움직이는 것도 관측하고 목성을 도는 4개의 위성을 통해 지동설을 알게 되었다. 가

톨릭교회는 1616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자신들의 교리와 참된 철학에 위배된다 하여 금지되었다. 이런 혁명적인 발견을 놓고 로마 가톨릭교회는 자신들이 세운 우주의 중심으로 지구 그리고 신이 사는 하늘이 있는 우주 구조가 무너지면 가톨릭교회의 기반이 흔들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1616년 코페르니쿠스의 책이 가톨릭교회로부터 금서가 된 지 16년 후, 갈릴레이도 1632년 결국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가르치고 옹호하고 주장한 혐의로 종교 재판 법정에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지동설의 마지막 결정자는 요한 케플러(J. Kepler, 1571-1630)였다. 비록 가난하였고 전염병으로 아내와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였다. 한때 개신교 목사의 꿈을 가진 케플러는 라틴어를 알아야 라틴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수학으로 써진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행성에 대하여 유명한 케플러 법칙을 발견하여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냐의 논쟁에 마지막 결론을 내렸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학문을 불태웠다. 케플러는 성경과 더불어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은 과학의 잘못된 시대적 지식들을 수정하고, 그리하여 인간에게 과학적 연구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데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과학적 연구에 대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¹⁰⁾

17세기에는 자연과학자들만 과학의 발전에 공헌한 것이 아니다. 흥미롭게도 근대 자연과학의 많은 거물들 가운데는 성직자들과 신

10) 위르겐 몰트만, 『과학과 지혜: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위하여』,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9.

학자들이 있었다. 멘델의 유전법칙을 발견한 생물학자 그레고어 멘델(Gregor Mendel, 1822-1884), 직선자를 만든 수학자 윌리엄 오프레드(William Oughtred, 1574-1660), 미적분학을 발견한 아이작 배로(Isaac Barrow, 1630-1677), 미터법을 만들고 영국 왕립 협회 창설 멤버인 존 윌킨스(John Wilkins, 1614-1672), 생물학자이며 동물학자인 존 레이(John Ray, 1627-1705), 식물학자 네헤미아 그루(Nehemiah Grew, 1641-1712), 크로아티아의 마르코 안토니오 드 도미니스(Marco Antonio de Dominis, (1560-1624)), 토마스 베이스(Thomas Bayes, 1701-1761), 존 미첼(John Michell, 1724-1793), 사무엘 빈스(Samuel Vince, 1749-1821), 로버트 보일(Robert Boyle, 1627-1691), 피르민 아바우지트(Firmin Abauzit, 1679-1767) 등이다.¹¹⁾ 이들은 자연이라는 하나님의 교과서에서 나타난 그의 오묘한 숨씨를 관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믿었다.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경배를 교회 밖에 까지 확장한 윌킨스는 자연 실험을 통해서 연구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했다.¹²⁾ 그 밖에 인류역사에서 성경의 창조를 믿은 대표적 위대한 과학자들이 있었다.¹³⁾

IV. 과학 원리와 성경의 언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에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다. 성경의 사건이 사실임에도 과학적 증명은 쉽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실적 내용을 믿음으로 이해해야 하지

11) "List of Christian thinkers in science," Project Muse, 8 August 2017,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hristian_thinkers_in_science>.

12) 김용준, 『과학과 종교-과학인 김용준의 연구 노트』 (파주: 돌베개, 2005), 107-108.

13) 조덕영, 『위대한 과학자들이 만난 하나님』 (서울: 예영, 2007).

만 과학은 자연의 현상을 관찰과 분석과 실험에 의한 증명을 통하여 이성적으로 이해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학도 근본적으로 시행착오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학이 절대적이며 영원하고 불변한 원리와 진리라고 볼 수 없다. 잠재적으로 변화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은 믿음에 의하여 이해하고 과학은 이성에 의해 이해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믿음 안에 이성이 포함될 수 있고, 이성 안에도 믿음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러셀(C. A. Russell)은 과학이 신학에 끼친 영향에서 대표적인 것은 성경 해석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한다. 반면에 신학이 과학에 끼친 영향은 많았다. 첫 번째 과학은 자연적 현상에서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였다. 두 번째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성경 교리에서 영향을 받았다. 세 번째 자연의 조직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험적 방법에 도전을 주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과학적 탐구에 도전을 주었다. 케플러(John Kepler, 157-1630)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구약성경 시편 8, 19, 50편) 천체를 연구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¹⁴⁾

과학의 이론이란 항상 잠정적이다. 과학 이론은 현재 가능한 실험적 관찰에 대하여 현재 최선의 설명으로 간주된다고 한다.¹⁵⁾ 그러나 과학의 잠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절대 진리를 반드시 결과로 만들 수 없지만 올바르게 합리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한다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성경은 만

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죄인 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며 그분의 의지와 목적이 나타난 책이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은 자연세계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증명되어 습득되어지는 경험적 지식적 학문이다.

어떻게 과학이 작용하는가에 대하여 리처드 라이트(Richard T. Wright)는 칼빈 대학교의 철학자 델 라치(Del Ratzsch)의 주장을 소개한다.¹⁶⁾ 과학철학에 의하면 과학의 구조는 데이터, 이론들, 형상 원리들(shaping principles)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데이터는 측정 단위로 추출된 정보와 경험성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경험성은 데이터와 관찰이 감각을 통해 얻어져야만 한다. 이론은 과학적 추론의 주된 목적을 표현하는 것으로 경험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자연계 내에서 사물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만든 것이다. 이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객관성, 합리성, 보편성이 적용된다. 형상 원리는 과학자들의 의식적, 무의식적 가치관 및 가정들인데 이는 과학자의 사고 구조와 방향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이것은 과학자의 세계관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런 면은 하나의 전제적이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델 라치에 따르면, 데이터와 이론과 형상 원리는 매우 강하게 상호 작용을 하며, 서로 얽혀 있어서 어느 하나를 추출하거나 평가하면 다른 요소에도 반드시 영향을 준다. 그러나 과학의 한계는 과학적 결과에 대한 증명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요, 시작을 위한 얼마간의 방법론적 가정이 필요한 것이며, 우주의 존재에 어떤 궁극적인 자연주의적 혹은

14) C. A. 러셀, "과학과 신학," 『아가페 신학사전』 (서울: 2001, 아가페).

15) 맥그라스, 『도킨스의 신』, 204.

16) 리처드 라이트, 『신앙의 눈으로 본 생물학』, 권오식 역 (서울: IVP, 1995), 45-47.

기계적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¹⁷⁾

라이트에 따르면, 과학에는 네 종류의 한계가 있다.¹⁸⁾ 첫 번째로 전제 조건(presupposition)은 과학의 관습의 기초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가정으로 과학에서만 진실로 믿어지지만 과학 밖에서는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을 암시한다고 한다. 두 번째로 과학은 그 자체의 결과에 대한 증명을 제공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한다. 사실상 그동안 수많은 과학의 이론들이 오류와 수정으로 발전되어 왔다. 세 번째로 과학은 영역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과학은 단지 자연계의 내부적 문제에 대한 설명을 준다고 한다. 과학은 우리 인간들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네 번째로 과학은 철저하게 인간의 활동인데, 주관성, 비윤리적 습관, 연구 후원, 지식의 오용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한다. 인간의 탐욕과 자본주의의 논리가 인간성에 파고들어 올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절대 진리를 반드시 결과로 만들 수 없지만 올바르게 합리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한다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 한때 신학은 최고의 권위의 근거였으며 신학이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름하는 기준이었다. 이때 신학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조종에 의해 독립성이 약화되고 주로 제도적 교회의 보호를 위해 기존 교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자리를 누리고 있던 교회와 신학이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과학의 발견들과 원리가 기존의 권위와 교회의 교리적

17) 텔 라치, 『과학철학: 자연과학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김해진 역 (서울: CUP, 1990), 109-112.

18) 라이트, 『생물학』, 53,

주장과 충돌을 하게 되었다.¹⁹⁾ 이런 충돌은 당연한 것이었고 과학의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교회 중심적 세계관과 사제 중심적 세계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교회는 인간 삶의 만사를 지도하고 해결하는 마치 사법기구와 같은 권위의 기관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과학의 도전에 결정적인 무기를 드러냈다. 그것은 성경이 진정 어떤 책인지를 알지 못한 것이며, 또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것이었다.

성경은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기술적인 언어로 쓰이지 않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기술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하나님의 사역(work)의 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신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신학자가 과학적 방법에 따라서 자연을 연구하는 것과 과학자가 신학적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를 개혁한 루터(M. Luther)나 칼빈(J. Calvin)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기존의 교회 중심과 사제 중심적 해석을 거부하였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이요 새로운 세계관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성경의 해석이 교회와 사제들의 독점권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자는 바로 성경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라고 한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는 성경해석이 교회의 독점적 해석에 종속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과학은 과학의 원리와 방법으로 이해한다. 과학을 성경의 원리로 이해하는 것도, 성경을 과학의 원리나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도 잘

19) 밀라드 J. 에릭슨, 『조직신학』, 나용화, 황규일 역 (서울: CLC, 1994), 212-214,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과 과학은 모두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들이다. 성경의 권위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성경과 과학은 서로를 상호의존인 협력으로 하나님을 더욱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은 인간, 우주, 자연에 대한 근본적이며 포괄적인 이해를 보여주지만 과학은 우주와 자연 그리고 생명체에 대한 이성적인, 논리적인 자세한 설명을 보여준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과학은 그 창조가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부터 진행되었으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찾으려는 시도이다. 과학이 만물의 그 마지막을 발견한다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그의 위대한 명작임을 경외할 것이다.

V.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

1.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

많은 사람들이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증명도 힘들고 설명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증명한다고 한들 그 신이 성경의 참된 하나님으로서 증명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주에 나타난 과학의 결과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보다는 믿는 자들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섭리와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말씀과 믿음 없이는 참된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 종교 개혁자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성경이 우리의 혼미한 마음과 우둔함을 제거하여 참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한다. 다만 성령 하나님의 감화 속에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반틸(C. Van Til)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제한된 인간이 무한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 다만 믿음의 방법으로 이해할 뿐이다. 믿음의 참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참으로 존재하고 계신다고 증거한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며 만물이 그에게 속한다. 그는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시다.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란 하나님이 기존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브리서 11: 3).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이런 표현은 기존 자료가 없이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한다. 그러나 기존 물질을 사용한 이차적인 창조도 하나님의 창조이다. 창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이다. 어떤 것들의 요구에 의해 절대적인 필연성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스스로 행하신 사역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목적은 하나님 이외의 어느 무엇에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피조물에게 꼭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보다는 그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온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전성이 나타난다. 이런 모든 것들의 전 우주에 나타

남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피조물들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것은 피조물들이 마음으로 하여금 창조주를 찬송하는 데 조화시킬 것과 그들의 영혼으로부터 감사와 사랑과 찬양의 표현을 이끌어내려는 데 있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이사야 43: 7).

그래서 신학은 과학의 연구를 정죄하거나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로 드러내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 과학과 성경은 상호보완적이고 양쪽 모두 우주의 신비를 보여 줄 수 있다. 과학자인 뉴턴은 인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대한 진리의 바다 앞에서 좋은 자갈과 조개껍질을 이리저리 찾기 위해 해변에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²⁰⁾고 했다. 창조 세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훌륭한 도구였고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2. 생명의 신비

성경은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우리가 아는 우주와 지구는 다양한 형태의 생명의 장소이다. 우주와 그 속에 있는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

생명이 현재 우주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지구 외에 아직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는 없다. 그러나 우주 어느 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문제는 현재 우리 지구와 같은 생명체 동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 천문학자들이 골디락스(Goldilocks,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²¹⁾)에 생명체의 가능성을 말하였지만 태양계와 같은 시스템을 갖는 지적 생명체가 활동하는 행성은 사실상 존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지구와 같은 행성이 우주에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현실적으로 증명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구 안에서 엄청난 생명체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해안생명조사국(Census of Marine Life)에 따르면 현재 밝혀진 땅과 바다를 포함한 지구 안에 생명체 종은 약 8,700,000개가 된다고 한다.²²⁾ 엄청난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식물이 약 30만 종이며, 동물이 약 150만 종이 된다고 한다.²³⁾ 건강한 토양 1g에는 10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다고 한다.²⁴⁾ 우리 몸무게 중 2kg은 ‘100조 마리’의 세균 덩어리라고 한다.²⁵⁾ 우리 장 속에는 내용물 1g당 약 100억~500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²⁶⁾ 우리 인간의 배설물 1g에는 약 50억 마리의 미생물이 산다고 한다.²⁷⁾ 이런 생명의 왕국인 지구와 같은 행성을 우주에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생명의 풍성함을 알려주는 과학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21) 생명체 가능성 계산은 다음의 항목을 각각 곱하면 된다. 은하계x태양x골디락스(Goldilocks,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중력, 지구 사이즈, 달 행성, 자전, 공전 속도, 대기권, 산소, 바다, 식물, 동물, 기압, 등등이다.

22) How many species on Earth? About 8.7 million, new estimate says,“ Project Muse, 8 August 2017 <<http://www.sciencedaily.com/releases/2011/08/110823180459.htm>>.

23) Project Muse, 8 August 2017 <<http://www.seehint.com/hint.asp?md=201&no=11716>>.

24) <http://www.ansanywca.or.kr/em.htm/>

25) Project Muse, 8 August 2017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46581.html>>.

26) Project Muse, 8 August 2017 <<http://cluster1.cafe.daum.net>>.

27) Project Muse, 8 August 2017 <<http://blog.daum.net/sultanbar/15026687>>.

20) Isaac Newton Quotes, Project Muse, 8 August 2017, <<http://www.brainyquote.com/quotes/quotes/i/isaacnewto395010.html>>.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신학은 과학의 연구를 정죄하거나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로 드러내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 과학과 성경은 상호보완적이고 양쪽 모두 우주의 신비를 보여 줄 수 있다. 창조 세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훌륭한 도구였고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3. 진화론 논쟁

진화론이란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생물의 다양성이나 적응성이 변화되거나 전개되어 온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오늘날 많은 생물학자들이 과학적 증거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직까지 진화론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참된 과학적 학문으로는 완전하게 인정을 얻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진화론이 모두 틀렸다고 말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진화론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생명체의 변화와 적응 등 하나님이 생명체의 보존을 위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 학문적 연구도 필요하다. 진화론의 문제점은 창조 이전과 창조의 과정 그리고 왜 창조가 있는지, 왜 생명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등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진화론적 철학과 진화론적 사회학은 극단적이며, 과격하며, 상대주의적 문화와 윤리로 흘러가고 있다.

진화론은 서구 사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기존의 신의 설계로 창조된 세계를 믿어왔던 기독교에 가장 큰 충격과 도전을 주었다. 이리하여 첫 번째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결이 벌어지게 된다. 헉슬리(Huxley, 1825-1895)가 다윈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영국 박물관의 오웬(Owen, 1804-1892)은 다윈의 이론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첫 논쟁은 1860년 옥스퍼드의 영국 과학진흥협회의 회합에서 이루어진 옥스퍼드 주교 W.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와 T. H. 헉슬리(Thomas Henry Huxley)의 논쟁이었다.

1925년 미국의 스콧스 재판(Scopes trial)에서 진화론자와 창조론자와의 대결이 있었다. 이는 1925년, 테네시에서 열린 '원숭이 재판'에서 본격화됐다. 교사들에게 창조론만 가르치고 인간의 진화의 학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조례가 테네시 주에 발효된 것이다. 존 스콧스(John Scopes) 과학교사가 이 버틀러 조례(Butler Act)를 어긴 것 때문에 처음에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후에 버틀러 조례가 폐지되었고 진화론은 더욱더 많이 보급되었다.

21세기의 논쟁은 도버(Dover) 교육 위원회를 포함한 미국의 일부 교육 위원회가 지적 설계를 진화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르쳐야 한다고 결정한 것에 발단되었다. 미국 연방 법원은 이런 교육 위원회의 결정이,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될 수 없다고 명시한 수정 헌법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키츠밀러 대 도버 교육 위원회 사건(Kitzmiller v. Dover Area School District, 2005년)에서 연방 법원 판사 존 E. 존스 3세는 지적 설계가 과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교라고 판시했다. 지적 설계론으로 진화론에 반격을 가하였지만 학문적 이론으로 많은 학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여 크게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2012년 2월 23일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로완 윌리엄스(Rowan Williams) 전 켄터베리 대주교가 무신론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와 논쟁을 벌였다. 도킨스는 종교는 이성의 배반이

자, 우리를 인간되게 하는 최고의 것에 대한 배반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윌리엄스 주교는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목적을 생각할 수 있다는 개념과 관련해 도킨스 교수를 반박했다.

리처드 도킨스의 무신론적 진화론적 견해에 대하여 알리스 맥그래스의 반격이 유명하다. 리처드 도킨스는 2006년에 발표한 그의 책 『만들어진 신』에서 초자연적 창조자가 거의 확실히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적 신앙은 굳어진 착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중 과학서인 『눈먼 시계공』, 『이기적 유전자』 등을 출판하였다. 한편 분자생물학 박사이며 신학박사인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신학 교수인 앨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는 청소년기에는 과학에 심취한 무신론자였다. 그러나 그가 대학에서 과학사, 과학철학 서적을 읽다가 과학에 대한 완전한 객관성과 낙관성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이전에 비판하던 기독교가 견고한 지적 토대 위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도킨스가 신의 존재를 독단적으로 거부하는 과학적 태도가 잘못이며, 다윈주의의 불완전함을 지적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인간사회와 과학에 해가 아닌 오히려 유익을 주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4. 진화론에 대한 해석

창조 후 진화적 과정 즉 변화는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그러므로 진화론의 주장을 무조건 오류가 있다고 하거나 모두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을 정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환경적 상태 속에서 식물이나 여러 생명체가 변화를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소진화로써 생물의 변화의 모습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진화론의 문제점

은 지금은 왜 새로운 종이 탄생하지 않는가하는 것이다. 창조가 어느 시기 특정한 상황에서 한 번만 발생했다고 보면 진화론자의 대답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종들에게서 변형된 종으로의 변이가 현재 일어나지 않고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진화의 증거들이 아직도 미약하다. 지금도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변형이 목격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화석의 증거들이 빈약하고 때때로 조작되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된 사례도 많았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영장류와 인간을 구별되게 창조된 것이다. 수많은 생명체가 이 지구에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것이 기계처럼 자동으로 시작되고 지금까지 왔다고 보면 너무 대단한 사건이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연이요, 저절로 생명이 탄생하고, 저절로 발전하고, 저절로 인간이 되고 마지막으로 신적 존재로 되려고 하는 것일까? 결국 진화론으로는 생명과 인간의 삶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김정한의 비판에 따르면,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분화되는 과정인 화석 증거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것은 진화론이 SF 공상 소설 같은 것이다.²⁸⁾ 진화론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인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도 2009년에 "생물학에서 가장 심오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생명체 자체의 기원이다"라고 인정했다.²⁹⁾

진화론은 과학인가? 과학일 수도 있지만, 어떤 주장은 과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 빅뱅(Big Bang)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고 핵합성(Nucleosynthesis)이

28) 김정한, "과학과 신학, 어제와 오늘 김정한 교수에게 듣는다," Christian Worldview, Project Muse, 12 July, 2015 <<http://m.worldview.or.kr/>>.

29) Richard Dawkins, "Evolution: The Next 200 Years," *New Scientist*, no. 2693 (2009), 41.

론을 만든 천체물리학자 프레드 호일(Fred Hoyle 1915-2001)은 진화론을 철저히 반대했다. 이러한 면에서 진화론은 철학이요, 신념이요, 종교가 된다. 진화론의 잘못된 문제점은 참된 과학의 증거와 성경의 올바른 해석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은 일반 계시에 대한 열린 자세도 필요하다. 기독교와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모두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실수는 이미 갈릴레오의 재판을 통하여 보았다. 진화론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과학적 증명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원리가 드러나는 과정도 조심스럽게 살필 줄 알아야 한다.

5. 창조과학에 대한 해석

창조론이란 하나님의 창조 사역(work)을 교리적으로 논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주와 모든 것들을 창조한 것을 믿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창조신학이란 창조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를 찾으려는 신학적 작업이다. 그러나 창조과학은 창조신학하고 조금 다르다. 창조신학은 성경에 나타나는 창조이해에 있어서 신학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창조과학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이며 신앙의 관점으로부터 과학적인 결과와 일치시켜려고 한다. 성경의 내용에 대해 과학적 타당성을 주장하고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 운동의 처음 시작은 진화론에 대한 투쟁으로 성경의 과학적 이해와 증명을 주창하는 헨리 M. 모리스(Henry M. Morris)와 듀안 기쉬(Duane T. Gish) 같은 학자들이 주도하여 미국의 창조과학회를 설립하였다.

한국에서도 창조과학회가 창립되었다. 한국 창조과학회(KACR:

Korea Association of Creation Research)는 1980년 세계복음회 대성회 때 열린 ‘창조나 진화냐’라는 세미나를 계기로 25명의 크리스천 과학자가 모여 한국창조과학회가 결성되었다. 이 학회의 시작은 당시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창조과학연구소의 헨리 M. 모리스와 듀안 기쉬와 같은 학자들이 창조론의 불씨를 주었다. 당시 과학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다.³⁰⁾ 한국 창조과학회는 인간, 생물체, 우주 등에 내재된 질서와 조화가 우연이 아닌 지적 설계에 의한 창조물임을 과학적으로 증거하고 만물의 기원에 대한 바른 시각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게 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후에 창세기 1장에 대하여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지구의 역사가 약 6,000년에서 10,000년 정도라고 계산한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여 문제가 되었다. 이런 해석상의 차이로 양승훈 박사와 조덕영 박사를 중심으로 2007년 창조론 오픈포럼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모임은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조심하면서 창조에 대한 신학적 연구와 과학적 연구에 상당한 평가와 더불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의 학문적 태도를 갖는다.³¹⁾

창조과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현재 과학자들은 어떻게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즉 우주의 기원과

30) 조덕영, 『과학과 신학의 새로운 논쟁』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167. 한국과학원의 김영길 박사와 양승훈 박사 그리고 필자와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창조과학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1년 1월 31일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시작하였다.

31) 창조과학 관련 사이트들, 성경에 근거하여 창조세계에 대한 문자적 해석과 창조과학의 논리로 창조론을 변호하는 한국창조과학회 <http://www.kacr.or.kr/>; 창조과학보다는 창조신학에 근거한 성경과 창조의 과학적 사실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는 창조신학연구소 (<http://kictnet.net/>, the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http://www.icr.org/discover>).

형성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왜 창조가 있었으며 빅뱅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치오 카쿠와 같은 과학자들은 빅뱅 이후의 우주의 시작이 성경의 기록과 유사한 무에서(ex nihilo) 창조되었다는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³²⁾ 신앙적 신학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창조과학의 문제점은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보면서 지나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6. 지적 설계에 대한 해석

진화론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으로 지적 설계론(Intelligent Design)이 등장하였다. 지적 설계론이란 복잡한 우주와 생명체들이 어떤 지적 존재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이론이다. 지적 설계 이론은 창조물에 나타난 지적인 설계(혹은 의도적 요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시도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적 설계는 탐구 대상의 기원이 의도에 의한 설계인지 아무런 의도가 없는 자연 발생(우연)인지를 밝히는 것이며, 의도적 존재라면 탐구 대상에서 의도적 요소인 ‘디자인’(Design, 설계)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다.

창조 과학과 다르지만, 지적 설계 이론은 과학적 관점에 철학적 혹은 신학적 요소가 과연 적당한지에 대해서 의미 있는 도전을 주고 있다. 이 이론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본다.³³⁾ 지적 설계 운동의 흐름은 1991년 출판된 필립 존슨(Phillip E. Johnson)의 저서

32) Russell Crigg, “What happened before the big bang?” Project Muse, 12 August 2017 (<http://creation.com/before-the-big-bang>).

33) 안명준, 조덕영,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지적설계운동의 위치,” 『조직신학연구』 3 (2003), 239-264.

『심판대 위의 다윈』(*Darwin on Trial*)³⁴⁾으로부터 촉발되었다. 존슨은 다윈의 이론이 자연주의라는 철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는 창조의 핵심은 타이밍이나 메커니즘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다는 데에 있다고 역설하였다.

1996년에는 지적 설계를 옹호하는 마이클 베히(Michael Behe)의 『다윈의 블랙박스』(*Darwin's Black Box*)라는 책이 나왔다. 생화학자인 마이클 베히는 이 책에서 어떤 생화학적 시스템들은 다윈의 메커니즘으로 결코 생성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베히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irreducible complexity)³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지적 설계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주관적인 감정과 달리 경험적으로 지적 설계를 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미국에서 창조과학을 대신하여 지적 설계론이 인기를 얻자 2005년 펜실베이니아 주의 도버 교육위원회가 지적 설계론을 중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자, 8명의 학부모들이 소송을 냈고, 학부모를 대신해 소송에 나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가 승리했다. 이때 지적 설계론을 대표하여 마이클 베히가 주장한 것들은 판결에서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판결에서 패하였다.

1998년과 1999년에 중요한 책이 연이어 출판되었다. 윌리엄 뎀스키(William Dembski)의 『설계 추론』(*Design Inference*)과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비로소 지적 설계라는 용어가 단단히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들 책에서 뎀스키는 지적 설계의 탐지 과정을 수학과 형식논리학을 사용하여 엄밀하게

34) Phillip E. Johnson, *Darwin on Trial* (Washington: Regnery Gateway, 1991).

35) 상호 작용하는 구성 요소들이 한 개라도 사라지면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구성해 내었다. 뎀스키는 지적 설계를 정보 이론으로 기술함으로써 주관적인 느낌 같은 것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애를 썼다. 뎀스키는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의 서문에서 “지적 설계는 하나의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이며, 학문 영역에서 자연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의 활동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³⁶⁾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적 설계 이론은 성경적 신학적 지지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며 과학적으로도 아직 미완의 이론이다. 그 설계자가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난관이 있다.

창조과학과 지적설계의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에게 학문적으로 설득을 주지 못하는 면에서 분발이 촉구된다. 또한 진화에 대하여 전투적인 방어적 자세보다는 참된 진화의 본질과 진실성에 감시와 연구가 더욱더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경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그 결과가 어떻게 타당성을 얻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구약성경의 창세기 기록은 창조를 과학적으로 기술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기록은 피조물로서 인간이 살던 정황 속에서 평범하고 단순한 이해를 위해 표현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기 성경의 문체도 단순하고 평범하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해하면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성경이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인간의 이성적인 실험과 판단으로 이해의 한계를 넘는 성경의 기사들은 오류가 없는 진실한 내용들이다. 따라서 성경을 과학교과서나 생물교과서로 이해하고 창조기사를 과학적 원리나 우주적 결과 그리고 생물학적 학설을 쉽

게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 될 수 없다.

7. 과학과 기독교 윤리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상대성 이론과 핵분열 기술로 인간들은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 폭탄을 만들었다. 후에 프리츠 하버(Fritz Haber)는 질소를 공기에서 추출한 방법을 통하여 비료와 화약을 만들게 했다. 그러나 후에 독가스를 만드는 계기를 주었다. 인류는 이런 과학의 발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최악의 결과를 만드는데 종종 악용하였다. 그러므로 과학자의 책임과 윤리에 대하여 기독교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생명과학의 급작스런 발전을 통하여 인류의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대조적으로 탐욕으로 오염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벌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요구된다. 인간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탐욕을 채운다면 그 결과는 무서운 재앙을 가져 올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은 많은 기술문명의 이기적 사용과 물질중심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중심의 모습을 보고 있다. 과학적 발전에 따른 문명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윤리적 문제를 본다. 생명복제, 로버트 공학, 유전자공학, 사이버 테러, 동성애, 정보화, 안락사 등 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런 인간의 근원적 원인으로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한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과학과 기술이 인간을 진정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도리어 반대적으로 인간을 불행하게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고를 한다.

36) William A. Dembski, "Preface," *Intelligent Design* (Willow Grove: IVP, 1999).

현대를 사는 우리는 사이버 세상에 관심이 있고 먼 우주에 관심이 있으며, 인간의 유전자 정보인 게놈 프로젝트와 같은 생명공학에 큰 관심이 있다. 이런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은 오늘날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고, 그분 또한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은 존재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진정한 과학의 발견과 우주의 법칙을 알면 알수록 또 인간의 신비함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더욱더 인간은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자세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우연의 산물이기보다는 전능한 창조주의 설계에 의하여 오묘하게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이 우주가 완벽한 원리에 의해서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서 그렇다. 태양계와 지구를 비롯한 우주의 여러 원리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신비스러운 아름다운 존재로서 이 살아 있는 생명의 지구에 사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만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날이 갈수록 파괴하고 있지 않는가. 이상하게도 인간의 손을 거쳐 지나가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공해가 되며, 자연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가. 이런 인간의 역행의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죄로 오염된 인간의 교만과 죄와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자연에 대한 파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위대한 피조물로서 인간은 인간을 향해 싸우며 살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그를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무지의 소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은 인류를 창조하시

고 보존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 나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때 인간은 참으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세포와 유전자까지 우리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생명공학의 방법과 방향에 대해 우리가 신중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연구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을 성경에 근거하여 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청지기로서 책임 있는 윤리를 보여 주어야 한다.³⁷⁾ 따라서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에 참여하는 자들은 생명의 창조주의 설계와 목적과 그분의 의도에 맞게 자연과 생명 공동체에 대하여 좀 더 책임 있는 윤리 의식을 가지고 두려움과 경외 속에서 자신들의 소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 땅위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VI. 결론

오늘날 과학만능주의 시대에 과학이 말하면 행복이 있다고 믿고 사는 세대이다. 과학이 말하는 시대, 과학이 모든 것들의 표준이 되

37) 김영한, “생명복제와 개혁신앙,” 『한국개혁신학회논문집』, 제7권 (2000), 22; 이성일, 『인류, 소유의 늪에 빠지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3), 66.

는 시대, 과학이 신과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만큼 과학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신학적 해석학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학은 기독교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고 때로는 핍박도 받았다. 반대로 과학의 발전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도록 동기를 주는데 기독교는 과학으로부터 해석학적 도움을 받았다. 참된 과학의 역할은 하나님의 창조 영역인 자연과 우주에 대한 관찰과 실험, 그리고 증명을 통해 그 본질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사역에서 기독교는 과학을 존중하고 과학적 결과들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객관적 사실을 거부하고 충돌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독교는 과학의 바른 사용을 위하여 협조하여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이 그의 창조세계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과학은 종교나 우상이 아니고, 또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배웠다. 언제 그 이론들이 바뀌게 될지 모른다. 지금의 조건하에서 작동하고 최선의 결과로 인정하지만 더 나은 이론이 출현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과학의 원리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 또한 과학이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왜 생명이 시작되었는지 왜 생명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등등 답변을 주지 않는다. 여기서 기독교의 역할이 나타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며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생명과 삶, 그리고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진리를 답변해 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4: 6).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길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셨다(마가복음 13: 31).

성경의 청지기 개념은 오염된 생태계와 핵무기의 공포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이다. 물질주의적 관점에서만 자연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한다면 인간의 삶과 환경과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될 것이다. 이런 과학 중심의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극복하는 길은 창조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면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신학적 해석학의 역할이 실행되었을 때 성경이 과학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전제와 교리 그리고 인간중심적 철학이 성경을 비과학적인 문서로 권위를 떨어뜨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와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과학시대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한. “생명복제와 개혁신앙.” 『한국개혁신학회논문집』, 7 (2000).
- 김용준. 『과학과 종교-과학인 김용준의 연구 노트』. 파주: 돌베개, 2005.
- 낸시 피어시 & 찰스 텍스턴. 『과학의 영혼』. 이신열 역. 서울: SFC, 2009.
- 데이비드 C. 린드버그, 로널드 L. 넘버스. 『신과 자연: 기독교와 과학, 그 만남의 역사(상)』. 이정배, 박우석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8.
- 텔 라치. 『과학철학: 자연과학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김해진 역. 서울: CUP, 1990.
- 밀라드 J. 에릭슨. 『조직신학』. 나용화, 황규일 역. 서울: CLC, 1994.
- C. A. 럿셀. “과학과 신학.” 『아가페 신학사전』. 서울: 2001, 아가페.
- 리처드 라이트. 『신앙의 눈으로 본 생물학』. 권오식 역. 서울: IVP, 1995.
- 안명준, 조덕영.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지적설계운동의 위치.” 『조직신학연구』, 3 (2003).
- 알리스터 맥그라스. 『도킨스의 신』. 김태완 역. 서울: SFC, 2005.
- 위르겐 몰트만. 『과학과 지혜: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위하여』.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이성일. 『인류, 소유의 늪에 빠지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3.
- 이승엽. “과학적 증거들은 지적으로 설계된 우주를 지지하는가.” 『월드뷰』, 2011년 10월(통권 136호).
- 조덕영. 『과학과 신학의 새로운 논쟁』.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_____. 『위대한 과학자들이 만난 하나님』. 서울: 예영, 2007.
- Davies, Paul. “Taking Science on Faith.” New York Times. November 24, 2007.
- Dawkins, Richard. “Evolution: The Next 200 Years.” New Scientist. no. 2693 (2009).
- Dembski, William A. “Preface.” Intelligent Design. Willow Grove: IVP, 1999.
- Johnson, Phillip E. Darwin on Trial. Washington: Regnery Gateway, 1991.
- <<http://www.seehint.com/hint.asp?md=201&no=11716>>
- <<http://www.sciencedaily.com/releases/2011/08/110823180459.htm>>
- <<http://www.brainyquote.com/quotes/quotes/i/isaacnewto395010.html>>
- <<http://blog.daum.net/sultanbar/15026687>>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46581.html>>.
- <<http://www.reasons.org/articles/creation-ex-nihilo>>
-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hristian_thinkers_in_science>
- <<http://m.worldview.or.kr/>>

Abstract

Sc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ological Hermeneutics

Myung Jun Ahn

Today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ity and science is getting interesting. Past Christianity had the absolute power in society, but today science is the charge of the position. This article is to show how to conflict Christianity with science, how to fight evolution with creation science, what the intellectual design is, and what it is wrong. And this writing is to analyze and to evaluate these topics with the perspective of theological hermeneutics.

Although science has influenced Christianity and human life, it should follow the will of God in His creation world. Science is not the everlasting truth. We do not know when its theory will be change. So we can not trust in it ever and forever. Even it can not solve the basic problem with human.

In order to overcome the world view of science centered materialis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ord Creator we should put our hope on the God who is the Creator of all things and all creatures

Key Words

Creation, Science, Creation Science, Creationism, Christian ethics, Evolution

게르만족의 침탈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응

Augustine's Response to the Sack of Germanic Peoples

■ 이규철*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게르만족의 침탈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응을 연구함에 있다. 410년 8월 24일, 알라릭이 이끄는 서고트족의 로마 침탈로 인한 쇠락은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많은 크리스천의 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었다. 로마의 침탈에 대한 어거스틴의 첫 번째 대응은 어거스틴의 설교 15A, 113A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로마 침탈에 대한 어거스틴의 유명한 대응은 『하나님의 도성』(1-3)에 수록되어 있다. 로마의 침탈에 대한 어거스틴의 여러 대응들, 특히 그의 종말론적 관점은 야만족의 침입에 대한 여타 신학자들의 관점과 궤를 일치한다.

429년, 반달족의 가이세릭 왕이 이끄는 군대가 북아프리카에 진격을 개시했다. 430년 5월 히포는 반달족에 의해 봉쇄되어 근 1년 동안 저항했다. 어거스틴은 반달족에 의해 봉쇄가 된 그 수난의 기간에 스토아적인 평정을 유지하면서 깊은 기도와 묵회 돌봄 사역에 헌신했다. 특히 어거스틴은 교회의 사제들에게 위기에 처한 피난민이 누구든지 간에 묵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면 양떼를 버리거나 떠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거하라고 촉구하였다.

서고트족과 반달족의 침탈에 직면한 어거스틴이 보인 신학적 묵회적 대응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의 모델이자 역사적 거울로서 자리매김한다

중심단어

어거스틴, 로마의 침탈, 반달족, 하나님의 도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 논문 투고일: 2017년 7월 13일 • 논문 수정일: 2017년 8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9월 4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실행위원, 안동성결교회 담임목사

1. 들어가는 말

어거스틴의 사역은 게르만족의 침공이라는 격란(激亂) 속에서 불꽃을 피웠다.

어거스틴이 히포의 주교로서 절정의 사역을 펼치던 410년 8월 24일, 알라릭이 이끈 게르만족의 일파인 고트족의 침입에 의해 로마는 침탈되었다. ‘일리아드’에 따르면, 알라릭에 의한 ‘로마의 침탈’(the Sack of Rome)은 전술적 중요성보다 심대하다. 로마는 로마 제국과 시민들의 정체성에 있어 중심이었다. 로마의 몰락은 하나님께서 제국을 보호하시리라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확신에 도전을 주었다.¹⁾ 공포와 파괴로써 로마를 침탈한 고트족의 만행을 바라본 어거스틴은 그의 불멸의 명저인 『하나님의 도성』(De Civitate Dei)을 저술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안타깝게도 어거스틴의 생의 말엽은 게르만족의 또 다른 일파인 반달족이 429년 지브롤터해협을 건너와 북아프리카를 유린하며 히포를 에워싼 채 맹공을 퍼붓는 잔해(殘害)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해야만 했다. 당시 노구의 어거스틴은 반달족의 침입에 의해 신음하는 히포 교구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는 일에 신명을 다 바치다가 430년 8월 28일 토요일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반달족의 침탈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응은 ‘포시디우스’(Possidius)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Vita Augustine)²⁾에 잘 소개되어 있어 후대

1) Jeremy Williams, “Barbarian Invasions”, *Augustine through the Ages: An Encyclopedia* (Grand Rapids: Eerdmans Pub. Co., 1999), 93.

2)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VITA AUGUSTINI)는 어거스틴과 더불어 40년 동안 살았던 절친한 동료 주교였던 포시디우스가 저술한 책으로서 어거스틴의 생애 전기(傳記)에 있어 『고백록』의 후속편 격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논자의 다음 줄고를 참고 바란다. 이규철, “Vita Augustini에 나타난 히포 수도원의 형성” 『군선교신학』 14 (2016), 160-165. 이하 각주에서 Vita Augustini는 v. Aug.로 표

의 사역자들에게 귀감이 된다.

본 연구는 어거스틴의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게르만족의 로마 제국 침공에 직면한 어거스틴의 대응에 집중한다. 특히 게르만족의 침탈이라는 만행에 대항하여 어거스틴이 취한 목회 사역의 면면이 오늘날의 목회 사역자들에 주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2. 어거스틴 시대의 게르만족의 침탈 양상

로마인의 견지에서 ‘바르바루스’(Barbarus, 야만인)³⁾라 여기는 ‘게르만족의 대이동’⁴⁾은 실상 로마에 대한 침입이었다. ‘이광호’에 의하면,

기한다. v. Aug.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였다. 포시디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이연학, 최원호 역주 (왜관: 분도출판사, 2009).

3) ‘시오노 나나미’(塩野七生)에 따르면, 5세기경 로마 시대 당시 야만족은 세 부류이다. 첫째, 적어도 로마군에서 군무에 종사한 아버지 대부터 로마 제국과 관계를 맺고 아버지에게 주어진 로마 시민권과 아버지를 통해 얻은 로마와의 인간관계를 활용하여 로마 내에서 경력을 쌓은 야만족 출신자, 이민 2세대라는 표현을 흉내 내면 야만족 2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주도한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통으로 결정한 삼위일체파 기독교도가 많다. 둘째, 출신 부족을 떠나지 않고 부족장으로 동포를 통솔하면서 로마 제국과는 ‘동맹부족’(foederatus)관계로 맺어져 있는 경우. 이 동맹관계는 로마가 제국 영토 안에 그들 야만족의 침입을 격퇴하겠다는 약속으로 성립된다. 일종의 용병관계니까 로마 쪽에서는 봉급을 지불한다. 야만족은 거주지와 봉급을 받는 대신 로마 영토의 다른 지역을 침범하거나 약탈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종교적 측면에서 이들은 모두 아리우스파 기독교도였다. 셋째, 세 번째 부류로 분류되는 야만족에게 로마 제국은 침략의 대상일 뿐이다. 그래서 로마와의 관계는 아주 약하다. 그런데 침범해서 빼앗은 물건을 가지고 퇴각해 주었을 때는 그래도 나왔다. 그런데 쳐들어와서 분탕질을 한 뒤에도 물러가지 않고 눌러앉게 된 뒤에는 로마에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된다. 멀리 아시아에서 서쪽으로 진격해 온 훈족에게 밀려났기 때문이지만, 훈족도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고 게다가 비게르만계 야만족이었다. 세 번째 부류의 야만족은 게르만계와 비게르만계를 막론하고 ‘이교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이교도라고 해도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의 신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 게르만계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신들에 대한 신앙을 지켰고, 로마인이 혐오했기 때문에 700년 전에 사라진 ‘인신공희’(人身供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까지도 북방 야만족 ‘이교도’ 사이에는 아직 남아 있었다.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15): 로마 세계의 종언 (서울: 한길사, 2007), 29-31.

4) 게르만족의 대이동에 대해서는 논자의 다음 줄고를 참고하라.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연구』 47(2013), 159-165.

375년경부터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게르만족은 로마 제국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인구 증가로 말미암은 농경지의 부족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372년경 ‘아틸라’(Attila)의 지휘 하에 훈족들이 불가강을 건너 동고트족(Ostrogoths)을 정복했기 때문이다. 특히 훈족에 의해 동고트족이 정복당하는 것을 목격한 서고트족은 위기 의식을 느낀 나머지 376년경 다뉴브 강을 건너 로마제국의 영토 안으로 이주하게 되었다.⁵⁾

‘자크 르고프’(Jacques Le Goff)에 따르면, 잔혹하고 강력한 훈족⁶⁾의 공세에 굴복한 게르만족이 로마 역내에 침입하게 된 것은 로마 세계의 변형을 재촉한 재앙이자 침공이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농촌을 초토화시켰고 도시를 폐허화시켰다. 그리고 농업의 몰락과 도시의 위축을 가져와 경제적 발전을 저해했다. 나아가 인구 감소와 사회 변화를 재촉했다. 농민들은 사병을 거느린 우두머리가 되는 경향이 있던 대토지 소유자들의 강력한 보호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고, 소규모 자치농인 클로누스(clonus)의 상황은 노예와 흡사했다. 때때로 농민의 참상은 45세기에 만성적으로 일어난 아프리카의 ‘키르쿰켈리오’(Circumcellio: 45세기 아프리카 유랑민을 일컬음) 운동과 같

5) 이광호,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세계문화사의 흐름』(서울: 도서출판 실로암, 1993), 115.

6) 자크 르고프,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1), 47. 르고프에 따르면, 훈족의 잔인성은 다른 모든 민족들을 능가한다. 그들은 쇠붙이로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에 깊은 상처를 내어 솜털의 싹을 모두 없애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수염도 매력도 없이 마치 내시처럼 늘어 보인다. 그들은 몸이 땅딸막하고 사지는 건장하며 목덜미는 두텁다. 그들의 육중한 몸매는 공포감을 자아낸다...훈족들은 음식을 조리하지도 않고 양념도 넣지 않은 채 먹는다. 그들은 갓 태어난 동물의 날고기로 영양을 보충하고는 말 등에 누워서 한동안 휴식을 취한다. 그들은 모자를 사용하지 않듯이 주택도 이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삼베나 쥐 털을 나뭇가지로 꿰매서 입는다. 그들에게는 실내복이나 외출복이 따로 없다. 그들은 한번 빗바랜 옷을 입기만 하면 헤질 때까지 벗는 법이 없다...그들은 말 위에서 떠나는 법도 없다. 식사할 때도 음료를 마실 때도 발을 땅에 대지 않는다. 그들은 말을 탄 채 말목에 기대어 잠을 자며, 이런 자세로 편안히 갖가지 꿈을 꾸다.

리아와 에스파냐의 ‘바가우다이’(Bagaudae: 45세기 에스파냐와 갈리아의 유랑민들의 반란을 일컬음)운동 등과 같은 농민 봉기로 바뀌기도 했다.⁷⁾

로마는 게르만족의 침공에 의해 410년 ‘로마의 침탈’(The Sack of Rome)을 당하고, 452년 훈족의 추장 아틸라(Attila)에 의해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 또한 로마는 455년 가이세릭(Gaiseric)이 이끄는 반달족에 의해 심한 분탕질을 또 당한다. 급기야 476년 게르만족 출신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Odoacer)에 의해 ‘로물로스 아우구스툴루스’(Romulus Augustulus)황제가 폐위를 당함으로써 멸망하게 된다.⁸⁾

1) 410년 로마의 침탈

‘타키투스’(Publius Cornelius Tacitus, 55~117?)는 『게르마니아』(Germania)에서 게르마니족의 이름과 기원을 이렇게 밝힌다.⁹⁾

7) *Ibid.*, 43.

8) ‘시오노 나나미’에 따르면, 역사학자라면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476년이 아니라 1453년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물론 동로마 제국이나 서로마 제국이라는 명칭은 후세 역사가들이 편의상 붙인 이름이긴 하다. 하지만 로마라는 도시가 없는 로마 제국은 있을 수 없다. 로마인은 로마가 아무리 철저히 파괴된 뒤에도 로마에서 다른 곳으로 수도를 옮기는 데 반대한 민족이다. 로마는 도시국가에서 출발한 나라다. 도시국가의 수도와 영토형 국가의 수도는 의미가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처음에 도시가 있었던’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영토가 먼저 존재하고 그 영토를 통치하기에 적당한 장소에 건설한 것이 수도이다. 도시 아테네가 없는 도시국가 아테네가 있을 수 없듯이, 로마가 없는 로마 제국도 있을 수 없다.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수도인 나라는 이미 로마 제국이 아니다. 하물며 언어도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를 쓰는 나라임에야...그런 의미에서 로마는 476년에 멸망했다. 로마는 그 후의 역사에 나타나는 다른 제국들과는 또 다른 점에서 완전히 달랐다. 다른 제국들은 식민지가 차례로 독립하면서 제국이 해체되었지만, 로마만은 속주가 등을 돌렸기 때문에 제국이 해체된 것이 아니다. 성난 파도처럼 덮쳐온 북방 야만족 앞에서 속주도 본국도 운명을 같이 했다. 본국과 식민지가 지배하는 쪽과 지배를 당하는 쪽으로 엄격하게 나뉘는 후세의 제국들과는 달리 본국과 속주 사람들이 같은 공동운명체에 속한다고 생각한 로마인의 제국관은 그들이 제국을 ‘familia’라고 부른 데 잘 나타난다. 로마인은 공동운명체를 하나의 대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 제국은 역시 멸망했다. 언젠지도 모르게, 그래서 ‘위대한 순간’도 없이 그렇게 스러져갔다. 시오노 나나미, *op. cit.*, 335-336. 이규철, *op. cit.*, 157에서 재인용.

9) 타키투스, 『게르마니아』 2. 2 (고양: 도서출판 숲, 2002).

게르마니족은 그들의 유일한 역사 기록으로 옛날부터 전해오는 노래들에서 투이스토 신이 대지에서 태어났다고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투이스토에게서는 그들 종족의 시조인 만누스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만누스에게서는 또 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대양에 가장 가까이 사는 자들은 잉카이보네스족, 중앙에 사는 족들은 헤르미오네스족, 나머지는 이스타이보네스족이라 부른다. 먼 옛날 일에는 추축이 허용되는 만큼 어떤 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투이스토 신에게는 아들이 더 많이 태어났으며, 부족의 이름도 마르시족, 감브리아족, 수에비족, 반달리아족 등 더 많이 있었는데, 이들 이름이 예부터 전해오는 진짜이름이라 한다. 하지만 ‘게르마니아’라는 이름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근래에 와서 사용되었다. 맨 먼저 레누스 강을 건너가 갈리족을 내쫓은 지금의 통그리족이 그때는 게르마니족이라고 불렸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종족이 아니라 한 부족의 이름이 차츰 통용되었으니, 처음에는 갈리족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승승장구하던 통그리족만이 자신들을 게르마니족이라고 불렀지만, 나중에 이 이름이 일단 통용되자 종족 전체가 스스로 자신들을 게르마니족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타키투스에 의하면, 고트족(Goths)은 다른 게르만족 부족들보다는 좀 더 엄하게 왕들의 지배를 받았지만 자유를 억압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고트족의 특징은 ‘동근 방패, 단검, 그리고 왕에 대한 복종을 꾀할 수 있다.’¹⁰⁾

게르만족의 일파인 서고트족(Visigoths)이 410년 8월 24일 밤 로마를 기습 공격하여 침탈했다. ‘알라릭’(Alaric)이 이끈 서고트족은 로마를 처절하게 유린했다. ‘질송’(E. Gilson)은 『하나님의 도성』의 서문에서 그 때의 참상을 이렇게 묘사한다.¹¹⁾

410년 8월 24일, 알라릭은 로마에 들어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3일 동안에 걸쳐 로마를 약탈하였다. 4일째 되는 날 그는 수많은 시체와 폐허를 뒤로한 채 막대한 전리품을 갖고 로마를 떠났다. 교회가 제국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순간에 최초의 제국 함락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이 곧 로마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와 유사한 경험들 중에서 이 사건은 특히 충격적이었다.

알라릭이 로마를 침탈했을 때 로마 제국은 기독교가 국교로 지정되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로마는 아직도 곳곳에 이교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특히 상류층에서 그러한 경향이 심하였다. ‘노울즈’(David Knowles)에 따르면, 로마 종교는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주피터를 주신으로 숭배했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스토아주의와 에피큐리아니즘(Epicurianism)이 귀족들 사이에 깊이 자리 잡았다. 알라릭의 로마 침탈은 로마의 전통적인 제신(諸神)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옹호한 데서 발생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당시 지식인들 중에는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된 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내심 반기독교적인 감정까지 갖고 있었기에 서슴없이 알라릭의 로마 침탈을 기독교의 탓으로 돌렸다.¹²⁾

2) 429-430년 반달족의 북아프리카 침탈

‘장 카르팡티에’(Jean Carpentier)와 ‘프랑수아 르브룅’(François Lebrun)에 따르면, 게르만족의 일파인 반달족이 에스파냐 지역을 얻게 된다. 몇 년 동안의 약탈과 서지중해의 해적질을 지휘해 온 반달족의 우두머리인 ‘가이세릭’은 429년 5월 반달족을 타리파(에스파냐 남단의 항구도시)에서 재규합한다. 다른 이민족 및 토착민들과 연

10) 『게르마니아』 44, 1.

11) ST. AUGUSTINE, “Introduction”, *CITY OF GOD*, tr., G. Walsh and others (Garden city: Image Books, 1958), 13.

12) Saint Augustine, “Introduction”, *City of God*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57), xv.

합하여 그 세력이 약 8만 명에 이른 그들은 에스파냐계 로마인들에게서 동원한 배로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탕헤르’ 항 근처에 닿는다. 거기서 그들은 동쪽으로 나아가 430년에는 ‘보네’까지 점령한다.¹³⁾

‘피터 브라운’(Peter Brown)에 따르면, 반달족이 침공을 했을 때 아프리카에서의 로마의 통치는 간단하게 무너졌다. 429년의 여름과 430년의 봄에 반달족은 갑작스럽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마우레타니아와 누미디아를 휩쓸고 지나갔다. 주민들의 반항을 맞이하였다는 기록도 없으며, 스페인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가톨릭 공동체를 앞세우고서 야만족들을 저지시키고 괴롭혔다는 기록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가톨릭 감독들은 상호간에 나뉘었고 도덕적으로 부패하였으며 양떼들은 수동적이었다¹⁴⁾.

*Vita Augustini*에 따르면, 북아프리카에 상륙한 반달족의 군세는 연합전력이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갖가지 무기로 무장하고 전쟁에 숙달된 대규모 군대가 몰려왔다. 잔인한 원수인 반달족과 알라니족이 다른 혈통의 고트족과 연합한 그 군대는 배를 타고 에스파냐 바다 건너편에서 아프리카로 침입했다.¹⁵⁾

당시 ‘아프리카의 방백’(comes Africae)이었던 ‘보니파티우스’(Bonifatius)가 가용한 전력을 총동원하여 격퇴에 나섰으나 역부족이

13) 장 카르팡티에, 프랑수아 르브룅 공역, 『지중해의 역사』 (서울: 한길사, 2006), 167. 이후 반달족은 동쪽으로 계속 진격하여 439년에는 소맥 저장소인 거대한 항구 카르타고를 점령한다. 이로써 반달왕국은 현재의 튀니지 중심부로 파고들게 되고, 이때부터 반달족은 해상에서 대단한 위치를 점유하게 된다. 이들은 455년에 로마를 약탈하고 에스파냐, 이탈리아와 그리스 해안을 기습한데 이어 서지중해 연안과 동로마제국간의 교류를 위협했다. 그런데 지중해를 장악한 반달족은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재건한 강력한 해군에 의해 553년 궤멸된다.

14) 피터 브라운, 『어거스틴: 생애와 사상』, 차종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624.

15) v. Aug. 28, 1.

었다. 보니파티우스는 히포를 14개월 동안 지켜냈지만, 종내 방어를 포기하고 로마로 탈출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는 반달족의 침공에 따른 참혹한 참상을 이렇게 적시했다.

침략자들은 마우리카니아 지방을 두루 거쳐 우리 지방과 지역을 지나면서 온갖 포악한 짓을 저질렀다. 약탈, 학살, 갖은 고문, 방화, 헤아릴 수 없이 극악한 만행과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저지르며 약탈했다. 그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교들이나 성직자들뿐 아니라, 교회의 장식물이나 제구, 교회 건물마저도 모조리 휩쓸어 버렸다.¹⁶⁾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는 교회에서 사라졌고, 수많은 지역의 교회 건물은 불타 버렸으며, 합당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장엄한 희생제는 그쳤고, 더 이상 거룩한 성사를 청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설령 청한다 할지라도 성사를 집전할 사람을 쉽게 구할 수도 없었다.¹⁷⁾

야산이나 암벽굴이나 동굴 또는 다른 요새에 피신한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잡혀 죽었고, 더러는 헐벗고 생활필수품이 부족해서 굶어 죽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적들에게 붙잡히지 않았거나 붙잡혔다가 탈출한 교회 지도자들과 성직자들마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아주 비참하게 알몸으로 구걸해야 했으며, 궁핍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금도 채워 줄 수 없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겨우 세 곳이 살아남았으니, 카르타고, 히포, 키르타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파괴되지 않았다. 그 도시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도움과 보호로 아직 건재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께서 돌아가신 뒤에 주민들은 히포 시를 빠져나갔고, 적들은 (도시를) 불 질러 버렸다.¹⁸⁾

‘데이비드 라이트’(David F. Wright)에 따르면, 429년 스페인으로부터 아프리카로 건너온 반달족은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받아들인 상태

16) v. Aug. 28, 5.

17) v. Aug. 28, 8.

18) v. Aug. 28, 9-10.

였다. 이들은 439년 카르타고를 점령하였고 533년까지 통치하였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의 그리스도교도와 도나투스파는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반달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아프리카를 석권한 반달족은 로마의 방식으로 교회의 통일을 추구하였고 재세례를 강요하였으며 주교들을 추방하고 그들의 복직을 막았으며 수도원을 해산시켰다.¹⁹⁾ 이후 북아프리카 지역 내 교회는 수난과 형극²⁰⁾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어거스틴의 대응

1) '410년 로마의 침탈'의 경우

영원한 제국으로 여겨진 로마의 쇠망(衰亡) 원인에 대한 학계의 이론은 다채롭다.²¹⁾ 그런데 알라릭에 의해 로마가 침탈을 당했다는

19) 데이비드 라이트, 「북아프리카의 교회」, 『교회사 핸드북』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201-202. 데이비드 라이트에 의하면, 반달족이 지배하던 아프리카의 교회에 평화로운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군트하문드(Gunthamund, 484-496)의 치하 시, 당시 아프리카의 유일한 독특한 기독교 시인 드라콘티우스(Dracontius)가 카르타고에서 활약했다. 또한 힐데릭(Hilderic, 523-530)의 치하에서도 잠시 평화를 누렸는데, 525년 전 아프리카 공의회가 카르타고에서 개최되었다.

20) 데이비드 라이트에 의하면,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의 장군 벨리사리우스(Belisarius)가 533년 아프리카를 재정복한 후 카톨릭 기독교는 그 활력을 많이 회복하였다. 허나 이슬람교의 사라센족이 642-643년에 침략을 시작하여 698년 카르타고를 점령하였고, 709년 정복을 끝냈다. 11세기 중엽까지 북아프리카에 단지 세 곳의 주교 교구만이 존재하였고, 13세기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주교 교구도 남아 있지 않았다. 단지 문학적 유산과 인상적인 고고학적 기념물만이 오늘날 초기 기독교의 생활과 독립성을 증거해 준다. *Ibid.*, 203.

21) '몬테스키외'(Montesquieu)에 따르면, 로마의 쇠망원인은 그리스도교와 야만족들에게 있다. 그리스도교는 로마제국이 쇠퇴해 가는 시기에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도들은 로마제국쇠퇴의 원인이 야만족들에게 있다고 비난하였다. 반면 야만족들은 그리스도교에 로마제국 쇠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몬테스키외, 『로마인의 흥망성쇠 원인론』, 박광순 역 (파주: 종합출판 범우, 2013), 210. '헌팅턴'(E. Huntington)은 로마제국의 멸망원인은 기후변화와 농업의 피폐에 있다고 보았다. E. Huntington, "climatic Change and Agricultural Exhaustion as Elements in the Fall of Rom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31(Harvard University Press, 1917). 지동식, 『로마제국은 왜 멸망했는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7), 71에서 재인용.

소식을 접한 어거스틴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설교를 통해 이교적 신앙을 가진 로마인들이 제기한 로마의 쇠망에 대한 교회의 책임 유무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을 저술함으로써 이교도들의 도전에 대해 상세하게 변증을 했다.

(1) 설교

'제레미 윌리엄스'(Jeremy Williams)의 연구에 따르면²²⁾, 알라릭에 의한 로마의 침탈에 대한 어거스틴의 최초의 설교는 410년 9월 22일 설교한 어거스틴의 설교(sermo 15A)²³⁾이다. 이 설교에서 어거스틴은 시편 32편과 욥기 2장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에 복종할 것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이 펼치는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이는 심판을 받고 의인은 신원(伸冤)을 받는 다음 세상(천국)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설교로는 9월 25일 행해진 설교(sermo 113A)이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로마를 방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었다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비난에 대

'웨스트만'(W. L. Westermann)에 의하면, 일반적 차원에서 로마의 쇠망원인은 여섯 가지로 집약된다. 1) 고대의 노예제 2) 인구의 감소 3) 고대의 세제 4) 귀족층의 계속적인 동방으로의 유출 5) 그리스도교 6) 야만족의 이동 등이다. W. L. Westermann, "The Economic Basis of the Decline of Ancient Culture",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XX(1915). 지동식, *Ibid.*, 115-116에서 재인용.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에 따르면, 제국으로까지 팽창했던 로마라는 한 도시의 융성에 뒤이은 쇠퇴와 붕괴의 원인은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팽창의 필연적 결과"였다. 에드워드 기번, 『로마제국쇠망사』, 강석승 역 (서울: 동서문화사, 2011), 411.

22) Jeremy Williams, *op. cit.*, 93.

23) Saint Augustine, *SERNOMS*, 15, Edmund Hill, John E. Rotell tr., *The Works of Saint Augustine: A Translation for the 21st Century*, Vol. 4 (New York: New City Press, 1992).

해, 적합한 그리스도인의 응답으로서 종말론적 희망을 강조했다.

410년 후반부에 행해진 설교(sermo 81)에서 어거스틴은 로마가 그들의 전통적 신들 섬기기를 게을리 하였기에 멸망하였다는 이교도들의 고소와 비난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해명을 하였다. 어거스틴이 보기에 로마의 종말은 양면의 토론 여지가 있다. 첫째로 어거스틴은 로마의 오래된 전통 신들을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여 로마가 종말을 맞았다고 선동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411년 후반에 행해진 설교 296과 105에서 이런 주제를 되풀이하여 전한다.

(2) 『하나님의 도성』

알라릭에 의해 로마가 침탈을 당하자 로마의 지배 계층의 많은 수가 아프리카로 피난을 왔다. 아프리카로 피난을 온 이들이 로마의 쇠퇴와 관련하여 이슈로 삼은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독교 교리는 이 세상을 거부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에 대한 봉사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로마의 국가적 운명은 항상 다신(多神) 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믿어왔는데, 기독교의 공인과 전파는 이교신들을 배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로마의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로이 배튼하우스(Roy W. Battenhouse)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 로마 인들은 유대인들처럼 그들의 수도가 영원한 도시라고 생각했다. ‘베르길리우스(Publius Vergilius Maro, 70-19 B.C., 로마 시인, The Aeneid의 저자)가 말한 ‘아에네아스’(Aeneas: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의 영웅으로 로마의 건설자의) 순례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모세의 순례가 그런 것처럼 로마인들에게도 뜻 깊은 것이었다. 아에네아스는

그의 경건과 자기 훈련에 의해 이상적 질서의 꿈에 도전하는 도시를 세운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 도시는 붕괴되었다. 그래서 로마의 애국자들은 다른 신앙,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외국인들에 의해 로마가 안으로부터 차츰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의 어거스틴의 과업은 이런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는 것이었다.²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 서문에서 『하나님의 도성』 저술이 기독교인으로서 히포의 집정관이었던 ‘마르셀리누스(Marcelinus)의 요청으로 그 문제에 답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 이것이 이 책에 있어서의 나의 주제이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마르셀리누스여 그대의 제안에 따라 약속하였던 주제가 바로 이것이다. 이 도성의 창설자보다 저들 자신의 잡신들을 더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 도성을 방어하려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도성, 지금 시간의 흐름 속에 믿음으로 살면서 경건치 않은 자들 사이의 의인으로 우거하고 있으나, 장차는 이 도성의 영원한 좌소(座所)에 안정되게 살 것이다. 지금은 인내로서 기다리며 “심판을 위하여 의가 다시 외기를” 고대하고 있으나 그 때는 이 도성의 탁월성으로 인하여 최후의 승리와 완전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도성의 방어,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나 하나님께서 나의 도우시는 자이다²⁵⁾

이런 점에서 알라릭으로 대변되는 게르만족에 의한 로마에 대한 어거스틴의 결정적 대응은 이교도의 도전들에 대해 상세하게

24) 로이 w 배튼하우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아우구스티누스: 연구 핸드북』, 현재규 역 (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1994), 73.

25) Augustine, “Preface,” *The City of God*, tr., Marcus Dods,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 2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93). 이하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는 NPNF로 표기한다.

대답을 하는 『하나님의 도성』 1-3에서 제공된다. ‘라토렛’(Kenneth S. Latourette)은 『하나님의 도성』을 ‘기독교를 위한 가장 유명한 변증학’으로 평가한다.²⁶⁾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을 413년에 집필하기 시작하여 426년에 완결하였다. 이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을 완성한 1년 뒤 자신의 저술들을 요약하고 정리한 『재론고』(Retractations)에서 그의 『하나님의 도성』 집필 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그 무렵 로마는 고트족의 왕 알라릭의 침입과 그에 뒤따르는 거대한 재난의 물결에 당혹해하고 있었다. 다양하게 거짓 신들을 섬기는 자들, 우리가 지금 처절하게 이교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로마 전복의 책임을 기독교에 돌리고, 진정한 신에 대한 모독을 더욱 격렬하고 혹심(酷甚)하게 퍼붓기 시작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나의 열망에 불을 지르게 했고, 저들의 독신(瀆神)과 오류(誤謬)를 논박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성』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첫 다섯 권의 책은 변영이나 고난을 제신들의 숭배나 그 의식의 금지에 돌리는 사람들을 반박하려는 것이다. 다음 다섯 권은 그들 숭배를 통해 재난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죽은 후의 미래세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반론이다.....²⁷⁾

어거스틴은 알라릭에 수탈을 당하여 참담함과 상실감이 큰 그와 그의 신자들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

26) Kenneth S.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Vol. 1): *The First Five Centurie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1), 186, 189-190. 라토레트에 따르면, 로마가 고트족에게 넘어간 책임이 기독교에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 어거스틴은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모티프를 발전시켰다.

27) Augustine, *Retractationes*, II. 49. 2. tr., Boniface Ramsey, *Revisions* Vol. 2, *The Works of Saint Augustine: A Translation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New City Press, 2010).

도하며 이런 신앙적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선인과 악인들이 함께 고통을 당할 때에, 이들의 고통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이들 가운데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같은 어려움을 통과하더라도, 덕과 악덕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황금을 더 반짝이도록 만드는 바로 그 불꽃이 검불들을 태워버린다. 같은 도리끼의 난타 속에서 쭉정이는 사라져 버리고, 알곡들이 나타나게 된다. 같은 틀에서 나왔다고 해서 기름과 찌기가 동일 한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당할 때에 악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욕하고 저주한다. .. 반면, 선인은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는다. ...분노통을 흔들어 보라. 악취가 진동하리라. 그러나 향수를 흔들면 아름다운 향기가 집을 가득 채운다.²⁸⁾

이상에서 살핀 바 『하나님의 도성』 집필동기가 말해주는 것처럼, 어거스틴은 알라릭의 로마침탈 원인에 대한 로마인들의 물음에 그의 역사철학이 투사된 기독교적 변증으로 신학적 해명을 한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로마는 ‘인간의 도성’이며 ‘하나님의 도성’은 지상의 가시적 왕국이 아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410년 알라릭에 의한 로마의 침탈 참사에 대해 지상왕국이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성은 새로운 지상 왕국들을 사용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것임을 설교하고 저술함으로써 시대를 읽는 신학적 목회적 대응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2) ‘429-430년 반달족의 북아프리카 침탈’의 경우

포시디우스는 *Vita Augustini*에서 반달족에 의해 북아프리카가 침탈을 당할 때 어거스틴이 몸소 취한 대응을 소상히 소개한다.

(1) 성찰

포시디우스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반달족의 침탈이라는 참상에 직면할 때 다른 사람과는 달리 느끼고 생각하는 성찰을 통해 냉정

28) *The City of God*, 1. 8.

하게 사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어거스틴은 재난의 참상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목회 삶의 현장에 밀려온 고난에 동참하여 고통을 함께하는 영적 지도자의 면모를 보였다.

하나님의 사람(어거스틴)은 원수들의 이처럼 잔인한 폭력과 파괴가 왜 일어났고 또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느끼고 생각하셨다. 그분은 이 일들을 더 깊고 심오하게 성찰하시면서, 그 사건들 속에서 일어나게 될 영혼의 위협이나 죽음을 특별히 예견하셨다. 왜냐하면 “지식에 다다른 자는 고통에 이르며, 지혜로운 마음은 뼈를 깎는 고뇌”라고 씌어 있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여느 때와는 달리 밤낮으로 눈물의 빵을 드셨으며, 그 누구보다도 인생의 마지막을 연만하신 몸으로 겨우 지탱하고 참아내셨다.

하나님의 사람(아우구스티누스)은 파괴된 도시들을 보셨고, 시골에서도 마찬가지로 파괴된 건물과 더불어 잔인한 원수들에게 살해되거나 도망가고 흩어진 주민들, 그리고 주교와 성직자들에게 버림받은 교회들, 뿔뿔이 흩어진 거룩한 동정녀들과 수도승들을 보셨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고문을 이겨 내지 못했고, 더러는 칼에 맞아 죽었으며, 더러는 노예로 전락하여, 영혼과 육신의 온전함과 신앙을 잃어버린 채 악랄하고 가혹한 대우를 받으면서 원수들을 섬기고 있었다.²⁹⁾

특히 어거스틴은 비록 재난의 참혹함 속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유지했다.

어거스틴께서는 이러한 재앙 가운데 (다음과 같은) 현자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하셨다. “나무와 돌이 떨어지고, 죽을 존재가 죽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자는 위대한 사람이 못 된다.”³⁰⁾

29) v. *Aug.*, 28, 6-7.

30) v. *Aug.*, 28, 11. 피터 브라운에 의하면, 어거스틴이 위안을 얻은 그 현자의 말은 ‘플로티누스’(Plotinus)의 *Ennead* I, iv, 7의 다음 말을 인용한 것이다. “나무 막대기와 돌이 무너지기 마련인데 그것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고 사람이 죽기 마련인데,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피터 브라운, *op. cit.*, 627에서 재인용.

(2) 눈물의 기도

포시디우스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재앙에 직면한 이들을 위해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중보를 멈추지 않았다.

대단히 지혜로우셨던 그분께서는 이 모든 재앙에 날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다. 그 당시 보니파티우스 방백의 방어 덕분에 고트족 연합군에게서 아직은 무사했던 히포 지역을 적들이 포위해 오자 그분의 눈물과 탄식은 더욱 커졌다. 이 도시는 거의 열네 달 동안 포위되어 있었고, 바다로 가는 길도 막혀 버렸다. 우리도 다른 동료 주교들과 가까운 곳으로 피신하여 포위 기간 내내 함께 있었다. 우리는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당신의 법규는 바롭니다”(시편119,137)이라고 아뢰며,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관해 자주 대화하고 성찰하곤 했다. 똑같이 고통을 겪고 있던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할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아버지과 모든 위로의 하나님(고후1,3)께 탄식하고 울면서 기도하곤 했다.³¹⁾

한번은,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의 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도시가 적들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다르다면, 당신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굳센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를 이 세상에서 거두어 당신 곁에 받아들여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셨고,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과 우리 모든 신자와 도시의 주민들과 함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를 바쳤다.³²⁾

포위된 지 석 달째 되던 날, 아우구스티누스께서는 열병으로 드러누우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앓으신 병이었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를 당신 종에게서 앗아 가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 자신과 그 도시를 위하여 눈물 섞인 기도를 때에

31) v. *Aug.*, 28, 12-13.

32) v. *Aug.*, 29, 1-2.

맞춰 바치고 계셨다.³³⁾

특히 어거스틴은 성도들의 기도 요청에 기꺼이 응하여 위해서 기도하여 주는 사랑의 목자였다.

또한 그분은 사제로 계실 때나 주교로 계실 때나 악령이 들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시면,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셨고, 결국 악령이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갔음을 나는 알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앓아누워 계실 때에도 누군가 자신의 병든 친척을 그분께 데리고 와서 치유를 위한 안수를 청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께서는 당신께서 이러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가졌더라면,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꿈속에서 환시를 보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주교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면 나를 것이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그분은 망설임 없이 (안수를) 해 주셨다. 주님께서는 즉시 그 환자를 낫게 해 주셨고, 환자는 그분을 떠나갔다.³⁴⁾

(3) 보니파티우스에게 ‘의로운 전쟁’ 수행 촉구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를 침공할 당시 이를 저지할 공적 책무를 가진 북아프리카의 총독은 보니파티우스였다. 418년, 일찍이 어거스틴은 보니파티우스에게 서신³⁵⁾을 보내어 ‘의로운 전쟁’에 관한 그의

33) v. *Aug.*, 29. 3.

34) v. *Aug.*, 29. 4-5.

35) 이규철에 따르면, AD. 418년 어거스틴은 군사적 소집의 도덕적 적합성을 찾고 있던 보니파티우스에게 조언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먼저 어거스틴은 보니파티우스에게 사랑이 율법의 핵심임을 환기시켰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교인이 군대직업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어거스틴은 이 점에 대해 ‘예수와 백부장과의 대화 기사를 분석하여 입증한다. 또한 어거스틴은 물리적 힘으로 군사적 적과 싸우는 것은 기도로서 영적인 적과 싸우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여겼다. 어거스틴은 전쟁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전쟁은 정당한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더불어서 어거스틴은 보니파티우스에게 ‘비록 전쟁 중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정복한 사람들에게 평화의 가치를 인식시키기 때문이다. 『보니파티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흐르는 중심 메시지는 ‘전쟁의 목적이 평화’

생각을 전한 적이 있다.³⁶⁾ 그런데 어거스틴이 보기에 반달족의 침공과 관련하여 보니파티우스가 보인 행태는 문제가 많았다.³⁷⁾ 이에 어

에 있다. 어거스틴의 이 메시지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는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궤를 같이 한다. 이규철, “어거스틴과 정당한 전쟁,” 『군선교신학』9 (2011), 126-127.

36) 이규철에 따르면, AD. 418년 어거스틴은 군사적 소집의 도덕적 적합성을 찾고 있던 보니파티우스에게 조언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먼저 어거스틴은 보니파티우스에게 사랑이 율법의 핵심임을 환기시켰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교인이 군대직업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어거스틴은 이 점에 대해 ‘예수와 백부장과의 대화 기사를 분석하여 입증한다. 또한 어거스틴은 물리적 힘으로 군사적 적과 싸우는 것은 기도로서 영적인 적과 싸우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여겼다. 어거스틴은 전쟁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전쟁은 정당한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더불어서 어거스틴은 보니파티우스에게 ‘비록 전쟁 중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정복한 사람들에게 평화의 가치를 인식시키기 때문이다. 『보니파티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흐르는 중심 메시지는 ‘전쟁의 목적이 평화’에 있다. 어거스틴의 이 메시지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는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궤를 같이 한다. 이규철, “어거스틴과 정당한 전쟁,” 126-127.

37) ‘시오노 나나미’에 따르면, 평상시 같으면 당시 이집트를 제외한 북아프리카 전역을 방어하는데 로마 병사로 이루어진 1개 군단(6천명)과 거의 같은 수의 보조 병력만으로 충분했다. 그만큼 북아프리카에 대한 로마의 지배를 실효적이고 안정적이었다. 북아프리카를 방어하는 로마의 군단은 창설자인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제3 아우구스타 군단’으로 불리며 무려 200년 동안이나 북아프리카의 안전을 보장해 왔다. 이 군단 기지는 오늘날의 알제리 랑베즈에 있었지만, 기지는 남쪽을 향해 건설되어 있다. 국내의 적이 아니라 국외의 적-북아프리카에서는 사막 민족의 내습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갓은 게르만족의 침범으로 인해 로마의 임시 수도 ‘라벤나’에 은신하고 있던 발렌티니아누스 3세의 모후 ‘갈라 플라키디아’는 보니파티우스가 북아프리카의 준리독립을 꾀한다는 소문을 듣고 보니파티우스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그런데 보니파티우스는 이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분노한 갈라 플라키디아는 토벌군을 아프리카로 보냈지만 보니파티우스에게 토벌군은 여지없이 패했다. 그러자 갈라 플라키디아는 고트족 출신 장수가 이끄는 야만족 병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로마군을 재차 토벌군으로 보냈지만, 그 토벌군은 보니파티우스에게 회유되었다. 군세 확충의 필요를 느낀 보니파티우스는 북아프리카에서 자기 세력 확충을 위해 에스파냐에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반달족에게 병사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 반달족의 족장 겐세리크(또는게아세리크)는 서로마 제국 아프리카 방면 사령관인 보니파티우스가 병력을 빌려달라고 하자 1개 부대가 아니라 거족적으로 요청에 응했다. 겐세리크(또는게아세리크)는 형세가 불리해진 이베리아 반도를 버리고 북아프리카에서 정착지를 찾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다.

429년 10만 명에 가까운 반달족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넜다. 반달족은 라인강을 건너 갈리아를 중단하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 히스파니아에 들어간 뒤에도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북아프리카에 상륙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보니파티우스는 휘하 병력과 그를 토벌하러 왔다가 회유당하여 그에게로 전향한 고트족 출신 장수와 그 휘하의 야만족 병사까지 동원하여 막 아프리카에 상륙한 반달족을 요격하러 갔다가 예기치 못한 사태에 직면한다. 시오노 나나미, *op. cit.*,

거스틴은 보니파티우스에게 서신을 보내어 ‘의로운 전쟁’의 수행 차원에서 직무 수행을 다해 주기를 촉구했다.

보니파키우스, 내 말을 들어 보시오! 아니 그보다는 내 입을 빌려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보시오! 그토록 많고도 심한 악이 그대에게서 유래하였는데 내 무슨 말을 하여야겠소? 그대는 그렇게 행동할만한 당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오. 나로서는 양편 이야기를 다 들어 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판단을 내릴 수는 없겠소. 그런데 말이오, 보니파키우스, 왕년의 황제 친위대장, 지금은 아프리카 속주의 총독으로 그토록 막강한 군대와 권력을 쥐고 있는 당신이 아프리카에 와 있는데 야만족들이 저렇게 초토화하면서 진군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을 누가 믿었겠소? 누가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 두려워들 했겠소? 그토록 사람이 많이 살던 지방들을 민족들이 무인지경으로 만들면서 진군해오고 있으니 말이오…

민족들이 아무런 저지를 받지 않은 채로 아프리카에서 저지르는 저러한 파괴를 두고 무슨 말을 하겠소? 당신은 곤경에 처한 일신상의 입장만을 걱정하고, 이 같은 재앙을 물리치는 데는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으니 말이오.³⁸⁾

(4) 참된 목회사역자에 대한 가르침의 편지

반달족의 공세가 강화되자 어거스틴은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회중들과 함께 남아 있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많은 감독들은 순교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성도들을 위한 교회 지도자들의 애정은 사라졌으며, 도나티스트들은 이들을 비웃었다. 더 이상 아프리카의

227, 233-234.

라토레트의 분석에 따르면, 가톨릭교도한테 이단으로 배척받은 도나투스파 기독교들이 겐세리크가 이끄는 반달족에 가세한 것이다. 도나투스파가 보기에 반달족은 아리우스파 이단이어서 이단끼리 힘을 합해 가톨릭파에 맞설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게다가 로마인으로부터 이등시민 취급을 받았던 마우리타니아인(무어인)과 사막의 베르베르인까지 반달족 편에 가세했다. 반달족은 북아프리카의 동쪽으로 순식간에 진격하여 히포레기우스에 이르렀다. Kenneth Scott Latourette, *op. cit.*, 195.

38) Augustine, *Letter*, 220, 7, *NPNF*, Vol. 1.

교회들은 순교자의 교회가 아니었으며, 이제 그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는 탄식이 늘어만 갔다. 포시디우스에 의하면, 그즈음 ‘티아베나’(Thiabensis)교회의 주교인 ‘호노라투스’(Honoratus)가 어거스틴에게 이런 질문의 편지를 하였다.³⁹⁾

“만약 우리들이 교회당에 남아 있다면, 이게 감독들이나 혹은 신자들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올지 알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죽고, 여자들은 유린당하고, 교회당은 불타고, 우리들은 우리가 갖지도 않은 것을 요구하는 고문 아래서 기절할 것입니다.”⁴⁰⁾

이에 대한 어거스틴의 답신은 매우 은근하면서도 확고하였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경우에 도망하여, 그리스도의 양떼들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는 샅군입니다. ‘그는 양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늑대가 오는 것을 보고는 도망해 버립니다.’…지혜롭고 거룩하였던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마음의 목표를 정하고, 전혀 그 힘을 잃지 않고, 이들을 비웃는 자들을 향하여 힘 있게 대항하였습니다.”⁴¹⁾

포시디우스는 ‘그의 시대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험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어거스틴에게 조언을 구하는’ 호노라투스의 질문에 대한 어거스틴의 답장 편지를 Vita Augustini 30장에도 수록하였다. 어거스틴은 핍박 상황에서의 목회자의 적합한 처신에 대해 몇 가지 경우를 검토하며 명확한 지침을 설정한다.

첫째, 어거스틴은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사람들의 피난책을 간구하되 교회를 돌보고 지키는 목회자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원칙으로

39) 이 편지는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단지 이런 질문을 던진 호노라투스에게 어거스틴이 보낸 편지만이 남아 있다. *v. Aug.*, 30, 1.

40) *v. Aug.*, 30, 16.

41) *Letter*, 228, 1.

삼을 것을 당부한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요새로 피신하기를 원할 경우 금하지 말아야 한다고 내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엮어 만들어 주신 우리 직무의 사슬을 끊어 버려서도 안 되며, 우리가 섬겨야 하는 교회를 저버려서도 안 됩니다.⁴²⁾ 우리 성직자가 있는 곳에 남아 있는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우리 직무가 그들에게도 꼭 필요하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주님께 아뢰시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든든한 보루가 되어 주소서!”(시편 31: 3)⁴³⁾

둘째, 어거스틴은 환난에 직면한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마태복음 10: 23)는 말씀의 적용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위해 어거스틴은 먼저 그 말씀을 예수와 바울의 경우에 대비시킨다.

그러나 당신 피로 얻으신 양 떼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직무가 없어지기를 바라셨기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 스스로도 이렇게 피신하셨습니다. 갓난아기 때 부모에게 안겨 이집트로 피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주님께서 아직 교회들을 모아들이지 않으셨으니, 주님께서 교회를 저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원수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광주리에 담겨서 창문으로 내려지셨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셨습니다(행 9: 25; 고후 11: 32-33). 그렇다고 거기 있던 교회에 필요한 직무가 없어졌습니까? 또 거기 남아 있던 다른 형제들이 필요한 일들을 완수할 수 없었습니까? 사도께서는 형제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것인데, 박해자가 특별히 찾고 있던 당신 자신을

42) v. Aug., 30. 4.

43) v. Aug., 30. 5.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 안에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⁴⁴⁾

이어 어거스틴은 예수께서 박해 시 피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성직자들에게는 성도를 보호할 책임이 우선됨을 주시킴이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과 성사의 봉사자인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분께서 명하시거나 허락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누군가 박해자들에게 특별히 지목되어 쫓기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이 고을 저 고을로 피해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쫓기지 않는 다른 성직자들은 교회를 버리지 말고 자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교와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 똑같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직무를 지닌 사람들(주교와 성직자)은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나님 백성)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함께 요새로 옮겨가십시오. 혹시 어쩔 수 없이 남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하는 성직자들은 그들을 그냥 남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살아남거나 공동체의 아버지(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시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덜 겪기도 하며, 또는 모두가 똑같은 고통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분명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피신하여 이러한 고난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남아 있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께서 다음과 같이 권고한 사랑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셨듯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요일 3: 16)⁴⁵⁾

어떤 사람이 적들의 만행을 피할 수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직무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피신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사실 이 직무(예 봉사하는 이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또 그

44) v. Aug., 30. 7-9.

45) v. Aug., 30. 10-12

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형제들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피신했다가 나중에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⁴⁶⁾

셋째, 어거스틴은 환난에 직면한 성직자가 피난에 오를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제시한다.

우리가 있는 곳에 박해가 밀어닥친다면, 그리스도의 성직자들은 거기에 더 이상 자신들이 섬길 그리스도의 백성이 없을 때나, 또는 같은 이유로 피신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성직자들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피신해야 합니다.⁴⁷⁾

어거스틴은 바울과 아타나시우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성직자가 피난에 오르는 경우를 상정한다.

내가 앞서 상기시켜 드린 대로, (바울)사도께서도 당신 자신이 박해자에게 지목되었을 때 광주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와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이유로 피신했) 필요가 없었으므로, 거기서 교회의 직무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 성인께서도 이처럼 피신하셨는데, 그것은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그분을 특별히 지목하여 체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직자들은 알렉산드리아에 남아 있던 가톨릭 공동체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⁴⁸⁾

넷째, 어거스틴은 돌보아야 할 성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돌보는 직무를 저버리고 도피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샅군에 불과한 ‘단죄 받을 도주자’라고 직언한다.

그러나 공동체가 남아 있는데도 성직자들이 피신하여 (교회) 직무가 없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양 떼들을 돌보지 않는 샅꾼들의

46) v. Aug., 30. 15.

47) v. Aug., 30. 21.

48) v. Aug., 30. 22.

단죄 받을 도주자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늑대가 울 터인데 그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그자는 주님의 몸을 날마다 받아 보실 수 없는 신자들로 하여금 배교하도록 집요하게 꼬드길 것입니다. 그 약한 형제는 그대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무지 때문에 멸망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⁴⁹⁾

다섯째, 어거스틴은 환난의 극심함을 두려워하여 굴복한 자들에게 진정으로 두려워 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격려하며 촉구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오류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두려움에 굴복한 사람들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왜 그들은 자비로우신 주님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두려움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지 못하고,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할 비할 데 없이 무거운 악을 피하지 못합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불타고 세상에 탐욕이 연기를 뿜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말합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나도 분개하지 않겠습니까?”(고후 11: 29).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시는 그분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죽어야 할 육신이 칼에 맞아 살해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악령의 칼에 그리스도의 양떼들의 영혼이 상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여인들이 육체적으로 겁탈당하는 것보다, 내적 감각이 썩어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정결이 마음 속에 간직되어 있기에 하다면, 정결은 이러한 폭력에 상처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겁탈당하는 사람의 의지가 자기 육신을 음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고 참아낸다면, 육신으로도 상처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지상 건물의 돌과 나무가 불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의 내버린 “살아 있는 돌”(벧전 2: 5)들의 불이 꺼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49) v. Aug., 30. 23

가능할 경우에도 이러한(악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경스럽지 않게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냥 견디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영적 생활에 필요한 자신의 직무를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저버리는 성직자가 불경스럽지 않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⁵⁰⁾

여섯째, 어거스틴은 환난 시 성직자의 일부라도 생존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환기시킨다.

그러나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적들의 침략이 임박했을 때, 그 재앙이 끝난 다음에도 살아남아 있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보존할 목적으로 성직자들이 피신하는 것은 유익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직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피신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성직자가 다 죽게 되리라고 예상된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 재앙이 오로지 교회의 성직자들을 박해할 목적으로 맹위를 떨치게 된다면 무어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성직자들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성직자들에게 버림받아야 하겠습니까? 평신도들이 잡혀 죽지 않는다면, 그들은 갖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교들과 성직자들을 숨겨 줄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지니고 계신 그분께서 도와주시어, 피신하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놀라운 능력으로 지켜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⁵¹⁾

일곱째, 어거스틴은 환난에 처한 성직자들이 피난을 가지 않고 서로 성도를 위해 남겠노라고 자원하여 선뜻 결정하기가 곤란할 때 토론을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제비뽑기를 권고한다.

오! 모든 성직자가 피신하거나 죽게 되어 교회가 내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직자들 가운데 누가 남을 것이며, 모두가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누가 피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토론이 벌어졌으면 합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불타고, 서로가 사랑

50) v. Aug., 30. 24-28.

51) v. Aug., 30. 37-38

이신 분의 마음에 들고자 한다면, 그들 사이에 이러한 경쟁은 분명히 벌어질 것입니다.

토론이 달리 결론에 이를 수 없다면, 내 생각으로는 누가 남고 누가 피신할 것인지 제비를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피신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닥쳐오는 재앙을 견디고 싶어 하지 않는 겁쟁이거나, 자기 자신이 교회에 더 필요한 인물이므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여기는 교만한 인물일 것입니다.⁵²⁾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환난에 직면한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는 목회사역자의 기본자세에 대한 어거스틴의 가르침은 목회사역자들이 양떼들과 뗄 수 없는 결속관계의 유지에 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 그 결속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와 성도들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는 동화(同化)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역이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현명하고 거룩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바라고 실천해 왔으며,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씹힐지라도 그들의 굳은 뜻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⁵³⁾

5) 생의 최후까지 저술 작품을 손질하며 경건한 사역자로서 헌신을 다했다.

포시디우스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반달족의 침탈을 전후로 한 어수선한 정황에서도 그의 저술 작품들을 손질하여 교회의 도서관에 비치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52) v. Aug., 30. 42-43.

53) v. Aug., 30. 51.

어거스틴께서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당신께서 받아쓰게 하시고 퍼내신 책들을 다시 손질하셨다. 그 책들은 당신께서 (그리스도에) 귀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평신도로서 저술한 것들도 있고, 사제와 주교로서 저술한 것들도 있다. 아직 교회 관행을 잘 알지 못해서 교회 규정에 어울리지 않게 저술했다고 여긴 것은 무엇이나 당신 스스로 고치고 바로잡으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두 권으로 된 책을 저술하셨는데, 그 제목은 『책들의 수정본』이다.⁵⁴⁾

돌아가시게 될 마지막 병환 중에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참회에 관한 다윗의 시편을 짧게 옮겨 적게 하시고 그 종이를 벽에 붙이게 하신 다음 침대에 앉아누워 계시면서 날마다 그것을 꼼꼼이 되새기고 읽었으며, 뜨거운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셨다.⁵⁵⁾

그분은 교회에 넉넉한 성직자들과 남녀 수도원들을 남게 주셨는데, 거기에는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이 넘쳐 났고, 그곳 도서관들은 어거스틴과 다른 성인들의 책과 저술로 가득 찼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고, 신자들은 그분을 언제나 살아 계신 분으로 만나게 된다.⁵⁶⁾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을 마감했다.

육신을 떠나기 열흘 전쯤부터, 당신께서는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 곁에 있던 우리에게 요청하시어 의사들이 왕진하는 시간과 음식을 가져오는 시간 외에는 아무도 당신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렇게 지켜 행하였고, 그분께서는 모든 시간을 기도에 바치셨다. 당신의 마지막 병환 때까지 끊임없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54) v. Aug., 30. 1. 어거스틴이 저술한 대부분의 사본에 붙은 제목은 『재론고』(Retratationes)이다. 『책들의 수정본』(De recensione librorum)이라는 제목은 포시디우스가 나름대로 지어 붙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 『재론고』는 반달족이 침벌을 강행하기 직전인 426-427년에 완성되었다.

55) v. Aug., 31. 2. 이 무렵 어거스틴이 최후로 저술한 것은 『시편 상해』(Enarrationes in Psalmos)이다.

56) v. Aug., 31. 8.

을 기쁘고 힘차게 맑은 정신과 건전한 판단력으로 설교하셨다. 육신의 모든 지체를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경에 쓰인 대로 행복한 만년을 보내시다가 당신 성조들과 함께 잠드셨다(왕상 2: 10). 우리가 참석한 가운데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성찬제를 하나님께 바친 후 묻히셨다.⁵⁷⁾

4.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게르만의 침공으로 인한 고난의 격란 속에서 어거스틴의 사역은 그 절정의 헌신을 다하는 특성을 보임으로써 그의 시대와 뒤이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된다.

410년 알라리의 로마 침탈 때, 어거스틴은 열화와 같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성』을 저술하여 로마의 침탈 원인이 기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도성이 초래하는 본질적 국면이라는 위대한 변증을 한다. 또한 어거스틴은 429년부터 그의 생애의 불꽃이 꺼지는 430년까지 계속적으로 침탈의 강도를 높이는 반달족의 공세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자로서의 진중한 헌신과 섬김을 다하였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성도를 돌보고 사랑하는 사역자로서의 직무 수행에 전적으로 매진하였다. 특히 교회와 성도들이 풀잎처럼 스러지는 위기 상황에서 견지한 어거스틴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신앙의 용사이자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의 본으로서 후대 역사의 거울이라 사료된다.

57) v. Aug., 31. 3-5.

참고문헌

- 로이 W 배튼하우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아우구스티누스: 연구 핸드북』. 현재규 역. 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1994.
- 몽테스키외. 『로마인의 흥망성쇠 원인론』. 박광순 역. 파주: 종합출판 범우, 2013.
- 데이비드 라이트. “북아프리카의 교회.” 『교회사 핸드북』.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15): 로마 세계의 종언』. 서울: 한길사, 2007.
- 에드워드 기번. 『로마제국쇠망사』. 강석승 역. 서울: 동서문화사, 2011.
- 이광호.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세계문화사의 흐름』. 서울: 도서출판 실로암, 1993.
- 이규철. “어거스틴과 정당한 전쟁.” 『군선교신학』 9 (2011).
- _____.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연구』 47 (2013).
- _____. “Vita Augustini에 나타난 히포 수도원의 영성.” 『군선교신학』 14 (2016).
- 자크 르고프.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1.
- 장 카르팡티에, 프랑수아 르브룅 공역. 『지중해의 역사』. 서울: 한길사, 2006.
- 지동식. 『로마제국은 왜 멸망했는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7.
- 포시디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이연학, 최원호 역주. 왜관: 분도출판사, 2009.
- 피터 브라운. 『어거스틴: 생애와 사상』. 차종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타키투스. 『게르마니아』. 고양: 도서출판 숲, 2002.
- Augustine. *SERNOMS*. Edmund Hill, John E. Rotell tr. *The Works of Saint Augustine: A Translation for the 21st Century*, Vol. 4. New York: New City Press, 1992.
- _____. “Introduction.” *City of God*.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57.
- _____. “Introduction.” *CITY OF GOD*. tr., G. Walsh and others. Garden city: Image Books, 1958.
- _____. “Preface.” *The City of God*. tr., Marcus Dods.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 2.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93.
- _____. *Retractationes II*. tr. Boniface Ramsey. *Revisions Vol. 2. The Works of Saint Augustine: A Translation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New City Press, 2010.
- Huntington, E. “climatic Change and Agricultural Exhaustion as Elements in the Fall of Rom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31(Harvard University Press, 1917).
- Latourette, Kenneth S.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Vol. 1): The First Five Centurie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1.
- Westermann, W. L. “The Economic Basis of the Decline of Ancient Culture.”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XX(1915).
- Williams, Jeremy. “Barbarian Invasions.” *Augustine through the Ages: An Encyclopedia*. Grand Rapids: Eerdmans Pub. Co., 1999.

Abstract

Augustine's Response to the Sack of Germanic Peoples

Kyu Chul Le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on Augustine's response to the sack of Germanic Peoples.

24 August 410, groups of Visigoths invade Rome under Alaric's leadership. Alaric's aim was not to destroy or even rule the empire, but to have a permanent place within it. Alaric's sack of Rome had more than strategic importance. Rome was central to the identity of empire and its citizens, and its fall challenged the assumption by many Christians that God would protect the empire.

Augustine's first recorded response is sermon 15A, 113A etc. Also Augustine's best-known response to the sack of Rome is provided in *De Civitate Dei* 1-3, where he answers pagan challenges at length. Many elements of response, particularly his eschatological focus, were in common with other Christian writers who responded to barbarian incursions.

In 429 King Gaiseric led the Vandals into North Africa. In May of 430 they besieged Hippo, which held against them for a year. During the siege, Augustine showed an almost Stoic calm and pray to God: either that God will deign to free this city from its enemies or, if God decrees otherwise, that God will make His servants strong to bear His will or at least take me to Himself out of this world. Augustine's attitude impressed his hearers. They had hitherto been lamenting the calamities which had overtaken them, then they joined Augustine in offering up the same prayer. The presence of savage enemies around the city wall did not alter Augustine's way of life. Until Augustine fell ill with his last

sickness, he continued to preach to the people. Also Augustine held strongly to the traditional African view that it was the duty of a bishop to remain among his flock for as long as anyone had need of him.

Like this Augustine's pastoral care and response in a critical situation by the sack of the Vandals is a historical mirror as a model of the ministry to dedicate for the City of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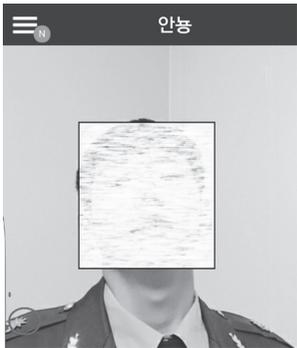
Key Words

Augustine, The sack of Rome, the Vandals, The City of God, Vita Augustine

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의 실태

-A대위 구속을 계기로 본 간부 사병들의 은밀한 동성애 환타지 문화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육군중앙수사단(중수단)이 남성 간 성행위를 한 동성애자 군인 32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2017년 5월 24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1심)은 점심시간 영내 BOQ(장교용 독신자 숙소)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벌이다 적발된 A대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인권침해라며 기자회견 개최, 무지개 방패단 조직, 촛불문화제 개최 등 언론플레이를 왕성하게 펼쳤다.

이런 상황에서 엄정 수사와 군기강 확립을 통해 군대 내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동성 간 성행위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들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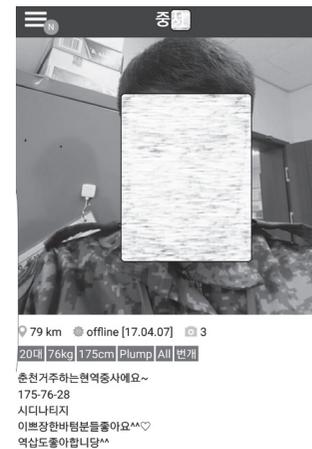
현역 군인과 사병 간 성관계 동영상 유포

중수단은 2017년 1월 충남 계룡대 영내에 거주하는 A대위가 동성군인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중수단은 4월 11일 A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13일 체포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인이나 준군인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사생활과 군 기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현역 장병이 동성군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추행죄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A대위는 14일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17일 구속됐다. 나머지 31명은 A대위와 관련 있거나 다른 군인과 동성 간 성관계를 한 혐의다. 장교 17명, 부사관 10명, 병사 5명으로 간부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금지를 주장해온 군인권센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단이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동성애자 군인을 표적으로 삼아 성관계 등에 대해 수사했다. 동성애자 병사의 평등한 취급, 식별 활동의 금지 등을 규정한 국방부 훈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17일에는 “군이 합정수사로 동성애 군인을 색출하고 있다”면서 “장 참모총장과 중수단 소속 수사관 4명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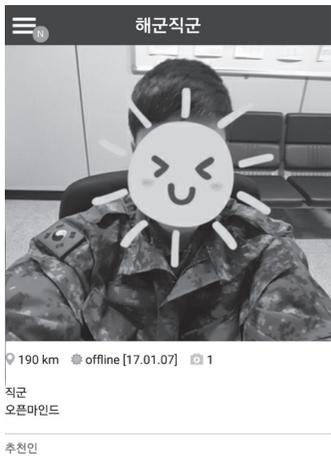


중수단은 4월 11일 A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13일 체포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인이나 준군인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사생활과 군 기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현역 장병이 동성군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추행죄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A대위는 14일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17일 구속됐다. 나머지 31명은 A대위와 관련 있거나 다른 군인과 동성 간 성관계를 한 혐의다. 장교 17명, 부사관 10명, 병사 5명으로 간부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금지를 주장해온 군인권센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단이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동성애자 군인을 표적으로 삼아 성관계 등에 대해 수사했다. 동성애자 병사의 평등한 취급, 식별 활동의 금지 등을 규정한 국방부 훈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17일에는 “군이 합정수사로 동성애 군인을 색출하고 있다”면서 “장 참모총장과 중수단 소속 수사관 4명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정훈공보실(실장 나승용 준장)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과정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대부분 자의적 판단과 해석에 따른 것”이라면서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내용들은 대부분 왜곡된 것”

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피의자 중에는 강압에 의해 동성애를 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군형법에 위배가 되는 만큼 군 기강 차원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대에 확산된 동성애 근절해야



동성애자들의 언론플레이에 맞서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 등 316개 단체는 17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회에 군대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동성 간 성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북핵 위기로 한반도가 위기상황인데,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의 파면을 요구한 동성애자들의 사고가 의심스럽다”면서 “인권으로 포장된 부도덕한 성행위가 국가 안보보다 우선된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동성애자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다. 동성애자가 대표로 있는 군인권센터는 4월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게이 군인 색출과 A대위 석방 촉구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병사와 항문성교 행위를 한 A대위의 석방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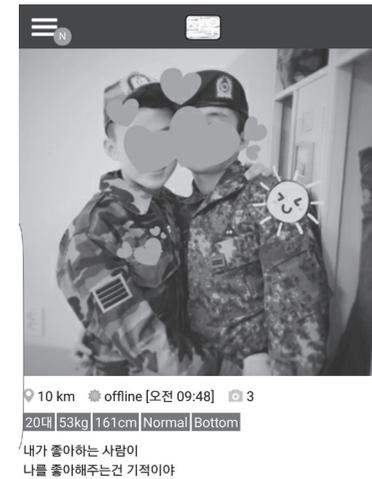
군인권센터는 이들을 돕기 위해 ‘무지개방패단’을 만들고 “피의자들은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나라를 지켜 온 대한민국의

군인”이라면서 “왜 이들이 죄인 취급 받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느냐. 무슨 잘못을 했느냐”는 글을 올려냈다.

이들은 “피의자 중 성관계를 가진 자는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를 가졌다”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고 믿기 힘든 야만적인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동성애자 군인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온라인에서 서명과 후원을 받았으며, 수천만원의 모금을 했다.

현역 동성애자 장교 구속에도 성욕 해소할 파트너 물색



중수단이 군인 간 성행위를 한 현역 군인을 구속했지만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동성애자 군인들은 이에 아랑곳 않고 성행위 파트너를 찾는다는 글을 그대로 남겨 냈다.

동성애 전문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군간부, 장병으로 추정되는 회원들이 수백 개의 글을 올려놓고 성행위를 할 군인을

찾고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육해공군, 해병대에 골고루 나타났으며, 의경들도 있었다.

자신을 ‘1함대 군항에서 근무하는 간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아이디 RO**는 “1함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찾습니다.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쪽지 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해병대 직군입니다’라는 글을 남긴 가을**는 “저와 같은 직군이신 분, 서로 대화도 하고 알아가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25에 통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여기서 직군은 직업군인을 뜻하며 25는 25세, 통은 건장한 체격을 뜻한다.



Fu***는 ‘해병대 1사단이나 해군 6전단 포항병원’이라는 글에서 “복무 중이신 분 계신가요. 현재 저도 복무중이고 친하게 지내실 분 찾고 있어요”라면서 “서로 놀고 도우면서 즐거운 군복무 하고 싶네요”라고 했다.

‘육군 이천 항작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xn***도 “계신 분? 병사입니다. 친해져요”라고 했

다. 특히 공군에 복무하는 장병들의 글이 많았다. ‘오산 K55 군인공군’ 글을 올린 vh***는 “K55 같은 공군 찾아요. 쪽지 주세요”라며 자신의 카카오톡 주소를 남겼다. 공군사관학교에 근무한다는 갱이***는 “공군사관학교에 근무하는 분 계신가요? 서로 친해져요”라며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공군 3훈비’라는 글을 올린 두번***은 “불모지 사천 3비지만 만나서 얘기 나누며 놀 사람 없을까요. 저는 병사예요”라면서 “(군대 안에서는 여길 잘 못 들어오니 OOOOO@지메일로 연락주세요”라고 남겨 놨다. 3훈비는 제3훈련비행장을 뜻하며, 사천은 경남 사천 소재 공군 부대를 의미한다.

속초 해양경찰 의경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r****도 ‘해경 의경이신 분’이라는 글에서 “속초에서 근무하는데 다른 지역분들도 알고 싶네요”라면서 “인천 분들도 좋고, 쪽지 주세요”라며 성행위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동성애자 군인들, D앱에서 성행위 파트너 물색

동성애자 군인들은 사이트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전문 D앱에 군복을 착용한 사진을 올려놓고 군인과 일반인을 상대로 성행위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D앱은 동성애자 현역장병들이 성행위 파트너를 찾기 위해 사용하다가 육군중앙수사단에 적발된 문제의 앱이다.



아이디 중*는 “춘천에 거주하는 현역 중사”라면서 “175-76-28인데 시디나 티지, 이쁘장한 바텀분들 좋다”고 올려냈다. 여기서 175는 175cm, 76은 76kg, 28은 28세를 뜻하며 시디(CD)는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고 여성 옷을 즐겨 입는 동성애자, 티지(TG)는 트랜스젠더를 의미한다. 그는 군복에 견장까지 착용한 채 군부대로 보이는 공간에서 자신의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올려냈다.

자신을 해군 직업군인이라고 밝힌 해***도 “직군(직업군인)인데 오픈마인드(열린 생각)를 찾는다”고 써냈다. c****도 “24세 직업군인인데 180에 66, 일턱하다”면서 “앱 메시지나 짬을 해 달라”고 기록해 냈다. 일턱은 ‘동성애자가 아닌 일반인처럼 보인다’는 뜻으로, 이성애자를 성행위 파트너로 삼고 싶은 동성애자들의 희망 심리가 들어 있는 말이다.

같은 군인을 찾는다는 글도 많았다. 자신을 공군으로 소개한 공****은 “NPNC, 군인(공군)이다. 공군이신 분 연락 달라”고 해냈다. 여기서 NPNC는 ‘사진이 없으면 채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신을 해병대원이라고 밝힌 해**도 “알고 지내실 같은 해병대를 찾는다”고 올려냈으며, 구***은 “군인끼리 놀자”면서 “주말에 만나서 같이 노실 군인 분을 찾는다”고 기록했다.

부대 안에서 사병 간 친근한 관계임을 암시하는 사진도 있었다. **는 군용 헬멧을 착용한 채 부대 장병과 어깨동무를 한 사진을 올려놓고 “슬림하고 바팀이며 대물”이라고 올려냈다. 슬림은 몸매가 날씬한 것을 뜻하며 바팀은 남성 간 성행위 때 여성역할을 하는 남성 동성애자를 말한다. 대물은 성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디 한*은 내무반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병장 계급장과 일병

계급장을 착용한 군인이 볼을 맞대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건 기적”이라고 써 냈다. 이들은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하트 표시를 해 냈다.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군대에서 두 장병이 남다른 관계임을 암시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성적 취향이 바팀이라고 해냈다.

맹호부대 마크를 착용한 구*도 “3월 13일부터 20일까지 휴가인데 야한 사람이 좋다”고 써 냈다. 휴***도 부대마크와 태극기가 부착된 군복 착용 사진과 휴가 날짜를 올려놓고 성행위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군복 상의만 입은 군*도 “16일까지 휴가 나온 군인”이라면서 “쪽지를 환영하며 번개하고 싶은 사람을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사진과 함께 라인 주소를 남겨 냈다.

경기도 포천 일동면에 있는 군인이 하의 군복을 내린 사진을 D앱에

올려냈다. D앱 캡처 아이디 ㄱ*도 “포천시 일동면에 있다”면서 군복 하의를 내리고 러닝셔츠와 팬티 차림의 사진을 올려냈다.

D앱에는 육해공군뿐만 아니라 의경도 있었다. 제***은 “제주 의경인데 일주일에 한번 외출한다. (성행위 요청에) 전부 답장을 해드린다”고 써냈다.

이들이 군부대나 휴가 중에 D앱에 글을 올린 것은 제한된 공간에서 군생활을 하는 특성상 성적 욕망을 해소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은 “22세 군인인데 현재 휴가 중으로 매우매우 고평 상황(매우 성욕이 넘치는 상황)”이라면서 “번개를 대환영하며, 안양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다”고 써 냈다. 여기서 ‘번개’는 남성 동성애자 간 즉흥적인 성관계를 뜻한다.

D앱을 사용하는 다수의 동성애자들은 “번개(즉흥적인 남성 간 성관계)하실 분 쪽지를 달라. 야외 화장실도 가능한데 ㄹ리(오럴섹스) 당하는 것도 좋다”는 글을 올려놓은 상태다. 즉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사랑’은 중독에 가까운 ‘성욕’이며, 그것을 같은 군인이나 일반인을 즉흥적으로 만나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동성애자에게 군대는 억압적 공간 아닌 ‘성적 환타지’의 공간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에게 군대는 어떤 공간일까. 동성애자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사이트인 K 웹툰을 보면 남성 동성애자에게 군대가 성적 판타지의 공간이며, 군인들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선망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군대 내 복잡한 애정관계를 그린 만화와 부대 안에서 성관

계를 즐겼다는 글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동성애자 인권단체는 그동안 동성애자들이 군대 내에서 차별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인권 보호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지만 현실은 달랐던 것이다.



Y작가가 그린 ‘윤 병장님’이라는 웹툰은 총 6편인데, 부대에서 만난 윤상호 병장과 후임 박민우 일병이 영내에서 성관계를 즐긴다는 내용이다. 동성애자인 두 사람은 내무반 외부 으스스한 공간과 보일러실 등에서 구강·항문성교 등 밀회를 즐긴다.

웹툰에는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다수 있다.

‘해군이었습니다’라는 글에는 “전역한 지 3년쯤 되는데, 군생활하던 부대에서 의무병을 알게 됐다”면서 “그 친구와 해군병원 보급창고에서 관계를 맺었다. 군대에서 좋은 추억이 많은데

군대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써 냈다.

‘군대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라는 글에도 “자대 배치 후 밤마다 A상병과 수시로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즐겼다”면서 “A상병 제대 후에는 다른 고참과 야간근무를 서다가 관계를 했다. 젊은 피가 역시 좋았다”고 소개했다.

사병이 장교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글도 다수 있었다. ‘군대에서’라는 글에는 “군대 인사행정과장은 내 군생활의 유일한 식성이

다”고 했다. ‘군대 있을 때 선임’이라는 글에선 “중앙대 ROTC 출신 소대장과 같이 샤워를 했는데 구릿빛 피부에 어깨가 딱 벌어져 가슴 근육이 대단했다”면서 “진짜 하루 종일 소대장과 관계를 하고 싶었다”고 써 놨다.

익명으로 처리된 다수의 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남성 동성애자에게 군대는 억압 공간이 아니라 성적 판타지를 즐기는 공간임을 암시하고 있다.

“부대에서 만난 후임병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적 환타지를 갖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군대 내에서 이상형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동성애자 전문 사이트를 보면 동성애자 군인들은 부대 내에서 같이 생활하는 장병들을 엄격한 명령체계의 상명하복 관계가 아닌 애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자신을 하사관으로 소개한 to***는 ‘같은 부대 병사한테 마음이 있는 거 같아요’라는 글에서 새로 전입

한 신병을 자신의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며 동경하는 내용을 올렸다. to***는 “신병이 들어왔는데 키는 170에 얼굴 작고 몸은 스탠에 귀엽게 잘 생겼다”면서 “그냥 ‘어우 내 식인데’ 하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신병들과 다를 바 없이 대하다가 묘하게 그 병사에게 감정이 생겼다”고 밝혔다.



군대에서 만났던 사람들... 19병

지대배치후 첫 집자리에서 말년병장 고창은 나를 옆에 앉혔다. 주변인들에게 오늘 영계랑 간다고 좋아했는데 결국 밤새 아무일도 없었다. 지대배치후 적응기에 고창앞에서 재우는 부대내 관습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모르던 A상병해나가 우리분과에서 일요일 b시침을 하는것이였다.A 상병은 나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대화하다보니 우리분과 고창이었는데 의무대 인원중이였다.

그렇게 저렇게 주특기교육을 마치고 합숙을 하는데 저녁에 갑자기 기열으로 오라는 A상병

별생각없이 그의 옆에 누웠는데 이불속 어깨에 손을 얹는것이였다. 순간 두근두근.

동성애자 세계에서 스탠은 평범한 체구를 뜻하며 ‘식은 식성(食性)으로 동성애자들이 끌리는 독특한 성적취향을 뜻한다. 그는 “군대에선 일부러 엄청 냉정한 척하는데 그 친구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귀엽게 웃었다”면서 “저보고 ‘하사님 몸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너무 쑥스러웠다”고 했다. 이어 “그 친구가 이발해 줄 때 앞머리

를 잘라준다고 제 앞쪽에 와서 무릎에 거의 앉다시피 했는데 기분이 묘했다”면서 “이런 문제(동성 간 부도덕한 감정)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말년에 막상 닥치니 아주 힘들다. 고민이 많다”고 기록해 놨다.

귀**도 “지금 군생활하는 군인인데 상담게시판에 글을 남긴다”면서 “선임병 하나가 바이(바이섹슈얼, 양성애자)인지 게이인지 일반인인지 무척 헷갈린다. 솔직히 이 선임이 내 스타일이긴 한데 일반인 같아 (동성애자) 티를 안 내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 옆자리에 앉고 절 따라다니고 잘 때 밤새 절 안고 자거나 손을 잡고 잔다”면서 “밤새 안을 때도 저에게 팔베개 한 상태에서 안는다. 이 선임의 (정체가) 뭘까”라는 질문을 남겼다.

버**는 군대 후임 때문에 남은 군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내용을 토로했다. 그는 ‘군대 후임을 좋아합니다’라는 글에서 “너무 답답하고 눈물 날 정도로 제가 싫어서 몇 자 적는다”면서 “부대에서 나와 6개월 차이 나는 후임을 좋아하게 됐는데, 처음엔 그냥 사소한 감

정으로 그쳤는데 3개월 전쯤부터는 별것 아닌 일로 질투하고 집착을 하게 된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그는 “장난 반 진심 반으로 ‘형이랑 사귄래? 뽀뽀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데 또 반응을 보면 진짜 뽀뽀해버리고 싶고 휴가 나오면 보고 싶어서 전화한다”면서 “군대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짝사랑만 하다가 전역하고 또 상처 받기만 하고 혼자 뭐하는 것인가 있어서 정말 미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벼**는 “전역할 때까지 원만하게 지내다가 전역하고 혼자 마음을 추스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부터 정리해야 할지 많이 답답하다”고 고충을 털어냈다.

군인**은 선임병과의 복잡한 감정을 소개했다. 군인**는 “처음엔 엄청 친했다가 생활관 바뀌고 거의 남 뺐다가 10월부터는 생활관이 달라도 취침 시간 때 내가 넘어와서 한 모포로 같이 자는 사이가 됐다”면서 “내가 선임을 너무 좋아해서 선임의 행동을 보고 많이 싸우고 맨날 화해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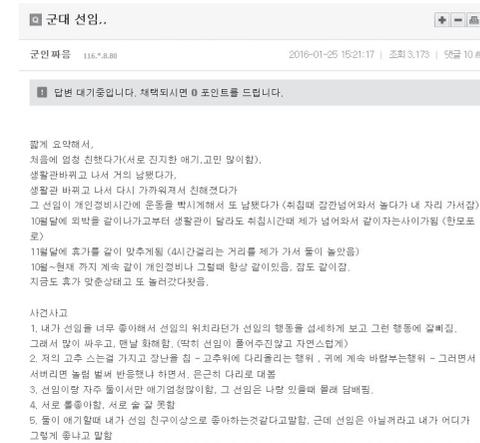
그는 “저의 성기 서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성기 위에 다리를 올리는 행위, 귀에 바람을 부는 행위를 하면서 은근히 다리를 대 본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 상담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심지어 올린 글 중에는 부대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일병 5호봉 군인이라는 b***는



“말도 안 될 것 같은 군인 러브스토리” 글에서 “1월부터 4월달 동기 생활관을 쓰면서 동기 한 명이 나를 좋아하게 됐다”면서 “그러다 모포를 덮고 뽀뽀를 시작으로 〇리(오렐섹스)과 결국 〇L(항문성교)까지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 친구는 일반인이었지만 나를 좋아한다고 결혼까지 할 것이다라고 했다”면서 “이 아이가 저를 정말 좋아하는 것이겠지”라는 글을 남겼다.

사랑이***는 댓글에서 “군인은 그러면 성군기로 잡혀 간다”면서

“합의했다 하더라도 성군기 위반으로 잡혀가니 조심하라. 성군기 위반은 중징계라서 영창은 기본이고 잘못하면 육군교육대를 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조언했다.

a***는 ‘군대에서 성관계’라는 글에서 “군대에서 성관계까지 기본 회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급****는 “당연히 가능하다. 그런 사례 많다”고 했다.

동성 간 성행위자들의 혐오논리

현실이 이런데도 동성애 단체는 군대 내 동성애자 군인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군대 내에서 자유롭게 성적 판타지를

즐기고 있지만 이들 단체는 오히려 동성애자 군인이 심각한 혐오의 피해자로 보호해줘야 할 대상이라고 우긴다.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발간한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병영지침서’를 보면 이 같은 주장이 잘 나타나 있다.



지침서는 “군대 내 동성애자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면서 “군대에서 성소수자의 정체성이 밝혀졌을 때에는 여러 가지 편견과 심각한 차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이어 “동성애자들과 어깨동무를 한 다거나 함께 샤워하고 취침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가 있지만 큰 우려는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동성애자 군인이 성폭력을 저지를 위험이 없다고 주장한다. 지침서는 “군대와 같이 일정 정도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남성 간 성폭력에서 동성애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동성애자의 군복무로 군대의 기강이나

⑨ 성소수자가 있으면 군대의 기강이나 사기가 떨어지지 않나요?

성소수자의 군 복무로 인해 군대의 기강이나 사기, 결속력 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국가의 군대에서 확인된 바입니다.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영국과 캐나다는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규정을 지니고 있다 이를 폐지하여 많은 동성애자들이 군 복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영국과 캐나다 국방부가 각각 조사에 나섰는데, 이 두 나라 군대 모두 사기저하 문제나 복무기강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고 군직전수행력 역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의뢰로 ‘랜드협회(Rand Corporation)’가 수행한 연구에서도 동성애자의 존재가 전투능력과 부대의 단결에 해를 입힌다는 증거가 없다고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대만, 독일 같은 징병제 국가에서도 동성애자의 군 복무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2004년 한 병무청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밝힌 것처럼 ‘성전환자 또는 동성애자 등은 보통 사람들과는 매우 다르게 성적 욕구가 나타나므로 군 기강을 예외하게 만들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단체생활을 하는 데서 수치심 유발 등 대인관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관념적으로 여기는 일이 많은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편견에 불과합니다. 군대에서 성소수자가 기강을 해지거나 결속력을 약화시킨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출처: 동성애자 인권연대

사기, 결속력 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국가의 군대에서 확인된 바로 증거나 보고는 전혀 없다”고 반박한다.

동성애자들도 비판하는 A대위 사건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은 A대위가 3명의 군인(병사, 하사, 중위)과 동성 간 성행위를 벌였다 군형법 위반으로 유죄처벌을 받은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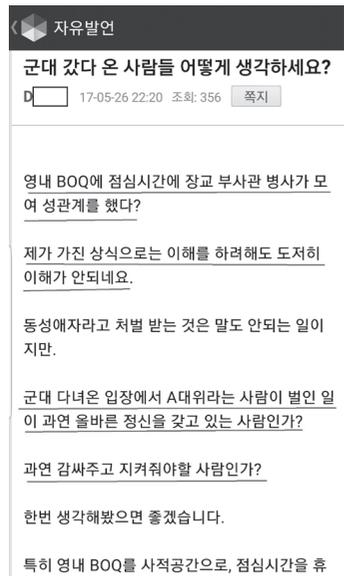
동성애 운동가들의 주장과 달리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조차 “보호해 줄 사안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4만 명이 가입된 국내 최대의 남성 동성애자 I사이트에서 B씨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A대위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영내 BOQ에서 점심시간에 장교 부사관 병사가 모여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A대위가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과연 감싸주고 지켜줘야

할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A대위에 게 잘못이 없다며) 성행위를 한 영내 BOQ를 사적 공간으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말하는 동성애자 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C씨도 “상명하복이 기본인 군대라는 특수집단에서 점심시간에 하급자와 성관계를 한두 번도 아닌 몇 번을 하다 걸린 것인데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원서를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로 포장한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면서 “군형법을 어겨가며 앱으로 성관계 파트너를 갈아치우다 걸린 건데 오히려 동성애자라 포장된 사건인 듯하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특수집단에서 모르

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감성팔이나”고 반문했다.

D씨도 “A대위 사건은 같은 게이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로 영원히 꼬리표로 남을 것”이라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무조건 같은 게이라고 옹호하자는 생각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라”고 주장했다.

덧글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개인 숙소에서 성관계 맺은 건 군기장 관련해서 좀 그런 것 같긴 하다”(휘****) “영내 BOQ라는 게 맘에 좀 걸리긴 하다. 군인일 때 대입해보면 간이 좀 크긴 하다”(떠****)

“점심시간에 영내 독신자기숙사네. 저건 나도 실드 치기 힘들다”(g****)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대위가 항소하면 고등군사법원(2심)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다시 상고하면 3심은 대법원에서 열린다.

정의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군대 내 남성 동성애자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을 삭제하자는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결론

지금도 대한민국 군대 안에서는 동성애자 군인이 성욕을 해소할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군인 간 성행위가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다.

사병과 항문성교 행위를 하다가 구속된 A대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동성애자에게 군대는 파트너를 찾고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공간에 가깝다.

따라서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도덕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더욱 강력하게 보완해야 한다. 국방부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하고 잘못된 인권논리에서 벗어나 이들로부터 일반 군장병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군대 내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성욕을 인정해 달라며

평등논리를 앞세워 자기 입장만 내놓고 있다.



지금은 군대 안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문화를 금지하고 군기를 바로 잡기 위해 균형법 제92조의 6을 더욱 강화할 때다.

또한 더 이상 균형법 위헌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현행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 문구를 ‘항문성교나 동성 간의 추행’으로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동성애라는 성적 중독에 빠진 군인들의 실태조사 및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활동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 간부와 장병의 에이즈 검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남성동성애자 간 성관계의 보건적 고찰

김지연*

1. 건강의 정의

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선언한다¹⁾. 건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2004년에 헌법재판소는 흡연자들이 금연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건강권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흡연자들이 갖는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는 모두 헌법 제17조(사생활의 자유)와 제10(행복추구권)에 따른 것인데, 혐연권은 헌법 제17조와 제10조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헌법 제35조)과 생명권에 기해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며 “따라서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돼야 한다.”

“흡연은 비흡연자들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사익을 넘어서는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된다.”며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전문위원

1) 대한민국헌법(1988. 2. 25),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 WHO의 헌장에 의하면 건강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

WHO의 헌장에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질병이 없는 상태라는 수동적 건강에 대한 태도에서, 금주·금연 등 생활습관의 변화나 운동 같은 적극적으로 건강해지려는 노력 등 능동적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

다. 동성애와 건강에 관련하여 연구할 과제: 동성애가 인류의 건강(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밝힐 필요성.

WHO는 건강의 정신에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관계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의료지식과 정신심리학 등의 의학지식의 도움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동성애가 건강한 것인지 ‘신체적, 정신적, 사회관계적’ 측면에서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여기서는 특히 신체적 건강을 들여다보려고 한다.

2. 동성애자의 인구비율 및 동성애 관련 유전자(gene)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동성애자의 인구비율: 동성애자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영국은 1.5%, 미국은 2.3%, 한국은 0.3% 미만임

동성애의 자유가 보장되는 영국에서 2012년에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동성애자 인구는 아래와 같다.²⁾

[표] 영국의 동성애자 비율

	Men	Women	Total
Gender	2012	2012	2012
Heterosexual / Straight (일반인)	93.2	93.7	93.5
Gay / Lesbian(게이/레즈비언)	1.5	0.7	1.1
Bisexual(양성애자)	0.3	0.5	0.4

[표] 영국의 연령별 동성애자 비율

Age groups	16-24	25-34	35-49	50-64	65+
Heterosexual / Straight	91.2	92.7	93.0	94.8	95.0
Gay / Lesbian	1.7	1.5	1.5	0.7	0.3
Bisexual	1.0	0.6	0.4	0.3	0.2

영국의 동성애단체는 그동안 인구의 10%가 동성애자라고 주장해왔고, 영국 정부는 2005년에 동성애자의 비율을 6%로 추산했었다. 그러나 영국 통계청의 실제 조사결과에서 동성애자 비율이 불과 1.5%로 나오자 “그동안 소수를 위해 너무 많은 세금을 투입했다.”며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³⁾ 연령별 비율을 보면 50대 이상에서는 1% 이하로 나오는 반면, 20대 전후에서는 2.7%에 달한다. 시간에 따른 문화와 교육, 제도의 변화가 동성애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2015.1.6), “영국의 동성애자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http://blog.naver.com/pshskr/220231370391>>

3) 연합뉴스(2010.9.24), “英 인구 100명당 1명 동성애자,”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0/09/24/0601150100AKR20100924004100085.HTML>>

2013년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서 「국민건강면접조사」 보고서는 동성애자를 1.6%, 양성애자를 0.7%로 발표했다. 합하여 2.3%이다. 나이별로 보면 20대 전후에서 동성애자 1.9%, 양성애자는 1.1%로 3%에 달했으나, 65세 이상에서는 0.9%, 45세~64세는 2.2%였다.⁴⁾ 미국 역시 문화·교육·언론·제도의 변화가 동성애자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996년 한국에이즈연맹은 「한국 동성애자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조사」 보고서를 통해 전국에 150개의 게이바가 있으며, 적극적인 동성애자는 1만여 명, 동성애의 문턱을 들락날락하는 소극적 동성애자는 1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하였다.⁵⁾

〈한국성과학협회〉가 2002년 11월 서울·경기의 남성 응답자 1613명을 분석한 결과 동성애 경험자는 1.1%, 동성애자는 0.2%, 양성애자는 0.3%라고 발표하였다. 2011년 조사에서 서울의 성인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성애 경험자가 남성은 1.1%, 여성은 0.3%로 나타나 2002년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질병관리본부의 발주를 받아 ‘전국 성의식 조사’를 수행한 고려대 의과대학 산학연구팀은 전국의 동성애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0.3%라고 보고하였다.⁷⁾

2013년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은 에이즈 감염자의 지역

4)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미국, 동성애자 비율 1.6%, 양성애자 비율 0.7%”(2014. 7. 22) 〈<http://blog.naver.com/pshskr/220067771274>〉

5) 연합뉴스(1998.1.9), “국내 동성애자 11만 명 추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c=0004302082>〉

6)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학협력단, 「전국 성의식 조사」, 질병관리본부(2015. 3. 15), 31. 〈<http://me2.do/FSHR7Gha>〉

7) *Ibid.*, 30.

별 분포를 이용하여 지방은 서울에 비해 동성애자 비율이 1/2 이하 일 것으로 추정하여 동성애자의 비율을 0.07%로 예측했었다.⁸⁾ 전국의 동성애 경험자 0.3% 중 절반이 그만두었다면 0.15%가 동성애자이며, 이중 60%인 0.9%가 양성애자이고, 0.6%가 동성애자로 추정할 수 있다. 1996년 한국에이즈연맹이 전수조사하여 발표한 적극적 동성애자 1만여 명은 당시 15세~49세 남성인구의 0.07%로 2015년 추정 결과와 유사하다. 동성애자들은 “이 길을 지나가는 10명 중 1명은 성소수자입니다.”라든가, 동성애자 비율이 4~6%가 된다고 과장을 한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동성애 관련 유전자(gene)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동성애 관련 유전자(gene)는 없음.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성애 유전자(gene)가 있다고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런데 왜 세상은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일까?

1993년 동성애자인 해머 박사는 Xq28이란 유전자가 동성애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⁹⁾ 이것이 오해의 발단이 되었다. 그러나 1999년 라이스 박사의 연구에서 Xq28은 동성애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¹⁰⁾,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 2005년에는 최초 발표자인 해머 박사를 포함하여 무스탄스키 등의 여러 과학자들이 함께

8)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한국의 동성애자 비율”(2013. 5. 20) 〈<http://www.cfms.kr/board/351>〉

9) H. Hamer, stella Hu, Victoria L. Magnuson, Nan Hu, Angela M. L. Pattatucci(1993), “Linkage Between DNA Markers on the X chromosome and Male Sexual Orientation,” *Science*, 261 (1993), 321 〈<http://postcog.ucd.ie/files/2881563.pdf>〉

10) George Rice, Carol Anderson, Neil Risch, George Ebers(1999), “Male homosexuality: absence of linkage to microsatellite markers at Xq28”, *Science*, Vol. 284 no. 5414, 23 April 1999, 665-667. 〈<http://www.sciencemag.org/content/284/5414/665.short>〉

Xq28에 대해 연구한 결과 Xq28은 동성애와 상관이 없는 유전자라고 결론이 내려졌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93년도 논문의 발표로 인해 아직까지도 XQ28이 동성애 유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 놀란다. 잘못된 포털 사이트의 부정확한 지식 공급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사려된다.

3. 동성애가 신체건강에 치명적임을 알려주는 사실들

가. 동성애자의 수명에 대한 연구 결과는 모두 동성애자가 수명이 짧다는 것을 보여줌.

남녀 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등 건강을 촉진한다는 보고들은 꽤 많이 있다.¹²⁾ 아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사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을 정도로 이성간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성관계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동성 간의 성관계는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미국 게이 레즈비언 의학협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에이즈,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우울증 및 불안, 간염, 성병, 전립선암 및 대장암 등 여러 정신적·육체적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일반인보다 더 크다고

11) B. S. Mustanski, Dupree MG, Nievergelt CM, Bocklandt S, Schork NJ, Hamer DH(2005). "A genomewide scan of male sexual orientation", *Hum Genet.* 2005 Mar; 116(4), 12 JAN 2005, 272~278. <http://www.researchgate.net/profile/Caroline_Nievergelt/publication/8086620_A_genomewide_scan_of_male_sexual_orientation/links/00b4951c8d61e8c675000000.pdf>

12) 『조선일보』 2004. 7. 18. "섹스가 몸에 좋은 10가지 이유,"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05/10/05/2005100556048.html>

밝혔다.¹³⁾ 호주의 켄슨 주교는 동성애적 행위가 수명을 20년 정도 단축시킨다는 멘트를 생방송에서 한 바 있다.¹⁴⁾ 미국 버지니아주의 정치인 밥 마샬 역시 동성애적 행위가 평균 수명을 20년 정도 단축시킨다는 논평을 남긴 바 있다.¹⁵⁾ 또한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카메론은 1998년 동성애적 행위가 30년 정도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¹⁶⁾ 어쨌든 동성애적 행위가 인류의 수명을 늘려준다는 보고는 발견하기 어려운 반면, 동성애적 행위가 인류의 수명을 줄인다는 보고는 이외에도 많다. 이것은 놀라운 주장이기도 하나, 어찌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나. 동성애자의 헌혈은 전면 금지되거나 부분 제한을 받고 있음.

남성 동성애자(MSM, men who have sex with men)의 헌혈제한 실태를 통해 역시 또 한 가지 뚜렷한 그들만의 건강상의 특이점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헌혈에 참여한 사람은 약 300만 명이다.¹⁷⁾ 그런

13) LIFE SITE NEWS(2015.5.20), "Are gays 'born that way'? Most Americans now say yes, but science says no," <<https://www.lifesitenews.com/news/for-the-first-time-a-majority-of-americans-believe-homosexuals-are-born-tha>>

14) News. com. au(September 11, 2012), "Archbishop of Sydney Dr Peter Jensen backs offensive gay health claims from ACL" <<http://www.news.com.au/entertainment/tv/archbishop-of-sydney-dr-peter-jensen-backs-offensive-gay-health-claims-from-acl/story-e6frfmyi-1226471516288>>

15) Sean Gorman(June 7th, 2012), "Bob Marshall says homosexual behavior cuts life expectancy by 20 years," *POLITIFACT VIRGINIA.* <<http://www.politifact.com/virginia/statements/2012/jun/07/bob-marshall/bob-marshall-says-homosexual-behavior-cuts-life-ex/>>

16) P. Cameron, Cameron, K., Playfair, WH., "Does Homosexual Activity Shorten Life?," *Psychological Reports*, 83 (1998), 847-866. <<http://www.amscripub.com/doi/abs/10.2466/pr0.1998.83.3.847>>

17) 『연합뉴스』 2015. 9. 17. "헌혈 300만 명 넘지만 혈액 수입량 ↑ ...연간 670억 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7/0200000000AKR20150917168800017.HTML?input=1195m>>

데 자신의 질병 이력이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헌혈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다. 헌혈로 모인 혈액을 수혈 등으로 공급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별 검사를 하게 되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아 폐기되는 혈액량이 3년간 6천 8백만 밀리리터나 된다는 사실이 얼마 전 공중파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한 해 약 4만 2천 명이 헌혈한 피가 쓰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셈인데,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혈액의 부적격 이유 중 간염이나 에이즈에 감염된 피가 15%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다.¹⁸⁾

OECD 가입국가 중 대다수 국가들은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을 일정기간 혹은 평생 동안 금지하고 있다. 그 중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31개국 이상의 나라는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을 평생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호주, 일본, 우리나라, 심지어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되어진 스웨덴, 영국조차도 남성 동성애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은 그 행위 이후로부터 1년 동안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¹⁹⁾

캐나다 보건부의 원로 의료고문 로버트 커시먼은 2013년에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 제한 정책에 대해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즉, “남성 동성애자간의 성행위는 위험한 행위이다. 해부학적 설명이 가능하다. 위험인자임을 알면서도 그 혈액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서 “지금 캐나다에서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신규로 감염되는 이들의 절반 정도가 남성 동성애자이고, HIV에 감염된 남성의 75%가 남성 동성애자이다. 따라서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 제한 정책은 성적지향과 관련된 정책이 아니라 위험행동과 관련된 정책이다.”라고 말했다.²⁰⁾ 중국 역시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제도화시켰다.

2014년 FDA에서 남자동성애자의 헌혈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자 존스 홉킨스 의학연구소의 역학 교수인 켈라드 벨슨 교수는 “만일 그것이 한두 명의 HIV 감염으로 이어져도 수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²¹⁾

4. 동성애자의 건강상 치명적인 문제점

가. 대변 실금(fecal incontinence)

항문 성행위가 낳는 문제 중, 특히 변실금은 가장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영국 보건국이나 일본, 미국 질병관리본부 혹은 보건원의 자료들을 토대로 볼 때 남성 동성애자의 성행위란 크게 배설기관인 항문으로 성행위하는 것과 소화기관인 구강으로 성행위하는 것을 말하는데, 항문 성교를 지속하게 되면 괄약근의 손상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²²⁾ 오랜 기간 지속적인 항문 확장이 이루어지면 전반적인 괄약근의 약화와 함께 광범위한

18) 『일요시사』 2015. 9. 21. “혈액 부실관리 실태, 에이즈 보건자도 ‘헛’” <<http://m.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253>>

19) EL PAIS(2014. 12. 1), Em 50 países, gays são proibidos de doar sangue por causa da AIDS, <http://brasil.elpais.com/brasil/2014/11/28/ciencia/1417191728_587426.html> 번역: 건강사회를위한국민연대 <http://blog.naver.com/pshskr/220225023546>

20) Dailyxtra, Health Canada replaces gay blood ban with five-year deferral(2013. 5. 22).

21) Rob Stein(2014. 12. 2), “FDA Considers Allowing Blood Donations From Some Gay Men”, NPR.ORG <<http://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4/12/02/368022056/fda-considers-allowing-blood-donations-from-some-gay-men>>

22) AIDS, GOV(AIDS 정부 사이트), <<https://www.aids.gov/hiv-aids-basics/prevention/reduce-your-risk/sexual-risk-factors/index.html>>

괄약근 손상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급성으로 손상되는 괄약근 손상보다 치료가 어렵고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항문 성교를 할 때 대부분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감염 같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항문 성교 시 내려오는 변을 막기 위해 이물질(화장품 뚜껑, 과일류 등)을 과도하게 직장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삽입 시 항문 괄약근뿐만 아니라 항문 점막의 손상도 유발하게 되고 과도하게 큰 이물질을 삽입하여 이물질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직장에 막혀 개복 수술로 장을 절개하여 빼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항문 괄약근을 조절하는 신경계에도 이상반응이 나타나 항문 주변의 미세한 자극에도 항문이 저절로 열리는 현상도 발생한다.²³⁾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항문에 직접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것도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행위지만, 성관계 전에 행해지는 무리한 관장, 피스팅(Fisting: 손이나 주먹을 항문 안으로 집어넣어 항문을 늘리는 행위) 등은 항문 괄약근의 힘을 떨어지게 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이다.

나. 대변-구강 감염(fecal-oral transmission)

일단 상식의 문을 두드려 보자. 화장실 다녀와서 손을 잘 씻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손을 잘 씻고 나서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무병원원장 민영일 박사는 손을 잘 씻고 나서 화장실 바깥문만지면 어차피 또 손이 대변으로 더러워지는 셈이니 화장실 바깥문을 없애라는 칼럼을 썼는데 사실 이것은 이분만의 주장이 아니다.²⁴⁾

23) <항문성교에 의한 신체변화와 그 위험성, <http://blog.naver.com/pshskr/220521002483>,> 기사연.

24) <<http://blog.naver.com/yimin3181/50174504654>>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소위 고급건물이라는 호텔이나 공항 등은 이미 화장실 바깥문을 없애고 있다.

대변을 보고 나서 손을 잘 안 씻으면 대변-구강 감염이 쉽게 일어난다. 양변기 뚜껑을 잘 덮지 않고 물을 내릴 때 튀는 작은 물방울이 양변기 인근 칫솔에 묻어 있다가 그 칫솔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양변기 뚜껑을 잘 덮고 물을 내리라는 건강 상식 프로그램을 떠올리면 이러한 오염이 어떤 종류인지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혹은 화장실에서 뒷일을 처리한 손을 안 씻은 상태에서 대변(fecal) 오염이 예상되는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을 경우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감염성 질환이 유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상식 역시 이러한 종류의 오염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위생 약학 등 위생관련 과목에서 정화조의 구조에 대해 반드시 다루게 되는데, 인류의 위생상태가 양호해지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된 하나의 사건으로 페니실린의 발견 등을 떠올리지만, 유럽과 아시아 등 지구 전역에 보급되어지고 있는 대변처리 시설, 즉 정화조의 보편화가 오히려 더욱 인간의 위생상태 수준을 높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대변-구강 감염은 생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 아이들은 자신의 항문을 아무 생각 없이 호기심에 만지고 이후 그 손을 씻지 않은 채로 음식을 집어먹거나 눈을 비비기도 하므로 아이들은 특히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하물며 항문 자체로 성행위나 기타 위험 행위를 하는 것은 대변-구강 감염의 위험을 매우 높이는 행동이다. 남성 동성애자는 특히 감염 등에 많이 걸린다고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경고하고 있는데 이

것이 전형적인 대변으로 인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전형적인 대변으로 인한 질병, 즉 대변을 만진 손이나 대변에 닿은 물건 등에 의해 그러한 대변 유래 세균 등이 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걸리게 되는 질병에는 간염 외에도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장염, 지아르디아증 등 많은 감염성 질환이 이에 해당한다.²⁶⁾

동성애자들의 독특한 성행위 중 하나로 리밍(Rimming)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항문을 입이나 혀 등으로 자극하는 행위인데 이 과정에서도 엄청난 질병이 발생한다. 대변이 나오는 항문이 세균의 온상임을 생각하면 이것이 매우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성행위임은 쉽게 알 수 있다. 각종 기생충과 감염성 질환이 이러한 성행위를 통해 옮겨 되는 것이다.

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1)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기원

2009년 세계보건기구는 3340만 명의 HIV/AIDS 감염인이 생존해 있고, 매년 270만 명이 새롭게 감염되며, 매년 210만 명이 에이즈로 인해 사망하고, 사망자의 76%는 아프리카의 서부 사하라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에이즈는 6천만 명 이상에게 감염되어 2500만 명이 사망했고, 서부 사하라 지역에만 1400만 명의 고아를 남겼다.²⁷⁾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는 아프리카 원숭이의 바이러스(SIV)가 인간에게 들어와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1990년에 확

인되었다.²⁸⁾

원숭이 체내에 있는 바이러스(SIV)가 어떻게 아프리카 사람들의 체내에 들어가고, 그것이 어떻게 북미의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원숭이를 식용으로 혹은 제사 제물로 쓰다가 인간에게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유력한 주장은 수간, 즉 원숭이와의 성관계에 의해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1960년대 및 1970년대에 아프리카의 실상을 촬영한 다큐멘터리들을 보면 마을 축제에서 원숭이를 수간하거나 남성 간의 항문 성교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⁹⁾ 2012년 테네시 주 상원의원 Stacey Campfield에 의하면, “에이즈는 사람이 원숭이와 동물 성애를 한 결과”라고 발표한 바 있다.³⁰⁾

2)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감염경로

동성애(남성 간 성행위)는 에이즈의 가장 주요한 감염경로이다.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은 2014년도 에이즈 감염신고자 1081명 중 남성이 1016명으로 94%를 차지하고 있다며, “2011년 성 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환자 522명 중 동성 간의 성 접촉은 218명으로 41.8%였다. 의료 기관에서 감염인 상담 시 동성애자 비율이 60~70%인 것을 고려하면 동성 간의 성 접촉은 실제보다 낮게 나온

25) <<http://www.cdc.gov/hepatitis/populations/hiv.htm>>

26)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Fecal-oral_route>

27) 영문판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Misconceptions about HIV/AIDS.” <https://en.wikipedia.org/wiki/Misconceptions_about_HIV/AIDS#Origin_of_AIDS_through_human,E2,80,93monkey_sexual_intercourse>

28) Paul M. Sharp and Beatrice H. Hahn(2011), “Origins of HIV and the AIDS Pandemic”, Cold Spring Harbor Perspect Med, (2011 Sep); 1(1) <<http://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3234451/>>

29) Mondo Movie(1975), Documentario Etnografico 1975, <<https://www.youtube.com/watch?v=OoThvKoCXbQ>>

30) DAILY KOS(2012,1,29), “TN State Senator says “AIDS caused by gay pilot having sex with monkey” <<http://www.dailykos.com/story/2012/01/29/1059603/-TN-State-Senator-says-AIDS-caused-by-gay-pilot-having-sex-with-monkey>>

것”이라고 언급하면서³¹⁾ 과거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감염경로 관련 통계에서 동성애자 비율이 낮은 점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였다.

[표] 2011년까지 에이즈 감염경로 및 성별 비율

구분	계		남자		여자	
	감염인수	백분율	감염인수	백분율	감염인수	백분율
계	8,233	100	7,583	100	650	100
성 접촉	8,175	99.3	7,535	99.4	640	98.5
수직감염	8	0.1	4	0.1	4	0.6
마약주사공동사용	4	0.0	4	0.1	0	0.0
수혈/혈액제제	46	0.6	40	0.5	6	0.9

내국인 감염자의 99.3%가 성 접촉에 의한 감염이다. 또한 에이즈 감염인 중 남성이 92.1%를 차지한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했던 이성과의 성 접촉 비율이 동성과의 성 접촉 비율보다 높았던 것을 부정하는 통계인 것이다. 2006년 질병관리본부가 용역을 발주하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연구를 수행한 「HIV/AIDS 예방 및 대응 국가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에 관련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성관계 시 수용적 위치에 있는 여성이 더 높은 감염위험을 갖기 때문에 만일 이성 간 성 접촉이 전체 감염경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면 여성 감염인이 현재보다 더 많이 보고되어야 합리적인 결과가 된다. 그러나 감염인의 성비가 10.0이 넘는다는 사실은 이성 간 성 접촉에 의한 감염 보고가 과장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여성 감염인 거의 모두가 이성애에 의한 감염을 보고하고 있지만 그들의 연령이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대부분 보통의 주부들로서 남편에 의하여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는 여성 CSW(Commercial sex worker)가 주요 감염경로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마약사용에 의한 HIV 감염이 거의 없다는 점은 한국에서의 HIV 감염문제의 복잡성을 덜어주는

31) 뉴스1(2015.9.8), “에이즈 감염 3년간 24% 급증...외국인 감염자 110명”, <http://news1.kr/articles/?2412137>

좋은 징표가 된다.³²⁾

서구에서는 에이즈의 주요 경로에 ‘마약 주사기’를 공유를 통한 감염 비율이 높았고, 문란한 성관계가 복합되어 여성 에이즈 감염인도 많다. 태국 등 동남아시아는 성매매 여성이 에이즈 감염 서양인과 성관계를 하므로 에이즈에 감염되고 또 다른 남성 손님을 감염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오로지 남성 동성애자 간의 성관계를 통한 에이즈 전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만 잡으면 에이즈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2천 년대에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정보들을 교과서와 언론에서 감추기 시작했고, 오히려 동성애를 긍정하고 미화하므로 청소년 에이즈 감염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에이즈퇴치연맹 권관우 상임부회장은 “에이즈가 만연한 사회를 보면 3단계 확산 과정을 거친다. 동성애자에서 양성애자로, 결국 이성애자로까지 퍼지며 급속히 확산된다. 우리나라는 남성 92%, 여성 8%로 남성 동성애자들이 대부분인 1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문제는 10~30대처럼 젊은 층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이다.”라며 향후 한국이 에이즈 대국이 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³³⁾

한국에서는 90년대 초에 에이즈의 감염경로인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를 철저히 교육시킨 결과 90년대 후반까지 에이즈의 연간 발생자가 100여 명 이하였고,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치료비용을 건강보험기금과 세금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기 때

32) 인제대학교와 질병관리본부, 「2006 에이즈 대응 국가전략 개발」(질병관리본부, 2006), 11~12. <http://me2.do/FPMLredj>

33) 『세계일보』 2013. 11. 26, “에이즈 감염자들 발병으로 죽는 것보다 자살이 더 많아요”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1/26/20131126004874.html>

문에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의료파산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경각심이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 1999년부터 교과서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가르치는 것이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교육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교육부는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³⁴⁾ 학생들에게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한 경고가 사라지고 오히려 동성애를 미화하고 긍정하는 내용이 교육되니 200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의 동성애 증가를 추측할 수 있는 청소년 에이즈 감염인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남학생의 성매매(일명 바텀 알바)를 통한 에이즈 감염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³⁵⁾

미국 질병관리본부에는 에이즈 감염을 유발시키는 특정 위험행동이 무엇인지 매우 자세히 반복적으로 기술되어져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에 신규로 HIV에 감염된 환자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을 분류하여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이에 의하면 HIV 감염자 중 1위가 백인 남성 동성애자(MSM: men who have sex with men), 2위가 흑인 남성 동성애자, 3위가 히스패닉 남성 동성애자 순으로 나타나 있다.³⁶⁾

미국 전체 인구 중 1~2%밖에 되지 않는 남성 동성애자가 전체 미

국 HIV 감염자 중 무려 69.5%를 차지한다는 것은, 정상인들보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훨씬 더 많이 에이즈에 걸린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가지 더 내놓았다. 즉, 2011년도 미국에서 HIV에 걸린 8,792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조사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HIV 감염인 13~19세 1794명과 20~24세 6998명 중 약 94.25%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동성애 행위를 한 자들임을 알 수 있다.³⁷⁾ 이 충격적인 보고는 현재 에이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강연내용으로 많이 인용될 정도로 에이즈와 남성 동성애자간의 높은 유관성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 알려져 있다.

영국 보건당국의 입장 역시 유사하다. 영국의 잉글랜드 공공보건국 케빈 펜튼 교수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 즉 남성동성애자간의 에이즈의 재유행'이라는 보고서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재유행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였다.³⁸⁾ 영국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평등법으로 보장하는 국가지만 적어도 보건적 통계를 객관적으로 이와 같이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다(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가야 할 것은 통계에 의해 볼 때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말하는 것이 인권침해 발언이 아닌 것처럼 남성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34) 『한겨레』 1999. 7. 30, “동성애 비하내용 교과서 삭제”, <<http://me2.do/xPgRTI5s>>
『한겨레』 1999. 12. 24, “교과서 ‘동성애 편견’ 삭제” <<http://me2.do/x5jUu0aS>>

35) 『조선일보』 2014. 11. 17, “HIV가 뭔지도 모른 채 속식위해 아저씨 상대로 ‘바텀 알바’하는 가출소년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6/2014111601081.html>

36) 미국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홈페이지, <<http://www.cdc.gov/hiv/group/msm/index.html>>

37) Peter Labarbera, “CDC funds “gay” activist groups like GLSEN that promote acceptance of behavior tied closely to HIV,” *Americans for truth about Homosexuality* (2013. 9), <<http://americansfortruth.com/2013/09/11/94-to-95-percent-of-hiv-cases-among-young-men-linked-to-homosexual-sex/>>

38) Kevin A. Fenton and others(2009), “Reemergence of the HIV Epidemic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in North America, Western Europe, and Australia, 1996-2005”, *Annals of epidemiology* (Impact Factor: 2), 07/2009; 19(6): 423-31. <<http://www.annalsofepidemiology.org/article/S1047-2797%2809%2900075-1/abstract>.>
논문전문 <http://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4444829_Reemergence_of_the_HIV_Epidemic_Among_Men_Who_Have_Sex_With_Men_in_North_America_Western_Europe_and_Australia_1996-2005>

말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 발언이 아니라 보건 통계의 발표를 인용한 평이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태국의 HIV재단은 태국의 방콕 내 남성 동성애자 중 31%가 이미 HIV에 걸려있다고 언급했다. 믿기 어려울 수치이나 태국 HIV재단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세 명 중 한 명이 감염되어져 있는 것이다.³⁹⁾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역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11년도 제 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에이즈 감염의 주된 집단을 남성 동성애자 집단으로 보고 있다. 779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의 이 계획서 441페이지에서부터 16번째 항인 에이즈에 관한 보고를 보면 국내 에이즈 감염인 증가 억제를 위한 첫 방안이 남성동성애자의 에이즈 수검률과 그들의 콘돔 사용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됨을 확인할 수 있다.⁴⁰⁾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인하대 연구팀에 의뢰해 지난해 1월에 작성한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인이 남성 동성애자간 성 접촉에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감염인 상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감염내과 교수들의 진료 경험상 실제 환자들의 60~70% 이상이 남자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것 등을 볼 때 동성 간 성 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가장 흔한 경로”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에서 이성 간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 사례들이 추후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한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이

39) Jane Parry(2013.7.1), “Addressing HIV prevalence among gay men and drug users in Thailand”, the Guardian,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professionals-network/2013/jul/01/hiv-prevalence-gay-men-drug-users-thailand>>

4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 441~457. 보고서 다운 <<http://me2.do/FoCnwDbM>>

런 근거는 에이즈 감염이 남성 동성애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태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에이즈 감염의 대부분이 남성 동성애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에이즈 유형의 초기단계”이며, “에이즈 발생 양상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아직 1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⁴¹⁾

국내 유력 동성애 단체 역시 그들 스스로의 보고서를 통해 ‘에이즈 감염자 중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라는 내용을 공개하였다. ‘아름다운재단’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2013년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 동성애자 집단을 심층 분석하고 있다.⁴²⁾

에이즈와 동성애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부정하려 애쓰는 동성애 단체가 이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구 동성애자인권연대)의 ‘40~60대 남성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인 생애사 보고서’는 “한국의 에이즈감염인 중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라면서 “초기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동성애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에이즈가 동성애와 관계없다.’는 식으로 분리시켜 왔는데 이런 역사는 지금도 동성애자 커뮤니티 안에서 에이즈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 부담스러운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밝힌 정황을 볼 때 이 보고서가 나온 동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상기 보고서에 의하면, 에이즈 감염이 동성애자들 내부 사이에서조차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즉, “남성 동성애자 에

41) 질병관리본부, 「국가 에이즈 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2014), 9~10. <<http://me2.do/FhTGRtT3>>

42) 백상현, “한국 에이즈 감염인 중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 「동성애자인권연대 보고서」, 『국민일보』 2015. 7. 1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659384&code=61221111&cp=nv>>

이즈 감염인들은 게이 커뮤니티에서 자신들의 감염사실을 숨긴 채 살아간다”며, “이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자신의 감염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금기시 된다”고 설명하고, 또한 “한국은 남성 동성애자의 감염률이 높은 국가”라며 “이는 분명 에이즈가 국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이슈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서 보듯이 에이즈 환자의 1, 2, 3위를 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차지한 이유는 피 대 피로 옮는 에이즈의 특징상, 좁은 항문 성관계 시 생기는 상처를 통해 blood to blood 감염이 이루어져 남성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를 많이 공유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콘돔 없는 항문성교가 에이즈에 감염되기 쉬운 가장 위험한 성교 형태”라면서 남성 동성애자 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강도 높게 경고했다. 이 단체는 “흔히 항문성교가 에이즈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성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출혈 가능성 때문”이라며 “혈액에는 바이러스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바로 체내로 흡수되면 감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안전한 요령을 배우든지 아니면 항문성교를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장했다.

굳이 이러한 주장들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항문은 배설 기관으로서 부위의 점막이 매우 얇고, 쉽게 출혈되기 쉬운데다가 대장균 등 무수한 세균이 있는 항문주변 환경 때문이라도 항문은 대변을 보는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보건적으로 정상이며 이는 지극히 상식이다.

어떤 그룹은 ‘에이즈는 바이러스로 옮는 것이지 동성 간의 성관

계와 같은 특정행위로 옮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 보건 당국들의 뚜렷한 역학 자료와 통계를 부인하는 경우를 보는데, 그것은 마치 비행기가 미사일에 격추되어 땅으로 떨어진 경우 이것이 중력에 의해 떨어진 것인지 미사일에 맞아 떨어진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비행기가 미사일에 맞아 중력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되어 추락했다고 보는 것이 맞듯이, 남성 동성애자간 성관계로 인해 바이러스에 그대로 노출되어 에이즈 감염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우리는 에이즈 환자 만 명을 넘어선 에이즈 위험국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2013년을 기점으로 국내 에이즈 환자 수는 밝혀진 것만 해도 일만 명이 넘어섰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래가 없는 급격한 에이즈 환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에는 1191명이 신규 에이즈 감염인으로 보고되었다.⁴³⁾

특히 10대 에이즈 환자의 급격한 증가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인적·물적 손실로 연결되고 있는데, 전 국민이 미처 자각하기도 전에 에이즈 확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한국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 감염인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로부터 15~19세의 남성 에이즈 감염인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3년 이후로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2003년에서 2013년에 걸쳐 10년 동안 10배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⁴⁴⁾ 또한 국내 에이즈 환

43) 「뉴스1」 2015. 9. 8, “에이즈 감염 3년간 24% 급증... 외국인 감염자 110명,” <<http://news1.kr/articles/?2412137>>

44) 질병관리본부, 「2014 HIV/AIDS 신고 현황」, 12. <http://www.cdc.go.kr/CDC/info/CdcKrInfo0128.jsp?menuIds=HOME001-MNU1130-MNU1156-MNU1426-MNU1448&fid=3444&q_type=&q_value=&cid=64357&pageNum=>

자의 99%는 성 접촉으로 에이즈에 걸린 바 있다(수혈이나 마약주사기 공동사용 등으로 에이즈에 걸리는 사례가 거의 없다). 2014년에는 신규로 1191명의 에이즈 감염인이 증가했고, 그 중 20대가 367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물론 에이즈는 HIV라 불리는 레트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것이므로 남성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누구나 감염될 수는 있다.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정액, 질액(질분비물), 혹은 장액(rectal fluid)이 혈관으로 직접 유입되거나 상처에 그러한 체액들이 노출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사실 이런 중대한 상황은 일상 생활에서 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에이즈는 이른바 ‘생활감염’이 없다”라고 표현되어진다. HIV에 감염된 혈액이나 정액, 질액 혹은 장액이 직접 상대방의 혈관 속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위험 상황이 어떠한 경우 발생되는지를 살펴보면, 결국 이는 항문 성교를 통해서 흔히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이성애자 간에도 정상적인 성 기관이 아니라 항문으로 이러한 성행위를 한다면 옮을 수 있다. 에이즈 감염인의 타액이나, 콧물, 눈물, 땀, 혹은 에이즈 감염인을 물었던 모기 등에 의해서는 에이즈가 옮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과 포옹하거나 같이 식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⁴⁵⁾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와 한국 질병관리본부 등은 에이즈는 현재 까지도 완치시킬 의약품이 개발되지 못했고, 백신도 발견되지 못한 상황이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⁴⁶⁾

45)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aidsedu.org/helper/Helper.do?cmd=HelperWrongSenseInfo&pTab=05&pSubNo=4>>

46) 신영현, 윤철희, “에이즈 완치방법들에 대한 최근연구동향 소개”(2014. 7),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CDC/cms/content/56/27256_view.html>

참고로 미국과 한국 등 각 선진국의 질병관리본부나 에이즈 관리 재단은 특별한 로그인이나 실명 인증 없이 항상 해당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해서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많은 개체수의 역학조사나 각종 질병 관리현황을 그래프화, 도표화하여 전 세계인들이 각종 질병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놓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즐겨찾기로 해놓고 신종 플루, 사스, 에볼라 등 그때 그때 급증하는 신규 질환들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좋다.⁴⁷⁾

에이즈, 즉 후천적 면역 결핍증의 진단과 치료는 지정된 병원에서 가능하며, 현재 익명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 에이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한국 질병관리본부 등에 자세히 연락처와 함께 기재되어있다.⁴⁸⁾ 또한 에이즈에 걸렸다 하더라도 HIV 억제제를 평생 무료로 공공의 비용으로 지급하여 주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은둔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건강을 돌보아야 한다.

에이즈 약값에 대한 문의, 완치시키는 약이 나왔느냐, 혹은 언제 나오겠느냐는 문의가 협회를 통해 종종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에이즈라는 이름을 들어는 보았지만 실제로 어떤 치료를 받는지, 약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실제로 확인하거나 일상에서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기심에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유력 일간지의 신문 기사와 각종 보고서를 통해, 한 명의 에이즈 환자당 에이즈 치료비가 한 달에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육박한다는 사실이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⁴⁹⁾ 현재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

47)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v/hiv/basics/index.html>>

48)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CDC/contents/CdcKrContentView.jsp?cid=24135&menuIds=HOME001-MNU1130-MNU1156-MNU1438-MNU1441>>

49) Healthline 홈페이지 <<http://www.healthline.com/health/hiv-aids/monthly-cost->

의 에이즈 치료비를 개인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끔 영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100% 공공 자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정도로 잘 조성된 에이즈환자 케어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드물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90%, 질병관리본부에서 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 정도 지원되어 100% 약값과 진료비를 환자 개인 비용이 아닌 국민의 세금, 즉 국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⁵⁰⁾ 어떤 경로로 에이즈에 걸렸든지 간에 철저히 에이즈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게끔 돕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임무이고 사랑이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동성애 행위로 인해 에이즈 감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그 문제점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에이즈에 걸리면 심리적·육체적 고통으로 사회생활 등을 건강하게 지속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케어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인데, 그럴수록 신규 에이즈 감염인의 증가를 예방하여 사회비용이 효과적으로 에이즈 환자들에게 지속적·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모하여야 한다. MSD사의 스토크린이나, 유한양행이 수입하는 길리어드의 트루바다, 로슈의 푸제온, 글락소의 키백사 등 23가지가 넘는 고가의 에이즈 치료제를 이미 확진을 받은 HIV 감염인들에게 지속적·안정적으로 무상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동성애가 만연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treating-hiv#2) 월 치료비를 2천~5천 달러로 잡고 있으며, 평생 치료비를 50만 달러(6억원 내외) 이상으로 잡고 있다.

50) 서울시 홈페이지(2014. 7. 27), “에이즈 잘 알고 잘 대처하기 (https://health.seoul.go.kr/archives/29765)

라. 성병(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상기 자료를 보면,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당시 미국에 발생한 매독 환자 중 75%가 남성 동성애임을 밝히고 있다. 미국 내 남성 동성애자가 불과 2% 정도임을 고려해보면 매독 환자 인구 중에서도 남성 동성애자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자료이다.

또한 영국의 공공보건국(Public Health)은 두 가지 치명적인 성병의 증가가 남성 동성애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2015. 6.에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매독과 임질의 수치가 일반인보다 남성 동성애자에게서 뚜렷이 높게 나타나며 공중 위생상 우선적으로 이러한 성병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공중보건학 의사인 그웬다는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성병예방교육은 남성 동성애자와 같은 고위험 집단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영국가족협회 리더인 나티카 할리는 치명적인 매독이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47%나 증가했음을 영국의 공공보건국을 통해 알 수 있다고도 발표했다.⁵¹⁾

비단 매독과 임질만이 남성 간 성관계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성병은 아니겠지만, 이 보고는 비정상적인 성관계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마. 일반인보다 높은 자살률

동성애자의 자살률은 일반인의 자살률보다 현저히 높다. 동성애자는 일반인보다 5배 더 자살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는 동성애자가 일반인보다 불행하다고 주장하는 많은 의사들의 글을 읽어 보아도 이해할 수 있다.⁵²⁾

화이트 헤드 박사는 동성애자의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8배 더 높으며 동성애자들 간의 결혼 즉 동성결혼을 인정해 주는 등의 노력도 동성애자의 자살률을 낮추지는 못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⁵³⁾

미국 동성애 리서치 및 치유단체인 NARTH의 설명에 의하면, 동성애자의 자살 원인은 사회의 차별이 아니라, 동성애자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어린 나이에 느끼는 것, 동성애자들이 이른 나이에 성행위를 시작하는 것, 동성애자 가정의 결손, 동성애자가 받은 성적인학대 경험, 동성애자들의 불법적인 약물 남용이나 체포 등이 수반되는 불법적인 행동, 혹은 높은 성매매율 등이 동성애자의 자살률

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즉, 사회적 차별이 동성애자의 높은 자살률의 원인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⁵⁴⁾

5. 에이즈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국가(국민)가 부담하는 고액의 비용

1992년도 우리나라 국립보건원은 우리나라 동성애자 중 5.5%가 HIV에 감염되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존스 홉킨스는 미국 남성 동성애자 중 약 15%가 HIV에 감염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⁵⁵⁾

우리나라도 동성애자가 증가하여 미국처럼 전체 인구 중 2% 정도가 동성애를 하게 되고 그 중 10% 정도가 에이즈에 걸린다고 추산할 때 총 인구 중 0.2%가 에이즈에 걸리게 된다고 계산해 볼 수 있는데, 한 달에 에이즈 치료비로 드는 약값을 250만원 정도로 잡아서 계산해 볼 때 연중 3000만원 정도가 들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에이즈 치료비는 연 3조원에 치달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012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의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료 약제비로 병원과 약국에 지출한 비용이 13조원 규모인 것을 감안해 보면 에이즈 약값 3조원 지출은 의료 재정에 비상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필자는 2013년도에 서울대보건대학원 HPM과정에서 발표한 바 있고, 이듬해 우수연구발표상을 받은 것으로 보아 아주 억

51) <https://www.lifesitenews.com/news/uk-study-shows-massive-surge-in-deadly-stds-among-gay-men>

52) Gilbert, Kathleen. "LifeSiteNews Mobile | Study: Gay Teens Five times More Likely to Attempt Suicide." *LifeSiteNews*, 29 Apr. 2011. Web, 18 Oct. 2012.

53) Whitehead, N.E. "Male Gay Partnerships No Defence against Suicide." *Male Gay Partnerships No Defence against Suicide*, N.p., Jan, 2010. Web, 18 Oct. 2012.

54) "Gay Men Differ From Heterosexuals In Suicidality: Netherlands Study." *Gay Men Differ From Heterosexuals In Suicidality: Netherlands Study*, 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 Therapy of Homosexuality, 17 Oct. 2006. Web, 18 Oct. 2012. (<http://www.narth.com/docs/netherlands.html>).

55)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7/20/0200000000A KR20120720128100009.HTML>)

지 주장은 아닌 듯하다. 부디 위와 같은 규모의 지출이 필요할 정도로 국내의 에이즈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6. 맺음: 항문성교는 반사회적이고 반보건적인 위험행동임

만성질환의 경우 대부분의 특정 위험 행동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 예를 들어 폐암 환자의 경우, 전체 폐암 환자 중 직접 흡연자가 85% 정도를 차지하는 높은 연관성을 보이기도 한다.⁵⁶⁾ 즉, 흡연이라고 하는 위험행동이 폐암 유발의 가장 직접적인 위험 행동으로 꼽힌다는 표현이다. 이렇게 연관성이 높은 질병은 예방 방법도 확고해진다. 그래서 각종 담배 포장에는 흡연으로 유발되는 질환과, 담배가 함유하고 있는 발암 물질 등을 표기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통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는 흡연 억제만 잘해도 폐암 환자가 줄어 들 것을 기대할 수 있기에 흡연율을 억제하고자 하는 국가적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간경화 등 간장 질환 혹은 각종 음주 후 사고 등을 유발하는 위험 행동으로는 술을 마시는 행위, 즉 음주를 꼽는다. 그래서 주류, 즉 술을 텔레비전 방송에서 광고하는 경우 청소년이 많이 보는 시간대를 피해 밤 10시 이후에만 주류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흡연과 음주의 위험성, 안전띠 미착용의 위험성을 알리듯이 우리나라 교과서에 1999년도 이전처럼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보건적인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 등이 다시 수록되고 젊은이들과 전 국민

이 에이즈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전 국민적으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 보건당국과 교육부가 마음만 먹으면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비흡연인 및 청소년들에게 흡연이라는 위험행동의 결과로 오게 되는 폐암, 심혈관계 질환 등의 위험성을 미리미리 알리고 교육하는 이른바 금연교육을 국가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을 취하면 된다. 각종 교과서,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아동청소년보호법 등을 통해 위험행동과 유해환경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무지와 정보 부족으로 국민건강이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면 된다. 폐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지인에게 담배 끊으라고 권하고, 간경화에 걸리지 않기 위해 가족에게 술을 조심하라고 권하듯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기 위해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미리미리 자녀에게 가르치는 마음으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다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에이즈 전 반에 대한 정보를 잘 다루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의 유력한 보건당국이 발표하는 내용을 경청하고 위험행동을 삶에서 제거해 나가야 건강할 수 있는 것이다.

코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우유도 마실 자유와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 자신의 코로 녹차나 코코아를 마실 권리 혹은 인권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코를 그러한 용도로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코뿐만 아니라 부비동 등 코와 직통하는 부위에 상당한 염증이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소염제, 진통제에 점철된 삶을 살다가 상당한 수명의 단축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위험행동을

56) 노진섭, “폐암 걸릴 확률, 흡연자가 20배 높아”, 『시사저널』 (2013. 5. 23),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62>>

하면 그 부메랑이 당사자 및 그가 속한 사회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흡연할 권리나 음주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를 억제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규칙

제 1조 (정의)

이 규칙은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내 부설기구로 조직된 “한국군선교신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한국군선교신학회운영규칙”이다.

제 2조 (명칭)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구 : 군선교신학연구위원회)라 칭한다.

제 3조 (소속)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내에 둔다.

제 4조 (목적)

1. 군선교사역을 통한 민족복음화의 전략인 비전2020운동을 신학(선교, 실천)적으로 정립
2. 다원종교 사회 속에서의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군선교 전략 및 전술의 계속 개발 및 적용
3. 21세기 세계 종교 상황과 문명충돌 현상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군선교사역 방향확립

4.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이비 이단 세력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
5. 특수환경에서의 예배, 성례식, 직분임직, 군인교회 및 일반교회와의 목회차이적응, 초신자 양육 및 일반교회결연, 주일학교 운영, 기성신자 청년들의 선교적 사명자로서의 입대 및 훈련 등 실천신학의 정립 및 개발
6. 한국교회 성장에 군선교가 미친 영향을 역사신학적 측면에서 정립 및 미래방향 제시
7. 군선교사역이 한국교회의 21세기 청년전도의 중심 및 교회부 및 사회에서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을 위한 선샤인(선한사마리아인) 사역의 결실을 맺도록 역할

제 5조 (조직 및 임기)

1. 군선교신학회는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실행위원장 1명, 일반 연구위원 등 30명 내외로 조직한다.
2. 분과별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정책위원, 군종목사위원
3. 연구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4.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과 총무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5. 효율적인 학회운영을 위해서 실행위원회를 둔다.

제 6조 (연구위원 선발)

1. 각 신학분야별로 초교파적으로 선임한다.

2. 본 학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 학회 정기회의에서 선임하여 본회 법인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 7조 (실행위원회)

1. 구성 :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7개 분야별 각 1명씩 7명, 당연직 총무 1명 등 9명으로 구성한다.
2. 회의 : 정기회의는 3월, 7월에 개최하며,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갖도록 한다.

제 8조 (운영방향)

1. 전체회의 : 회장이 소집한다.
 - 가. 정기회의는 연 1회 10월에 소집한다.
 - 나.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소집한다.
2.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개최
 - 가. 매년 정기적으로 현장 또는 사회상황에서 발생하는 핵심이슈를 정하여 개최한다.
 - 나. 대주제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 조명과 미래'로 한다.
 - 다. 매년 주제는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3. 군선교신학논문 공모사업
 - 가. 군선교신학 정립 및 저변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심사위원은 실행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다. 정기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시 시상하며,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 라.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나 학위제출논문 또는 논문표절 사

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시상을 취소한다.

마. 논문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관리는 실행위원회에서 정한다.

4. 군선교신학 연구논문집 발간 사업

가.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도록 한다.

나. 각 분과별 연구위원들은 격년마다 1편씩 제출을 의무적으로 한다.

다. 군선교신학 논문 공모사업을 통하여 선작된 논문 중 선별하여 논문집에 수록한다.

라. 편집 등 효율적인 출판을 위하여 제반업무는 실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5. '군선교교역자'라는 호칭을 '군선교사'로 개칭

제 9조 업무관리

1. 본 학회의 운영, 관리 등 제반적 업무총괄은 본회 사무국 사역 지원팀에서 담당한다.

2. 본 학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3. 본 학회와 관련한 제반적 업무관리 추진등은 본회의 총무와 사무국(선교기획팀)에서 총괄한다.

4. 본 학회의 운영규칙 개정은 본 학회 정기회의에서 개정하여 본회 법인이사회 인준으로 개정한다.

5. 이단 사이비 대책

가. 군내 이단사이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군내 이단사이비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

활동을 한다.

다. 1004군인교회 이단사이비 기준설정 결의

① 군내 침투 이단에 대한 예방 및 대처 기준설정

- 군목파송 10개 교단 중 1개 교단이라도 이단/사이비로 판명 시에는 이단으로 제재

② 교단차원의 이단/사이비로 규정된 것을 한기총 등 연합기관에서의 상이한 조치가 나올 시에는 교단 결정사항을 우선 적용함.

6. 군선교정책발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의 신학적 발전과 정책, 전략, 전술등 발전에 책임적인 역할을 다한다.

7. 연구위원은 군선교신문, 단행본, 교계언론매체, 각종학술지 등에 군선교 관련 기고를 적극 실천한다.

제 정 : 2004. 11. 19

1차개정 : 2009. 7. 27

2차개정 : 2012. 10. 23

3차개정 : 2013. 11. 18

4차개정 : 2017. 2. 2

군선교신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군선교신학회(이하 본 학회)의 연구와 학술 활동이 군선교를 위한 신학의 정립을 모색하며, 교회의 복음전파와 신자들의 신앙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연구와 논문 작성 시 건전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다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적 선언)

1. 본 학회는 학술활동과 신앙적 양심에 책임을 다하는 연구를 지지한다.
2. 본 학회를 통하여 발표되는 모든 학술 활동에 있어 날조, 위조, 표절 등 연구 수행에 있어서의 직·간접적 부정행위를 배제하며 이를 부인한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 학회는 그것을 본회의 연구 발표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본 학회는 이중투고를 금지하며 공동연구에 있어 합리적 저자 배분과 공정한 권리배분을 권장하고 지지한다.
4. 본 학회는 모든 학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참여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이 높아지고 그 연구결과가 풍성해지

는 것을 지지한다.

5. 논문 작성시 '논문 제목, 필자 성명, 소속, 전공,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 성명, 영문 소속, 영문 요약, 영문 주제어 6개순'의 제반 항목을 창의성 있게 충실히 완성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1.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개인적인 제보 혹은 심사위원회에 의한 확인 및 논문 검증시스템 활용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한다.
2.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로 그 내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일차 본인에게 연구윤리의 위반이 없었는지의 여부를 확약 받은 후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순서로 시행한다.
3. 모든 연구윤리에 대한 검증은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2012년8월)에 의거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승인하며, 그 내용이 심대한 연구 부정행위일 경우 정부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본 학회는 타 학술기관이나 학술 활동에서 본 학회를 통하여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활동에서 기독교 정신과 명백하게 위배되는 쟁점이 발생한 경우(이 경우 본인의 투고신청서에 윤리규정을 위배하지 않았음을 확약하게 한다)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다는 고발이나 정황이 발생하였을 때(이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 논문의 심사에 반드시 윤리규정을 이행하였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10인 이상 회원의 요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 학회의 학회장이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이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의 임시 위원회로서 그 사안의 발생부터 종료까지 존속한다. 본 학회의 회장은 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연구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이사회와 협의, 학계의 증진 가운데서 학문의 명망이 높은 자 또는 교계의 증진 가운데서 목회의 명망이 높은 자로 이사회와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4.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6. 조사 대상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실행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그 활동을 종료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내용)

1. 위원회는 해당 건을 심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 가. 승인 : 기존의 연구가 모든 점에서 혐의 없음

- 나. 조건부 승인 : 기존의 연구가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심각하게 상반되지 않지만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다. 보완 후 재심사 : 기존의 연구가 상당히 본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충돌하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연구의 가치가 있고 보완의 가능성이 있음
 - 라. 부결 : 기존의 연구가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심각하게 충돌되거나 윤리적 도덕적 책임과 현저하게 충돌되기에 본 학회의 연구물로서 인정될 수 없음
2.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부칙 (2016. 7. 27. 연구윤리규정 제1호)

이 규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군선교신학회 논문투고 규정

1. 논문작성 시 주의 사항

- 1) 동일 필자는 한 호에 한 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으며,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학위 논문 포함)에 게재하지 않은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 2) 분량은 A4 용지 15매를 기준으로 하며, 공모 논문의 경우 15매 이내로 한다.
- 3) 주는 각주를 사용하고 논문(발제 기고, 자유 기고) 마지막 부분에 참고문헌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 4) 영문 제목과 영문 이름 및 영문 초록(Abstract)을 제출하되, 영문 초록은 논문의 대의와 논지가 잘 전달되도록 300단어 정도로 작성한다. 초록의 끝에는 필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를 첨부한다.
- 5) 주제어(Key Words)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다.
- 6) 논문의 글꼴은 신명조 11호, 행간은 160%, 각주는 바탕 9호 행간 130%로 한다. 용지 여백은 좌/우 30, 위 20, 아래 15로 한다.
- 7) 게재 원고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논문 제목 (2) 필자명(간략한 프로필) (3) 논문 본문 (4) 참고 문헌 (5) 영문초록 (6)주제어(Key Words)

- 8) 투고 논문이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일 경우 제 1저자 및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그 소속을 명기한다.
- 9) 논문 작성법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투레비안' 양식에 따라 논문을 작성한다.

〈참고〉 Turabian, Kate L.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 6th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 10) 원고 접수처는 아래와 같으며, 원고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한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 E-mail: meak@v2020.co.kr
- 11) 투고된 논문은 한국군선교신학회의 심사 규정과 절차에 의거하여 「군선교신학」논문집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각주와 참고 문헌 표기의 실례

1) 단행본¹⁾

〈단행본의 기본 표기 양식〉

국내서적	N	저자명, 『서명』 (출판자: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 페이지
	B	저자명, 『서명』, 출판자: 출판사, 출판년도.
외국서적	N	저자명, 서명(익탤리체로) (출판자: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 페이지
	B	저자명, 서명(익탤리체로), 출판자: 출판사, 출판년도.

〈저자 1인의 경우〉

N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1998), 97.

1) 아래에서 N은 각주를, B는 참고문헌을 각각 의미한다. 한글 서적 표기는 '아래 한글'의 'Ctrl F10'을 누른 후 '반각기호(도형)'에 들어가, 책은 「 」으로, 논문집일 경우 「 」로 표기한다.

- B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1998.
- N Nathan E. Han, *A PARSING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cottsdale: Herald Press, 1971), 57.
- B Han, Nathan E. *A PARSING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cottsdale: Herald Press, 1971.

〈저자가 2인 이상의 경우〉

- N 장종현, 최갑중. 『사도바울: 그의 삶, 편지, 그리고 신학』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22.
- B 장종현, 최갑중. 『사도바울: 그의 삶, 편지, 그리고 신학』.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 N Stanley M. Honor and Thomas C. Hunt, *Invitation to Philosophy: Issues and Options* 3r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78), 37.
- B Honor, Stanley M. and Hunt, Thomas C. *Invitation to Philosophy: Issues and Options*. 3r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78.

2) 편저

- N 김우창, 김형규 (공편). 『문학의 지평』 (서울: 고려대출판부, 1984), 12.
- B 김우창, 김형규 (공편). 『문학의 지평』. 서울: 고려대출판부, 1984.

- N Carl F. Henry ed., *Basic Christian Doctrin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25-26.
- B Henry, Carl F. ed. *Basic Christian Doctrin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3) 번역서

- N 자크 르고프,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1), 100.
- B 르고프, 자크.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1.
- N Michel Foucault, *The Archeology of Knowledge*, trans. A. M. Sc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1972), 150.
- B Foucault, Michel. *The Archeology of Knowledge*, trans. A. M. Sc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1972), 150.

4) 논문

학술지	저자, “논문 제목(명),” 「학술지 명」 권수(발간년도), 인용 페이지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집 저자가 동일한 경우〉
	저자, “논문 제목(명),” 『도서명』 (발행지: 출판사, 연도), 인용 페이지
	〈논문 저자와 논문집 편집자가 상이한 경우〉
	저자, “논문 제목(명),” 『도서명』 편집자 (발행지: 출판사, 연도), 인용 페이지

〈논문의 기본 표기 양식〉

〈학술지〉

- N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 연구』 47 (2013), 159.
- B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 연구』 47 (2013).

N Gerald Bonner, "Pelagianism and Augustine," *Augustinian Studies* 23 (1992), 35.

B Bonner, Gerald. "Pelagianism and Augustine." *Augustinian Studies* 23 (1992).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집 저자가 동일한 경우>

N 김명수, "한국의 교회 부흥," 『현대교회의 동향: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7), 34-35.

B 김명수. "한국의 교회 부흥." 『현대교회의 동향: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7.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 편집자가 상이한 경우>

N 홍수길, "신약신학의 동향," 『진리와 자유』 신학대학협의회편 (서울: 자유출판사, 2001), 380-381.

B 홍수길. "신약신학의 동향." 『진리와 자유』 신학대학협의회편. 서울: 자유출판사, 2001,

N Thomas Walter Manson,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and others," *The Romans Debate*, ed. Karl Paul Donfried (Peaboy: Hendrick-son, 1977), 14-15.

B Manson, Thomas Walter.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and others." *The Romans Debate*. ed. Karl Paul Donfried. Peaboy: Hendrick-son, 1977.

<학위논문의 경우>

N 이석우, "군목의 역할 속에 나타난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육군 군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55.

B 이석우. "군목의 역할 속에 나타난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육군 군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N Hyung-Ki Rhee, "A Study of Man in Erasmus & Luther," (doctoral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1980), 88.

B Rhee, Hyung-Ki. "A Study of Man in Erasmus & Luther." doctoral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1980.

<인터넷 사이트의 논문>

N Evans Chan, "Postmodernism and Hong Kong Cinema," *Culture* 10. 3 (2000), Project Muse. 20 May 2002 <<http://muse.jhu.edu/journals/pmc/v010/10.3chan.html>>.

B Chan, Evans. "Postmodernism and Hong Kong Cinema," *Culture* 10. 3 (2000), Project Muse. 20 May 2002 <<http://muse.jhu.edu/journals/pmc/v010/10.3chan.html>>.

5) 영화작품: 영화명, 감독, 주요배우. 배급자와 연도.

N *It's a Wonderful Life*, Dir. Frank Capra, Perf. James Syewart, Lionel Barrymore, and Thomas Mitchell, RKO, 1946.

B *It's a Wonderful Life*, Dir. Frank Capra. Perf. James Syewart,

Lionel Barrymore, and Thomas Mitchell. RKO. 1946.

3. 원고 작성방법

- 1) 도표는 반드시 “표”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2) 장절의 표기는 I, 1, 가, 1), 가), (1), (가) 의 순으로 한다.
- 3) 연대의 표기는 서기를 원칙으로 한다.
- 4) 서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5) 인용문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 5) 인용문이 2행 이상인 경우에는 별행으로 처리한다.
- 6) 필자가 덧붙인 설명은 []안에 넣어 원문과 구분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밑줄을 긋고 ()안에 ‘원문’이라고 표시한다.
- 7) 서양어의 서명이나 논문집명은 이탤릭체로 명기한다.
- 8) 페이지 인용의 경우 쪽이나 p.를 붙이지 않아도 무방하다.
- 9) 각주와 내주를 모두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각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10) 각주 방식
 - (1) 처음 인용할 때는 위의 제시처럼 자세히 소개한다. 두 번째 부터는 저자의 경우 성만 표기하고, 제목의 경우 단행본과 논문에서 적절하게 두세 단어를 취하여 저자, 저서(논문명), 페이지의 순으로 처리한다.

〈단행본〉 Fitzmyer, *Luke I-IX*, 220.

〈논문〉 Barrett, “Westcott,” 12.

〈번역서〉 브루스, 『신약사』, 121.

- (2) 국문인 경우는 성명을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
- (3) 계속 등장하는 동일한 책이나 논문은 반복하여 쓰지 않고 Ibid.를 사용한다.
- (4) 바로 앞에 인용한 자료를 다시 참고할 경우 그 사이에 다른 자료가 들어가면 Ibid.를 쓸 수 없다.
- 11) 본문 말미의 참고(인용)문헌에는 본문에 인용한 문헌만 제시한다.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 ㉞

군선교, 청년

1판 1쇄 발행 _ 2017년 10월 10일

발행처 _ 한국군선교신학회(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기관)

주소 _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0 101호

TEL _ 02-744-2661~4, 02-3675-2020

홈페이지 _ <http://www.v2020.or.kr>

E-mail _ meak@v2020.co.kr

제작처 _ 쿼란출판사

주소 _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

편집부 _ 745-1007, 745-1301~2, 747-1212, 743-1300

영업부 _ 747-1004, FAX 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 _ 0502-756-1004

홈페이지 _ <http://www.qumran.co.kr>

E-mail _ qrbooks@gmail.com / qrbooks@daum.net

한글인터넷주소 _ 쿼란, 쿼란출판사

등록 _ 제1-670호(1988.2.27)

편집위원 _ 위원장: 김성봉 목사

위 원: 이규철 목사, 김대덕 목사(총무)

책임교정교열 _ 이규철 목사·김대덕 목사·박종민 주임

값 12,000원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파본(破本)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